

# 미주개발은행(IDB)을 활용한 대중남미 경제협력 확대방안

권기수 · 김원호 · 권 울 · 김진오 · 박수완





**미주개발은행(IDB)을 활용한  
대중남미 경제협력 확대방안**

연구보고서 08-17

# 미주개발은행(IDB)을 활용한 대중남미 경제협력 확대방안

권기수 · 김원호 · 권 율 · 김진오 · 박수완



## 서 언

우리나라는 2005년 3월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미주개발은행(IDB)에 47번째 회원국으로 가입했습니다. 중남미 경제에서 차지하는 IDB의 높은 위상과 영향력으로 우리나라와 IDB 가입은 한·중남미 경제관계 발전의 획기적인 전환점으로 평가되었습니다. 1959년 설립된 IDB는 세계 최고(最古), 최대(最大) 지역개발금융기구로 그간 중남미 경제사회발전에 커다란 기여를 해오고 있습니다. 2000년대 들어 IDB는 중남미에 대한 연간 자금지원 규모면에서도 세계은행을 제치고 최대 개발은행으로 확고한 위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IDB 가입은 3가지 측면에서 커다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나라는 IDB 가입을 통해 중남미와의 경제협력 지평을 확대하게 되었습니다. IDB 가입으로 우리나라는 중남미 경제·사회개발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보함은 물론 그간 쌍무관계에 머물렀던 중남미와의 관계도 범지역차원으로 확대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둘째, 우리나라는 IDB 가입으로 대중남미 경제협력정책의 운영 폭도 확대하게 되었습니다. 유무상자금 협력, 금융협력, IT 등 산업협력, 인적교류 등의 분야에서 IDB와 연계를 통한 각종 협력사업 추진으로 협력효과의 극대화를 도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는 IDB 가입을 통해 새로운 블루오션으로 떠오르고 있는 국제개발기구(MDB)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그간 IDB 비회원국이기에 때문에 참여가 불가능했던 연간 60억 달러에 달하는 IDB 조달시장을 비롯한 IDB의 각종 발주 프로젝트에도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IDB 가입이 3년이 지난 현재 IDB 가입의 경제협력정책상의 의미가 제대로 발현되고 있는가? 본 보고서는 이 같은 1차적인 물음에서 출발하였습니다. 이에 본 연구는 IDB 가입 이후 우리나라의 IDB와의 협력 성과를 평가하고, 이를 토대로 IDB를 활용한 중남미와의 종합적이며 구체적인 민관차원의 경제협력 강화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본 보고서는 본원의 권기수 전문연구원이 연구책임자로서 김원호 교수, 권율 연구위원, 김진오·박수완 전문연구원과 공동 집필하였습니다. 이 연구의 수행과정에서 자문과 조언을 아끼지 않은 본원의 김상겸 APEC연구컨소시엄 사무국장, 그리고 경희대학교의곽재성 교수, 수출입은행의 김영석 부부장, 최성규 과장, 기획재정부의 안순현·김의중 사무관, 신한은행의 하성환 차장 그리고 익명의 심사자께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아무쪼록 본 보고서가 정부 및 업계를 비롯해 중남미 진출에 관심이 있는 모든 분들에게 귀중한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08년 12월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원장 채욱



## 국문요약

우리나라는 중남미 경제에서 차지하는 IDB의 중요성을 일찍이 인식하고 역외국에 문호가 개방된 1979년부터 IDB 가입을 추진해온 결과, 2005년 3월 마침내 47번째 회원국으로 가입했다.

1959년 설립된 미주개발은행(IDB)은 세계 최고(最古), 최대(最大, 자본금 1,010억 달러, 아시아개발은행의 2배) 지역개발금융기구로 그간 중남미 경제사회발전에 커다란 기여를 해왔다. 2000년대 들어 IDB는 중남미지역에 대한 연간 자금지원 규모면에서도 세계은행을 제치고 최대 개발은행으로 확고한 위상을 차지하고 있다.

중남미지역에서 IDB의 높은 위상과 영향력에 비추어볼 때 우리나라의 IDB 가입은 다음 3가지 측면에서 커다란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먼저 우리나라의 대중남미 경제협력의 지평의 확대이다. IDB 가입을 통해 우리나라는 중장기적으로 중남미 경제·사회개발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보하게 되었다. 또한 IDB 가입은 그간 쌍무관계에 머물렀던 우리나라의 중남미와의 관계가 범지역차원으로 확대됨을 의미하기도 한다. 둘째, IDB 가입으로 대중남미 경제협력정책의 운영 폭이 확대되었다. IDB와 연계를 통한 유무상자금 지원으로 지원효과 극대화를 도모함은 물론 중남미 금융시장 진출의 교두보 확보 및 신속한 통상정보를 입수할 수 있는 채널로도 IDB를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마지막으로 IDB 가입은 새로운 경제기회의 확보를 의미한다. 우리기업들은 그간 IDB 비회원국이기 때문에 참여가 불가능했던 연간 60억 달러에 달하는 IDB 조달시장은 물론 연간 1만 건이 넘는 IDB의 각종 발주 프로젝트에도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다.

IDB 가입과 함께 우리나라는 빈곤감소기금(Korea Poverty Reduction Fund), 지식협력기금(Knowledge Partnership Korea Fund), 중소기업 육성기금(Korea-IIC SME Development Trust Fund) 등 총 3개의 신탁기금(1억 4,000만 달러 출연)을 출연했다. IDB 가입 3년이 지난 현재 우리나라는 약 80건의 신탁기금을 지원했는데, 이는 한국이 출연한 다른 MDB 신탁기금에 비하여 가장 활발한 것이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IDB 가입 성과는 크게 3가지로 정리된다. 먼저 한국 신탁기금을 통해 중남미 조달시장 참여가 확대되고 있다는 점이다. 둘째는 한국수출입은행과 IDB 간 양해각서 체결에 힘입어 협조용자 규모가 증가하고 있다. 셋째는 다양한 협력활동을 통해 중남미지역에서 한국의 위상이 크게 제고되고 있는 점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성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현재 △IDB 내 한국직원의 수 미미(3명) △출자규모에 비해 작은 지분 △중남미에 대한 관심 부족 등으로 IDB와의 협력 확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가 IDB 신탁기금을 활용하는데 제약요인은 다음과 같다. 먼저 경험부족, 언어장벽, 전문인력 부재 등에 따른 국제개발협력사업 시장에 대한 높은 진입장벽이다. 둘째, 개발 분야에서의 축적된 경험이나 데이터, 콘텐츠의 부족이다. 셋째, IDB 컨설팅 사업에 대한 국내외 홍보 및 이해 부족을 들 수 있다. 넷째, 사업의 발굴, 준비 등 초기 사업개발 관련 시간 및 비용부담으로 인한 시장진입 기피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다섯째, IDB 진출 한국인 부족으로 사업 발굴 및 조기사업 참여 미흡도 커다란 문제이다.

역외 회원국(비차입국) 중 일본과 스페인은 IDB 가입 이후 다양한 활동을 통해 IDB를 중남미지역과의 경제협력 채널로 가장 적극적으로 활용해오고 있다. 일본은 IDB 설립 이후 다른 역외 회원국(비차입국)에 비해 뒤늦게 회원국이 되었지만 다양한 활동을 통해 중남미지역에서 유무형의 실익을 도모하고 있다. 먼저 일본은 자국의 컨설턴트 육성의 채널로 IDB 신탁기금을 활용하고 있다. 둘째, 일본의 IDB 활동은 신탁기금사업에 국한되지 않고 다양한 사업을 개발해 활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일

본이 역외 회원국 중 유일하게 설립해 운영하고 있는 일본·IDB 장학프로그램은 미래 중남미지역의 주역인 대학생들을 일본에 우호적인 인사로 육성하는 데 커다란 기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셋째, 일본은 일본을 비롯한 아시아국가들과 중남미 국가들 간의 경제사회발전 경험 교류의 통로로 Japan Program을 운영하고 있다.

스페인의 IDB를 통한 활동의 특징을 살펴보면 먼저 스페인은 IDB를 활용한 경제적 성과 달성에 연연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둘째, 스페인은 전반적으로 IDB 가입 이후 경제적 성과를 논하기보다는 중남미지역개발에 대한 기여를 강조하면서 국제개발협력의 순수한 장으로 IDB의 활용가치를 어떻게 제고시킬 수 있을지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 셋째, 스페인은 IDB에 대한 지속적인 금융지원뿐만 아니라 특정 부문을 겨냥한 신탁기금 확대에도 기여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스페인은 IDB를 통한 금융지원을 확대하면서 60명에 달하는 자국 직원의 채용을 통해 IDB 의사 결정과정에서도 영향력을 행사해오고 있다.

IDB를 활용한 중남미지역과의 민간차원의 종합적이며 구체적인 협력방안을 여가서는 중단기적인 과제로 나누어 제시하였다. 먼저 단기적인 IDB 활용과제는 △ IDB 진출 인프라 구축 △ 조달시장 참여 확대방안 △ 신탁기금 활용방안 △ 금융협력 확대방안으로 대별해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다음으로 중장기적인 IDB 활용 정책과제는 △ 한·중·일 공동신탁기금 운영방안 △ 신탁기금과 ODA 연계 사업 개발방안 △ 건설·인프라업체의 진출 활성화 방안 △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을 통한 IDB와 민간기업의 협력방안 △ 인적네트워크 구축방안 △한국의 인식 및 이미지 제고방안 등으로 구분해 제시하였다.

IDB 활용의 단기적 방안으로는 먼저 △ IDB 업무 주체 표시 명확화 △ IDB 포털사이트 구축 △ IDB 아카데미 운영 등 IDB 진출의 3대 인프라 구축과제를 제시했다. 둘째, IDB 조달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 MDB 조달시장 입찰대행 전문서비스 회사 설립 △ IDB 지원 F/S 프로젝트 참여 △ 현지기업과의 컨소시엄을 통한



진출방안 등의 모색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셋째,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가장 활발하게 참여하고 있는 신탁기금사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 IDB 신탁기금사업 연차보고서 발간 △ 신탁기금사업의 홍보활동 강화 △ 컨설턴트 풀의 확대와 관리 강화 △ 소액의 가능성 펀드 운영 △ IDB 신탁기금과 지식공유사업 등 국내 기술원조와 협력 확대 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넷째, IDB가 제공하는 각종 금융서비스를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 협조용자 확대 △ IDB 및 IIC 용자 활용 △ 적극적 홍보를 통한 무역금융지원프로그램(TFFP)의 활용으로 구분해 제시하였다.

IDB를 활용한 중장기적 정책과제로는 먼저 한·중·일 공동 신탁기금 운영방안을 제시하였다. 2008년 10월 중국의 IDB 가입을 기회로 한·중·일 3국이 공동으로 신탁기금을 출연해 아시아의 개발경험을 중남미지역과 상호 교환할 수 있는 가칭 ‘Asia Program’을 선제적으로 제안해 운영할 필요가 있음을 제시하였다.

둘째, IDB 신탁기금과 ODA(공적개발원조)를 결합한 사업을 개발하여 개발협력의 시너지효과를 도모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의 일환으로 현재 2개의 개별 사업으로 추진해오고 있는 국제IT협력센터사업과 정보접근센터사업을 서로의 장점을 살려 하나의 사업으로 단일화하고, 국별 단위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을 중남미지역 및 소지역 차원의 사업으로 확대시켜 추진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 더 나아가 신탁기금 사업으로 ‘한·중남미 IT 장관회담’을 개최, ‘한·중남미 IT협력 실천계획’을 마련하고 이 계획에 근거해 국제IT협력센터사업과 정보접근센터사업을 포괄한 지역차원의 가칭 ‘한·중남미 IT협력 및 정보접근센터’ 사업을 전개해 나갈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

셋째, 우리 건설플랜트업체들의 IDB 프로젝트 진출 확대방안을 적극 모색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 프로젝트 수행 초기자금 지원 △ 프로젝트 정보제공 창구의 일원화 및 활성화 △ 프로젝트 검색 대행 서비스 제공 △ 국제개발은행들과 활발한 세미나 개최 등의 방안을 제안했다.

넷째, 현재 진출기업 단독으로 추진하고 있는 각종 CSR 활동을 IDB와 공동으로 추진함으로써 시너지효과를 도모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다섯째, IDB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효율적 전략 중의 하나로 IDB 인적자원과 튼튼한 네트워크 구축방안을 제안했다. 먼저 IDB 본부 및 국별 사무소 방문 세미나 개최, IDB 직원 초청 활성화 등 다양한 접촉을 통해 IDB 인사들과 친교를 쌓고 우리나라의 존재감을 인식시키는 방안과, 둘째는 보다 적극적인 방법으로 한국·IDB 장학금 프로그램 운영, 중남미 유망 교포 청년인력 육성 프로그램 등을 통해 한국에 우호적 인사를 육성하거나 IDB 내에 직접 한국 출신의 전문가를 취업시키는 방안을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IDB를 활용해 우리나라의 인식 및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다. 보다 구체적인 방안으로 섹터별, 소지역별 대규모 국제행사 개최와 중남미 미래의 주역이자 핵심인력으로 성장할 대학생 및 대학원생들의 한국과 IDB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고, 한국·IDB 또는 한국·중남미 간 협력사업 발굴을 위한 채널로 ‘한국·IDB 논문 공모 대회’ 개최를 제안했다.



## 차 례

서 언 .....	5
국문요약 .....	7
제1장 서 론 .....	23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	24
2. 연구 범위 및 방법 .....	26
제2장 중남미 경제와 미주개발은행(IDB) .....	29
1. 미주개발은행(IDB) 개황 .....	30
가. IDB의 설립과 발전 .....	30
나. IDB 회원국 및 조직 현황 .....	32
다. 최근 IDB의 구조개혁 .....	43
2. 중남미 경제에서 IDB의 위상 .....	48
가. 중남미 경제 발전과 IDB 위상 변화 .....	48
나. 중남미지역에서 IDB에 대한 인식 .....	50
다. 국제개발은행으로서 IDB의 위상 .....	59
3. IDB의 주요 활동과 중점사업 .....	65
가. IDB의 주요 활동 .....	65
나. IDB의 중점지원사업 .....	79
다. 중남미지역 수혜국의 IDB 활용 현황 .....	82

<b>제3장 우리나라의 대IDB 협력사업 추진 현황과 평가</b>	91
1. 우리나라의 IDB 가입 경위	92
2. IDB 협력사업 추진 현황	94
가. 신탁기금(Trust Fund) 협력사업	94
나. 협조용자	107
다. IDB 조달시장 참여	108
라. 무역금융(IDB의 TFFP: Trade Finance Facilitation Program)	110
3. 평가와 향후 과제	115
가. 평가	115
나. 향후 과제	117

<b>제4장 주요국의 IDB 활용사례 및 시사점</b>	121
1. 일본의 IDB 활용 전략과 사례	122
가. 일본의 IDB 가입 배경	122
나. IDB에서 일본의 위상	126
다. 일본의 IDB 관련 주요 활동	127
라. 일본의 IDB 가입을 통한 성과	135
2. 스페인의 IDB 활용 전략과 사례	139
가. 스페인의 IDB 가입 배경	139
나. IDB에서 스페인의 위상	147
다. 스페인의 IDB 관련 주요 활동	148
라. 스페인의 IDB 가입을 통한 성과	150
3. 한국에 대한 시사점	158
가. 일본의 IDB 활용을 통한 시사점	158
나. 스페인의 IDB 활용을 통한 시사점	159

<b>제5장 대중남미 경제협력 확대를 위한 IDB 활용방안</b>	161
1. 대중남미 경제협력에서 IDB 활용의 의미	162
가. 대중남미 경제협력의 지평 확대	162
나. 대중남미 경제협력정책의 운영 폭 확대	163
다. 새로운 경제기회 확보	164
2. IDB 활용방안	165
가. IDB 진출 인프라 구축	165
나. IDB의 조달시장 참여 확대방안	170
다. IDB 신탁기금 활용방안	173
라. IDB와 금융협력 확대방안	177
3. 주요 정책과제	188
가. 한중일 공동신탁기금 운영	188
나. 신탁기금과 ODA를 연계한 한중남미 IT 협력사업 추진	189
다. 건설·인프라 업체의 진출 활성화 방안	193
라.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을 통한 IDB와 민간기업의 협력	198
마. 인적네트워크 구축 활성화 방안	200
바. IDB를 통한 한국의 인식 및 이미지 제고방안	203
 <b>제6장 요약 및 결론</b>	 209
 <b>참고문헌</b>	 215
 <b>Executive Summary</b>	 219



## 표 차례

표 2-1. 국제개발은행 자본금 및 설립시기 등 비교	30
표 2-2. 각 개발은행의 역외국 출자지분을	31
표 2-3. IDB 및 IIC, MIF 가입국 현황(2008년 12월 현재)	33
표 2-4. 4개 상임위원회와 그 기능	35
표 2-5. 역대 IDB 총재	36
표 2-6. 회원국별 IIC 지분 현황(2007년 현재)	38
표 2-7. 회원국간 출자금 및 투표권 상황(2007년 12월 현재)	41
표 2-8. 최근 10년간 IDB 자금운영 현황	42
표 2-9. 시기별 중남미지역에서 IDB 위상	50
표 2-10. IDB에 대한 인식	52
표 2-11. 각국 경제개발에 대한 기여도	52
표 2-12. 향후 활동 확대 기대	54
표 2-13. 국제기구의 정책과 국내정책의 정합성	54
표 2-14. IDB와 타 국제기구의 항목별 업무성과 비교	56
표 2-15. 국제기구에 대한 확대 우선희망사업	57
표 2-16. 국별·소지역별 IDB 확대 우선희망사업	58
표 2-17. IDB의 주요 활동	65
표 2-18. 차입국 경제규모에 따른 그룹 분류 현황	68
표 2-19. 2007년 IDB 협조융자 현황	70
표 2-20. 국별 IDB 신탁기금 운영 현황	72

표 2-21. 각 다자간 개발은행의 원조창구 .....	74
표 2-22. IDB 조달시장 현황(2005~07년) .....	76
표 2-23. IDB의 국별 대출 현황 .....	84
표 2-24. IDB의 국별 기술협력 지원 현황 .....	86
표 2-25. IDB의 주요 지원분야 .....	88
표 3-1. IDB 출연금의 내용 및 목적 .....	94
표 3-2. MDB별 신탁기금 출연 현황 .....	97
표 3-3. IDB-KPRF 승인 현황 .....	101
표 3-4. IDB-IIC SME 승인 현황 .....	104
표 3-5. 다지원국 재해방지 신탁기금 .....	105
표 3-6. 우리나라의 대IDB 협조용자 현황 .....	107
표 4-1. 일본의 지역별 제조업부문에 대한 해외직접투자 추이 .....	123
표 4-2. 1970년대 일본의 대중남미 수출입 추이 .....	123
표 4-3. 일본의 국제개발은행 가입 현황 .....	125
표 4-4. MDB 일본인 직원 수 .....	127
표 4-5. 일본·IDB 장학프로그램 수혜학생들의 유학대상 국가(1991~2007년) ..	130
표 4-6. Japan Program의 주요 내용 .....	132
표 4-7. 일본의 IDB 조달시장 수주규모(1960~2008년 12월) .....	135
표 4-8. 유럽 국가 및 다자기구의 IDB 기술 및 프로그램 신탁기금 현황 .....	141
표 4-9. 스페인의 IDB 조달시장 참여 추이(1961~2007년) .....	155
표 4-10. 스페인 기업의 IDB 조달시장 참여규모(1960~2008년 12월 26일) .....	156
표 4-11. 스페인의 지역별 ODA 투입 금액 및 비중(실행 기준) .....	157
표 5-1. IDB 프로젝트 진출의 장애요인 .....	166
표 5-2. IDB 진출 인프라 구축방안 .....	169
표 5-3. 신탁기금 추진상의 어려움 및 대정부 건의사항 .....	174
표 5-4. IIC 용자 절차 .....	185

표 5-5. 무역금융지원프로그램의 주요 특징 .....	186
표 5-6. 정보접근센터와 IT국제협력센터 비교 .....	192
표 5-7. 대중남미 건설·인프라 시장 진출에 대한 관심 정도 .....	195
표 5-8. 대중남미 건설·인프라 시장 진출에 대한 관심 이유 .....	195
표 5-9. DACON 등록업체 명단 .....	196
표 5-10. 우리 업체들의 IDB 프로젝트에 대한 관심 .....	197
표 5-11. 우리 건설·인프라 업체들의 IDB 진출 확대를 위한 대정부 건의 .....	198
표 5-12. 주요 다국적기업의 CSR 활동 사례 .....	199
표 5-13. IDB·미쓰비시상사 간 주요 협력분야 .....	200
표 5-14.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KSP) 사업 추진 현황 .....	204
표 5-15.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KSP) 추진 현황 구체 개요 .....	205
표 5-16. 한·중남미 협력프로그램 현황 .....	207





## 그림 차례

그림 2-1. MIF 연간 지원규모 추이	39
그림 2-2. IDB의 개편조직 구성	47
그림 2-3. IDB의 연도별 대출 추이	59
그림 2-4. 주요 다자기구(MDB)의 중남미 대출 추이	60
그림 2-5. IDB의 주요 지원분야	61
그림 2-6. CAF의 경제분야별 대출 비중	61
그림 2-7. CAF의 전략분야별 대출 비중	61
그림 2-8. CABEI의 경제분야별 대출 비중	62
그림 2-9. CABEI의 전략분야별 대출 비중	62
그림 2-10. 세계은행의 대중남미 경제분야별 대출 비중	63
그림 2-11. 세계은행의 대중남미 전략분야별 대출 비중	63
그림 2-12. 연도별 AfDB의 지원 추이	64
그림 2-13. AfDB의 분야별 지원 비중	64
그림 2-14. 기술협력기금 지원 추이	69
그림 2-15. 분야별 IDB 조달시장 현황(2005~07년 누계 기준)	78
그림 2-16. IDB의 대출 현황(금액 기준)	83
그림 2-17. IDB의 대출 현황(비중 기준)	83
그림 2-18. 분야별 기술협력 지원 현황	87
그림 3-1. IDB 신탁기금 및 FSO의 연도별 지출 현황	95
그림 3-2. IDB 신탁기금의 지원 목표	98


그림 3-3. 우리나라의 국별 신탁기금 지원 현황	105
그림 3-4. 우리나라의 분야별 신탁기금 지원 현황	106
그림 3-5. 한국의 IDB 조달시장 참여규모	108
그림 3-6. 비차입국의 IDB 조달시장 참여 비중(정책+투자 차관)	109
그림 3-7. 비차입국의 IDB 조달시장 참여 비중(정책차관)	109
그림 3-8. 비차입국의 IDB 조달시장 참여 비중(투자차관)	110
그림 3-9. 신용장 확인과정	112
그림 3-10. 보증신용장 확인과정	113
그림 3-11. 포페이팅 과정	114
그림 4-1. 일본의 대중남미 수출입 추이	124
그림 4-2. 일본의 중남미 국별 신탁기금 지원 현황(1960~2008년 12월)	129
그림 4-3. 일본의 대중남미 분야별 신탁기금 지원 현황(1960~2008년 12월)	129
그림 4-4. Japan Program의 분야별 프로젝트 지원 현황(1999~2007년)	134
그림 4-5. 일본의 IDB 조달시장 수주규모(1960~2008년 12월)	136
그림 4-6. 일본의 IDB 조달시장 참여 비중(2005~07년 합계)	137
그림 4-7. 일본의 IDB 조달시장 참여규모	137
그림 4-8. 스페인의 대중남미 수출입 추이	151
그림 4-9. 스페인의 대세계 ODI 및 FDI 비중 추이	152
그림 4-10. 스페인의 지역별 ODI 비중 추이	152
그림 5-1. 지역별 해외진출 현황(복수응답 포함)	167
그림 5-2. 응답업체의 해외진출 희망지역(복수응답 포함)	167
그림 5-3. IDB와 연계를 통한 대중남미 무역 증진방안	187



## 글상자 차례

글상자 2-1. 총회 고유권한 .....	34
글상자 2-2. IDB의 7대 전략분야 .....	45
글상자 2-3. IDB 구조개혁의 주요 내용 .....	45
글상자 3-1. 우리나라의 IDB 가입 추진 경위 .....	93
글상자 3-2. 축구, 오케스트라 등을 통한 중남미 불우 청소년 지원사업 .....	100
글상자 4-1. 환태평양 비즈니스네트워크 .....	133
글상자 4-2. 중남미·아태지역 경제경영연합 .....	133
글상자 5-1. IDB 대출의 원칙 .....	179
글상자 5-2. IDB 차관(loan) 사용 사례 1 .....	181
글상자 5-3. IDB 차관(loan) 사용 사례 2 .....	182
글상자 5-4. IDB 차관(loan) 사용 사례 3 .....	183
글상자 5-5. 일본기업의 IIC 용자 사례(2007년 9월) .....	184
글상자 5-6. IDB 페루사무소의 활동 현황 .....	202

# 제1장 서론

-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 범위 및 방법

##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중남미지역은 1990년대 개혁정책의 성과에 따른 높은 성장잠재력, 풍부한 천연 자원의 보유 등에 힘입어 21세기 신흥시장 중 가장 주목할 시장으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최근 4년간(2004~07년) 세계경제의 평균 성장률을 웃도는 5%대의 성장세를 지속하면서 역동적 경제센터로서 중남미지역의 전략적 가치는 더욱 높아졌다. 이와 같은 중남미시장의 높은 성장잠재력과 전략적 가치를 겨냥, 미국, EU, 일본 등 주요 선진국들은 중남미 기회 선점을 위한 진출을 가속화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2000년대 들어 중남미 경제가 안정적 성장을 지속하고 경제통합을 공고히 하는 가운데 무역·투자를 대폭 확대시켜왔으며, 칠레, 멕시코 등 중남미 주요국과 FTA 체결 및 협상 추진, 브라질, 페루 등 주요 자원부국과 자원협력위원회 운영 등을 통해 각종 제도적 협력기반을 강화해오고 있다.

특히 2005년 3월 오랜 숙원사업이던 미주개발은행(IDB) 가입은 우리나라와 중남미 경제관계 발전의 획기적인 전환점으로 평가되었다. 우리나라의 IDB 가입이 중요성을 갖는 이유는 중남미 경제에서 차지하는 IDB의 높은 위상과 영향력 때문이다. 1959년 설립된 IDB는 세계 최고(最古), 최대(最大, 자본금 1,010억 달러, 아시아개발은행의 2배) 지역개발금융기구로 그간 중남미 경제사회 발전에 커다란 기여를 해왔다. 2000년대 들어 IDB는 중남미지역에 대한 연간 자금지원 규모 면에서도 세계은행을 제치고 최대 개발은행으로 확고한 위상을 차지하고 있다. 이에 힘입어 IDB는 다른 국제개발은행 및 국제금융기구와 비교해 중남미지역에서 인지도나 인식이 가장 높고 양호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중남미지역에서 IDB의 높은 위상과 영향력에 비추어볼 때 우리나라의 IDB 가입은 다음 세 가지 측면에서 커다란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먼저 우리나라의

대중남미 경제협력 지평의 확대이다. IDB 가입을 통해 우리나라는 중장기적으로 중남미 경제·사회 개발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보하게 되었다. 또한 IDB 가입은 그간 쌍무관계에 머물렀던 우리나라와 중남미의 관계가 범지역차원으로 확대됨을 의미하기도 한다. 둘째, IDB 가입으로 대중남미 경제협력정책의 운영 폭이 확대되었다. IDB와의 연계를 통한 유무상자금 지원으로 지원효과의 극대화를 도모함은 물론 중남미 금융시장 진출의 교두보 확보 및 신속한 통상정보를 입수할 수 있는 채널로도 IDB를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마지막으로 IDB 가입은 새로운 경제기회의 확보를 의미한다. 우리 기업들은 그간 IDB 비회원국이기 때문에 참여가 불가능했던 연간 60억 달러에 달하는 IDB 조달시장은 물론 연간 1만 건이 넘는 IDB의 각종 발주프로젝트에도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다.

그렇다면 IDB 가입 후 3년이 지난 현재 IDB 가입 전후 우리가 갖고 있던 높은 기대가 제대로 발현되고 있는가? 본 보고서는 이 같은 1차적인 물음에서 출발했다. 실제로 IDB 가입 후 3년이 지난 현재 우리나라의 IDB를 통한 대중남미 경제협력 성과는 우리나라가 출연한 활발한 신탁기금(Trust Fund) 지원을 통한 조달시장 참여 확대 및 한국의 이미지·위상 제고, 협조용자 확대, 무역금융 도입 등 일부 측면에서 긍정적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IDB와의 협력은 우리나라가 출연한 신탁기금 활용사업에 국한되고 있는 인상이 짙다. 따라서 IDB 가입 3년을 맞아 대중남미 경제협력의 획기적인 전환점으로서 IDB 가입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짚어보고, IDB를 활용해 중남미지역과 경제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다각적인 협력사업 발굴이 시급한 시점이다.

이에 본 연구는 IDB 가입 이후 우리나라와 IDB의 협력 성과 및 문제점을 평가하고 이를 토대로 IDB를 활용한 중남미지역과의 종합적이며 구체적인 민관차원의 경제협력방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IDB 신탁기금 활용 확대, IDB 조달시장 참여 확대, IDB 차관 활용 활성화 등 경제적 실익을 극

대화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 제시는 물론 보다 중장기적인 견지에서 IDB를 활용  
해 대중남미 개발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다각적인 방안 발굴에도 주안점을 두었다.

## 2. 연구 범위 및 방법

본 연구는 크게 여섯 장으로 구성된다. 서론에 이은 제2장에서는 중남미 경제에  
서 차지하는 IDB 위상을 다각도로 분석하고, 최근 중남미 경제환경 변화와 2005년  
신임 모레노(Alberto Moreno) 총재 취임 이후 IDB의 대중남미 지원정책 변화 및  
중점지원사업을 분석하였다. 이 같은 분석을 통해 IDB 프로젝트에 대한 우리기업  
의 참여 확대 가능성을 타진하고 유망 진출분야를 발굴·제시하였다.

제3장에서는 2005년 IDB 가입 이후 우리나라의 IDB를 통한 중남미지역과의 협  
력을 신탁기금 활용, 조달시장 진출, 협조용자, 무역금융(Trade Finance Facilitation  
Program) 등으로 나누어 다각도로 평가하고 과제를 제시하였다.

제4장에서는 사례 분석의 일환으로 역외 회원국(비차입국) 중 가장 활발한 활동  
을 전개하고 있는 일본과 스페인의 IDB를 활용한 중남미지역과의 협력사례를 심  
층 분석하고 우리에게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제5장에서는 위의 분석결과를 토대로 대중남미 경제협력에서 IDB 활용의 의미  
를 살펴보고, IDB를 활용한 중남미지역과의 민관차원의 종합적이며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도출하였다. 여기서 IDB 활용방안은 중단기적인 과제로 나누어 제시하였  
다. 먼저 단기적인 과제는 △IDB 진출 인프라 구축 △조달시장 참여 확대방안  
△신탁기금 활용방안 △금융협력 확대방안으로 대별해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다음  
으로 중장기적인 정책과제는 IDB를 통한 △한·중·일 공동신탁기금 운영방안

△신탁기금과 ODA 연계사업 개발 △건설·인프라업체의 진출 활성화 방안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을 통한 IDB와 민간기업의 협력 △인적네트워크 구축방안 △한국의 인식 및 이미지 제고방안 등으로 구분해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제6장에서는 이상의 연구결과를 종합하여 요약하고 결론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1차적으로 문헌자료 분석에 의존하였다. IDB의 최근 대중남미 지원 정책 변화, IDB의 주요 활동 및 프로젝트, 기존 역내의 회원국들의 IDB를 활용한 중남미지역과의 협력 현황 등의 분석은 IDB 및 IDB 지역별 사무소가 발행한 자료와 현지 각국의 1차 문헌을 통해 우선적으로 수행하였다.

또한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본 프로젝트의 특성을 감안해 국내의 중남미 전문가를 중심으로 한 공식·비공식 연구자문그룹을 구성하여 운영하였다. 연구자문그룹을 중심으로 수시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하여 연구의 올바른 방향 설정, 연구방향의 적합성 검토, 연구결과의 유의성을 검토하였다. 특히 일부 전문분야에 대해서는 외부전문가의 자문내용을 연구결과에 적극 반영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과제의 특성상 실태조사 및 전문가 면담에도 커다란 비중을 두어 수행하였다. IDB 프로젝트 참여 희망 기업, IDB 관련 국내외 인사, 국제개발은행 신탁기금 프로젝트 기(既)수행 기업 및 관련 인사 등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실시해 그 결과를 연구내용에 반영하였다.



## 제2장

# 중남미 경제와 미주개발은행(IDB)



## 1. 미주개발은행(IDB) 개황

### 가. IDB의 설립과 발전

IDB는 미국과 중남미 국가들의 협의에 의해 1959년 12월 세계 최초로 설립된 세계 최대 자본금 규모의 다자간 지역개발기구로서 중남미와 카리브 지역 회원국의 경제·사회 발전 지원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표 2-1. 국제개발은행 자본금 및 설립시기 등 비교

기구명	자본금	설립시기	한국 가입	한국투표권 비중(%)
미주개발은행(IDB)	1,010억 달러	1959. 12	2005. 3	0.004
아시아개발은행(ADB)	560억 달러	1966. 8	1966. 8	4.46
아프리카개발은행(AfDB)	162억 달러	1964. 9	1982. 12	0.41
유럽부흥개발은행(EBRD)	200억ECU	1991. 3	1991. 3	1.00

IDB 창설의 필요성은 1890년 미국 의회의 요청으로 소집된 미주특별회의에서 처음으로 제기되었다. 당시 회의에서는 미주지역의 경제발전을 위해 ① 은단위 체제에 근거한 공통통화의 채용 ② 관세동맹의 결성 ③ 개발은행 설립이 제창되었다.

이후 중남미지역에서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신설된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이 전후 파괴된 유럽 및 아시아 지역의 경제 재건에 집중하고 있음을 인식하여 중남미지역의 이해만을 전담하는 새로운 금융기관의 창설이 제기되었다. 당시 중남미 국가들이 희망한 금융기관은 차입국이 과반의 지분을 소유하고 차입국에 의해 운영되며 자금 제공이 이루어지는 형태의 지역개발기구였다.

1958년 쿠비체크(Juscelino Kubitschek) 브라질 대통령이 제안한 “중남미 경제 사회개발을 위한 중남미 국가간의 협력”이 중남미 국가들로부터 지지를 받으며, IDB 설립은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다. 또한 쿠바혁명 등 중남미 개도국에서의 정치·사회적 혼란은 아이젠하워 정부로 하여금 중남미 국가들의 제안을 주저없이 받아들여지게 하였고, 이후 미주기구(OAS) 특별위원회의 협의를 통해 IDB 설립 협정문의 초안이 작성되며, IDB 설립이 구체화되었다.

IDB는 설립 초기 여타 지역개발금융기구와는 달리 역외국의 가입을 제한했으며, 1974년에 와서야 설립 협정문을 수정하여 역외국 가입을 허용했다. 그러나 역외국 총 출자지분은 8%만 허용하였으며, 1994년 중자 시 역외국 출자지분한도 증가조치 후에도 역외국의 지분은 16%에 불과했다. 이는 여타 지역개발금융기구의 역외국 출자지분율과 비교할 때 아주 미미한 수준으로 IDB의 배타성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된다.

표 2-2. 각 개발은행의 역외국 출자지분율

(단위: %)

기 구	역외국 출자지분율(2007년 12월 말 현재)
미주개발은행(IDB)	15.97
아시아개발은행(ADB)	45.00
아프리카개발은행(AfDB)	33.33
유럽부흥개발은행(EBRD)	24.78

설립 초기 IDB는 중남미와 카리브 지역의 19개 국가와 미국만이 회원국으로 참여했으나, 이후 캐나다와 8개 역내국가가 추가가입하여 28개의 미주국가로 구성되어 있었다. 그러나 1970년대 회원자격을 역외국가들에도 확대함으로써 아시아와 유럽의 20개 국가가 가입하여 현재 회원국은 총 481개국으로 확대되었다. 회원국의

확대는 중남미지역과 여타 지역 간의 무역 및 투자 관계 증대를 반영한 것으로, 이로 인해 IDB는 재무상황의 강화뿐만 아니라 공공사업 및 국제원조, 개발에 관한 전문지식 및 경험을 가지고 있는 우수한 인재의 채용이 가능하게 되었다.

한편 역외국가들은 IDB에 가입함으로써 중남미 내 한 국가와 개별적인 양자간 프로그램을 통하는 경우보다 더 많은 중남미 국가와의 경제관계를 증진시킬 수 있게 되었다. 역외 회원국은 IDB 정책이나 프로그램을 통해 중남미지역의 개발문제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역외 회원국 기업들은 IDB 지원사업에 상품과 용역을 공급할 기회를 갖게 되었다.

1994년 제8차 증자(IDB-8)를 통해 2000년까지 회원국간의 지분 조정이 결정되었다. 이 결과 미국은 소폭의 지분 감소를 감내해야 했으나 여전히 최대 출자국으로 남았고, 역내 수혜국인 중남미 국가들의 지분은 다소 감소되었으며, 역외 회원국들의 지분은 상당히 증가하였다. 특히 일본은 여섯 번째 출자국으로 부상하였다. 또한 400억 달러의 자본을 늘린 증자 과정에서 빈곤축소와 국가 현대화, 환경보호, 사회 소외층 지원 등을 용이하게 실시하기 위하여 IDB 내부의 대규모 개혁이 단행되었다.

## 나. IDB 회원국 및 조직 현황

### 1) 회원국 현황

IDB 회원국은 역내 28개국, 역외 20개국 등 총 48개국이다. 지역별로는 중남미 카리브지역 26개국, 북미 2개국, 유럽 17개국, 아시아 3개국이다. 아시아 국가로는 일본이 처음으로 1976년 IDB에 가입했으며 한국은 아시아 국가 중 두 번째로

---

1) 2008년 10월 중국의 가입으로 총 회원국은 48개국으로 확대되었다.

2005년에, 중국은 세 번째로 2008년에 가입했다. IDB는 역외국의 지분비율이 16%에 불과해 타 지역 개발은행에 비해 상당한 배타성을 갖고 있다.

표 2-3. IDB 및 IIC, MIF 가입국 현황(2008년 12월 현재)

역내국			역외국		
IDB 회원국	IIC 가입국	MIF 참여국	IDB 회원국	IIC 가입국	MIF 참여국
역내 수혜국					
아르헨티나	○	○	오스트리아	○	
바하마	○	○	벨기에	○	
바베이도스	○	○	크로아티아		
벨리세	○	○	덴마크	○	
볼리비아	○	○	핀란드	○	
브라질	○	○	프랑스	○	○
칠레	○	○	독일	○	
콜롬비아	○	○	이스라엘	○	
코스타리카	○	○	이탈리아	○	○
도미니카공화국	○	○	일본	○	○
에콰도르	○	○	네덜란드	○	○
엘살바도르	○	○	노르웨이	○	
과테말라	○	○	포르투갈	○	○
가이아나	○	○	슬로베니아		
아이티	○	○	스페인	○	○
온두라스	○	○	스웨덴	○	○
자메이카	○	○	스위스	○	○
멕시코	○	○	영국		○
니카라과	○	○	한국	○	○
파나마	○	○	중국	○	○
파라과이	○	○			
페루	○	○			
수리남	○	○			
트리니다드토바고	○	○			
우루과이	○	○			
베네수엘라	○	○			
역내 공여국					
캐나다		○			
미국	○	○			
28개국	27개국	28개국	20개국	17개국	11개국
IDB 회원국 수: 48개국		IIC 회원국 수: 44개국		MIF 참여국 수: 39개국	

자료: IDB, "Annual Report," 각년호

## 2) IDB의 조직

### 가) 의결기구

#### (1) 총회(Board of Governor)

IDB 전권은 각 회원국에서 5년 임기로 선임된 1명의 위원(governor)과 1명의 교체위원(alternate governor)으로 구성된 총회(Board of Governor)에 있다. 총회는 IDB 헌장 수정 및 증자 등 주요 정책결정과 운영, 조사, 재정결산 등의 사안들을 다루며 연 1회 연차 총회를 개최한다. 연차 총회 이외에도 5개 회원국 또는 총 투표권 1/4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이사회의 요청에 의해 총회는 소집될 수 있다. 총회 개최를 위한 정족수는 총위원 과반의 참석을 포함한 총 회원국 투표권 수의 2/3 이상 참석이며, 교체위원은 위원의 부재시를 제외하고는 투표할 수 없다. 총회 시 사안 통과를 위해서는 2/3 이상의 위원 출석을 포함한 총 투표권 수의 3/4 이상 참석에서 과반수 이상의 승인이 있어야 한다.

평상시 14인으로 구성된 총회 위원회(Committee of the Board of Governors)가 총회 일반업무를 처리한다.

#### 글상자 2-1. 총회 고유권한

- 신규회원 가입허가 및 가입규정 결정
- IDB 자본 및 기타 기금의 증·감자 결정
- IDB 총채 선출
- 회원자격 박탈 결정
- 다른 국제기구와 협력 체결
- IDB 혹은 다른 기금 수익의 적립 및 배분 결정
- 협약문 개정

## (2) 이사회

총회에서 그 권한을 위임받은 이사회(Board of Executive Directors)는 제도 및 운영정책 수립과 IDB 총재에 의해 제출된 대출 및 기술협력계획 승인, 이자율 설정, 자본시장에서의 차입 결정, IDB 행정예산 작성 등의 일을 수행한다.

이사회는 총 14인의 이사(Executive Director)로 구성되며, 이사의 임기는 3년이다. 출자지분에 따라 회원국을 14그룹으로 구분하여 각 그룹에서 1명의 이사를 지명 또는 선출하는데, 미국과 캐나다가 각 1명씩 지명하며, 역외 회원국들이 3명을 선출하고, 중남미 국가가 9명을 선출한다. 각 이사는 지명 또는 선출해준 회원국의 지분에 따라 투표권을 부여받는다. 이사들은 IDB 본부가 있는 워싱턴 D.C.에 상주하면서 업무를 수행하며, 부재시 업무대행을 위해 교체이사(Alternate Executive Director)를 지명하여 운영한다.

표 2-4. 4개 상임위원회와 그 기능

조직·인력·운영 위원회 (Organization, Human Resources and Board Matters Committee)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IDB 안건의 준비 및 연구</li> <li>• IDB 조직(운용절차, 관계자 임명, 업무분담, 제도정비)과 인력 개발(IDB 인력 개발 전략 및 관련 정책 수립)</li> <li>• 이사회 안건(이사회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운영조치의 효과적인 시행·감독) 등에 대해 이사회에 권고</li> </ul>
재정·금융정책·회계감사 위원회(Budget, Financial Policies and Audit Committee)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단기 예산정책과 관련된 시급을 요하는 사안의 토의 및 집행</li> <li>• 차기연도 세부예산안 분석 및 당해연도의 예산 집행 보고 및 평가</li> <li>• 유동성정책과 부채지급능력, 대출능력 등과 관련한 금융정책 분석</li> <li>• IDB 현재와 미래 금융상황에 대한 정책영향 연구</li> <li>• 대출 및 투자, 기금의 성과 등에 대한 조사 수행</li> </ul>
프로그램 수립 위원회 (Programming Committee)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안건 검토와 프로젝트 실행 보고</li> <li>• IDB의 지역 및 국가별 프로그램 수립</li> <li>• 융자 포트폴리오 결과 및 산출 등의 감독</li> <li>• 총회에서 작성된 운영상 지시에 관련된 문제 관리</li> <li>• 총회에 프로그램 수립 관련 조치 추천</li> </ul>
정책 작성·평가 위원회 (Policy and Evaluation Committee)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총회에 운용정책의 공시 및 개정, 갱신 등을 권고함과 동시에 정책입안부문에서 운영 프로그램의 승인 권고</li> </ul>

이사회는 IDB 사업 관련 사안 발생시 개최되며, 이사회 개최를 위해서는 과반의 이사 참석을 포함한 총 투표권 수 2/3 이상의 출석이 있어야 한다.

이사회는 특정 사안을 깊이 있게 분석할 수 있도록 네 개의 상임위원회를 운영한다.

### (3) 총재

IDB 총재는 IDB의 법적 대표자로서 총회에서 5년 임기로 선출되며, 이사회의 의장으로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IDB의 통상업무를 지휘·감독한다. 총재는 이사회에서 동률의 투표 수일 경우를 제외하고는 투표하지 못한다. 1997년 11월 총회에서 재선출된 우루과이 출신의 엔리케 이글레시아스(Enrique Iglesias)가 1998년 4월 1일부터 2005년 9월 말까지 제3대 IDB 총재로 활동하였다. 2005년 10월 1일 콜롬비아 출신 알베르토 모레노(Alberto Moreno) 총재가 4대 총재로 선출되었다.

표 2-5. 역대 IDB 총재

	이 름	국적	임기
초대 총재	펠리페 에레라(Felipe Herrera)	칠레	1960~70
2대 총재	안토니오 오르티스 메나(Antonio Ortiz Mena)	멕시코	1970~88
3대 총재	엔리케 이글레시아스(Enrique V. Iglesias)	우루과이	1988~2005
4대 총재	루이스 알베르토 모레노(Luis A. Moreno)	콜롬비아	2005~

부총재(Executive Vice-President)는 총재의 제청으로 이사회에 의하여 임명되며, 총재 보좌와 이사회가 정하는 바에 의한 IDB 관리 등의 권한을 행사한다. 그리고 총재 부재시 그 권한을 대행한다.



## 나) 산하기구

### (1) 미주투자공사(IIC)

IIC(Inter-American Investment Corporation)는 IDB의 활동을 보완하고 중남미 각국의 민간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 및 대출을 통해 역내 경제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1986년에 설립되었다. IIC는 IDB와 별개의 조직으로 운영되며, 자본금 역시 IDB로부터 독립되어 있으나, IDB 주요 임원들이 IIC 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가입 회원국 수는 2007년 말 현재 43개국<sup>2)</sup>이며, 지역별로는 26개 중남미 국가와 미국, 13개 유럽국, 일본, 한국, 이스라엘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IIC 회원자격은 IDB 회원국뿐만 아니라 비회원국도 가능하며, IIC 총회시 IIC 위원의 2/3 출석 및 총 투표 수 2/3 이상 참석하에서 과반수의 승인을 받으면 IIC 가입이 가능하다.

IIC의 수권자본금은 7억 370만 달러이고 레버리지(차입자본 이용)는 납입자본의 3배이다. IIC는 연평균 30~40개 프로그램을 통해 약 2억~3억 달러의 자금으로 총 400개 사업을 지원한다.

IIC는 중남미 차입국의 민간 중소기업에 대해 대출과 투자를 실시한다. 구체적인 지원형태로는 역내 중소기업에 직접 대출해주는 직접투자와 다른 금융기관을 이용한 간접투자가 있다. 중남미 국적의 사업자가 자본의 과반수 이상을 출자한 민간 중소기업 가운데 다른 방법으로 충분한 자금을 조달하지 못하는 기업들이 주요 투자 및 대출 대상기업이다. 경제적으로 실행 가능성이 높고 환경문제를 유발하지 않는 업종이 1차적인 지원대상이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① 고용확대 ② 외화 획득 ③ 경영 기법 및 기술 이전 촉진 ④ 국내자본의 활용 ⑤ 국내저축 확대 ⑥ 중남미 내 경제통합 촉진 등을 지원 조건으로 한다.

2) 2008년 10월 중국의 가입으로 회원국 수는 44개국으로 늘었다.

IIC의 투자 및 대출에 대해서는 해당국 정부의 보증이 불필요하다. 신규 사업의 경우 사업자금 총액의 33% 이하, 사업 확장의 경우 50% 이하에 한하여 대출이 가능하며, 대출기간은 사업의 필요성에 따라 통상 5~8년에서 최장 12년이다.

표 2-6. 회원국별 IIC 지분 현황(2007년 현재)

(단위: %)

역내국	지분	역외국	지분
아르헨티나	11.0	오스트리아	0.5
바하마스	0.2	벨기에	0.2
바베이도스	0.1	덴마크	1.5
벨리세	0.1	핀란드	0.6
볼리비아	0.9	프랑스	3.1
브라질	11.0	독일	1.9
칠레	2.8	이스라엘	0.2
콜롬비아	2.8	이탈리아	3.1
코스타리카	0.3	일본	3.4
도미니카공화국	0.6	한국	0.2
에콰도르	0.6	네덜란드	1.5
엘살바도르	0.4	노르웨이	0.6
과테말라	0.6	포르투갈	0.3
가이아나	0.2	스페인	3.4
아이티	0.4	스웨덴	0.6
온두라스	0.4	스위스	1.5
자메이카	0.6		
멕시코	7.1		
니카라과	0.4		
파나마	0.4		
파라과이	0.4		
페루	2.8		
수리남	0.1		
T&T	0.4		
우루과이	1.2		
베네수엘라	6.1		
중남미 총지분	52.5		
미국	25.0		
역내 총지분	77.5	역외 총지분	2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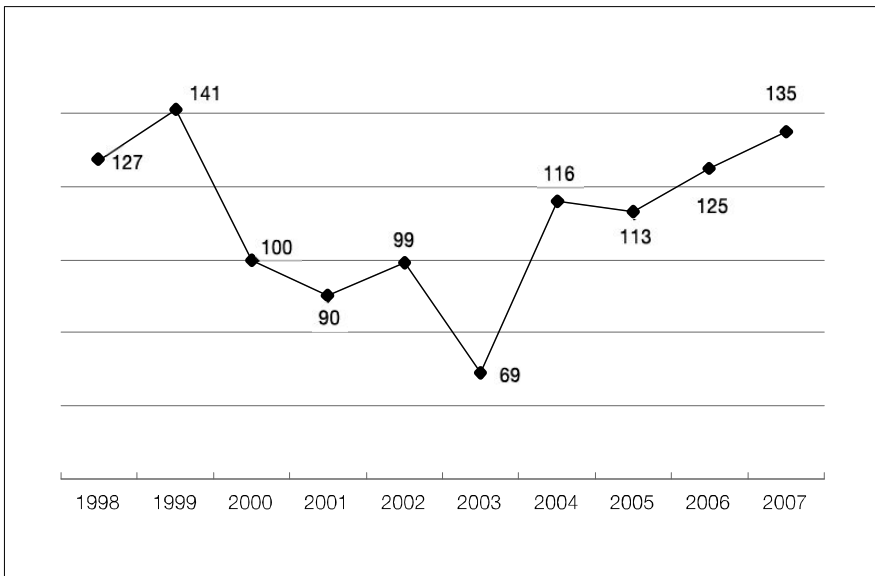
자료: IIC(2007), "Annual Report."

## (2) 다자간투자기금(MIF)

MIF(Multilateral Investment Fund)는 중남미 국가의 경제개혁을 지원할 목적으로 부시 미국 대통령의 주도하에 1993년에 설립된 이후 중남미지역의 민간투자 촉진을 위해 노력해오고 있다. MIF는 초기에 미국 및 일본, 유럽, 중남미 등지의 31개 국가에서 출연한 12억 달러의 기출금으로 설립되었으며, IDB가 그 운영을 맡아서 하고 있다. 이 중 일본과 미국이 각각 5억 달러를 부담했다. 2005년 오키나와 연차 총회에서 공여국들은 MIF-II 설립을 위해 5억 200만 달러를 추가 출연하는데 합의했다. 이 과정에서 프랑스, 아이티, 스웨덴, 스위스, 영국, 한국 등이 추가 회원국으로 가입했다. MIF는 연간 약 80개 사업에 1억 달러의 자금을 지원한다. 2007년 지원규모는 1억 3,500만 달러에 달했다.

그림 2-1. MIF 연간 지원규모 추이

(단위: 백만 달러)



자료: IDB, "Annual Report," 각년호

MIF의 업무내용은 주로 ① 민간투자 촉진 관련 정책 및 제도 확립을 위한 기술 협력, ② 민간투자 및 민간경제활동 확대에 필요한 인적자원 개발사업, ③ 역내 중소기업 육성·지원 사업분야에 대한 자금 무상공여 등이다.

MIF 자금은 보통 무상으로 상대국 정부 또는 정부기관, 민간기관에 직접 공여되는데, 민간기관의 경우 일반적으로 주식회사는 제외되고 NGO, 상공회의소, 기업 연합, 조합, 재단법인, 각종 협회 등 이른바 비영리단체들이 포함된다. 투자촉진 제도 개선 지원을 위하여 정부 및 정부기관에 공여되는 기술협력자금 규모는 일반적으로 50만 달러에서 100만 달러인데, 총 소요자금의 20~50%는 수혜국 부담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MIF는 인적자원 개발사업 및 중소기업 육성 지원사업에 대체로 150만~200만 달러 규모의 자금을 공여하며, 전체 소요자금의 20~40%는 수혜기관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3) 재원의 조성

IDB의 재원은 회원국들이 출자한 통상자본(OC: Ordinary Capital)에 근거하며, OC는 납입자본금(paid-in capital) 및 최고자본금(callable capital)으로 구성된다.

IDB는 1959년 8억 5,000만 달러의 OC로 출범한 이래 1989년 제7차 증자에서 265억 달러, 1994년 제8차 증자에서 400억 달러(43억 달러의 납입자본금 포함)로 자본금을 지속적으로 늘려왔다. 2007년 12월 현재 43억 달러의 납입자본금을 포함한 총 출자자본은 1,010억 달러이다.

표 2-7. 회원국간 출자금 및 투표권 상황(2007년 12월 현재)

(단위: 백만 달러, %)

역내국				역외국			
IDB 회원국	납입 자본금	총출자금	투표권 비중	IDB 회원국	납입 자본금	총출자금	투표권 비중
역내 수혜국				역외 회원국			
아르헨티나	465.1	10,858.9	10.752	오스트리아	6.9	160.6	0.161
바하마	11.6	209.9	0.209	벨기에	14.2	331.0	0.329
바베이도스	5.6	129.9	0.129.9	크로아티아	2.1	48.5	0.050
벨리세	7.2	110.7	0.111	덴마크	7.3	170.8	0.171
볼리비아	37.3	871.7	0.865	핀란드	6.9	160.6	0.161
브라질	465.1	10,858.9	10.752	프랑스	82.3	1,913.7	1.896
칠레	127.7	2,981.6	2.953	독일	82.3	1,913.7	1.896
콜롬비아	127.7	2,981.6	2.953	이스라엘	6.8	158.3	0.158
코스타리카	18.7	435.7	0.433	이탈리아	82.3	1,913.7	1.896
도미니카공화국	24.9	581.7	0.577	일본	217.1	5,050.3	5.001
에콰도르	24.9	581.7	0.577	한국	0.1	2.2	0.004
엘살바도르	18.7	435.7	0.433	네덜란드	14.6	340.3	0.338
과테말라	24.9	581.7	0.577	노르웨이	7.3	170.8	0.171
가이아나	7.8	161.6	0.162	포르투갈	2.3	54.0	0.055
아이티	18.7	435.7	0.433	슬로베니아	1.3	29.4	0.031
온두라스	18.7	435.7	0.433	스페인	82.3	1,913.7	1.896
자메이카	24.9	581.7	0.577	스웨덴	14.1	328.9	0.327
멕시코	299.0	6,980.3	6.912	스위스	20.4	474.7	0.472
니카라과	18.7	435.7	0.433	영국	41.8	971.7	0.964
파나마	18.7	435.7	0.433	역외 회원국 총계	692.4	16,106.9	15.976
파라과이	18.7	435.7	0.433				
페루	62.3	1,453.0	1.440				
수리남	5.7	88.6	0.089				
트리니다드토바고	18.7	435.7	0.433				
우루과이	49.9	1,164.2	1.154				
베네수엘라	249.3	5,817.8	5.761				
중남미 회원국 총계	2,170.5	50,481.1	50.016				
역내 공여국							
캐나다	173.7	4,039.9	4.001				
미국	1,303.0	30,309.7	30.007				
역내 회원국 총계	3,647.2	84,830.7	84.024	총 계	4,340	100,953	100.0

자료: IDB(2007), "Annual Report."

납입자본금과는 달리 최고자본금은 IDB가 직접 보유하고 있지는 않으나 필요시 언제든지 회원국들에 지급을 요청해 받아낼 수 있는 자본으로, 국제금융시장에서 차입할 경우 보증역할을 한다.

IDB는 최고자본을 바탕으로 매년 국제금융시장으로부터 80억~100억 달러 규모의 채권을 발행하고 있으며 이는 OC 차관 지원규모의 90%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차입이 가능한 것은 IDB가 회원국들로부터 적극적인 지원을 받고 있음은 물론, 효과적인 대출, 정책운영의 효율성 등을 바탕으로 설립 이후 지속적으로 미국 신용기관인 무디스(Moody's)와 S&P(Standard & Poor's)로부터 각각 Aaa와 AAA 신용등급 판정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표 2-8. 최근 10년간 IDB 자금운영 현황

(단위: 백만 달러)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자본금	OC	94,219	100,881	100,959	100,959	100,951	100,951	100,951	100,953	100,953	100,953
	FSO	9,637	9,638	9,635	9,636	9,636	9,636	9,637	9,639	9,639	9,640
	기타 기금	2,572	2,634	2,651	2,730	2,772	2,976	3,066	3,113	3,211	3,717
	총계	106,428	113,153	113,245	113,325	113,359	113,563	113,654	113,705	113,803	114,310
차입	누적	32,511	38,784	41,394	42,186	47,471	50,821	48,886	46,433	46,396	47,771
	연간	5,761	8,865	8,139	7,097	9,340	9,109	4,710	4,937	5,419	6,089
대출 · 보증 (연간)	OC	9,364	9,061	4,969	7,411	4,143	6,232	5,468	6,738	5,774	8,812
	FSO	686	417	297	443	406	578	552	410	605	152
	기타	13	8							2	6
	총계	10,063	9,486	5,266	7,854	4,549	6,810	6,020	7,148	6,381	8,970

자료: IDB(2007), "Annual Report."

또한 IDB는 역내 최빈국인 볼리비아, 가이아나, 아이티, 온두라스, 니카라과 등 5개국에 유리한 조건의 대출을 시행할 목적으로 특별운영기금(FSO: Fund for Special Operation)을 조성하였다. FSO는 OC와는 분리되어 운영·관리되기 때문

에 FSO 운영상 발생한 손실 및 책임 수습을 위해 OC 재원을 사용할 수 없다. 2007년 말 현재 FSO 규모는 96억 달러에 달하고 있다. IDB는 2003~07년 연평균 4억 5,940만 달러의 FSO를 승인했다.

## 다. 최근 IDB의 구조개혁

### 1) IDB 구조개혁 추진배경

2000년대 들어 중남미지역을 둘러싼 대내외적 환경이 급변하며 개발은행으로서 1990년대 IDB가 누려왔던 독보적인 위치가 위협받기 시작했다. 먼저 원자재 수출 붐에 기반을 둔 중남미 경제의 전례 없던 호황이 역설적이게도 IDB의 위상에 위협 요인으로 작용했다. 광물에너지, 식량자원의 수출에 힘입어 중남미 국가들은 많은 외환보유고를 축적하게 되었다. 또한 경기호황을 반영, 주식시장 등 자본시장이 발전하며 많은 외국자본이 유입되었다. 중남미 각국에서, 특히 중남미 중견국들(middle-income countries)에서 풍부한 유동성은 IDB 자금지원에 대한 필요성을 감퇴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둘째, 2000년대 들어 안데스개발공사(CAF), 카리브개발은행(CDB), 중미개발은행(BCIE) 등 중남미 소지역 개발은행이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하기 시작했다. 특히 이 중에서도 CAF는 빠른 대출을 장점으로 그간 IDB가 차지했던 개발시장을 잠식하기 시작했다. 또한 브라질경제사회개발은행(BNDES)은 지역개발은행에 버금가는 막대한 자본금을 바탕으로 국가차원의 은행을 넘어 지역차원의 개발은행으로 입지를 확대해나갔다. 결정적으로 2007년 12월 남미 국가들을 주축으로 한 남미은행 설립은 중남미지역의 개발은행으로서 IDB의 대표성을 퇴색시켰다.

셋째, 반미(反美), 반(反)신자유주의 정책을 표방하는 좌파 정부의 득세도 중남미

지역에서 IDB의 입지를 좁히는 역할을 했다. 베네수엘라, 볼리비아, 아르헨티나 등을 주축으로 한 좌파 정부들은 미국의 정치·경제적 영향력이 강한 IDB의 개발정책을 공공연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앞서 언급한 남미은행 설립도 이같은 입장을 대변하고 있는 이 국가들의 입김이 크게 작용한 결과로 해석된다.

넷째, 모레노 총재의 개혁의지이다. 2005년 10월 취임한 모레노 총재는 지난 17년간 IDB를 통치해온 전임 이글레시아스 총재의 유산을 청산할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었다. 이글레시아스 재임시기 IDB는 양적, 질적으로 급성장했지만 과도한 절차에 따른 대출 집행 지연, 급변하는 중남미의 대내외적 환경을 반영하지 못하는 지원정책 등으로 비난을 받았다.

## 2) IDB 구조개혁의 주요 내용

IDB 구조개혁의 핵심은 신속성(agility), 유연성(flexibility), 탈중앙집중화(decentralization)로 요약된다. 2006년 벨루오리종찌(Belo Horizonte)에서 개최된 연차총회에서 IDB 이사들은 우선 IDB의 비전에 합의했다. IDB의 비전은 ① 성장을 장려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지원함으로써 빈곤축소 및 불평등 해소 촉진, ② 대중의 기회 창출을 통해 사회적 응집력(social cohesion) 강화, ③ 민간부문의 발전 및 고용창출 지원, ④ 지역통합 지원 등 네 가지로 대별된다.

비전 실현을 위한 IDB의 전략 방향 및 계획은 ① 국별 집중 강화, ② IDB의 사업모델 조정, ③ 중남미지역의 필요에 부응, ④ 전략분야의 경쟁력 강화 등으로 요약된다. 이 같은 전략계획에 입각해 IDB는 [글상자 2-2]와 같이 7대 전략분야를 선정했다.



## 글상자 2-2. IDB의 7대 전략분야

- ① 중남미 대중의 기회 확대(Opportunities for the Majority Initiative)
- ② 빈민들의 성장을 위한 효과적 사회정책 실시 및 새천년개발목표(MDG) 달성
- ③ 과학기술 발전 지원
- ④ 추가적인 투자 유치를 위해 인프라부문에 대한 투자로 중남미지역의 경쟁력을 제고하며 인프라·에너지 통합 촉진
- ⑤ 민간부문의 발전 및 고용창출 촉진
- ⑥ 재생에너지 및 에너지 효율성 프로젝트 지원
- ⑦ 저개발지역의 도시 및 농촌사회에 대출 및 기술지원을 제공, 상하수도 및 위생서비스 확대 지원

IDB 이사회는 2006년 12월 14일 IDB의 구조개혁안을 공식적으로 승인했는데, 주요 내용은 [글상자 2-3]과 같다.

## 글상자 2-3. IDB 구조개혁의 주요 내용

- ① 다계년 예산 계획 수립
- ② 대출준비기간을 절반으로 줄이고 승인과 대출기간 단축을 목표로 신속한 대출 준비 및 지출 메커니즘 수립
- ③ 타당성 연구를 위한 InfraFund를 조성, 대규모 인프라프로젝트 지원
- ④ 지방이나 시정부 및 준공공기업과 같은 하위 국가기관에 대한 대출 확대
- ⑤ 국가의 보증을 받지 못하는 보다 폭넓은 성격의 채무자에 대한 지원 허용
- ⑥ 민간부문국(PRI)의 대출한도를 단일 프로젝트 기준으로 종전 7,500만 달러에서 2억 달러로, 예외적인 경우 4억 달러까지 확대
- ⑦ 분야별 지원(SWAPs)과 같은 새로운 금융상품 도입
- ⑧ IDB 국별 사무소(country office)에 대한 책임 강화
- ⑨ IDB 각 회원국에서 시민사회자문위원회(civil society advisory councils, CASCs) 설립

한편 구조개혁의 일환으로 IDB의 조직 개편도 이루어졌다. 조직 개편의 목적은 먼저 국별 집중 강화, 분야별 전문성 강화 및 위험관리·성과 달성에 기초한 관리

개선을 통해 IDB 활동의 효과성을 개선하는 것이다. 둘째, IDB 운영의 통합과 다양한 기능의 강화를 통해 조직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이다. IDB는 이 같은 조직 개편을 통해 궁극적으로 중남미지역에서 IDB의 위상을 제고시킨다는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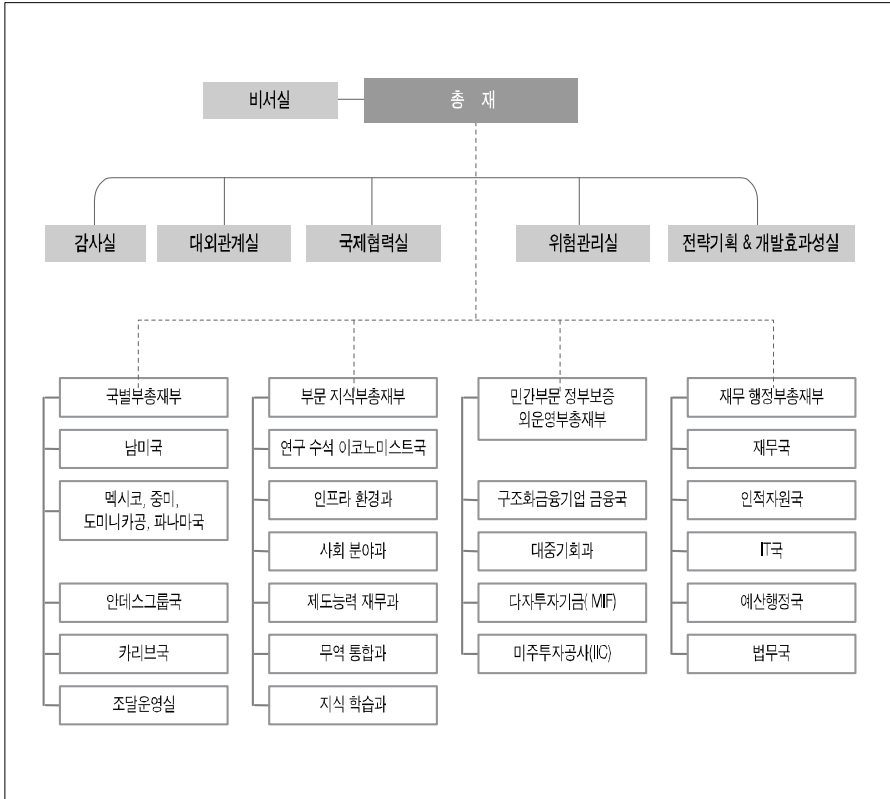
사실 IDB는 1994년 제8차 증자 때까지 분야별 조직 구성을 갖고 있었다. 그러나 1994년 이후 3개의 지역부서, 즉 지역 1부, 2부, 3부가 핵심부서로 등장했으며 지속가능발전부(SDS)와 무역·통합부(INT)는 지원역할을 담당했다. 또한 1994년 조직 개편으로 민간부문국(PRI: Private Sector Department)이 설립되었다.

새로운 조직 개편으로 IDB는 4개의 강력한 부총재부로 재구성되었다. 4개의 부총재 부서는 다음과 같다.

- 국별 부총재부(Vice-president of Countries)
- 분야·지식 부총재부(Vice-president of Sector and Knowledge)
- 민간부문·정부보증외운영 부총재부(Vice-president of Private Sector and Non-sovereign Guaranteed Operations)
- 재정·행정 부총재부(Vice-president of Finance and Administration)

이상 4개의 부총재부 중에서도 국가 프로그램의 운영을 담당하는 국별 부총재부가 가장 강력한 권한을 갖게 되었다. 또한 민간부문국(PRI)이 부총재부로 승격함에 따라 보다 많은 새로운 권한을 갖게 되었다.

새로운 조직 개편으로 분야별 전문가의 충원도 확대되었다. 이번 IDB의 조직 개편에 힘입어 최근 IDB 내에 부족했던 분야별 전문가 기용이 확대되었다. 사실 기존 지역부서(Regional Department)에는 특정 지식을 갖춘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했다. 일례로 IDB 전 조직을 통틀어 세계 및 전력분야 전문가가 2~3명에 불과했다.

그림 2-2. IDB의 개편조직 구성<sup>1)</sup>

주: 1) 비서실(Office of the Secretary), 감사실(Office of the Auditor General), 대외관계실(Office of External Relations), 국제협력실(Office of Outreach and Partnerships), 위험관리실(Office of Risk Management), 전략기획&개발효과성실(Office of Strategic Planning & Development Effectiveness), 국별부총재부(Vice-presidency for Countries), 남미국(Country Dept. Southern Cone), 멕시코, 중미, 도미니카공. 파나마국(Country Dept. Mexico, Central America, Dominican Republic and Panama), 안데스그룹국(Country Dept. Andean Group), 카리브국(Country Dept. Caribbean), 조달운영실(Operations Procurement Office), 부문지식부총재부(Vice-presidency for Sectors and Knowledge), 연구수석이코노미스트국(Dept. of Research and Chief Economist), 인프라환경과(Infrastructure and Environment Sector), 사회분야과(Social Sectors), 제도능력재무과(Institutional Capacity and Finance Sector), 무역통합과(Trade and Integration Sector), 지식학습과(Knowledge and Learning Sector), 민간부문정부보증외연영부총재부(Vice-presidency for Private Sector and Non-Sovereign Guaranteed Operations), 구조화금융기업금융국(Structured and Corporate Financing Department), 대중기회과(Opportunities for the Majority Sector), 다자투자기금(Multilateral Investment Fund), 미주투자공사(Inter-American Investment Corporations), 재무행정부총재부(Vice-presidency for Finance and Administration), 재무국(Finance Department), 인적자원국(Human Resources Department), IT국(IT Department), 예산행정국(Budget & Administration Service Department), 법무국(Legal Department).

## 2. 중남미 경제에서 IDB의 위상

### 가. 중남미 경제 발전과 IDB 위상 변화

1959년 설립 이후 1960년대 중남미지역에서 IDB의 위상과 역할은 매우 미미했다. IDB가 설립 초기 정체성을 모색하는 동안 케네디 미 대통령이 주창한 진보를 위한 동맹(Alliance for Progress)에 고무되어 쌍무간 원조가 중남미 국가들의 해외 자금 조달의 주요 창구로 각광받았다. 당시 중남미지역에서는 에레라(Felipe Herrera) 총재가 통치하는 IDB에 대해 낙관적인 기대를 갖고 있었다. 그러나 당시 중남미 경제는 연평균 7%대의 전례없던 호황기를 누리고 있었다. 이에 따라 중남미 국가들의 IDB에 대한 의존은 매우 미미했다.

1970년대는 넘쳐나는 오일달러로 상업차관이 득세하며 IDB의 대출과 공공차관은 설 자리를 잃었다. 1960년대 진보를 위한 동맹 미주위원회(CIAP: Inter-American Committee for the Alliance for Progress)는 매년 엄격한 국별 평가를 통해 각국의 개발수요에 맞추어 지원을 실시했다. 그러나 상업차관이 역동적인 중남미시장에 진출하면서 더 이상 중남미 국가들은 까다로운 CIAP 자금을 활용하지 않게 되었다. 당시 중남미 각국의 재무장관들이 하는 일은 정부 보증을 제공하고 상업차관 문서에 서명하는 것이 전부였다.

1979년 오일쇼크로 중남미지역의 교역조건이 크게 악화되며 당시까지 번성하던 수입대체산업화 정책이 종말을 고하게 되었다. 부가가치가 거의 없는 상품 수출로는 더 이상 늘어나는 국가부채를 충당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중남미 국가들은 이 같은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적절한 대응책을 강구하기보다는 당시까지 누려왔던 생활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과도한 해외차입에 의존하기 시작했다. 당시 팽배했던

‘정부는 파산하지 않는다’는 신념이 상업은행들의 경쟁적인 대출을 정당화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커다란 재앙으로 나타났다. 당시 중남미 국가들은 해외차입자금을 투자보다는 소비지출로 사용했다. 그간 높은 성장세를 보여왔던 경제가 성장을 멈추기 시작했다. 또한 밀물처럼 몰려왔던 자본이 썰물처럼 빠져나갔다. 결과적으로 1970년대 말 중남미지역은 4,000억 달러의 부채를 떠안게 되었다.

1980년대에는 중남미지역의 외채위기로 민간자본 유입이 거의 중단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에서도 아직까지 중남미지역에서 IDB의 역할은 제한적이었다. 당시에는 미국, 일본, 유럽 등 주요 지원국들이 중남미 각국의 경제구조조정정책을 담보로 쌍무간 지원을 실시했다. 그러나 이러한 경향은 1990년대 초 들어 선진국들이 재정적자 감축을 도모, 쌍무간 지원을 축소하면서 바뀌기 시작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IDB가 비로소 중남미지역의 경제발전 지원에 중요한 역할을 떠맡게 되었다. 1988년 후반 IDB의 자본금은 340억 달러에 불과했으며 연간 대출금도 23억 달러로 인프라, 제조업 및 농업프로젝트에 대한 지원이 전부였다. 그러나 이글레시아스 총재가 IDB 수장을 맡으며 보다 장기적인 비전을 갖고 1988년 260억 달러, 1994년 400억 달러 증자를 통해 IDB 자본금을 1,010억 달러로 확대했다.

중남미 경제는 1990년대 전례없던 개혁을 통해 새롭게 변신했다. 민영화, 규제 완화 등을 통해 경제에 대한 국가의 통제가 대폭 축소되었으며, 수입대체산업화로 높았던 무역장벽도 크게 낮아졌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 속에서도 제도적 취약성, 사회정책의 부재, 빈곤 심화, 시민사회 공고화, 부패와의 전쟁 등이 새로운 어젠다로 떠올랐다.

이같이 중남미 경제가 새로운 변화를 겪는 가운데 IDB는 설립 이후 최고의 전성기를 맞게 되었다. 1990년대 중반 이후 IDB의 능력과 대외적 여건이 맞아떨어지며 중남미 경제에서 IDB의 역할은 크게 제고되었다. 잘 정비된 정책, 고도의 전문인력 등을 통해 IDB가 제공하는 금융 및 기술 지원은 중남미 각국 정부를 만족시켰다.

IDB는 1994년과 1995년 발생한 멕시코 폐소화 위기 시 양국 정부에 긴급차관을 제공하기도 했다. IDB는 중남미지역의 민주주의와 사회정의의 발전은 물론 그간 중남미 각국이 수세기 동안 방치한 사회분야에서의 각종 부채를 해소하는 데에도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 1990년대 썩무간 지원이 감소하며 IDB와 세계은행은 중남미 국가들의 개혁 추진에 수반되는 공적 재원의 공급원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다.

표 2-9. 시기별 중남미지역에서 IDB 위상

	주요 변화
1960년대	• 설립 초기, 정체성 모색기
1970년대	• 대규모 상업은행 차관 독세 • IDB 및 공공차관의 역할 미미
1980년대	• 외채위기로 적극적 대출 및 개발프로그램 실시 장애
1990년대	• IDB의 발전기 • IDB 증가로 자본금 대폭 확대(1,010억 달러) • 대외적 여건과 IDB 능력의 조화
2000년대	• IDB의 새로운 발전 모색기

## 나. 중남미지역에서 IDB에 대한 인식

### 1) IDB에 대한 인식

IDB는 국제개발은행 및 국제기구 중 중남미지역에서 가장 인지도(혹은 친숙도)가 높다. 이 같은 사실은 IDB가 2006년 1~2월 중남미 26개 회원국, 정부관리, 정재계 대표, 언론인, NGO 대표, 학계인사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입증되었다.<sup>3)</sup> 관련 설문에서 IDB의 인지도 평점(1= 가장 낮음, 5=가장 높음)은 4.2를 기록했으며, 세계은행이 3.7, IMF가 3.4를 기록했다. 안데스개발공사(CAF)의 경우

비교대상 국제기구 중 가장 인지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설문결과는 CAF 회원국이 아닌 국가들도 설문대상에 포함시켰기 때문에 당연한 것일 수 있다. CAF 회원국을 대상으로만 한 설문조사에서 CAF의 인지도 평균은 IDB(4.4), 세계은행(4.1)보다 낮았으나 IMF(3.6)보다 높은 3.8을 기록했다. 중미지역에서 중미개발은행(CABEI)은 비교적 인지도가 높은 것(평균 3.4)으로 조사되었으나 IDB(4.2)에 비해서는 여전히 낮았다. 카리브지역에서도 IDB에 대한 인지도는 카리브개발은행(CDB, 평점 3)보다 높았다.

국별로는 도미니카공화국에서 인지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현 모레노 총재를 배출한 콜롬비아에서의 인지도도 매우 높게 나타났다. 이 2개국에 이어 칠레, 볼리비아, 니카라과, 에콰도르, 바하마, 코스타리카, 수리남, 멕시코, 온두라스, 우루과이, 엘살바도르 순으로 인지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 2) 각국 경제개발에 대한 기여도

국제기구가 각 회원국의 경제개발에 기여한 정도를 묻는 설문에서도 IDB(3.9)<sup>4)</sup>는 세계은행(3.3)과 IMF(2.8)를 제치고 단연 기여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안데스지역과 카리브지역에서도 IDB는 CAF나 CDB보다도 해당 지역·국가의 경제개발에 높은 기여를 한 것으로 입증되었다. 국별로는 가이아나, 바하마, T&T, 자메이카, 엘살바도르, 수리남, 니카라과 순으로 IDB의 경제개발에 대한 기여도가 높게 조사되었다. 전반적으로 IDB의 경제개발에 대한 기여효과는 대단위 국가보다는 소규모 국가에서 높게 나타났다.

3) Bassi, Marina(2007), "What Do Latin Americans Think of the IDB?", IDB.

4) 설문지 평점은 경제기여도가 가장 낮은 경우 1, 가장 높은 경우 5였다.

표 2-10. IDB에 대한 인식

	IDB	IMF	WB
도미니카공	4.73	3.82	4.27
콜롬비아	4.61	4.17	4.22
칠레	4.46	3.23	3.69
볼리비아	4.40	3.00	4.00
니카라과	4.36	4.09	4.09
에콰도르	4.36	3.71	4.21
바하마	4.33	3.57	3.57
코스타리카	4.29	3.07	3.36
수리남	4.29	2.71	2.00
멕시코	4.27	3.13	3.60
온두라스	4.25	3.00	3.58
우루과이	4.25	3.75	3.58
엘살바도르	4.20	3.40	3.93
파나마	4.18	2.50	3.33
아르헨티나	4.18	3.91	4.00
파라과이	4.17	3.33	3.58
T&T	4.15	3.64	4.00
가이아나	4.11	3.33	3.56
자메이카	4.10	2.80	3.30
페루	4.00	3.00	3.88
베네수엘라	3.89	3.33	3.56
브라질	3.86	2.79	3.21
아이티	3.86	2.71	3.57
바베이도스	3.83	3.50	3.67
과테말라	3.77	3.67	3.92
벨리세	3.55	3.00	2.80
평균	4.19	3.36	3.69

자료: Bassi(2007).

표 2-11. 각국 경제개발에 대한 기여도

	IDB	IMF	WB
가이아나	4.60	3.60	4.00
바하마	4.50	2.38	1.86
T&T	4.42	3.00	2.70
자메이카	4.40	3.11	3.67
도미니카공	4.36	3.18	4.09
엘살바도르	4.33	2.86	3.87
수리남	4.29	1.57	1.67
니카라과	4.18	3.60	3.91
칠레	4.00	2.73	3.75
아르헨티나	3.95	2.35	3.48
파나마	3.93	2.25	3.57
페루	3.93	3.29	3.93
브라질	3.79	2.75	3.38
과테말라	3.75	3.00	3.75
우루과이	3.73	2.82	3.00
코스타리카	3.71	2.57	2.64
콜롬비아	3.70	3.19	3.78
온두라스	3.67	2.75	3.92
베네수엘라	3.59	1.81	2.63
파라과이	3.58	3.00	3.33
볼리비아	3.56	2.56	3.22
멕시코	3.53	3.07	3.47
바베이도스	3.50	2.00	2.33
에콰도르	3.50	2.77	3.29
벨리세	3.27	2.10	2.20
아이티	3.14	2.43	2.86
평균	3.87	2.75	3.34



### 3) 향후 활동 확대 기대

IDB는 국제기구 중에서도 향후 활동 확대가 가장 기대되는 기구로 지목되었다. 관련 설문에서 IDB의 평점<sup>5)</sup>은 4.1로 IMF(2.3)나 세계은행(3.6)보다 크게 높았다. IDB에 대한 긍정적인 답변은 전체 응답의 70%에 달했다. 그에 반해 최근 좌파 정부로부터 비난을 받고 있는 IMF에 대한 기대치는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미지역에서 CABEI(4.0)는 IDB(4.2) 다음으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카리브지역에서도 CDB(3.6)는 IDB(4.1) 다음으로 높은 평점을 받았으며, 안데스지역에서도 CAF가 IDB 다음으로 높은 평점을 얻었다.

국별로는 엘살바도르에서 IDB에 대한 향후 활동을 가장 기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니카라과, 수리남, 자메이카, 페루, 파라과이, 도미니카 등이 그 뒤를 이었다.

### 4) 국제기구의 정책과 국내정책의 정합성

국제기구의 정책과 국내정책 간의 정합성을 묻는 설문에서도 IDB는 비교대상 국제기구 중 가장 높은 점수(평균 3.78)<sup>6)</sup>를 받았다. 그러나 그 편차는 다른 국제기구, 특히 세계은행과 비교해 크지 않았으며 지금까지의 설문조사 항목 중에서도 점수가 가장 낮았다. 이는 향후 IDB가 정책이나 프로젝트를 추진함에 있어 현지국 정부와 보다 긴밀한 커뮤니케이션과 협력을 필요로 함을 의미한다. 관련 설문에서 중미지역의 응답자들은 IDB보다 CABEI에 보다 높은 점수를 부여했다. 그에 반해 카리브와 안데스 지역에서 CDB와 CAF는 IDB보다 낮은 점수를 받았다.

5) 평점의 척도는 활동 확대가 가장 기대된다는 5, 그 반대의 경우는 1이었다.

6) 평가의 척도는 국제기구의 정책과 국내정책의 정합성이 가장 높다는 5, 그 반대의 경우는 1이었다.

국별로는 멕시코에서 정합성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T&T, 아르헨티나, 페루, 도미니카공화국, 파라과이, 베네수엘라, 엘살바도르, 바하마, 에콰도르 순으로 IDB 지원정책과 국내정책 간의 조화가 원활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2-12. 향후 활동 확대 기대

	IDB	IMF	WB
엘살바도르	4.57	3.07	4.43
니카라과	4.45	2.50	3.82
수리남	4.43	1.67	2.17
자메이카	4.40	2.00	3.89
페루	4.40	2.43	4.21
파라과이	4.33	2.91	3.92
도미니카공	4.27	2.10	4.09
베네수엘라	4.25	2.13	3.56
코스타리카	4.23	2.77	3.23
볼리비아	4.20	2.63	3.78
아르헨티나	4.19	1.89	3.81
벨리세	4.18	2.44	2.78
온두라스	4.00	2.20	4.00
파나마	4.00	2.45	3.92
과테말라	3.92	3.00	3.69
T&T	3.91	2.60	2.56
가이아나	3.89	3.38	4.13
멕시코	3.87	2.14	3.40
콜롬비아	3.86	1.86	3.73
에콰도르	3.85	2.08	3.58
우루과이	3.80	2.30	3.10
바하마	3.71	2.33	2.20
아이티	3.71	2.67	3.86
바베이도스	3.67	1.50	3.00
칠레	3.50	1.80	3.33
브라질	3.43	1.55	3.38
평균	4.05	2.32	3.62

표 2-13. 국제기구의 정책과 국내정책의 정합성

	IDB	IMF	WB
멕시코	4.31	3.58	3.69
T&T	4.31	3.30	3.67
아르헨티나	4.15	2.11	3.60
페루	4.13	3.19	3.75
도미니카공	4.09	2.70	3.70
파라과이	4.08	3.00	3.50
베네수엘라	4.07	2.20	3.20
엘살바도르	3.93	2.79	3.60
바하마	3.86	2.50	2.83
에콰도르	3.86	2.85	3.57
수리남	3.83	1.80	2.40
콜롬비아	3.77	3.14	3.59
칠레	3.75	2.70	3.25
온두라스	3.75	2.50	3.50
파나마	3.69	2.30	3.33
자메이카	3.67	2.00	2.75
우루과이	3.67	2.78	3.44
코스타리카	3.62	2.38	2.54
벨리세	3.55	2.33	2.22
브라질	3.54	2.45	3.08
과테말라	3.42	2.91	3.45
아이티	3.33	2.67	2.83
가이아나	3.30	2.56	3.22
니카라과	3.27	3.00	3.27
볼리비아	3.11	2.38	2.89
바베이도스	2.67	1.75	2.00
평균	3.78	2.68	3.29

자료: Bassi(2007).

이상에서 살펴본 네 가지 설문에 근거해볼 때, IDB는 다른 국제기구와 비교해 인지도, 경제개발에 대한 기여, 향후 활동 기대, 지원정책과 국내정책 간의 정합성 측면에서 모두 가장 우수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그 편차는 지역별 및 설문 항목별로 달랐다. IDB는 세계은행과 비교해 평균적으로 0.5%포인트 높은 점수를 받았으나 설문항목별로 그 편차는 크지 않았다. 그에 반해 IMF와 비교해 IDB는 모든 설문 항목 및 지역에서 절대적인 우위를 차지했다. CAF, CABEL, CDB 등 중남미 소지역 개발은행은 IMF나 세계은행에 비해 인지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지역에서 일반적인 이미지는 매우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안데스지역에서 CAF의 이미지는 매우 양호했다.

### 5) 타 국제기구와의 비교우위 및 효율성

다음으로 18개 설문항목을 대상으로 각 국제기구가 특정 개발분야별로 얼마나 업무를 잘 수행하는가에 대한 설문을 실시했다. 여기서 18개 설문항목은 다시 개발, 대출 및 운영, 금융지원, 정책(discipline), 효율성 등 5개 분야로 대분류했다.

설문조사 결과 IDB는 대부분의 항목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으며, 세계은행이 그 뒤를 이었다. IDB가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항목은 사회정책 및 프로그램에 대한 훌륭한 대출 디자인이었다. 그에 반해 가장 낮은 점수를 받은 항목은 정책 지원에 대한 IDB의 능력과 대출 승인의 효과성, 과거 실패로부터의 학습 등이었다.

타 국제기구와 비교해볼 때, IDB의 3대 비교우위는 사회부문에 대한 프로젝트 설계, 공공부문 현대화에 대한 프로젝트 설계, 사회정책 지원이었다. 그에 반해 IDB는 적기의 대출 승인, 과거 실패로부터의 학습능력 등에서는 비교열위를 보였다.

표 2-14. IDB와 타 국제기구의 항목별 업무성과 비교

		IMF		WB		IDB		CAF	
		양호	매우 양호	양호	매우 양호	양호	매우 양호	양호	매우 양호
개발	개발과제 이해	44.4	9.5	55.4	16.1	53.3	30.7	23.5	6.3
	개발과제 공적 논의에 대한 기여	33.9	7.4	43.2	17.3	43.2	25.9	19.1	3.3
	개발과제의 기술적·학술적 논의에 대한 기여	31.0	13.1	40.8	22.0	44.6	28.3	18.2	4.8
대출	인프라에 대한 기여	17.6	2.4	41.7	21.4	44.1	32.4	16.4	7.1
	사회부문에 대한 기여	16.7	2.7	39.9	24.1	39.6	36.6	14.9	3.3
	공공부문 현대화에 대한 기여	18.8	5.1	37.8	21.1	39.3	30.1	11.3	1.8
금융지원	신시장·민간기업 개발에 대한 지원	13.7	1.5	28.3	6.0	35.7	14.0	11.9	2.7
	경제정책에 대한 지원	31.0	10.7	44.1	14.9	43.2	20.2	13.7	1.2
	사회정책에 대한 지원	17.6	2.1	41.7	18.8	44.1	26.2	12.5	1.8
	민간 국제시장보다 유리한 조건 지원	22.0	10.4	32.1	22.9	33.6	28.3	15.2	6.0
	재정 및 국제수지 개선 지원	35.4	22.0	35.4	17.3	35.1	18.8	12.5	3.9
정책 (discipline)	거시경제정책 지원	37.8	28.3	38.4	15.8	37.8	14.6	9.5	2.1
	인프라·공공서비스정책 지원	18.8	6.9	36.0	14.3	39.6	17.6	10.7	1.8
	사회정책 지원	17.6	2.4	33.3	14.9	36.9	17.9	9.5	0.3
효율성	대출 및 프로그램 승인의 신속성	17.3	3.6	25.3	6.6	29.5	11.0	11.0	4.2
	대출의 적기(適期)성	21.7	7.7	33.3	13.4	37.2	19.6	12.5	6.6
	대출 프로그램 및 프로젝트 결과에 대한 평가	17.6	10.4	34.8	13.7	36.9	18.8	11.9	1.8
	과거 실패로부터의 학습	14.9	3.3	24.7	6.0	27.7	10.7	7.1	2.1

자료: Bassi(2007).

## 6) 중남미지역의 우선지원분야

마지막으로 9개 사업 유형 중 각 국제기구가 우선적으로 추진해야만 하는 사업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IDB가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사업으로 기술지원 및 지식이 지목되었다. 전체 응답자의 85%가 이 사업을 지목했

다. 두 번째 우선사업으로는 교육·보건·사회안전이 지목되었다. 그에 반해 재정·국제수지 대출은 가장 후순위로 나타났다.

표 2-15. 국제기구에 대한 확대 우선희망사업

	IMF		WB		IDB		CAF	
	More	Much More	More	Much More	More	Much More	More	Much More
기술지원 및 지식	14.9	41.1	22.9	54.8	27.1	57.7	9.5	24.4
교육·보건·사회안전	6.3	20.5	25.6	48.5	33.6	48.5	9.5	19.4
시장·민간기업 개발	9.5	21.1	20.2	42.6	23.8	47.6	8.0	21.1
인프라	9.5	16.4	27.4	42.6	35.1	44.9	13.7	18.8
공공부문 현대화	13.1	21.4	33.6	39.0	41.7	39.6	9.2	15.5
사회정책 개혁	11.3	17.3	30.7	34.5	35.7	35.4	8.6	12.5
경제정책 개혁	20.2	22.0	27.1	25.9	29.8	25.6	8.9	10.1
무조건적 지원	14.0	14.0	20.5	20.5	22.6	21.4	11.3	7.7
재정·국제수지	25.0	19.9	25.9	11.6	26.8	11.3	10.1	3.0

자료: Bassi(2007).

다음으로 각 국별·소지역별로 IDB가 확대해야만 하는 우선희망사업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제1지역(남미지역) 국가들의 경우 사회서비스 프로젝트를 가장 우선순위로 지목했고, 다음으로 기술지원 및 공공부문 현대화 프로젝트를 꼽았다. 그에 반해 제2지역(중미·멕시코)과 제3지역 국가들의 경우 모두 기술지원활동을 가장 우선순위로 꼽았으며, 다음으로 사회서비스 프로젝트를 지목했다.<sup>7)</sup>

국가별 공통으로 가장 많이 우선순위로 지목된 분야는 기술지원(26개국 중 11개국), 인프라프로젝트(10개국), 사회서비스(7개국) 순으로 나타났다.

7) 제1지역 국가는 아르헨티나, 볼리비아, 브라질, 칠레, 파라과이, 우루과이 등 남미지역 국가들, 제2지역 국가는 벨리제, 코스타리카, 도미니카공화국,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아이티, 온두라스, 멕시코, 니카라과, 파나마 등 멕시코·중미 국가들, 제3지역 국가는 바베이도스, 바하마, 콜롬비아, 에콰도르, 가이아나, 자메이카, 페루, 수리남, 트리니다드토바고, 베네수엘라 등 안데스, 카리브 지역 국가들이다.

표 2-16. 국별 · 소지역별 IDB 확대 우선희망사업

국가 · 지역	인프라	교육, 보건, 사회안전	공공부문 현대화	시장 · 민간 기업 개발	경제정책 개혁	사회정책 개혁	재정 · 국제 수지
아르헨티나	86	77	73	68	50	77	27
바하마	70	80	60	40	30	60	10
바베이도스	100	83	50	83	50	50	17
벨리세	73	82	82	55	55	73	36
볼리비아	82	100	73	55	36	82	36
브라질	93	86	86	71	29	71	43
칠레	45	85	92	77	15	69	15
콜롬비아	74	65	70	74	48	48	30
코스타리카	86	100	93	64	50	64	36
에콰도르	79	79	79	43	79	79	50
엘살바도르	87	80	87	80	87	73	40
과테말라	77	92	92	92	62	77	38
가이아나	90	70	80	80	70	60	50
아이티	100	86	100	86	57	57	57
온두라스	92	67	83	75	58	67	58
자메이카	90	70	80	50	70	70	40
멕시코	75	88	75	69	50	69	38
니카라과	100	100	82	91	45	64	64
파나마	93	80	93	73	60	73	27
파라과이	58	83	100	100	67	75	33
페루	81	81	100	75	63	81	75
도미니카공	73	100	91	73	82	91	27
수리남	57	57	71	71	86	71	43
T&T	62	85	62	69	46	85	38
우루과이	92	75	75	75	42	67	17
베네수엘라	78	89	78	72	67	83	44
지역1	77	83	82	74	40	74	29
지역2	84	86	85	71	59	70	39
지역3	77	77	76	70	62	70	45

자료: Bassi(20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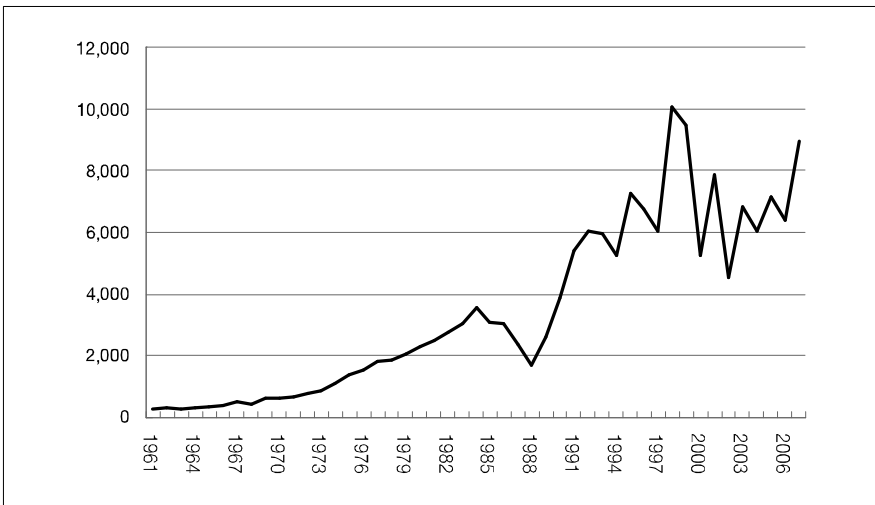
## 다. 국제개발은행으로서 IDB의 위상

### 1) 지원규모 비교

IDB는 중남미 최대 개발은행으로서 확고한 위치를 갖고 있다. 2000년대 들어 IDB는 세계은행을 제치고 중남미 최대 개발은행으로 부상했다. 2006년 일시적으로 세계은행에 1위 자리를 내주는 했으나 2007년 다시 수위 자리를 차지했다.

그림 2-3. IDB의 연도별 대출 추이

(단위: 백만 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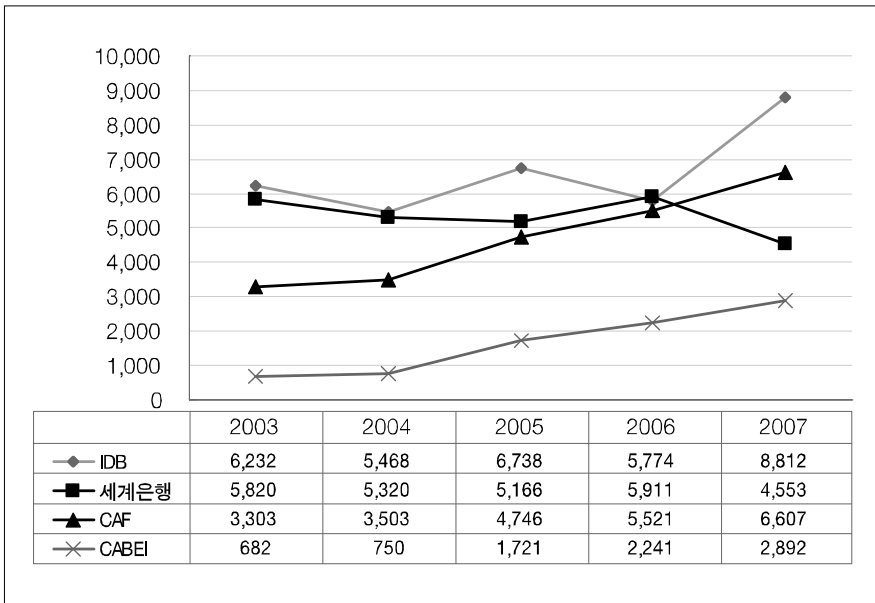
자료: IDB, "Annual Report," 각년호

IDB의 대중남미 지원규모는 1990년대 후반 이후 감소세를 나타내 2004년에는 55억 달러까지 떨어졌으나 2007년 다시 88억 달러로 증가했다. 타 개발은행 중에서는 안데스개발공사(CAF)가 빠른 속도로 대출을 늘려 2007년에는 세계은행을 제치고 중남미 2대 개발금융지원기관으로 부상했다. 중미개발은행인 CABI도 2000년대

들어 지원을 신속히 확대해 2007년 지원규모는 2003년에 비해 3배 이상 증가했다.

그림 2-4. 주요 다자기구(MDB)의 중남미 대출 추이

(단위: 백만 달러)



자료: 각 개발은행의 Annual Repor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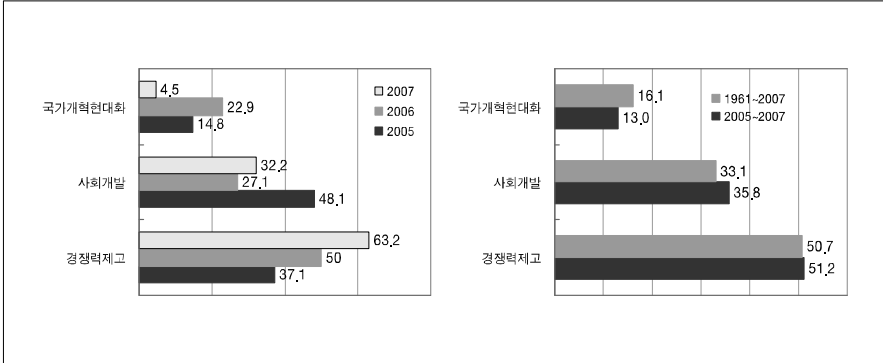
## 2) 지원분야 비교

IDB는 국가 개혁 및 현대화, 사회개발, 경쟁력 제고 등 3대 분야를 중점지원분야로 선정해 지원해오고 있다. 전통적으로 IDB의 지원은 경쟁력 제고 부문에 가장 많이 집중되었으며 다음으로 사회개발, 국가 개혁 및 현대화였다. 그러나 최근 들어 국가 개혁 및 현대화 분야에 대한 지원이 감소한 반면, 경쟁력 제고, 사회개발에 대한 지원은 늘고 있다. 특히 사회개발에 대한 지원이 두드러진 증가세를 기록해 IDB 지원정책의 변화를 엿볼 수 있다.



그림 2-5. IDB의 주요 지원분야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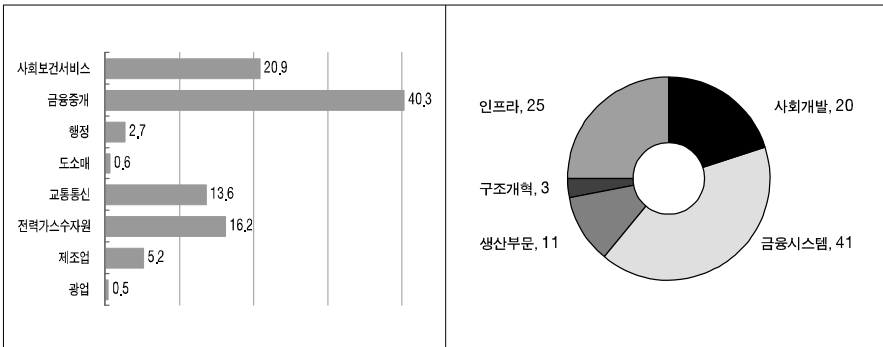


최근 빠른 대출 증가세로 중남미지역에서 IDB의 위상을 위협하고 있는 CAF의 경우 주요 지원분야(2007년 기준)는 금융시스템, 인프라, 사회개발 순이었다. IDB와 마찬가지로 경쟁력 제고에 대한 지원이 가장 컸으나, 상대적으로 국가개혁(구조개혁)에 대한 지원 비중은 작았다.

그림 2-6. CAF의 경제분야별 대출 비중

그림 2-7. CAF의 전략분야별 대출 비중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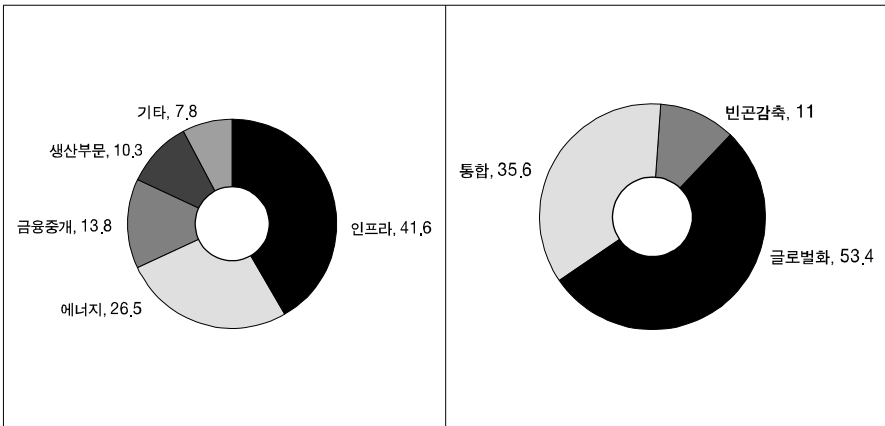
주: 2007년 기준.

자료: CAF.

중미개발은행의 경우도 인프라, 에너지, 생산부문 등 경쟁력 제고 부문에 대한 지원 비중이 절대적으로 높았다. 그에 반해 빈곤감축 등 사회개발분야에 대한 지원은 미미했다.

그림 2-8. CABI의 경제분야별 대출 비중      그림 2-9. CABI의 전략분야별 대출 비중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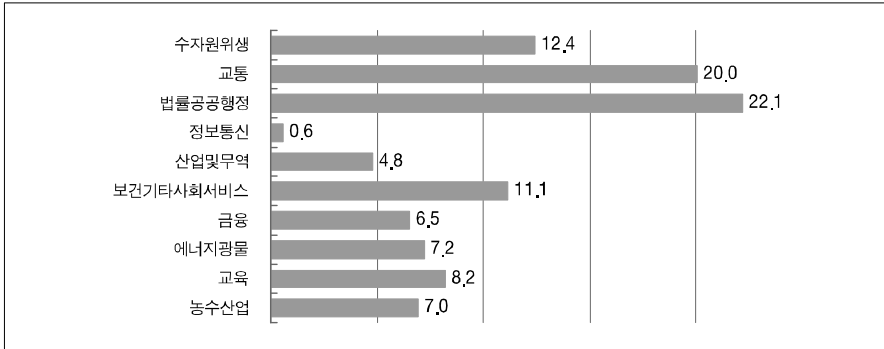


주: 2007년 기준.  
자료: CABI.

다음으로 세계은행의 대중남미 지원분야를 살펴보면 IDB와 마찬가지로 교통, 에너지광물, 농수산업, 산업 및 무역 등 경쟁력 제고 부문에 대한 지원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수자원위생, 보건서비스, 교육 등 사회개발분야에 대한 지원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한편 법률 공공행정, 정보통신 등 국가 개혁 및 현대화 부문에 대한 지원 비중은 가장 낮게 나타났다. 대체로 세계은행의 지원은 IDB와 유사한 양상을 띠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2-10. 세계은행의 대중남미 경제분야별 대출 비중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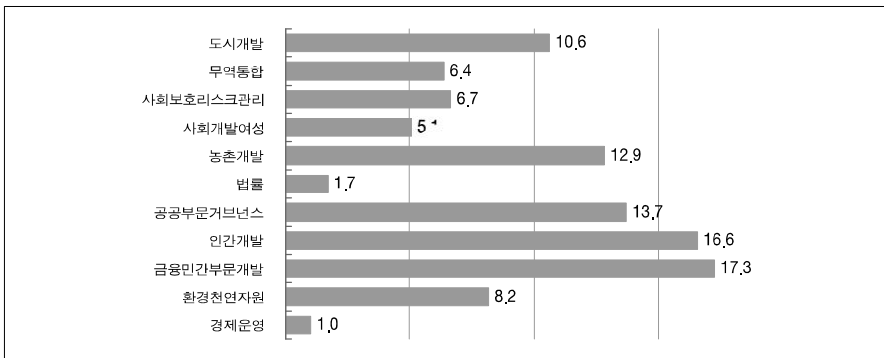


주: 2007년 기준.

자료: 세계은행.

그림 2-11. 세계은행의 대중남미 전략분야별 대출 비중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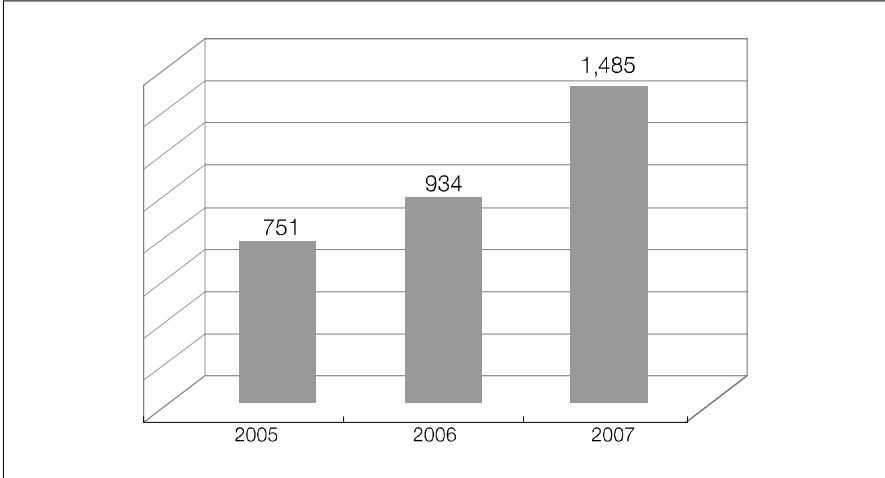
주: 2007년 기준.

자료: 세계은행.

마지막으로 아프리카지역의 대표적인 개발은행인 아프리카개발은행(AfDB)의 경우 지원규모는 IDB의 1/6 수준에 불과했다. 지원분야의 경우 전력, 교통, 통신 등 인프라부문에 대한 지원 비중이 절대적으로 높았다. 그에 반해 사회개발분야나 국가개혁분야에 대한 지원은 매우 미미했다.

그림 2-12. 연도별 AfDB의 지원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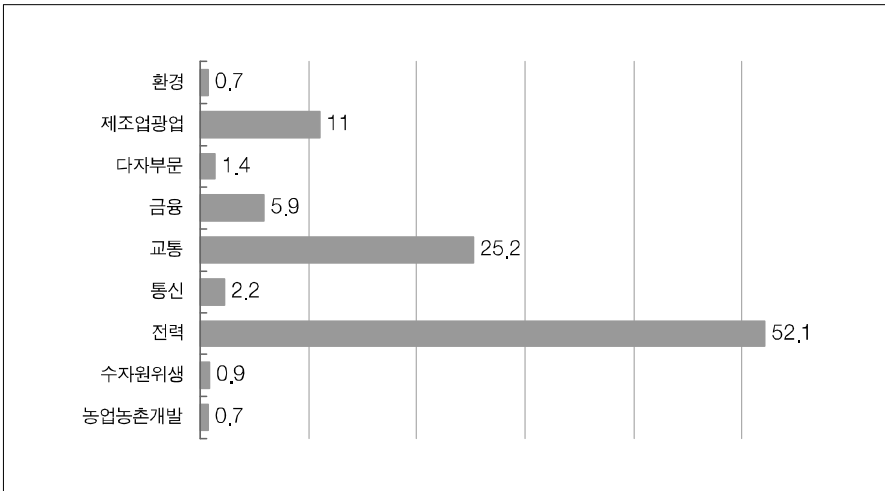
(단위: 백만 달러)



자료: AfDB.

그림 2-13. AfDB의 분야별 지원 비중

(단위: %)



주: 2007년 기준.

자료: AfDB.

### 3. IDB의 주요 활동과 중점사업

#### 가. IDB의 주요 활동

##### 1) 개요

IDB는 IDB 현장에 명시된 것처럼 모든 자체 자본을 활용하여 역내 수혜국의 발전을 지원하며, 발전계획 수립과 필요자금 조달, 계획 실행 등을 위해 기술협력을 제공한다.

표 2-17. IDB의 주요 활동

- 중남미와 카리브 지역의 공공 및 민간자본 투자 촉진
- 융자 및 지급보증을 통한 재원 운용
- 재원조달이 어려운 민간부문의 투자활동 보완
- 회원국간의 무역 확대와 개발정책 조화를 위한 협력 강화
- 발전계획과 사업계획의 수립·집행을 위한 기술협력 제공

##### 2) 공공부문 운용활동

##### 가) 대출업무

###### (1) 대출 대상

IDB 대출프로그램은 생산부문(농·목축업, 어업, 광업, 관광업, 과학기술), 사회간접자본부문(에너지, 통신, 운송), 사회부문(교육, 건강, 보건, 도시개발, 자연환경 보호, 중소기업 지원), 구조조정, 공공부문 개혁, 민영화 등 다양한 부문에 걸쳐 적용된다.

대출 우선순위사업은 △ 농업, 공업과 같은 산업부문 및 에너지, 교통, 통신 등 사회간접자본부문, 인력개발부문 △ 사회사업성이 강한 사업 △ 개발의 혜택이 역내 지역에 공평히 분배될 수 있는 사업 등이다.

## (2) 대출 종류

IDB가 채택한 대출의 종류는 기본적으로 네 가지이다. 먼저 특정한 개발프로젝트를 대상으로 한 공공부문 투자차관(Investment Loans)이다. 둘째, 상대국 정부와 합의한 정책 실행의 조건을 단, 즉 공공정책제도 및 경제사회부문 개혁 지원을 위한 정책차관(Policy-based Loans)이다. 셋째, 경제위기나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국가를 지원하기 위한 긴급차관(Emergency Loans)이다. 넷째, 정부보증 없이 직접 민간부문을 지원하기 위한 차관(Private Sector Loans)으로 에너지, 운송, 위생, 통신, 자본시장 개발, 수출금융 등을 주요 지원대상으로 한다.

## (3) 대출 조건

채원의 종류에 따라 상업베이스에 의한 OC 대출과 장기저리의 양허적 조건에 의한 특별운용기금(FSO), 신탁기금 대출로 구분하여 운용한다. OC에 의한 대출의 조건은 프로젝트 내용에 따라 4~5년 거치 15~25년 상환이며, 금리는 시장금리를 따른다. FSO에 의한 대출은 소프트론(soft loan)<sup>8)</sup>으로 5~10년 거치 25~40년 상환에 금리는 연 1~4%(10년 거치 이후에는 2% 이상)이다. 대출액은 해당 프로젝트 금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다.

8) 일반적으로 대부조건이 까다롭지 않은 차관을 말한다. 세계은행의 자매기구로 설립된 국제개발협회(IDA)는 차관 도입국의 현지통화로 상환하는 것을 인정하는 등 세계은행(IBRD)에 비해 간단하고 유리한 조건으로 대부해주고 있다. 아시아개발은행(ADB)도 이에 속한다.

#### (4) 대출 현황

IDB는 2005~08년 대출계획에 따라 투자차관의 대출한도를 206억 달러, 정책차관의 한도를 98억 달러, 긴급차관의 한도를 60억 달러로 조정했다. 지난 5년간(2003~07년) 연평균 대출규모는 62억 달러에 달했다. 대출 종류별로 공공부문 투자차관 대출은 최저 12억 달러에서 최고 57억 달러, 정책차관 대출은 8억 달러에서 17억 달러에 달했다. 긴급차관은 2003년에 3억 달러, 2004년에 2억 달러가 지원되었다.

#### 나) 기술협력

IDB 기술협력프로그램은 사회·경제 발전을 위한 차입회원국의 노력을 지원하는 중요한 수단이다. 기술협력프로그램은 ① 기술이전 ② 경영 및 제도적 능력 배양 촉진 ③ 효과적인 사업계획 작성 및 종합적 대출계획안 마련 등에 대한 비용과 투자에 대한 사전조사 부문별 연구를 위한 전문가 고용비용 지원 ④ 효과적인 프로젝트 디자인 ⑤ IDB 대출 프로그램 마련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지원된다. 또한 IDB는 기술협력 프로그램을 통해 자유무역 활성화 및 경제통합, 사회발전, 환경보호 등 중남미지역의 우선순위사업을 지원해오고 있다.

제8차 증자에서 기술협력프로그램 활용을 위한 새로운 지침이 마련되었다. 새로운 지침에 따른 IDB 기술협력프로그램은 ① 빈곤완화 노력 강화 ② 사회부문 내 우편 및 방송 서비스 개선 ③ 국가 현대화 및 개혁 추진 ④ 환경관리프로그램 지원 ⑤ 중소기업 발전 지원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IDB는 특별운영기금(FSO)과 각국에서 출연한 신탁기금을 활용하여 기술협력프로그램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한다. 이 프로그램의 주요 수혜국은 D그룹에 속한 저소득국으로 무상지원(Non-reimbursable funding)과 조건부지원(Contingent-recovery

resources) 등 두 가지 형태로 지원된다. 무상지원은 최빈국이나 금융시장 발달이 미약한 국가의 기술지원을 위해 IDB가 해당 국가에 보조금 형태로 지원하는 것이다. 그에 반해 조건부지원은 프로젝트 성사 시 IDB나 개별 차주로부터 금융지원이 가능한 경우에 지원된다. 조건부지원의 경우 차입자가 IDB 이외의 차주로부터 자금차입에 성공할 경우 해당 자금은 IDB에 반환해야 한다.

표 2-18. 차입국 경제규모에 따른 그룹 분류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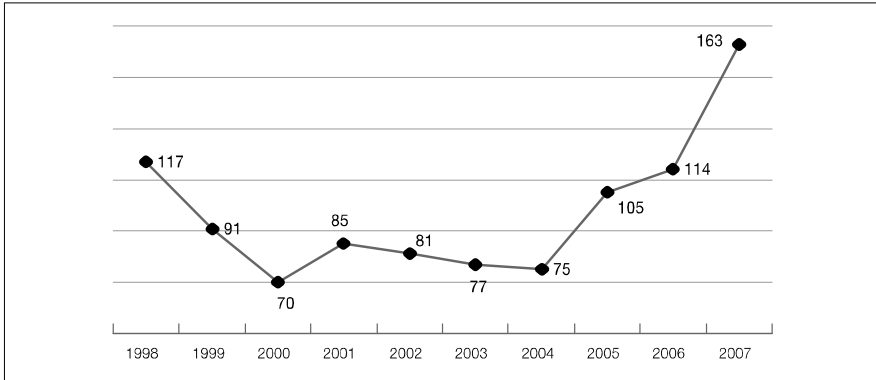
구분	A그룹	B그룹	C그룹	D그룹
분 류 국	아르헨티나	칠레	바하마	벨리세
	브라질	콜롬비아	바베이도스	도미니카공화국
	멕시코	페루	코스타리카	에콰도르
	베네수엘라		자메이카	엘살바도르
			파나마	과테말라
			수리남	파라과이
			트리니다드토바고	볼리비아
			우루과이	가이아나
				아이티
				온두라스
			니카라과	

기술협력기금의 규모는 2000년대 들어 크게 감소했으나 2005년 모레노 총재 취임 이후 큰 폭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2007년 지원규모는 2004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한 1억 6,300만 달러에 달했다.



그림 2-14. 기술협력기금 지원 추이

(단위: 백만 달러)



자료: IDB, "Annual Report," 각년호.

#### 다) 협조융자(cofinancing)<sup>9)</sup>

협조융자는 IDB의 자금력 보완, 상대국 정부가 부담해야 할 자기자본 대체 또는 대출조건 완화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다른 국제 금융기관 또는 각국의 공

9) 협조융자의 형태는 크게 평행융자, 결합(합동)융자의 두 종류로 나누어지며 이외 보조융자(Umbrella or Standby Financing), 매개융자(Channel Financing), 참여융자(Participation Financing) 등도 있다. 평행융자(parallel financing)는 프로젝트를 독립된 몇 개의 부분으로 분할하여 협조융자기관이 분담융자하는 형태로 지원되며, 참가기관은 상호 대등하고 독립적인 입장에서 차관조건, 구매절차 등을 결정하고 독립된 차관계약(Loan Agreement)을 작성하게 된다. EDCF 차관과 같이 구속성차관(Tied Aid)으로 지원되는 경우 적합한 형태이다. 결합융자(Joint financing)는 프로젝트를 독립된 부분으로 분할하지 않고 협조융자기관 간에 일정 용자비율만을 정해두고 이에 따라 융자하는 형태이다. 기본적으로 세계은행(IBRD)이나 아시아개발은행(ADB) 등이 프로젝트를 주관하므로 이 기관들의 구매가이드라인에 따라야 한다. 협조융자의 추진절차는 국제금융기구로부터 협조융자 사업에 대한 정보 및 제안서를 접수받은 후 차주 및 국제금융기구와 지원규모 및 지원조건 등에 대하여 협의한 후 이에 동의하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국제금융기구의 협조융자 사업리스트는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입수할 수 있다. 협조융자는 차주국 입장에서는 ① 국제금융기구의 재원만으로 부족한 자금조달 가능, ② 국제기구 및 공여국과의 협력관계를 강화할 수가 있으며,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는 ① 자체 재원만으로 지원이 부족한 대형사업의 지원이 가능하고, ② 국제금융기구의 사업타당성 보고서 및 개도국 정부와의 협력채널 확보, ③ 유망 프로젝트 정보 입수로 인한 사업 발굴 및 관리가 용이한 점 등을 들 수가 있다(한국수출입은행 홈페이지).

공 금융기관의 참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차입국의 경제규모에 따라 각 프로젝트 비용에 대한 IDB 대출의 상한율이 결정 되는데, A그룹의 상한율은 50%이고, B그룹은 60%, C그룹은 70%, D그룹은 80% 이다.

2007년 IDB 협조용자규모는 26억 달러에 달했다. 이 중 다자기구가 23억 달러, 쌍무간 협조용자는 3억 달러에 그쳤다. 전통적으로 IDB의 주요 협조용자 대상기관 은 세계은행으로 2007년에만 그 규모가 10억 달러(6개국 12개 프로젝트)에 달했 다. 안데스개발공사(CAF)의 경우 2007년에만 12억 달러(5개국 8개 프로젝트)를 협 조용자해 다자기구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주요 지원분야는 안데스지역의 인 프라 개발이었다. 이외에 OPEC Fund, 중미개발은행(CABEI), 글로벌환경기금(Global Environment Fund) 등도 주요 협조용자기관(Cofinancier)으로 등장했다.

표 2-19. 2007년 IDB 협조용자 현황

(단위: 백만 달러)

	협조용자기관(Cofinancier)	금액
다자기구	안데스개발공사(CAF)	1,185.00
	중미개발은행(CABEI)	52.50
	글로벌환경기금(GEF)	9.96
	OPEC	40.00
	World Bank(IBRD/IDA)	1,037.03
	소계	2,324.49
쌍무간	Germany-Kreditanstalt Fur Wiederaufbau(KfW)	50.00
	JBIC(Japan Bank for International Cooperation)	161.00
	CIDA(Canadian International Development Agency)	6.00
	U.S. Millennium Challenge Corporation(US MCC)	101.20
	소계	318.20
	IDB관리 무상협조용자(COFABs)	0.57
	총계	2,643.26

## 라) 신탁기금(Trust Fund)

신탁기금은 중남미 국가의 지속가능한 개발을 지향하는 IDB 금융지원활동의 중요한 수단이다. 특히 신탁기금은 IDB 기술협력프로젝트의 가장 큰 재원이다.

1961년 미국이 IDB에 처음으로 출연해 설립된 신탁기금은 이후 캐나다, 유럽, 이스라엘, 일본, 중남미 주요국 등이 참가해 2007년 말 현재 42개 신탁기금(21개국 출연)이 운영되고 있다. 특히 1991년을 기점으로 일본의 기금출연규모가 크게 확장되었다. 1992~2003년 일본특별기금(Japan Special Fund)의 지원을 받은 기술협력 프로젝트는 전체 기술협력프로젝트의 42%에 달했다.

IDB 신탁기금은 1991년 작성된 기술협력기금 프로그램에 의거해 운영되고 있다. 기술협력프로그램은 중·단기 컨설팅 비용 마련 외에도 장학금 및 세미나, 워크숍, 국제회의와 같은 교육활동을 위해 사용된다.

회원국간 기술협력 촉진을 주목적으로 하고 있는 기술협력기금 프로그램은 △ 회원국간 상호 기술협력 및 경험교류의 기회 증진 △ 기술협력에 대한 IDB 대충능력 강화 △ 선진국의 경험과 지식에 대한 접근을 통해 해외 전문지식 교류의 확대 및 다양화에 대한 조력 △ 역내 차입국에서 투자 사전활동 및 IDB 대출 실행, 정책의 부문별 조정과 이행 제도 강화 등을 지원하는 선진국의 제도적·인적·물적 자원의 효율적 사용 장려 △ 여러 회원국가와 국제기구 내 공공 또는 민간 연구소 간의 연계 확립 △ 모든 회원국가 내 기업 통합 및 민간자본 결합, 무역의 확대 등 촉진 △ 공동투자기회 마련을 위한 새로운 기회 촉진 △ 공여국의 경제·사회 발전과정에 참여할 기회 증진 등의 세부목적을 갖고 있다.

신탁기금의 종류는 크게 컨설턴트 펀드와 프로그램 펀드로 나뉜다. 컨설턴트 펀드는 공여국(donor country)이 선정한 우선지원분야(인프라 개발, 국가현대화, 민간 부문 지원 등)에 투입되는 자금으로 공여국의 기술이전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그에 반해 프로그램 펀드는 빈곤감소, 교역증진, 재활용에너지, 토착민, 환경, 과학 기술, 사회통합 등 IDB의 각종 지원프로그램을 강화하는 데 주로 사용된다.

2007년 말 현재 운영 중인 신탁기금의 총 누계액은 11억 6,740만 달러이다. 2007년 IDB는 총 1억 6,780만 달러의 기술협력자금을 무상으로 지원했는데, 이 중 5,150만 달러가 신탁기금 재원이었다. 2007년 신탁기금 재원 중에서는 일본 신탁기금이 2,300만 달러로 가장 컸으며, 다음으로 한국(600만 달러), 스페인(480만 달러) 순이었다.

최근 역외 회원국에 의해 마련된 FSO가 고갈되고, 또 IDB 자체 운용예산도 엄격히 관리되고 있기 때문에 승인과정도 신속하고 무상으로 지급되는 기술협력 자금원으로서 신탁기금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표 2-20. 국별 IDB 신탁기금 운영 현황

(단위: 백만 달러)

국가명	신탁기금명	금액
오스트리아	Ausrian Technical Cooperation Trust Fund	1
	IDB Disaster Assistance and Reconstruction Fund	4.1
벨기에	Belgian Trust Fund for Consultants	3.1
캐나다	IDB-Canada Trade Fund	4.7
칠레	Chilean Trust Fund for Learning from International Best Practices	0.5
	Chilean Trust Fund for Supporting Technological Innovation in Central America	0.2
덴마크	Danish Consultants Fund	2.8
핀란드	Finnish Technical Assistance Program	2.4
프랑스	French Technical Cooperation Fund for Consultancy and Training Activities	19.5
이스라엘	Israeli Consultant Trust Fund	0.7
이탈리아	Italian Consulting Firms and Specialised Institutions Fund	15.8
	Italian Individual Consultant Trust Fund	7.2
	Italian Trust Fund for MIF Project Preparation	3.2

표 2-20. 계속

국가명	신탁기금명	금액
이탈리아	Italian Trust Fund for Microenterprise Development	8.8
	Italian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Fund	7
	Italian Fund for Cultural Heritage and Sustainable Development	2.1
일본	Japan Special Fund	225
	IDB Graduate Scholarship Program	34.1
	Japanese Trust Fund for Consulting Services	39.8
일본·한국·스페인	Multidonor Disaster Prevention Trust Fund	6.8
한국	Knowledge Partnership Korea Fund for Technology and Innovation	25
	Korea Poverty Reduction Fund	23.8
네덜란드	Partnership Program in Environment	7
	Netherlands Water Management Partnership Program	8.1
노르웨이	Norwegian Fund for Microenterprise Development	1.9
	Anticorruption Activities Trust Fund	1.7
	Norwegian Consulting Services Trust Fund	1
노르웨이·캐나다	Social Capital, Ethics and Development	1.8
	Gender Mainstreaming Trust Fund	6.2
노르웨이·영국·캐나다	Social Inclusion Fund	6.6
포르투갈	Portuguese Technical Cooperation Fund	1.6
스페인	Spanish Framework-General Cooperation Fund	41.8
	Spanish Fund for Consultants(ICEX)	13.8
스웨덴	Swedish Framework-Sida-IDB Partnership Program	5.5
	Swedish Trust Fund for Consulting Services and Training Activities	3.1
스위스	Swiss Consultants Fund	5.2
영국	Markets and Governance for Poverty Reduction Trust Fund	4.5
	Trade and Poverty Trust Fund	1.3
미국	Social Progress Trust Fund	525
지역차원	Indigenous Peoples' Fund	18.8
	Regional Fund for Agricultural Technology(FONTAGRO)	52.3
세계은행	IDB/Global Environment Facility	22.6
총 계		1,167.4

## 2) 민간부문 운용활동

### 가) IDB의 민간부문 지원

중남미 각국의 민간부문 발전을 위해 IDB가 행하고 있는 지원은 크게 직접지원과 간접지원으로 나눌 수 있다. 먼저 직접지원을 위한 창구로는 미주투자공사(IIC), 다자투자기금(MIF), 구조화금융 및 기업금융국(Structured and Corporate Financing Department)이 있다. 이 3개 창구는 2006년 IDB 조직 개편으로 신설된 민간부문 및 정부보증의운영 부총재부(Vice-president of Private Sector and Non-sovereign Guaranteed Operations)가 관장하고 있다.

간접지원은 민간부문의 투자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데, 해당국의 거시경제 정상화, 정부개혁 및 공공부문 민영화, 무역자유화 등의 투자환경 조성을 위하여 IDB는 다음과 같이 지원한다. 먼저 해당국의 거시경제 또는 각 사업부문이 안고 있는 문제점을 찾고 그 대책을 마련하여 제안한다. 둘째, 각종 개혁 실시를 위한 구조조정 대출, 정책 대출 등을 실시한다. 셋째,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투자를 위한 프로젝트 및 금융 마련, 즉 해당 국가의 금융시스템에 민간자금을 공급하기 위한 Two-step loan을 실시한다.

표 2-21. 각 다자간 개발은행의 원조창구

	시장금리 대출창구	양허금리 대출창구	민간부문 원조창구	투자보증창구
세계은행	IBRD	IDA	IFC	MIGA
ADB	ADB	ADF	ADB 내부	-
IDB	IDB	FSO	IIC	-
AfDB	AfDB	AFDF	-	-
EBRD	EBRD	-	EBRD 내부	-

## 나) 조달 프로그램 및 시장

IDB는 중남미 차입국이 저렴한 가격에 최고의 상품과 용역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조달(Procurement) 정책과 절차를 마련하여 운영 중이다. 조달 정책과 절차는 회원국 기업들이 IDB 관련 사업계약을 놓고 경쟁할 때 투명하고 공정한 입찰을 보장하고, 상품과 용역이 공개적이고 경쟁적인 입찰과정을 통해 구매되며, 국제공개 입찰을 통해 계약이 체결됨을 규정한다. IDB 프로젝트 관련 각종 조달계약은 연간 약 4,000건에 이르며, 계약의 공급자는 IDB 회원국 기업으로 한정되어 있다. 또한 조달절차, 공급자 결정 및 조달 개시의 책임은 전부 차입국(프로젝트 실시국)에 있지만, IDB가 작성한 지침과 권고를 수용해야 한다. 대부분의 IDB 지침은 국제관례에 따른 것으로 다른 국제기관의 규칙 등과 기본적으로 동일하다.

IDB 본부에 있는 조달운영실(Operations Procurement Office)은 IDB 조달정책에 대한 역할 및 절차를 명시하고, IDB 조달규정의 적용을 담당하는 집행기관(executing agencies)에 대한 지원과 교육을 실시한다.

IDB 조달위원회(Procurement Committee)는 IDB 조달 정책 및 절차를 검토하고 감독하는 운영위원회 수준의 부처간 위원회로 IDB 관련 프로젝트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심각한 조달상의 문제 해결을 책임진다.

표 2-22. IDB 조달시장 현황(2005~07년)

(단위: 백만 달러, %)

	정책차관 조달시장(A)			투자차관 조달시장(B)			총 조달시장(A+B)				
	2005	2006	2007	2005	2006	2007	2005	2006	2007	05-07 합계	비중
아르헨티나	74.9	54.6	68.7	469.4	499.1	1003.1	544.3	553.7	1071.8	2169.8	12.3
바하마스				4.2	6.6	7	4.2	6.6	7	17.8	0.1
바베이도스	0.4	0.1	0.1	6.6	7	11.6	7	7.1	11.7	25.8	0.1
벨리세				2.6	1.1	4.1	2.6	1.1	4.1	7.8	0.0
볼리비아	9.6	16.9	16.7	76.6	52	48.9	86.2	68.9	65.6	220.7	1.3
브라질	165.3	339.6	312.1	1022.3	1370.7	1738.9	1187.6	1710.3	2051	4948.9	28.1
칠레	42.9	59.2	66	107.6	67.7	36.4	150.5	126.9	102.4	379.8	2.2
콜롬비아	34.5	50.3	38.6	194.3	311.8	247.9	228.8	362.1	286.5	877.4	5.0
코스타리카	4.3	10.5	7.7	20.3	23.9	13.6	24.6	34.4	21.3	80.3	0.5
도미니카공				59	50.3	47.7	59	50.3	47.7	157	0.9
에콰도르	36.6	52.8	56.2	38.2	69.8	89.3	74.8	122.6	145.5	342.9	1.9
엘살바도르	0.4		6	42.2	66.3	52.5	42.6	66.3	58.5	167.4	1.0
과테말라	6.5	9.2	8.3	34.8	64.3	101	41.3	73.5	109.3	224.1	1.3
가이아나	0.1	0.1		17.5	23.2	24.8	17.6	23.3	24.8	65.7	0.4
아이티				27.1	54.8	93.7	27.1	54.8	93.7	175.6	1.0
온두라스		2.4	3.9	52	26.5	37.2	52	28.9	41.1	122	0.7
자메이카			0.2	12.3	14.3	19.7	12.3	14.3	19.9	46.5	0.3
멕시코	46.8	110.3	118.1	625.9	633.4	617.5	672.7	743.7	735.6	2152	12.2
니카라과	1.3	1.5	0.9	97.8	76.7	61.6	99.1	78.2	62.5	239.8	1.4
파나마	0.5	1.3	1.5	44.1	62.5	70	44.6	63.8	71.5	179.9	1.0
파라과이	27.9		9	58.8	78.4	65.2	86.7	78.4	74.2	239.3	1.4
페루	7.5	20.4	19	125.6	158.9	78	133.1	179.3	97	409.4	2.3
수리남				4.3	7.4	15.6	4.3	7.4	15.6	27.3	0.2
T&T		10.8	8.7	50.2	25.1	42.5	50.2	35.9	51.2	137.3	0.8
우루과이	3.7	8.1	6	43.7	55.9	40.8	47.4	64	46.8	158.2	0.9
베네수엘라	19.4	47.8	21.5	60.3	79.7	148.4	79.7	127.5	169.9	377.1	2.1
차입국 총계	482.6	795.9	769.2	3297.7	3887.4	4717	3780.3	4683.3	5486.2	13949.8	79.3



표 2-22. 계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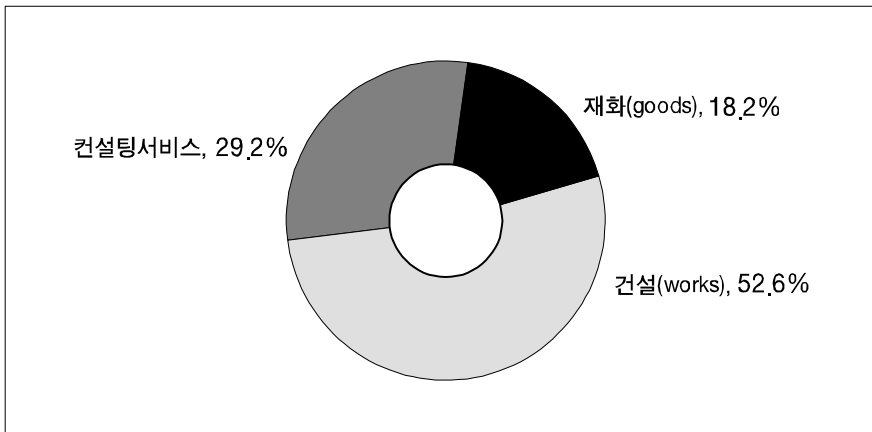
	정책차관 조달시장(A)			투자차관 조달시장(B)			총 조달시장(A+B)				
	2005	2006	2007	2005	2006	2007	2005	2006	2007	05~07 합계	비중
오스트리아	3.2	5.1	7	0.8	1.3	0.4	4	6.4	7.4	17.8	0.1
벨기에	9.8	15.6	15.8	1.3	0.1	0.1	11.1	15.7	15.9	42.7	0.2
캐나다	19.2	29.7	38	9	4.9	8.5	28.2	34.6	46.5	109.3	0.6
크로아티아		0.2					0	0.2	0	0.2	0.0
덴마크	3.3	4.7	3.9	0.9	2.8	0.4	4.2	7.5	4.3	16	0.1
핀란드	4.6	11.1	10.8			0.5	4.6	11.1	11.3	27	0.2
프랑스	26.9	38.9	40.6	4.1	5.9	0.9	31	44.8	41.5	117.3	0.7
독일	52	79.9	92.1	10.3	5.1	2.7	62.3	85	94.8	242.1	1.4
이스라엘	3.8	6.8	7.2	0.7	0.3	0.1	4.5	7.1	7.3	18.9	0.1
이탈리아	31.1	44.2	45.7	5.7	2.8	3.1	36.8	47	48.8	132.6	0.8
일본	54.5	95.6	84.5	2.2	2.7	3.1	56.7	98.3	87.6	242.6	1.4
한국	32.4	59.7	72	0.1	0.2	0.2	32.5	59.9	72.2	164.6	0.9
네덜란드	11.9	27.6	23.7	0.3	0.6	0.5	12.2	28.2	24.2	64.6	0.4
노르웨이	1.6	2.7	2.8	0.4			2	2.7	2.8	7.5	0.0
포르투갈	1.1	1.5	2	2.6			3.7	1.5	2	7.2	0.0
슬로베니아	0.2	0.3	0.4				0.2	0.3	0.4	0.9	0.0
스페인	31.6	42.9	45.2	18.5	36.5	13.2	50.1	79.4	58.4	187.9	1.1
스웨덴	8.3	12.4	12.9	0.4	1	0.7	8.7	13.4	13.6	35.7	0.2
스위스	12.2	18.2	15.7	2.9	6.1	12.1	15.1	24.3	27.8	67.2	0.4
영국	17.7	22.4	22.6	12.9	4.9	7.3	30.6	27.3	29.9	87.8	0.5
미국	508	511.9	760.8	78.6	101.2	94	586.6	613.1	854.8	2054.5	11.7
유고슬라비아							0	0	0	0	0.0
비차입국 총계	833.4	1031.4	1303.7	151.7	176.4	147.8	985.1	1207.8	1451.5	3644.4	20.7
총계	1316	1827.3	2072.9	3449.4	4063.8	4864.8	4765.4	5891.1	6937.7	17594.2	100.0

자료: IDB, "Annual Report," 각년호.

최근 3년간(2005~07년) IDB의 연평균 조달시장 규모는 59억 달러로 차입국이 전체 조달시장의 79.3%를 차지하고 있다. 그에 반해 비차입국의 IDB 조달시장 참여 비중은 20.7%에 불과하다.

IDB 조달시장은 크게 정책차관 조달시장과 투자차관 조달시장으로 구분된다. 평균적으로 정책차관 조달시장(2007년 21억 달러)은 투자차관 조달시장(49억 달러)의 1/2 규모이다.

그림 2-15. 분야별 IDB 조달시장 현황(2005~07년 누계 기준)



자료: IDB, "Annual Report," 각년호

분야별로 IDB 조달시장은 건설·토목분야가 전체의 52.6%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다음으로 컨설팅서비스가 29.2%, 재화 조달이 18.2% 순이다.

## 나. IDB의 중점지원사업<sup>10)</sup>

### 1) 지속가능에너지 및 기후변화사업

IDB는 2007년 3월 고유가 및 기후변화에 대한 환경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지속가능에너지 및 기후변화사업(SECCI: Sustainable Energy and Climate Change Initiative)을 승인했다. 이 사업의 목적은 △중남미지역에서 재생에너지자원의 개발과 사용 확대 △에너지효율성 기술개발 장려 △카본 파이낸스(carbon finance) 사용 확대 △기후변화 도전에 대응 △중남미지역의 기후변화 취약성 축소를 위한 전략도입 장려 △금융 지원 확대 등을 골자로 한다.

이 같은 목표 달성을 위해 IDB는 SECCI 활동을 수행하고 조정할 새로운 팀을 조직했으며 2,000만 달러 규모의 기금(SECCI IDB Fund)을 조성한 데 이어, 영국으로부터 200만 달러를 지원받아 SECCI 다자공여국기금(Multi-donor Fund)을 설립했다. 현재 여러 공여국과 추가적인 기금 조성을 협상 중이다.

SECCI의 지원은 현재 중남미 각국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 멕시코에서 SECCI는 기후변화의 경제적 영향에 대한 보고서 작성을 지원하는 등 기후변화 전략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SECCI는 멕시코만(Valley of Mexico) 하수처리시설의 카본 파이낸스 잠재력 연구, 멕시코시티(Mexico City) 보르도 폰니엔테(Bordo Poniente) 매립지 가스 저장 및 전력생산프로젝트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재생에너지분야에서 SECCI는 온두라스의 농촌 전력사업, 코스타리카의 풍력발전사업, 엘살바도르의 바이오연료 부서 설립 지원 등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니카라과, 엘살바도르, 콜롬비아 등에서는 워터펌프시스템(water pump system) 에너지효

10) 여기서는 2005년 모레노 총재 취임 이후 새롭게 추진되고 있는 사업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율성 프로그램 수립을 지원하는 한편 클린턴재단(Clinton Foundation)과 공동으로 멕시코에서는 공공건물 에너지효율성을 지원하고 있다. SECCI가 주목하고 있는 사업은 칠레에서 주택의 에너지효율성과 브라질에서 공공교통프로젝트에 카본 파이낸스의 도입이다.

IDB는 개발 국가차원은 물론 중남미지역 차원의 바이오연료 활동도 지원하고 있다. 지역차원의 대표적인 협력사업으로 IDB는 브라질의 제툴리우바르가스재단(Fundacao Getulio Vargas)과 공동으로 바이오연료 개발 청사진 사업을 지원해오고 있다.

## 2) 인프라통합기금(FIRII: Fund for Infrastructure Integration)

FIRII는 2005년 인프라통합 프로젝트의 준비를 지원하기 위한 무상기금 성격으로 탄생했다. 특히 그 중에서도 남미인프라통합사업(IIRSA)<sup>11)</sup>과 푸에블라-파나마 계획(PPP)<sup>12)</sup>을 지원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설립초기 기금규모는 2,000만 달러에 불과했으나 2008년 12월 10일 IDB 이사회의 승인으로 2010년 4,000만 달러까지 확대되게 되었다.

FIRII는 IIRSA 및 PPP와 관련된 기술적, 경제적, 법적, 재정적, 제도적 타당성 검토사업에 150만 달러까지 지원할 수 있다.

---

11) 남미 12개국이 주축이 되어 2005년부터 남미대륙을 10개의 인프라통합개발허브(IDH)로 구분, 교통, 통신, 에너지 분야의 인프라통합사업 추진 총 프로젝트 규모는 374억 달러로 에너지분야 200억 달러, 교통분야 174억 달러 순이다.

12) 멕시코 남부와 중미 7개국(벨리세, 과테말라,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니카라과, 코스타리카, 파나마) 등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의 인적자본과 도로, 전력, 송유관, 통신망 등의 인프라 개발을 통해 이 지역의 발전과 통합을 추구하는 대단위 지역개발계획이다. 2001년 멕시코 대통령의 발의로 시작, 2007년부터 본격 추진하고 있다. 주요 투자분야(투자비중)는 도로인프라 76.4%, 에너지 11.1%, 보건 4.6%, 농촌개발 3% 순이다.

FIRII 기술협력사업 집행기관은 IDB 차입국의 정부나 공공기관 또는 중남미 지역차원의 기구에 국한된다. 모든 신청기관은 차입금에 상응하는 기금을 출연해야 한다. 2008년 말까지 총 16건, 1,610만 달러가 14개 인프라프로젝트에 지원되었다.

### 3) 무역을 위한 원조기금(Aid for Trade Strategic Fund)

IDB는 2008년 11월 중남미 국가들의 글로벌 경제통합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무역을 위한 원조기금(Aid for Trade Strategic Fund)을 설립했다. 이 기금은 공급분야에서 제약요인을 해결함으로써 중남미 국가들이 무역자유화 및 시장접근 확대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영국정부는 이 기금 창설에 실질적인 지원을 약속했으며, 다른 공여국들도 기금 설립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다자기구에서 이 같은 기금을 설립한 것은 처음으로 평가받는다. 이에 따라 아시아개발은행(ADB)과 아프리카개발은행(AfDB)도 이와 유사한 사업의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대부분의 중남미 국가는 공급부문에서 심각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 따라서 이 같은 공급부문에서 문제가 해결될 경우 중남미 국가들은 경제성장과 빈곤감축의 수단으로 무역을 적극 활용할 수 있다. 그러나 아시아와 아프리카에 비교해 중남미 지역에 대한 무역 관련 ODA 지원은 지금까지 매우 작았다.

이 기금의 주요 지원은 ① 무역정책, 무역협상, 무역협정 체결 ② 무역원활화 및 민간부문의 발전 ③ 규정의 조화 및 운송비용 감축 등 물리적 인프라와 시장을 연계하는 사업 ④ 무역자유화 도입을 지원하기 위한 무역 관련 조정활동 등 네 분야로 대별된다.

#### 4) 대중기회사업

2006년 IDB는 대중기회사업(Opportunities for the Majority Initiative)이라는 새로운 개념의 사업을 도입했다. 이 사업은 2007년 6월 이사회에 의해 공식 승인되었다. 이 사업의 취지는 중남미지역 인구의 70%(3억 6,000만 명)에 해당하는 연소득 3,260달러 미만의 대중에게 경제성장과 지식의 혜택을 제공하지는 데서 출발했다. 이 사업은 거시적 접근보다는 미시적 접근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대중의 요구(needs) 해소를 위해 기업계, 정부, 시민사회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형태를 띠는 점에서 과거의 사업들과 차별성을 갖는다. 이 사업은 생산자이자 소비자로서 대중의 잠재력을 인정, 대중에게 효과적으로 경제적 삶에 참여하도록 지원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IDB는 네덜란드의 개발기관(SNV)과 공동으로 대중시장을 겨냥한 수백 개의 민간부문 사업을 발굴하고 있다. IDB는 또한 환경분야 연구기관인 World Resources Institute와 공동으로 혁신적인 사업모델을 개발 중에 있다.

2007년에 승인된 대표적인 사업으로 다자투자기금(MIF)은 멕시코 현지 마이크로 파이낸스 기관인 FinComun에 100만 달러를 무상지원했다. 이 프로젝트는 멕시코 전역에 45만 개의 소형상점 체인을 갖고 있는 FinComun에 마이크로 파이낸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 다. 중남미지역 수혜국의 IDB 활용 현황

#### 1) 중남미지역 수혜국의 IDB 자금 활용 현황

1961년 IDB가 공식 활동을 개시한 이래 2007년까지 IDB의 중남미 회원국들에



공화국(73.8%), 아이티(73.7%), 파라과이(72.9%) 순이다. 반대로 IDB 자금 의존이 낮은 국가들은 베네수엘라(30.4%), 브라질(33.8%), 멕시코(39.5%), 칠레(42.7%)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국별로 IDB 대출은 브라질이 전체의 19.8%로 가장 많았으며, 그 뒤를 아르헨티나(16.3%), 멕시코 (13.2%), 콜롬비아(8.9%), 페루(5.6%)가 이었다.

표 2-23. IDB의 국별 대출 현황

(단위: 백만 달러, %)

국가	총 프로젝트 비용					IDB 대출					IDB 대출 비중 <sup>1)</sup>		국별 비중 <sup>2)</sup>	
	연도별			기간별		연도별			기간별		05~07	61~07	05~07	61~07
	2005	2006	2007	05~07	61~07	2005	2006	2007	05~07	61~07				
아르헨티나	1,548	2,178	3,059	6,785	50,301	1,078	1,626	2,484	5,188	25,448	76.5	50.6	23.1	16.3
바하마스	44	1		45	597	36	9		44	386	98.2	64.6	0.2	0.2
바베이도스	6	12	7	24	778	4	1	5	10	398	42.4	51.2	0.0	0.3
벨리세		25		25	170		25		25	112	100.0	66.0	0.1	0.1
볼리비아	54	163	87	303	6,276	48	153	84	286	3,832	94.2	61.1	1.3	2.5
브라질	2,113	1,824	5,185	9,122	91,272	675	516	1,664	2,854	30,858	31.3	33.8	12.7	19.8
칠레	96	667	237	999	13,366	41	213	119	373	5,709	37.3	42.7	1.7	3.7
콜롬비아	1,459	775	1,246	3,480	26,170	601	620	771	1,992	13,826	57.2	52.8	8.9	8.9
코스타리카	226	83	778	1,087	4,761	132	70	535	737	3,051	67.8	64.1	3.3	2.0
도미니카공	60	184	126	370	4,211	55	181	81	317	3,110	85.6	73.8	1.4	2.0
에콰도르	641	514	607	1,763	9,467	103	327	488	918	5,161	52.1	54.5	4.1	3.3
엘살바도르	342	103	2	447	4,537	211	103	2	315	3,123	70.6	68.8	1.4	2.0
파테말라	24	240	240	504	4,691	19	239	215	473	3,164	93.8	67.4	2.1	2.0
가이아나	2	122	34	158	1,306	2	117	33	151	1,107	95.9	84.7	0.7	0.7
아이티	218	101		319	1,774	202	100		302	1,307	94.7	73.7	1.3	0.8
온두라스	70	129	141	340	4,743	63	126	97	286	2,969	83.9	62.6	1.3	1.9
자메이카		5		5	2,380		5		5	1,815	100.0	76.2	0.0	1.2
멕시코	3,943	1,510	750	6,203	51,983	2,050	387	650	3,087	20,554	49.8	39.5	13.7	13.2
니카라과	91	146	115	352	3,872	85	133	90	308	2,604	87.6	67.2	1.4	1.7
파나마	95	318	270	683	5,605	75	305	188	567	2,662	83.1	47.5	2.5	1.7
파라과이	46	780	71	897	3,123	45	257	64	366	2,277	40.8	72.9	1.6	1.5



표 2-23. 계속

국가	총 프로젝트 비용					IDB 대출					IDB 대출 비중 <sup>1)</sup>		국별 비중 <sup>2)</sup>	
	연도별		기간별			연도별		기간별			05~07	61~07	05~07	61~07
	2005	2006	2007	05~07	61~07	2005	2006	2007	05~07	61~07	05~07	61~07	05~07	61~07
페루	559	358	4,597	5,514	18,969	345	565	941	1,851	8,773	33.6	46.2	8.2	5.6
수리남	4		36	40	162	4		7	11	112	27.6	69.5	0.0	0.1
T&T	2	35		37	1,677	2	28		30	1,092	81.2	65.1	0.1	0.7
우루과이	273	218	115	605	5,659	268	191	102	561	4,329	92.7	76.5	2.5	2.8
베네수엘라	3,361	51	211	3,623	16,351	910	26	150	1,086	4,973	30.0	30.4	4.8	3.2
중남미지역	211	150	400	761	19,019	95	60	200	355	3,225	46.6	17.0	1.6	2.1
총계	15,487	10,691	18,313	44,491	353,219	7,148	6,381	8,970	22,499	155,977	50.6	44.2	100.0	100.0

주: 1) 총 프로젝트비용 대비 IDB 대출 비중, 2) IDB 대출에서 차지하는 국별 비중.

자료: IDB, "Annual Report," 각년호.

최근 3년간(2005~07년) IDB의 대출 추이를 살펴보면 총 프로젝트비용 중 IDB가 지원하는 비중이 크게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총 프로젝트비용 대비 IDB 대출 비중은 1961~2007년 기간 44.2%에서 2005~07년 기간에는 50.6%로 증가했다. 국별로는 이 기간에 아르헨티나가 가장 많은 IDB 대출자금을 활용(전체의 23.1%)한 것으로 나타났다.

### 3) 국별 IDB 기술지원 활용 현황

IDB의 중남미 회원국에 대한 기술지원은 무상형태로 회원국들의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해왔다. 1961~2007년 기간에 IDB의 중남미 회원국에 대한 기술협력 지원 규모는 24억 달러에 달했다. 국별로는 브라질에 대한 기술지원이 전체의 7.2%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다음으로 아이티 4.6%, 페루 4.0%, 볼리비아 3.7%, 니카라과 3.5% 순을 기록했다.

표 2-24. IDB의 국별 기술협력 지원 현황

(단위: 천 달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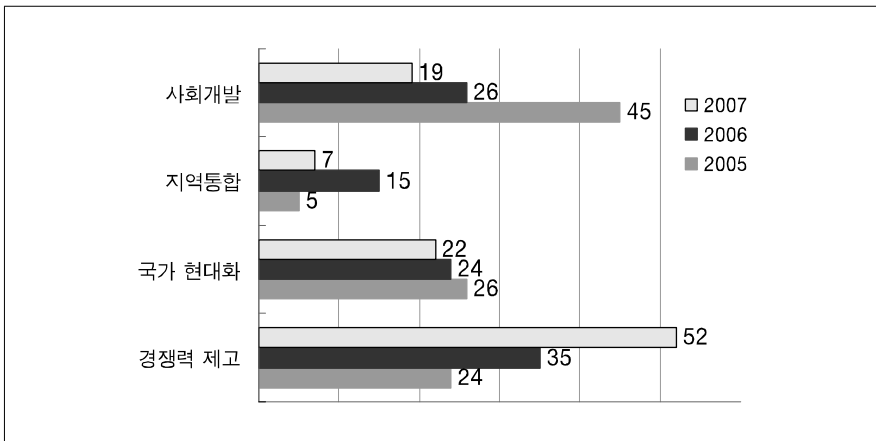
국가	연도별 지원규모			연평균 지원규모		연평균 비중	
	2005	2006	2007	2005~07	1961~2007	2005~07	1961~2007
아르헨티나	189	2,400	2,134	4,723	74,129	1.3	3.1
바하마스	445	222	25	692	18,996	0.2	0.8
바베이도스	148	33	627	808	21,846	0.2	0.9
벨리세	149	693	665	1,507	8,519	0.4	0.4
볼리비아	2,700	1,403	3,718	7,821	88,186	2.2	3.7
브라질	2,560	3,121	7,408	13,089	174,777	3.6	7.2
칠레	887	3,217	4,375	8,479	22,078	2.3	0.9
콜롬비아	1,937	10,046	4,651	16,634	75,463	4.6	3.1
코스타리카	1,056	3,206	3,489	7,751	55,350	2.1	2.3
도미니카공	1,602	639	2,409	4,650	59,566	1.3	2.5
에콰도르	3,735	5,474	3,479	12,688	80,034	3.5	3.3
엘살바도르	2,642	4,031	2,785	9,458	63,506	2.6	2.6
과테말라	4,906	3,259	5,959	14,124	70,228	3.9	2.9
가이아나	1,957	3,751	1,665	7,373	60,568	2.0	2.5
아이티	2,717	2,629	52,773	58,119	112,106	16.1	4.6
온두라스	2,594	3,125	2,772	8,491	77,437	2.4	3.2
자메이카	242	779	1,196	2,217	41,443	0.6	1.7
멕시코	2,000	1,525	7,873	11,398	36,635	3.2	1.5
니카라과	2,318	4,843	2,134	9,295	84,089	2.6	3.5
파나마	1,217	1,698	4,461	7,376	44,589	2.0	1.8
파라과이	2,081	2,642	2,708	7,431	71,544	2.1	3.0
페루	3,566	4,379	4,417	12,362	97,598	3.4	4.0
수리남	2,404	984	5,094	8,482	34,992	2.3	1.5
T&T	816	509	201	1,526	21,243	0.4	0.9
우루과이	814	3,654	1,657	6,125	37,970	1.7	1.6
베네수엘라	290	18	550	858	12,867	0.2	0.5
중남미지역	43,578	35,280	38,623	117,481	867,463	32.5	35.9
총계	89,552	103,562	167,848	360,962	2,413,222	100.0	100.0

자료: IDB, "Annual Report," 각년호.

최근 3년간(2005~07년) 기술지원 현황을 살펴보면 국별로는 아이티에 대한 지원이 전체의 16.1%를 차지해 단연 높았다. 다음으로 콜롬비아(4.6%), 과테말라(3.9%), 브라질(3.6%), 에콰도르(3.5%)가 그 뒤를 이었다. 분야별 기술협력 지원은 연도별로 차이가 두드러졌다. 2005년에는 사회개발에 대한 지원 비중(45%)이 단연 높았는데 반해 2006년과 2007년에는 경쟁력 제고 부문에 대한 지원 비중이 높았다.

그림 2-18. 분야별 기술협력 지원 현황

(단위: %)



자료: IDB, "Annual Report," 각년호

#### 4) 부문별 IDB 자금 활용 현황

1961~2007년 기간에 IDB의 중남미 회원국에 대한 부문별 지원 현황을 살펴보면 경쟁력 제고 부문에 가장 많은 관심이 집중되어왔음을 알 수 있다. 에너지, 교통통신, 생산적 인프라, 자본시장, 신용부문 등으로 구성된 경쟁력 제고 부문에 대한 총 지원은 791억 달러로 전체 지원의 50.7% 비중을 차지했다. 다음으로 하수처리, 도시개발, 교육, 사회투자, 보건, 환경, 영세기업 지원 등으로 구성된 사회개발부문

에 대한 총 지원은 517억 달러로 전체 지원의 33.1% 비중을 점했다. 그에 반해 국가 개혁 및 현대화 부문에 대한 지원은 총 지원의 16.1%에 불과했다. 단일부문 지원으로는 에너지부문에 대한 지원이 14.1%로 가장 컸으며 다음으로 사회투자 13.1%, 개혁 및 공공부문 지원 12.3%, 교통통신 11.6% 순을 기록했다.

최근 3년간(2005~07년) IDB의 부문별 지원 추이를 살펴보면 IDB의 중점지원사업에 변화가 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국가 개혁 및 현대화 등 제도개혁에 대한 지원 비중이 감소한 반면에 사회개발, 경쟁력 제고 부문에 대한 지원은 증가했다. 단일부문별로는 사회투자가 18.2%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에너지(15.5%), 교통통신(14.9%), 금융시장 개혁(8.1%)이 뒤를 이었다.

표 2-25. IDB의 주요 지원분야

(단위: 백만 달러, %)

	연도별 지원액			연평균 지원액		연평균 비중	
	2005	2006	2007	2005~07	1961~2007	2005~07	1961~2007
경쟁력 제고	2,652	3,190	5,673	11,515	79,107	51.2	50.7
에너지	1,123	1,044	1,325	3,493	21,934	15.5	14.1
교통통신	568	717	2,068	3,353	18,157	14.9	11.6
농수산업	75	62	75	212	14,060	0.9	9.0
제조업·광업·관광업	68	5	17	90	13,099	0.4	8.4
다자부문신용 및 사전 투자	0	0	1,050	1,050	4,710	4.7	3.0
과학기술	32	332	0	364	1,973	1.6	1.3
무역금융	380	253	246	879	2,580	3.9	1.7
생산적 인프라	228	333	527	1,088	1,696	4.8	1.1
자본시장	178	444	365	987	899	4.4	0.6
사회개발	3,439	1,727	2,890	8,056	51,682	35.8	33.1
사회투자	2,506	995	586	4,086	20,448	18.2	13.1
상하수도위생	340	370	444	1,154	10,104	5.1	6.5
도시개발	97	74	579	749	8,108	3.3	5.2
교육	250	61	342	653	5,780	2.9	3.7
보건	124	140	300	564	3,336	2.5	2.1

표 2-25. 계속

	연도별 지원액			연평균 지원액		연평균 비중	
	2005	2006	2007	2005~07	1961~2007	2005~07	1961~2007
환경	123	85	628	836	3,398	3.7	2.2
영세기업	0	3	12	15	508	0.1	0.3
국가 개혁 및 현대화	1,057	1,464	407	2,928	25,188	13.0	16.1
개혁 및 공공부문 지원	100	24	50	174	19,197	0.8	12.3
금융시장개혁	835	801	187	1,824	7,697	8.1	4.9
재정개혁	48	177	11	235	4,015	1.0	2.6
지방분산화정책	52	353	72	477	1,143	2.1	0.7
사법부 현대화 및 해정	5	54	58	117	427	0.5	0.3
기획 및 국가개혁	0	26	14	40	157	0.2	0.1
의회현대화	4	-	16	20	85	0.1	0.1
시민사회	0	-	-	0	22	0.0	0.0
무역정책 지원	14	-	-	14	25	0.1	0.0
전자정부	0	28	-	28	43	0.1	0.0
	7,148	6,381	8,970	22,499	155,966	100.0	100.0

자료: IDB, "Annual Report," 각년호

# 제3장

## 우리나라의 대IDB 협력사업 추진 현황과 평가



## 1. 우리나라의 IDB 가입 경위

우리나라는 역외국에 문호가 개방된 1979년부터 IDB 가입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한국의 가입시도가 경제적 이득 취득을 위한 것이라는 부정적 인식을 불식시키는 데 성공하지 못하는 등 미주지역 특유의 배타성에 봉착, 1987년 이래 읍서버 자격만을 유지해왔다. 국제경쟁력을 갖춘 한국의 진출이 중남미 건설·플랜트 시장의 경쟁을 심화시킬 것으로 우려하여 이 시장을 독점하여온 미국 등 선진국과 남미 주요국들의 반대가 거셌다.

그러나 1990년대 들어 우리 정부는 협상대상국 분리전술을 펴서 중남미 각국에는 경제구조상 한국기업의 경쟁상대는 미국 등 선진국 기업이기 때문에 한국이 구 매시장에 참여하더라도 중남미 기업의 피해는 적을 것이고, 오히려 낙찰가격을 하락시켜 이득이 될 것이라는 논리를 전개하여 지지를 확보했다. 이 결과 1997년 10월 3일 아시아·중남미통상장관회의(Asian-Latin American Ministerial Meeting)<sup>13)</sup> 시 한국의 IDB 가입에 대한 모든 중남미 국가(브라질 포함)의 전폭적인 지지를 얻어냈다. 한편 미국 등 선진 회원국들에는 IDB가 경제대국으로 성장한 한국이 가입하지 못하고 있는 유일한 주요 국제금융기구라는 점을 강조하고, 한국의 가입은 경제적 이득 추구가 목적이 아니고 국제사회의 인정(social recognition)을 얻고자 함이라는 점을 강조하여 분위기를 반전시켰다.

1998년 3월 콜롬비아 카르타헤나에서 개최된 제39차 IDB 연차 총회 시에는 미국을 제외한 중남미, 일본, 캐나다, 유럽의 모든 회원국으로부터 한국의 가입 지지를 확인했다. 미국도 당초 태도를 바꾸어 한국이 금융위기를 극복해나가는 정도를 보아 입장을 검토할 것임을 표명했다.

13) 칠레 산티아고, 임창렬 통산부장관 참석.

### 글상자 3-1. 우리나라의 IDB 가입 추진 경위

- 1979년 가입 추진을 결정하고 총회에 옵서버로 참석(1987년 가입 정식 신청)
-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의 IDB 지분 포기(504주, 약 600만 달러)로 가입여건의 변화
- 부총리의 지지요청 서한 발송(2003. 3. 6) 이후 재정부와 재외 공관의 전방위 노력으로 브라질 이외 주요 회원국이 지지의사 표명
- IMF/WB 연차 총회 시 IDB 총재, 브라질 재무장관과 IDB 가입문제 협의(2003. 9. 22, 부총리)
- Lula 대통령의 경제설명회에 우리나라 기업대표들과 수은행장, 재정부 국제기구 과장이 참석하여 만테가(Mantega) 장관 면담(2004. 1. 29, 재네바)
- 브라질 피오카(Fiocca) 차관보가 방한하여 최초의 브라질 경제 IR 행사를 개최하고 IDB 가입 관련 협의(2004. 2. 4~7)
- 재정부 차관, 우리나라 IDB 가입 협조 요청 (제46차 연차 총회 페루 리마, 2004. 3. 29~31)
- IDB 이글레시아스(Enrique Iglesias) 총재 방한, 우리나라의 IDB 가입을 위한 재정부와 IDB 간 MOU 체결 및 서명(2004. 5. 17~19)
- IDB 이사회, 한국의 가입 승인(2004. 11. 5)
- 회원국의 동의절차를 거쳐 IDB 가입 확정(2004. 11. 16)

이러한 우리 정부의 IDB 가입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은 2004년 11월 16일 IDB가 우리나라를 47번째 회원국으로 가입을 승인함에 따라 마침내 결실을 거두었다. IDB 회원국이었던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가 지분(504주)을 포기함에 따라 우리나라는 미국을 비롯한 여타 회원국으로부터 지분 인수 허락을 얻어, 우리 정부의 오랜 숙원이던 IDB 가입을 성취했다. 우리나라는 IDB 이외도 IDB 자매기구인 미주투자공사(IIC), 다자투자기금(MIF)에도 동시가입하게 되었다. IDB 가입을 위해 우리나라는 6~10년에 걸쳐 총 2억 달러의 특별기여금을 납부하기로 했다. 2억 달러의 기부금은 빈곤퇴치(5,000만 달러), 기술혁신지원(5,000만 달러), MIF 중남미 소기업 기술지원(6,000만 달러), IIC 중소기업협력기금(4,000만 달러)으로 구성된다.



표 3-1. IDB 출연금의 내용 및 목적

(단위: 백만 달러)

	금액	목적
Korea Poverty Reduction Fund, KPRF	50	중남미지역 국가의 빈곤감축과 사회개발 지원
Knowledge Partnership Korea Fund for Technology and Innovation, KPKF	50	기술혁신사업 지원
MIF	60	중남미지역 역내 소기업에 대한 기술지원
IIC	40	역내 중소기업 육성

한편 우리나라의 IDB 가입 이후 첫 후속조치로 2005년 2월 9일 수출입은행은 IDB와 협조용자 확대를 포함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 IDB 회원국이 발주한 사업에 대한 양 은행간 협조용자 확대 △ 중남미지역 경제·금융·사업 정보 교환 △ 다양한 방식의 인적 교류 등이다.

## 2. IDB 협력사업 추진 현황

### 가. 신탁기금(Trust Fund) 협력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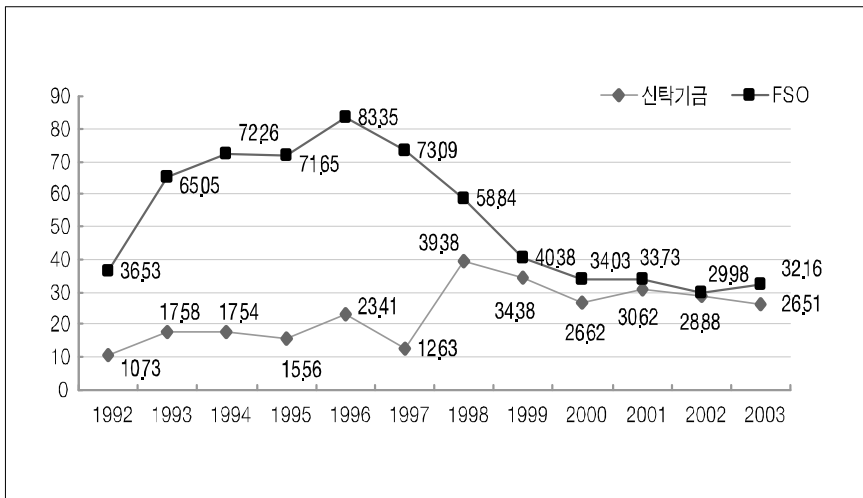
#### 1) 신탁기금 운용 현황

IDB는 다양한 기술협력프로젝트를 위해 신탁기금을 설립해왔는데, 신탁기금은 기술협력사업을 주로 지원하는 매우 중요한 자금으로서 국제적인 전문기술을 활용

하기 위한 컨설턴트프로그램을 운용 중이다. 기술지원을 위한 신탁기금은 기술협력 신탁기금이라 불리며, 크게 일반 신탁기금과 프로그램 신탁기금으로 구분된다. 특히 일반 신탁기금은 컨설턴트 신탁기금이라고도 하는데, 사용목적에 대한 제한이 없이 사업계획의 수립과 집행, 자문 용역, 훈련비용 및 학술연구 등 다양하게 활용된다.

그동안 IDB는 기술협력사업 자금으로 신탁기금과 더불어 특별운영자금(FSO)을 활용해오고 있는데, 1996년까지는 FSO가 절대적이었으나, 이후 감소세로 돌아서 2000년 이후에는 신탁기금 비중이 FSO 비중을 앞섰다. 즉 1997년과 1998년을 기점으로 일본신탁기금이 대폭 유입되고, 2001년 5,000만 유로 규모의 스페인 일반 협력기금(Spanish General Cooperation Fund)이 유입되면서 신탁기금 규모가 크게 증가했다.

그림 3-1. IDB 신탁기금 및 FSO의 연도별 지출 현황



자료: <http://condc05.iadb.org/iadbtrustfunds/funds/default.aspx>, 권을 외(2007) 재인용.

이에 따라 한국은 IDB 가입 시 2억 달러의 특별기여금을 납부하기로 IDB 측과 합의하였는데, 이는 IDB 가입에 따른 직·간접적 효과와 역외국가가 지역개발금융 기구 가입 시 일정수준 기여하는 관례 등을 감안한 결정이었다. 이 기여금은 향후 6~10년에 걸쳐 납부되어 중남미지역의 빈곤퇴치와 기술혁신 등을 위해 사용할 예정인데, 총 1억 4,000만 달러 규모의 신탁기금이 설립되었다. 2007년 12월 말 현재 우리나라가 IDB에 출연한 신탁기금 규모는 세계은행을 비롯한 5대 국제개발은행에 대하여 총 1억 9,850만 달러의 신탁기금이 출연되어 있음을 감안할 때 절대적으로 높은 비중이다.

2005년 IDB 가입과 함께 총 3개, 1억 4,000만 달러의 규모의 신탁기금이 설립되었는데, 기금별로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빈곤감소기금(Korea Poverty Reduction Fund)은 재난방지, 재난복구 등을 포함한 빈곤감축 및 사회개발을 위한 대출프로그램 관련 기술협력, 개별 국가 또는 부문 지원전략 수립 등을 지원하고 있다. 지원대상사업은 소득증대, 생활환경 개선, 사회서비스 확대 등을 위한 사업의 발굴, 설계, 실행 및 평가, 극빈층 및 빈곤층을 위한 영세기업 관련 사업의 발굴, 준비, 실행 및 평가 등이다. 지원대상비용은 컨설턴트 고용 직접경비, 컨설팅 수행기관의 간접경비, 여비, 부대비용, 훈련목적의 워크숍, 평가 및 외부감사 비용, 기타 총 사업비 30% 범위 이내의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비이다. 또한 장비, 기계류, 지도,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기타 기자재의 구입, 서적 및 기타 교육자재, 출판 및 편집 비용, 실험 관련 서비스 비용, 정보처리비용 및 기타 비컨설팅성 경비 등에도 지원되나 IDB 및 한국정부 공무원의 급여, 여비, 토지 구입 등의 비용은 배제하고 있다.

표 3-2. MDB별 신탁기금 출연 현황

(단위: 천 달러)

구분	IDB	ADB	AfDB <sup>1)</sup>	EBRD	WB	계
설치연도	2005년	2006년	1999년	2007년	2007년	-
총 출연금	140,000	20,000	7,000	1,500	30,000	198,500
2007년 출연금	-	-	5,000	1,500	30,000	36,500
총 승인액수 <sup>2)</sup>	13,138	5,150	1,987	-	-	20,275
승인 가능액	126,862	14,850	5,013	1,500	30,000	178,225

주: 1) AfDB 500만 달러 신규 출연 포함(2007년), 2) 10만 달러 이상 승인 누계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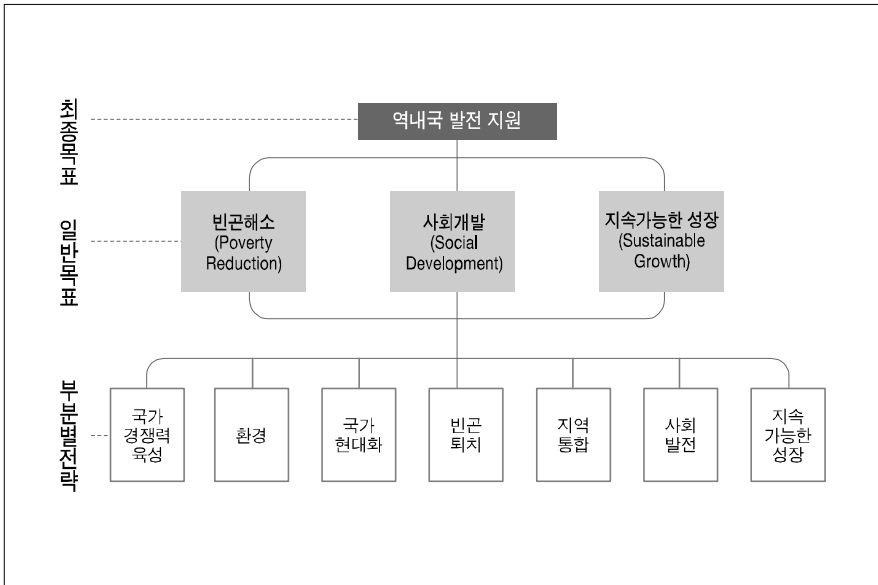
자료: 수출입은행; 권율 외(2007) 참고.

둘째, 지식협력기금(Knowledge Partnership Korea Fund)으로 과학기술 및 혁신 관련 사업에 대한 기술협력 확대를 통해서 역내 회원국의 발전 및 경제성장에 기여할 목적으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관련 서비스, 적용, 전자정부, 보건, 연구, 교육, 비즈니스, 마이크로 파이낸스 등을 포함한 정보기술 역량 강화에 지원되고 있다. 또한 과학기술 발전에 기여하는 평가, 부문진단, 분석 및 혁신 역량 개발, 제도개선, 전략 및 정책 개발, 인력개발 등의 분야와 과학기술 역량 배양에 관한 경험전수, 연구개발사례 습득, 제도개발 및 혁신 성공사례 등에 관한 세미나, 국제회의, 워크숍 등의 개최, 인쇄물 발간 및 배포 등의 사업에도 지원되고 있다.

셋째, 중소기업 육성기금(Korea-IIC SME Development Trust Fund)을 통해 역내 회원국의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제반 기술협력사업이 지원되고 있다. 지원대상사업은 세미나, 포럼, 워크숍, 컨퍼런스 등 IIC의 설립목적 및 전략, 정책에 부합하는 지식 및 경험을 공유하는 사업은 물론 예비타당성 검토, 타당성 검토, 국별 조사, 시장조사, 부문분석 등의 연구조사, 사업 발굴, IIC의 설립목적 촉진활동, 신금융상품 개발 및 실행, 프로젝트 구조설계, 심사, 영향평가 등이다. 또한 프

로젝트 운영, 회계, 법률 및 환경컨설팅 제공, 기타 IIC의 목적에 부합하는 관련 기술협력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그림 3-2. IDB 신탁기금의 지원 목표



## 2) 신탁기금의 신청 및 관리

한국이 IDB에 출연한 신탁기금은 증여 및 협조용자 관리부(Grants and Co-financing Management Unit)에서 관리하며 본점 및 해외사무소를 비롯한 IDB 내의 모든 부서가 사용할 수 있다. 신탁기금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부서는 사업이 실시될 해당 수원국의 사업실시기관으로부터 비반대의견서(Non-objection Letter)를 제출받아 기술협력사업 제안서(TC Profile)와 함께 관리검토위원회(Management Review Committee)에 제출하여야 한다.

IDB의 일반적인 기술협력기금 지원절차는 다음과 같다. 사업을 담당하는 팀 리더는 기술협력 개요(TC Brief)를 작성하여 해당 기금의 관리를 담당하는 부서로 보내 해당 사업의 지원적합성과 자금의 가용 여부를 확인하고, 지원적격성이 확인되면 기술협력 제안서(TC proposal)에 대한 공여국의 승인을 요청한다. 기금공여국의 승인을 취득한 사업은 15만 달러 이하인 경우 기술협력 개요라는 요약형식의 문서를 부서장(Division Chief)이 승인하며, 15만 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사업위험 및 개발효과 분석, 논리적 배경, 타당성, 상세한 사업예산, 컨설턴트 과업명세, 구매계획(procurement plan) 등을 담은 운영계획(Plan of Operation)을 작성하여 내부승인을 얻게 된다. 내부승인은 환경 및 사회적 과급 효과위원회(CESI: Committee on Environment and Social Impact)와 관리검토위원회(Management Review Committee)의 심의를 거쳐 CESI 및 대출위원회(Loan Committee)에 통보되는 과정을 거친다. 그러나 75만 달러를 초과하거나 연간계획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사업의 경우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75만 달러 이하이지만 연간계획에 포함된 경우 총재의 승인을 얻게 되어 있다.

중소기업 육성기금(Korea-IIC SME Development Trust Fund)의 경우 IIC는 IDB Group 산하기관이나 신탁기금 지원사업의 발굴, 준비, 심사 및 감독은 IDB 일반절차의 적용을 받지 않고 IIC의 책임하에 IIC의 독자적인 정책 및 절차에 따라 한국정부와의 정기적인 협의에 의해 시행한다. 10만 달러가 넘는 사업에 대해서만 우리 정부에 승인을 요청하며, 사업실시는 IIC가 직접 컨설턴트의 선정, 채용, 감독 등을 수행한다. IIC는 매년 4월 15일까지 연간회계감사보고서를 한국정부 앞으로 제출하며 IIC의 재무위험관리부서(Finance and Risk Management Division)가 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 3) 신탁기금 운용실적

#### (가) 기금별 운영실적

IDB에 수탁한 3개 신탁기금의 지원 현황을 살펴보면, 2008년 말 기준으로 빈곤 감소기금(KPRF)의 경우 총 27건 985만 달러, 지식협력기금(KPKF)의 경우 총 25건 760만 달러, 중소기업 육성자금(IIC KSDF)의 경우 총 9건 302만 달러를 승인하였다. 이는 한국이 출연한 다른 MDB 신탁기금에 대하여 IDB 신탁기금 지원이 가장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sup>14)</sup>

KPRF의 경우 사업 초기연도인 2006년에는 단지 7건의 사업에 262만 달러를 지원하였으나, 2008년에는 12건에 422만 달러를 지원하여 점차 사업건수와 금액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사업내용도 리우데자네이루 빈민촌 주거개선사업, 에콰도르의 지역경제 경쟁력 강화사업, 페루 외 4개국의 생산성 향상 및 빈곤감축을 위한 비공식부문 통계조사 개선사업 등 빈곤해소 및 사회개발과 관련된 다양한 사업이 추진되었다. 상기 사업 이외에도 한국은 이미 남미 청소년 축구사업 등도 활발히 지원하여 국가 이미지를 제고해나가고 있다.

#### 글상자 3-2. 축구, 오케스트라 등을 통한 중남미 불우 청소년 지원사업

##### ■ 남미 청소년축구 지원사업

- 한국신탁기금은 FIFA와 공동으로 중남미지역의 저소득층 축구 활성화 사업을 지원하여, 한국·중남미 간 청소년 축구 교류를 위한 교두보를 구축할 예정
- 이 사업의 주요 내용은 중남미 청소년들의 축구 훈련 및 중남미 국가간 축구시합

14) 자세한 내용은 권을 외(2007) 참고. 사업규모가 10만 달러 미만으로 우리 정부에 승인을 받지 않는 사업은 제외하였고, 2007년 신설된 AfDB, EBRD 및 세계은행 앞 4개의 신탁기금은 2007년 말 기준 승인실적이 매우 낮은 반면 IDB의 신탁기금 지원실적은 매우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다.

글상자 3-2. 계속

등을 지원하고 축구공, 유니폼 보급과 축구시설 설치 등을 지원하면서 지원물품에 한국의 상징물을 부착시켜 한국의 국가이미지 제고

- 또한 한국과 중남미 청소년간의 축구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을 발굴함으로써 2014년 브라질 월드컵까지 축구를 통한 외교 강화
- 특히 빈곤 청소년 지원 NGO를 통하여 24개 중남미(베네수엘라, 가이아나 제외) 국가의 길거리 축구 활성화를 위한 우수 프로젝트를 발굴, 지원함으로써 스포츠 마케팅을 통한 국가이미지 개선

■ 오케스트라 지원

- 음악에 재능이 있는 에콰도르 불우 청소년의 악기 지원프로그램을 통하여 현재 Quito, Guayaquil 청소년 관현악단이 성공적으로 운영 중
- 이러한 성공사례가 에콰도르 전역 및 기타 국가에서도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해나갈 계획
- 이를 통해 한국·중남미 간 음악을 통한 문화교류 활성화의 기반이 구축될 것으로 평가

표 3-3. IDB-KPRF 승인 현황

(단위: US달러)

	신청일	지원대상 국가	사 업 명	지원신청 금액	승인 여부
1	2006. 04. 13	콜롬비아	도시극빈자 지역 주거환경 개선사업	480,000	
2	2006. 04. 13	페 루	저소득 장애인 고용촉진사업	450,000	
-	2006. 05. 16	콜롬비아	화산폭발 재해방지 지원사업(45만 달러)		거부
3	2006. 05. 16	아르헨티나	기술교육 지원사업	104,000	
4	2006. 06. 10	콜롬비아	안티오키아 주 교통 개선프로그램 지원사업	490,000	
5	2006. 09. 13	멕시코	교육혁신 지원사업	400,000	
6	2006. 10. 13	중남미 전체	중남미지역의 고용창출 및 복지증진을 위한 한·MIF 협력사업	395,000	
7	2006. 10. 13	도미니카 (공)	영세농 빈곤탈피를 위한 자기경영 및 시장접근 지원사업	300,000	
-	2007. 01. 25	콜롬비아	원주민 개발 지원사업(48만 6,070달러)		취소
8	2007. 01. 25	아르헨티나	원주민 관광개발 지원사업	498,860	



표 3-3. 계속

	신청일	지원대상 국가	사 업 명	지원신청 금액	승인 여부
9	2007. 02. 16	자메이카	토지등기 지원사업	120,000	
10	2007. 02. 22	수리남	도로주변 사회경제여건 개선사업	360,000	
11	2007. 03. 16	페루	시에라 수출 프로그램 지원사업	120,000	
12	2007. 04. 20	콜롬비아	소액대출 확대 지원사업	400,000	
13	2007. 04. 20	파나마	농촌개발 지원사업	296,800	
-	2007. 05. 12	멕시코	식품 생산·품질 관리시스템 구축사업(27만 달러)		취소
14	2007. 06. 26	페루	지방도로 개선사업	450,000	
15	2007. 07. 04	파라과이	농촌도로 2차 개발 프로그램 지원사업	364,000	
-	2007. 10. 31	에콰도르	지방 수력발전 개발 지원사업(49만 5,500달러)		취소
-	2007. 11. 29	페루	원주민의 시에라 수출 프로그램 참여를 위한 기술협력(50만 달러)		취소
16	2008. 01. 16	에콰도르	청소년 관현악단 교육 사업	349,000	
17	2008. 01. 18	중남미 역내	YCLIF 청년 리더십 프로그램	150,000	
18	2008. 02. 06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주 빈민촌 주거개선사업	410,000	
19	2008. 03. 04	콜롬비아	Fundacion Mario Santo Domingo 재단 저소득층 주택공급 프로그램 지원	150,000	
20	2008. 03. 09	콜롬비아	난민 어린이 학업성취도 개선을 위한 교육혁신 지원	150,000	
21	2008. 04. 02	페루 외 4개국	생산성 향상 및 빈곤감축을 위한 비공식부문 통계조사 개선사업	450,000	
22	2008. 05. 21	중남미 역내	축구를 통한 사회적 소외 청소년 지원사업	1,000,000	
23	2008. 07. 28	페루	여성사업가의 디지털 경제참여 시범프로그램 지원사업	275,000	
24	2008. 08. 09	가이아나	시민단체의 빈곤감축활동 참여 활성화 지원사업	150,000	
25	2008. 08. 09	멕시코 외 2개국	중남미지역 청력약화 저소득층 대상 보청기 보급사업 F/S	135,000	
26	2008. 09. 02	멕시코	암 조기진단서비스 이용 및 인지도 제고를 위한 사업	1,000,000	
27	2008. 09. 02	에콰도르	지역경제 경쟁력 강화사업	397,260	
승인(27건) 합계				6,727,060	

또한 KPKF(지식협력기금)은 중남미 국가들을 대상으로 과학기술 및 혁신 관련 사업에 대한 기술협력 확대를 위해서 2006년 총 4건, 142만 달러를 승인하였으나, 2008년에는 총 10건에 279만 달러를 지원하여 중남미 역내의 모바일뱅킹시스템 시범사업, 과테말라 동산 전자등록시스템 구축사업 등을 추진하였다.

한편 우리나라는 IDB와 공동으로 신탁기금사업의 일환으로 2007년 9월 17~18일 한·중남미무역투자포럼(Korea-LAC Trade and Investment Forum)<sup>15)</sup>을 개최하였다. 포럼의 개최목적은 한국기업의 중남미시장에 대한 상호이해 촉진과 관련 중남미기업과의 교류를 통한 양 지역 기업들의 파트너십 강화를 위한 것이었다. 이 포럼에는 한국측에서 재정경제부, 한국수출입은행,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가 공동주최기관으로 참여하였다. 이 사업에는 50만 달러의 신탁기금이 사용되었다.

중소기업개발기금(IIC KSDF)의 경우 지난 3년(2006~08년) 동안 9개 사업에 302만 달러가 지원되어 다른 신탁기금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지원실적은 낮은 편이다. 사업내용을 살펴보면 중소기업혁신금융(FINPYME) 관련 협력사업에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고, 볼리비아 등 중남미 및 카리브(LAC) 지역 15개국을 대상으로 중소기업 소액회전한도대출(SBRL), 중남미 및 카리브(LAC) 지역의 중소기업 대상 증권금융(equity financing)프로그램 개발사업 등 중소기업을 위한 금융지원사업에 중점을 두고 있다.

15) 투자포럼에서는 한국·중남미 양 지역을 대표하는 각 기업의 대표들이 “한국과 중남미지역의 무역과 투자”라는 주제로 발표와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이와 동시에 중남미 16개국의 수출 및 투자 진흥에 관한 투자환경 설명회도 개최되었다.

표 3-4. IDB-IIC SME 승인 현황

(단위: US달러)

	신청일	지원대상 국가	사 업 명	지원신청 금액	승인 여부
1	2006. 03. 23	중남미 전체	FINPYME(중남미 중소기업혁신금융) 프로그램 지원사업	450,000	
2	2007. 03. 23	베네수엘라	현지화 채권 발행사업	147,000	
3	2007. 07. 23	중미 역내	에너지 효율성 진단사업	170,000	
4	2007. 11. 12	중남미 역내	FINPYME 포털구축사업	160,000	
5	2007. 11. 12	중미 역내	중소기업혁신금융(FINPYME) 1단계 기술협력사업	425,000	
6	2008. 06. 26	카리브 연안국	카리브 연안국가 FINPYME(중소기업혁신금융) 프로그램 지원사업	495,000	
7	2008. 09. 08	볼리비아 등 중남미 및 카리브(LAC) 지역 15개국	중소기업 소액회전한도대출(SBRL) 기술지원사업	350,000	
8	2008. 09. 08	중남미 및 카리브(LAC) 지역	중소기업 F/S 수행 지원 프로그램	500,000	
9	2008. 10. 23	중남미 및 카리브(LAC) 지역	중소기업 대상 equity financing 프로그램 개발사업	320,000	
승인(9건) 합계				3,017,000	

한편 한국은 일본, 스페인 등과 2006년 다지원국 재해방지신탁기금(Multidonor Disaster Prevention Trust Fund)을 설립했다. 3국이 출연하여 조성된 이 기금은 차입국들의 재해방지 관련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무상기술협력사업의 성격을 띠고 있다. 주요 사업의 형태는 ① 분야별, 국별 위험 발굴 및 문서화 ② 재해방지 관련 프로젝트 준비 ③ 조기경보시스템, 통신 및 교육 시스템 강화·수립 ④ 취약성 감축을 위한 토지사용 계획 ⑤ 제도의 능력, 정책 및 프로그램 강화 ⑥ 금융수단 설계 등을 포함한 보험시장 강화 등이다.

표 3-5. 다지원국 재해방지 신탁기금

(단위: 천 US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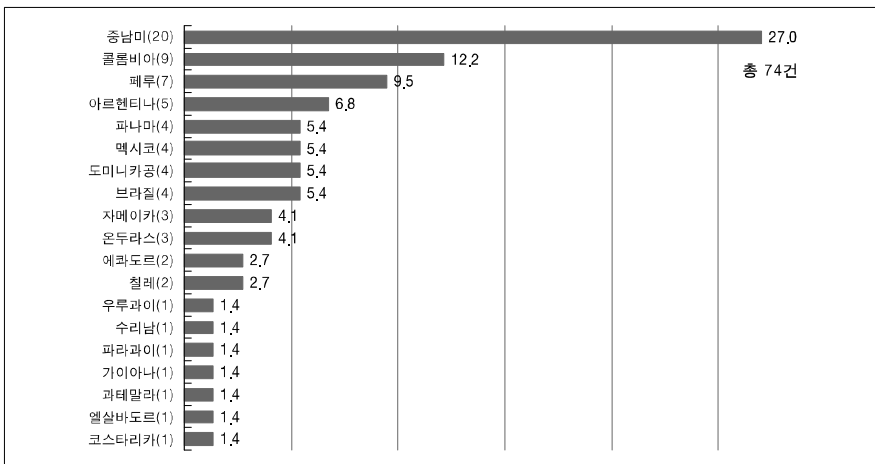
	승인일	지원 대상국가	사업명	지원신청 금액
1	2008.4.2	엘살바도르	Management of Risks by Floods in Watersheds of Rivers Grande San Miguel and Paz	1,000
2	2008.1.7	온두라스	Strengthening Disaster Risk Management System	1,000

## 나) 국별·분야별 지원실적

국별·지역별 우리나라의 대중남미 신탁기금 지원은 중남미 전체에 대한 비중이 27%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개별국가 차원에서는 콜롬비아에 대한 지원이 전체의 12.2%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페루 9.5%, 아르헨티나 6.8%, 파나마 5.4%, 멕시코 5.4% 순을 기록했다.

그림 3-3. 우리나라의 국별 신탁기금 지원 현황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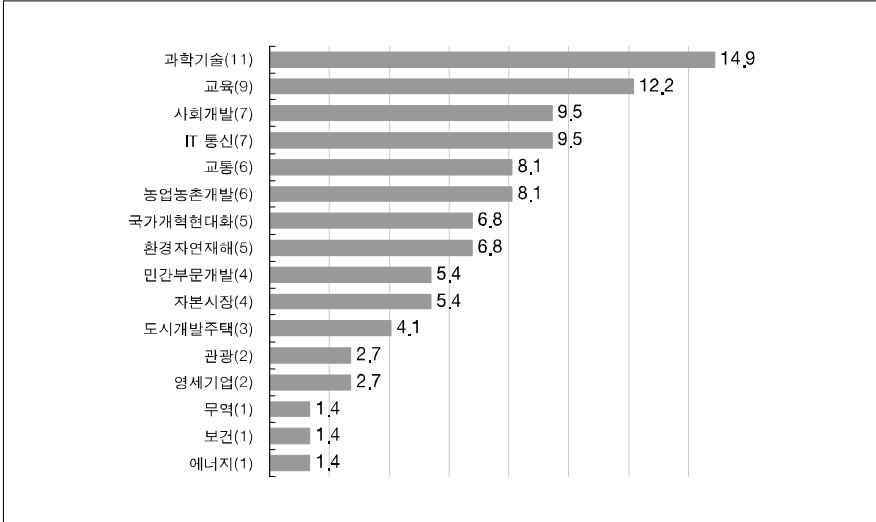


주: ( )는 건수.

자료: IDB.

그림 3-4. 우리나라의 분야별 신탁기금 지원 현황

(단위: %)



주: ( )는 건수.

자료: IDB.

분야별로 우리나라의 대중남미 신탁기금 지원은 과학기술분야에 대한 비중이 전체 지원의 14.9%에 달해 가장 컸다. 다음으로는 교육분야에 대한 지원이 12.2%로 컸으며 사회개발(9.5%), IT 통신(9.5%), 교통(8.1%)이 그 뒤를 이었다.

최근 우리나라는 중남미의 암퇴치사업, 빈곤퇴치 및 청소년 계도 사업 등을 통해 중남미 경제·사회 개발과 과학기술 발전을 선도해오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2008년 승인된 멕시코 암퇴치사업은 IDB의 한국 빈곤감축기금에서 100만 달러, 미국의 암퇴치협회(SU2C: Stand Up 2 Cancer)에서 100만 달러, 그리고 멕시코에서 200만 달러를 지원하여 3개 기관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멕시코 베라크루스(Veracruz)에서 빈곤층의 암 조기검진 및 예방의 중요성을 집중 홍보하고 암 퇴치 시범사업을 실시하여, 향후 이를 중남미 전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한국 신탁기금은 암퇴치 관련 사전조사비, 홍보물 제작비, 사후 평가 및 후속 사업 발굴 등

을 지원하고, 한국 압 전문가의 교류를 위해서도 사용된다. 미국 압협회는 방송, 신문 등의 광고 홍보비를 지원하며, 멕시코는 시범 사업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 사업에 멕시코 출신으로는 오스카상 후보에 최초로 지명된 할리우드 톱배우, Salma Hayek이 홍보물 제작 및 홍보대사로 활동할 예정이다. 향후에는 모바일 의료검진(Mobile-health)에 대한 중남미 시장 진출도 도모할 예정으로 있다. 현재 IDB 지식협력기금 지원하에 Mobile-health 관련 IDB 사업에 한국 컨설턴트가 고용될 예정이다.

이번 사업은 한국이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그 역할을 하면서도 지원규모 대비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사업으로 평가된다. 앞으로 한국 신탁기금은 남미의 압 퇴치 시범사업 지원을 계기로 Mobile health 등도 계속 지원하여 우리나라의 우수한 기술 및 사업이 남미에 진출할 수 있는 교두보 역할을 할 계획이다.

## 나. 협조용자

협조용자를 통한 IDB와의 협력은 2008년 현재까지 3건이다. 그러나 협조용자 3건 중 IDB 가입 이후 실질적인 협조용자는 1건에 불과하다. 볼리비아의 도로 프로젝트(2,300만 달러)와 온두라스 치안 강화(250만 달러) 협조용자는 우리나라가 IDB 가입하기 이전인 2000년과 2003년 승인된 경우이다. 2007년 우리나라는 IDB 가입 이후 처음으로 페루 자원개발에 3억 달러의 협조용자를 제공하였다.

표 3-6. 우리나라의 대IDB 협조용자 현황

국가	분야	금액 (백만 달러)	MDB	승인연도	비고
볼리비아	도로	23	IDB	2000	EDCF
온두라스	치안 강화	2.5	IDB	2003	EDCF
페루	자원개발	300	IDB 외	2007	수출입은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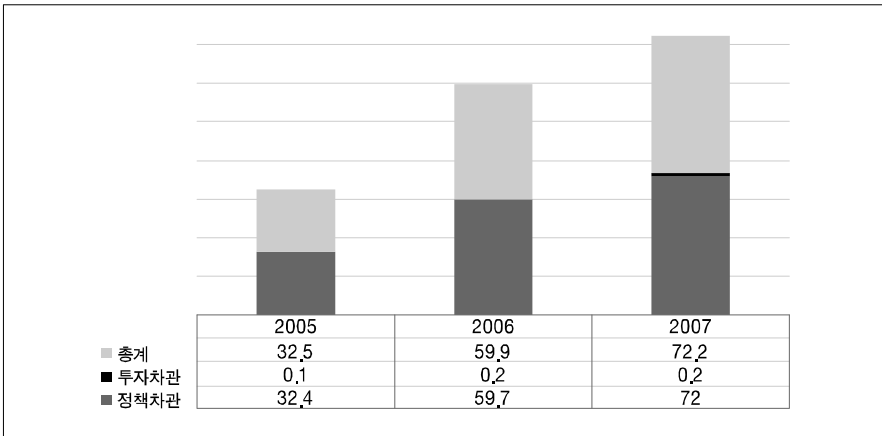
### 다. IDB 조달시장 참여

IDB 가입과 더불어 우리 기업들이 가장 많은 관심을 가졌던 분야가 IDB 조달 시장 참여였다. IDB 연차보고서를 통해 볼 때, IDB 가입 이후 우리나라는 IDB 조달시장에 비교적 성공적으로 진출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가입 첫해인 2005년 우리 기업의 IDB 조달시장 참여규모는 3,250만 달러에서 2006년에는 5,990만 달러, 2007년에는 7,220만 달러로 크게 증가했다. 조달시장 참여(정책차관+투자자관) 비중도 3년 합계(2005~07년) 기준으로 미국, 일본, 독일, 스페인에 이어 다섯 번째인 0.9%에 달했다.<sup>16)</sup> 비가입국의 참여 비중이 높은 정책 차관 조달시장의 경우 3개년 합계 한국의 참여 비중은 3.1%로 미국, 일본, 독일에 이은 4위를 기록했다.

그림 3-5. 한국의 IDB 조달시장 참여규모

(단위: 백만 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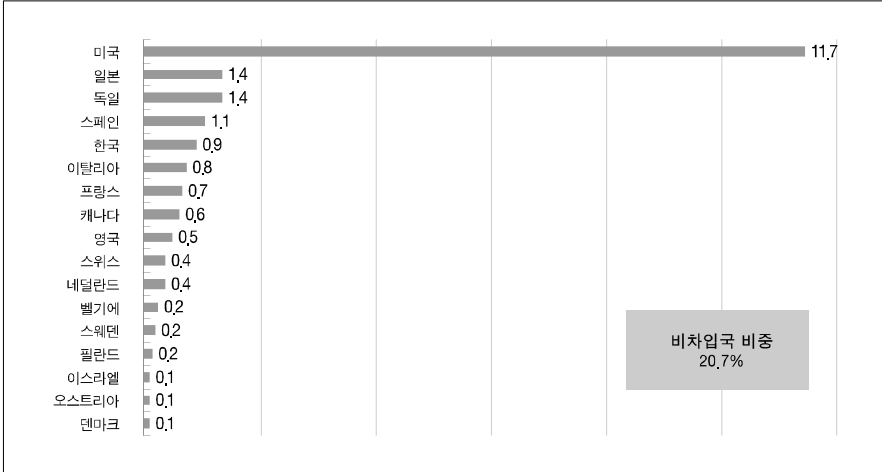


자료: IDB, "Annual Report," 각년호

16) IDB 조달시장 참여 한국기업 수는 2007년에 총 9개(IDB 6개+IIC 3개) 업체에 달했다.

그림 3-6. 비차입국의 IDB 조달시장 참여 비중(정책+투자 차관)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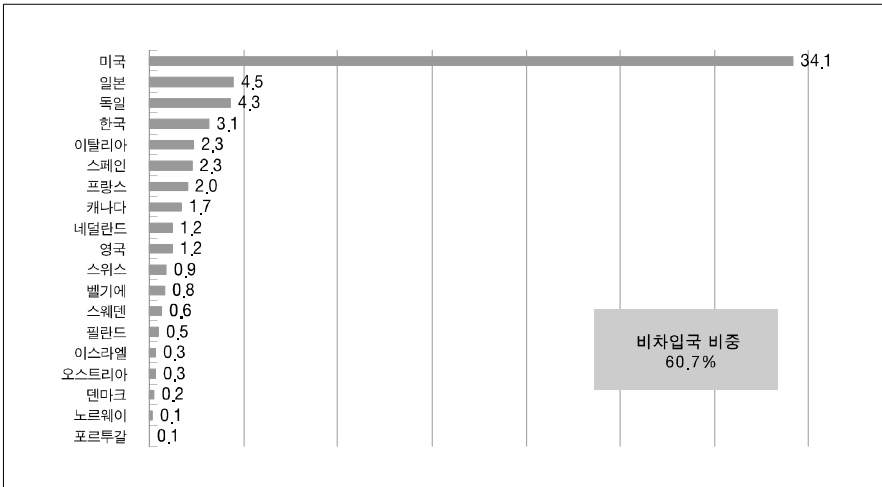


주: 2005~07년 합계.

자료: IDB, "Annual Report," 각년호

그림 3-7. 비차입국의 IDB 조달시장 참여 비중(정책차관)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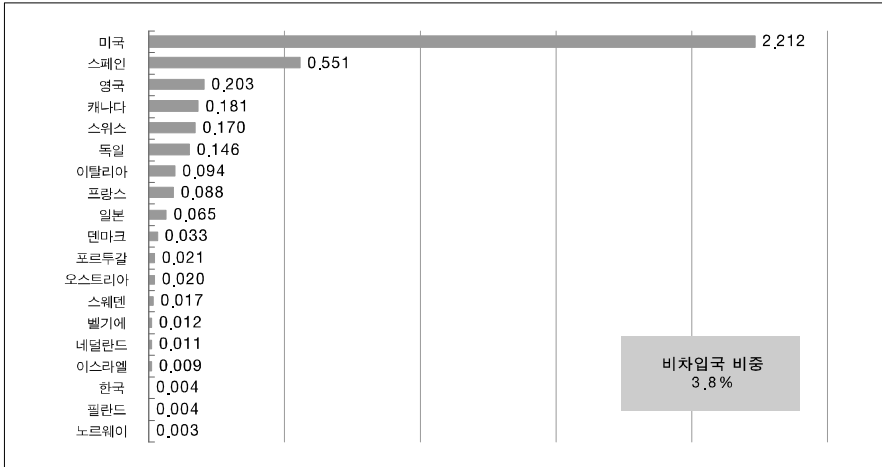
주: 2005~07년 합계.

자료: IDB, "Annual Report," 각년호



그림 3-8. 비차입국의 IDB 조달시장 참여 비중(투자차관)

(단위: %)



주: 2005~07년 합계.

자료: IDB, "Annual Report," 각년호.

## 라. 무역금융(IDB의 TFFP: Trade Finance Facilitation Program)

### 1) 도입배경

중남미에 대한 우리나라의 수출입 실적은 2007년 말 기준으로 260억 달러에 이르고 있으며 중동지역에 이어 가장 빠른 성장률을 시현하고 있다. 그러나 대중남미 수출기업들은 시장조사나 바이어 발굴 등의 문제 이외에도 수출대금 결제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송금거래는 물론 신용장 거래에서도 대금결제가 지연되거나 아예 입금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신용장 거래에서 대부분의 수출상은 신용장을 근거로 선적서류를 은행에 매입 의뢰하여 원래 수입상과의 계약만기일 이전에 자금을 조달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 경우 만기에 신용장을 발행한 발행은행이 선적서

류를 매입한 은행에 자금을 결제하지 않는 경우 매입은행과의 외국환거래 약정에 따라 그 미결제대금을 매입은행에 상환해야 한다.

즉 국내은행들은 기업으로부터 수출채권을 매입하여 금융을 제공한 후 해외은행에 대금을 청구하는데, 신용장 발행은행이 대금 지급을 지연하거나 결제하지 않을 경우 수출기업에 상환청구권을 행사하여 채권을 회수하게 된다.

따라서 수출기업들은 신용장을 받아 선적을 완료하고 수출채권을 매각해도 계속 대금 미회수에 따른 리스크를 부담해야 하는 애로가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중남미와 교역하는 주요 대기업들은 외국계 은행들의 지급보증서비스를 통해 이러한 리스크를 커버하지만 높은 수수료를 지급하고 있고, 중소기업들은 이러한 리스크에 대해 별다른 방안 없이 노출되어 있는 상태이다.

## 2) IDB의 TFFP

IDB의 TFFP(Trade Finance Facilitation Program)는 IDB가 중남미은행이 발행한 신용장이나 지급보증서를 회원국의 확인은행(Confirming Bank)에 지급보증하는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의 목적은 중남미지역의 수출입기업 및 은행들에 금융을 지원하며, 무역거래에 따른 국가 및 상거래 리스크를 감소시키는 동시에 무역 지원을 통해 중남미지역의 국제무역을 촉진하는 데에 있다.

이 프로그램의 참가자들은 중남미에 소재한 신용장 혹은 지급보증서 발행은행들과 한국과 같은 IDB 회원국들의 신용장 확인은행들이다. 건별 거래기한은 3년이며 보증한도는 각 개별 무역거래의 100%까지이다. IDB의 지급보증은 확인은행들에 보증신용장(Standby L/C)을 발행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보증료율은 IDB와 확인은행, 개설은행 간에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게 된다.

2008년 6월 기준으로 38개국 175개 주요 은행이 참가하고 있으며 2억 8,000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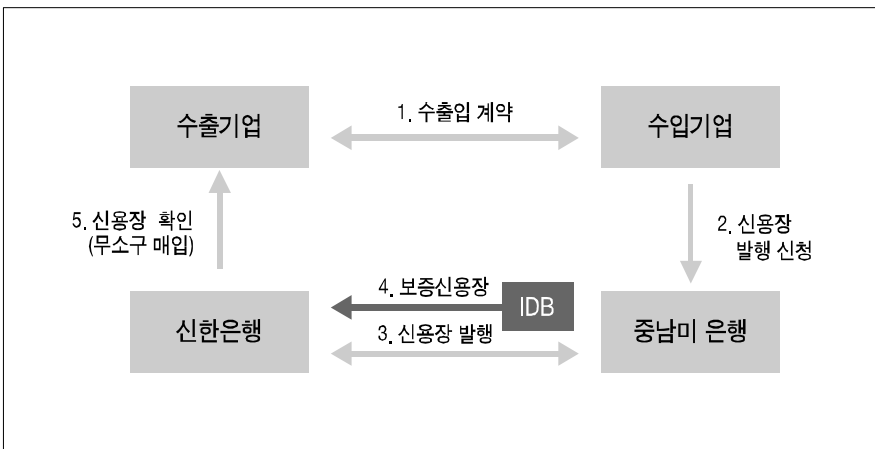
달러의 IDB 보증신용장이 발급되어 있는 상태이다. 국내에서는 2008년 4월에 신한은행이 최초로 IDB와 TFFP 협약을 체결하여 TFFP 프로그램에 따른 신용장 확인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 3) TFFP의 업무 프로세스

#### 가) 신용장 확인(L/C confirmation)

신용장의 확인이란 개설은행의 지급약약에 추가하여 다른 은행이 독립적인 지급 약속을 하는 것이다. 이러한 확인을 추가한 확인은행은 신용장 조건과 일치하는 서류가 제시되면 신용장 발행은행과 같은 의무를 지게 된다. 통상적으로 신용장의 확인을 의뢰하는 은행은 개발도상국이나 저개발국의 신용도가 낮은 은행이며, 확인하는 은행은 선진국의 메이저은행들이 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림 3-9. 신용장 확인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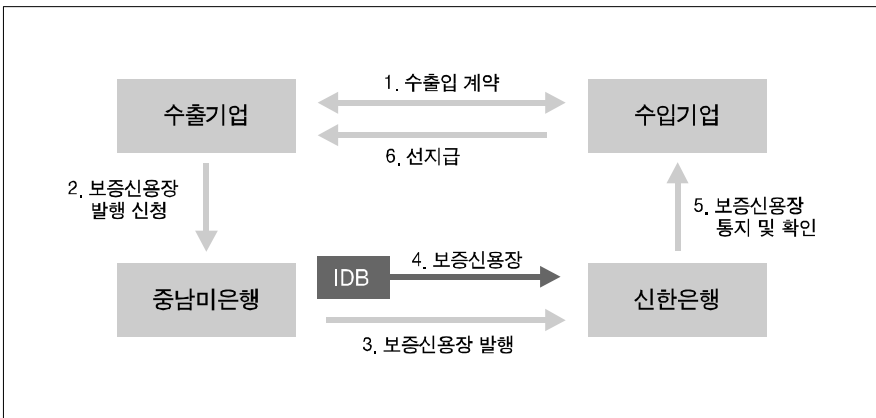
IDB의 보증신용장에 근거하여 신한은행이 확인은행이 되며, 확인은행인 신한은행은 만기에 대전이 결제되지 않을 시 IDB에 대지급을 받게 되며 수출기업에 상환 청구권을 행사하지 않는다. 즉 신용도가 약한 중남미은행의 신용장에 대해 IDB가 보증신용장을 발행하고 신한은행이 확인함으로써 신용장의 공신력을 강화하여 수출상이 안심하고 거래하도록 하는 데 이 확인거래의 취지가 있다.

나) 보증신용장 확인(Standby L/C Confirmation)

국내의 수입기업이 물품 수출입계약을 체결하고 선급금을 중남미의 수출기업에 지급하게 되는 경우, 이에 대한 담보를 위해 중남미은행이 발행한 보증신용장을 취득하게 된다. 그런데 만약 수출상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았음에도 보증신용장에 따른 대금 지급을 중남미은행이 지연하거나 이행하지 않을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이 경우 IDB의 TFFP 프로그램에 의거하여 신한은행이 확인은행이 되는 경우 신한은행이 국내 수입기업에 계약불이행에 따른 신용장대전을 대지급하고 이를 IDB로부터 상환받게 된다.

그림 3-10. 보증신용장 확인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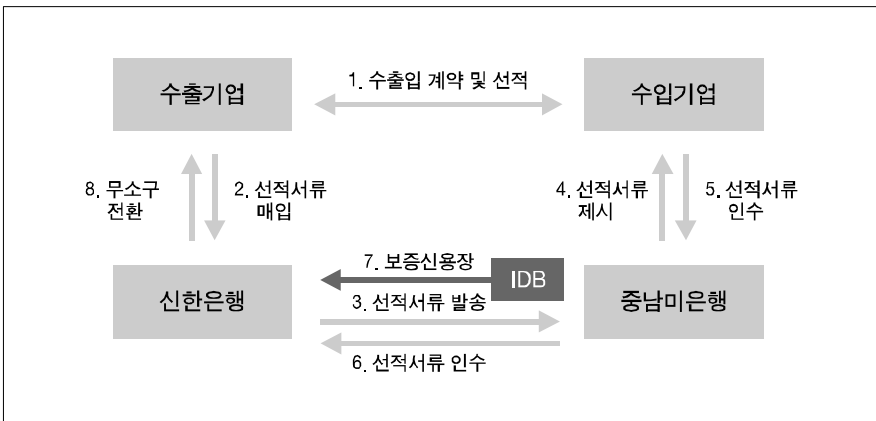


다) 포페이팅(Forfaiting)

포페이팅은 선적서류를 은행이 소구조건으로 매입하고, 신용장 발행은행의 인수가 있으면 무소구조건으로 전환하여, 신용장 발행은행으로부터 결제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수출기업에 상환청구권을 행사하지 않는 은행의 서비스이다. 신한은행이 수출기업으로부터 매입한 선적서류가 해외로 발송되어 신용장을 발행한 중남미은행의 인수가 이루어지면, 신한은행은 IDB에 보증신용장을 신청하고, IDB의 보증신용장이 발행되면 고객에게 무소구를 보장하게 되는 프로세스이다. 신용장 확인과 차이점이 있다면 포페이팅은 신용장을 개설한 중남미은행의 서류 인수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현재 포페이팅은 외국계 은행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거래은행에 1차 매입을 의뢰하고 다시 포페이팅하는 외국계 은행이 2차 매입함으로써 업무처리가 번거롭고 이중으로 고객이 수수료 및 할인이자를 부담하는 애로가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TFFP 프로그램을 이용시에는 외국계 은행에 재매입을 의뢰할 필요가 없어 업무절차 및 수수료 비용이 절감될 수 있다.

그림 3-11. 포페이팅 과정



### 3. 평가와 향후 과제

#### 가. 평가

우리나라의 IDB 가입 이후 첫 후속조치로 2005년 2월 수출입은행은 IDB와 협조용자 확대를 포함한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IDB 회원국이 발주한 사업에 대한 협조용자 확대, 중남미지역 경제, 금융, 사업정보 교환, 다양한 방식의 인적교류 등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아직 가입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IDB와의 협력사업이 본격화되고 있지 않지만, 신탁기금을 통한 다양한 사업 추진이 이루어지고 있다.

한국의 IDB 가입성과는 크게 세 가지로 정리된다. 먼저 한국 신탁기금을 통해 중남미 조달시장 참여가 확대되고 있다는 점이다. 둘째는 한국수출입은행과 IDB 간 양해각서 체결에 힘입어 협조용자 규모가 증가하고 있다. 셋째는 다양한 협력활동을 통해 중남미지역에서 한국의 위상이 크게 제고되고 있는 점을 들 수 있다. 여기서는 그간 우리나라가 IDB 가입 이후 가장 활발하게 추진해온 신탁기금 사업을 중심으로 평가해보고자 한다.<sup>17)</sup>

국제사회에 대한 우리의 기여와 함께 국익을 실현하기 위한 ODA의 기본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MDB와의 협력은 매우 유용한 전략이다. 이를 통해 우리의 ODA를 선진화하고 원하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신탁기금 출연을 통한 협력은 매우 유용한 방법으로 부상하고 있다.

17) 이하의 평가는 광재성(2008)을 토대로 작성하였다.

그러나 대상 MDB의 업무관행, 협력 가능성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향후 추가 출연을 통한 협력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ADB나 IBRD와는 달리 AfDB와 IDB에서는 신탁기금의 탄력적인 운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국가와 부문의 선정에서 수원국 등의 우선순위가 높은 개발수요와 우리나라의 경험, 비교우위 등을 연계하여야 한다.

또한 장기적이며 비구속성(untied) 신탁기금보다는 우리나라의 경험과 우위를 반영할 수 있는 목적의 신탁기금을 확대하여 원조의 실용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으나 이는 일반화하기 매우 어렵다. 그 이유는 대부분의 MDB가 비구속성 신탁기금만을 받고 있고, 프로그램 성격의 신탁기금의 경우 재생에너지, 인프라, 에이즈퇴치 등 우리의 경쟁력이 그다지 크지 않은 부문에 설치되는 경향이 높기 때문이다.

물론 프로그램 성격의 신탁기금을 개발하는 것은 장기적인 과제이다. 영국이 비교우위에 있는 재생에너지분야의 목적기금에 출연하는 것처럼 자국(기업)이 뚜렷한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분야를 선정해야 하는데 아직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준비가 되지 않았다. 따라서 프로그램 성격의 신탁기금이 장기적인 과제로 추진되어야 한다.

IDB의 경우 한국의 신탁기금을 운영하는 펀드매니저가 증여 및 협조융자 관리부(Grants and Cofinancing Management Unit) 소속으로 활동 중이며 가입 당시부터 자연스럽게 한국인 직원(기획재정부 공무원)이 임명되고 있다. 즉 분야별 심사역이 특정 기술협력(TC)사업을 기획해오면 이를 1차적으로 적절히 심사한 후 한국 정부에 승인을 요청하는 것이다. 비구속성이긴 하지만 한국인 직원의 역할이 있다는 점에서 어느 정도 구속력을 가진 특이한 운영형태이다. 이는 일본이 일본신탁기금(Japan Fund)을 관리하던 매우 독특한 방식으로 한국이 IDB 가입 당시, 협상을 통해 이룩한 결과이다. 이 경우 신탁기금을 관리하는 한국인 직원(펀드매니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신규 프로젝트에 대한 지원요청이 오면 이를 지원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일차적으로 결정해야 하고, 매 프로젝트에 가능하면 한국인 컨설턴트를 고용하거나 한국산품 또는 서비스의 조달 가능성을 높이고, 또는 한국을 조금이라도 알릴 수 있는 한국 컴포넌트(Korea component)를 넣으려 유도해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한국인 직원은 IDB와 한국정부 간의 이해관계를 적절히 조정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와 같이 현지 직원 진출을 확대하여 전문역량을 강화하고, 신탁기금의 운용을 직·간접적으로 관장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만들어 점차적으로 현지네트워크를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 나. 향후 과제

우리나라는 현재 △ IDB 내 한국 직원의 수 미미(3명) △ 출자규모에 비해 작은 지분 △ 중남미에 대한 관심 부족 등으로 IDB와의 협력 확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가 IDB 신탁기금을 활용하는 데 제약요인은 다음과 같다. 먼저 경험부족, 언어장벽, 전문인력 부족 등에 따른 국제개발협력사업 시장에 대한 높은 진입장벽이다. 둘째, 개발분야에서의 축적된 경험이나 데이터, 콘텐츠의 부족이다. 셋째, IDB 컨설팅 사업에 대한 국내외 홍보 및 이해 부족을 들 수 있다. 넷째, 사업의 발굴, 준비 등 초기 사업개발 관련 시간 및 비용부담으로 인한 시장진입 기피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다섯째, IDB 진출 한국인 부족으로 사업 발굴 및 초기사업참여 미흡도 커다란 문제이다(김영기 2008).

이 같은 과제에 기초해 향후 신탁기금의 운용방향은 다음 여섯 가지로 대별해 볼 수 있다. 먼저 프로그램 성격(thematic trust fund)의 신탁기금을 개발하는 것이다. 국제적으로 프로그램식 신탁기금이 늘어나면서 언타이드 조건의 다자출연 신탁기금이 크게 확대되고 있음을 감안할 때 IDB 신탁기금도 특정한 개발목적과 분야



를 설정한 프로그램식 기술협력 신탁기금과 다지출연 신탁기금을 점차 늘려나가야 할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 추가적인 신탁기금 출연시에는 장기적으로 단순하고 제약이 없는 포괄적 형태(broad mandate)의 신탁기금보다는 우리나라의 경험과 우위를 반영할 수 있는 목적의 신탁기금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또한 단발적 프로젝트보다는 중장기, 대규모 프로그램을 개발해 지원할 필요가 있다. 일례로 아프리카개발은행(AfDB)의 KOAFEC Trust Fund, 일본의 EPSA(Enhanced Private Sector Assistance for Africa) 아프리카민간부문지원기금(FAPA) 등을 들 수 있다. 둘째, MDB와의 협력을 통해 사업 발굴, 준비, 실행(컨설턴트 고용), 모니터링 및 평가 등 프로젝트 사이클 전반에 관한 우리나라 기관이나 전문가의 참여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이를 통해 사업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노하우를 습득하는 효과를 도모할 수 있다. 셋째, 수원국의 개발수요와 우리나라의 개발경험 등 비교우위부문을 연계한 맞춤형 기술협력사업의 개발이 필요하다. 넷째, EDCF와 연계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해야 한다. 양자간 사업을 위한 현지조사 및 정보수집을 활성화하고, 이를 기반으로 현지진출을 위한 제반조사 및 연구를 강화하여 유망사업 발굴 및 사업타당성 조사를 추진, 체계적으로 정보를 축적해나갈 필요가 있다. 신탁기금을 통한 기술협력사업이 EDCF 자금협력과 연계되어 양자간 ODA 확대 및 민간부문의 진출 기반 확대를 도모해갈 수 있다. 다섯째, 정부의 직접적인 관리 확대나 업무대행기관의 책임과 권한을 확대하는 등 신탁기금의 관리와 활용을 적극화해야 하고, 국내 전문가나 우수인력의 MDB 진출을 지원, 신탁기금의 전략적 운용을 위한 인적 기반 및 진출기회를 확대해야 한다. 현재 IDB를 포함하여 국제개발은행(MDB) 신탁기금에 대한 정책은 기획재정부 국제기구과가 담당하고 있지만, 신탁기금 운용·관리에 관한 위탁업무는 수출입은행 경협개발실이 수행하고 있다. 신탁기금 지원사업의 초기단계에서 적극적인 사업 발굴과 경험과 자격을 갖춘 컨설턴트를 찾아 추천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다음으로 IDB와의 협조용자의 제약요인을 살펴보면 △지리적 특성으로 인한 교류수준 미흡 △구속성 조건의 EDCF 차관 △사업 초기 참여 부진 △EDCF에 대한 IDB 및 중남미 국가들의 낮은 인지도 등이다. 그에 반해 IDB 협조용자의 활성화 가능성 요인으로는 △비구속성 차관의 도입 및 시행 △EDCF의 높은 양허성 △IDB의 제약분야(국가한도, 특정 섹터)에 대한 보완 △대형 사업에 대한 지원수요 증가 등을 들 수 있다(김영기 2008).

## 제4장

# 주요국의 IDB 활용사례 및 시사점



## 1. 일본의 IDB 활용 전략과 사례

### 가. 일본의 IDB 가입 배경

일본의 IDB 가입 동기는 △중남미지역에 대한 일본의 경제적 이해 증대 △중남미지역에서 일본계 이민의 안정적 지위 보장 △국제무대에서 일본의 위상 제고 등 다각적인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 1) 중남미지역에 대한 일본의 경제적 이해 증대

1976년 일본이 IDB에 가입한 시기는 브라질을 중심으로 일본기업들의 중남미 진출이 급신장하면서 중남미지역과의 경제적 이해관계가 크게 강화되는 시점이었다.

일본과 중남미지역의 경제관계는 1970년대 들어 급진전되었는데, 이는 양자간의 교역 및 투자 관계를 통해서 확인해볼 수 있다. 투자 측면에서 볼 때 1970년대 초(1970~74년) 일본의 대중남미 투자는 당시 일본 총 해외직접투자의 30% 비중을 차지했는데, 이는 북미나 유럽을 크게 앞지르는 것이었다.

교역 측면에서 볼때도 1970년대는 일본의 대중남미 진출이 가장 절정을 이룬 시기였다. 1970년대 중남미지역은 일본의 수출시장으로서 크게 부각되었는데, 일본의 총수출에서 중남미시장이 차지하는 비중은 1970년대 연평균 7.3%에 달했으며 1974년에는 9.1%로 최고점에 달했다. 이는 1990년대 중남미 수출비중이 3%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것과 비교해보면 매우 대조적인 것이었다. 수입 측면에서 볼 때 1970년대 초 전 세계적인 유가과동 이후 자원민족주의가 득세하면서 중남미지역은 일본의 주요 자원개발 확보처로서 크게 주목받았다. 이에 따라 중남미지역에서 천

연자원의 수입이 급증하면서 1970년대 초 일본의 총수입에서 차지하는 중남미 수입시장의 비중은 6%대를 상회했다.

표 4-1. 일본의 지역별 제조업부문에 대한 해외직접투자 추이

(단위: %)

기간	연평균 해외직접투자(십억 달러)	북미	아시아	유럽	중남미
1970~74	0.7	16	40	6	30
1975~79	1.4	20	34	7	19
1980~84	2.2	40	29	10	15
1985~89	8.8	62	19	14	3
1990~94	12.6	41	29	21	4
1995~99	22.7	43	27	23	5
1995	19.4	40	43	11	2
1996	21.0	43	33	14	7
1997	19.6	43	38	13	3
1998	12.0	36	30	23	3
1999	41.4	46	10	37	6

자료: Institute for Europe-Latin American Relations(IRELA).

표 4-2. 1970년대 일본의 대중남미 수출입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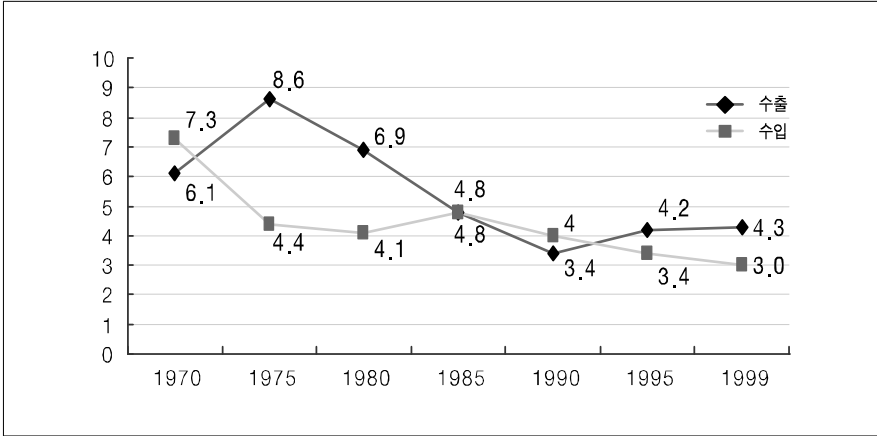
(단위: 백만 달러, %)

기간	수출			수입		
	총수출(A)	대중남미(B)	비중(B)/(A)	총수입(C)	대중남미(D)	비중(D)/(C)
1970	19,318	1,187	6.1	18,881	1,373	7.3
1971	24,019	1,592	6.6	19,712	1,338	6.8
1972	28,591	1,980	6.9	23,471	1,418	6.0
1973	36,930	2,761	7.5	38,314	1,955	5.1
1974	55,536	5,065	9.1	62,110	2,713	4.4
1975	55,753	4,765	8.6	57,863	2,524	4.4
1976	67,225	5,013	7.5	64,799	2,465	3.8
1977	80,495	6,292	7.8	70,809	3,065	4.3
1978	97,543	6,621	6.8	79,343	3,047	3.8
1979	103,032	6,555	6.4	110,672	4,517	4.1

자료: Bank of Japan(1985), "Economic Statistics Annual."

그림 4-1. 일본의 대중남미 수출입 추이

(단위: %)



자료: IMF DOTS.

## 2) 중남미지역에서 일본계 이민의 안정적 지위 보장

일본과 중남미지역의 관계는 한마디로 이민역사를 중심으로 전개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일·중남미 관계에서 이민은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해왔다. 메이지유신 이후 일본인의 해외이주가 전 세계적으로 광범위하게 행해져 현재 중남미에는 브라질을 중심으로 약 160만 명의 일본계가 거주하고 있다.

이러한 일본인 이주자 및 일본계 후손의 현지적응과정이 현재까지 일·중남미 관계의 중심이 되어왔다. 1997년에 대멕시코 집단이주 100주년, 1999년에 대페루 이주 100주년, 2008년에 대브라질 이주 100주년을 맞이하는 등 일본의 대중남미 이민역사는 1세기에 달하고 있다.

따라서 일본의 대중남미 정책은 기본적으로 중남미지역에 진출한 일본계 후손의 안정적인 지위 확보에 초점이 맞추어져 왔으며, 일본의 IDB 가입도 중남미지역에서 일본의 위상 제고를 통해 일본계 후손의 지위 향상을 도모하고자 한 측면이 강했다.

### 3) 국제무대(중남미지역)에서 일본의 위상 제고

일본의 IDB 가입은 무엇보다도 일본의 발언권 강화를 통해 중남미지역에서 정치·경제적 영향력을 강화하기 위한 일본의 대중남미 진출의 장기적인 포석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일본은 확대되는 경제력을 바탕으로 국제기구에 적극 참여, 경제력에 걸맞은 영향력 행사에 부심해왔다.

그러나 일본의 IDB 가입은 여타 지역개발은행 가입 시기와 비교해볼 때 상당히 늦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일본은 아시아개발은행과 유럽부흥개발은행의 경우 설립과 동시에 가입했다. 아프리카개발은행 가입은 1964년 설립 이후 9년 만에 이루어진 데 반해, 일본의 미주개발은행 가입은 설립 이후 17년 만에 실현되었다. 이와 같이 일본의 IDB 가입이 지체된 이유는 무엇보다도 IDB의 폐쇄성에 기인한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1974년 협정문 개정이 이루어지기까지 IDB는 역외 회원국의 가입을 원천적으로 배제해왔다.

표 4-3. 일본의 국제개발은행 가입 현황

기구명	자본금	설립시기	일본 가입	일본 비중(%)
미주개발은행(IDB)	1,009억 달러	1959	1976	5.0
아시아개발은행(ADB)	560억 달러	1966	1966	15.9
아프리카개발은행(AfDB)	162억 달러	1964	1973	4.4
유럽부흥개발은행(EBRD)	200억ECU	1991	1991	8.5

1974년 IDB 협정문이 개정된 직후 1976년 5월 멕시코에서 개최된 제17차 IDB 연차총회에서 일본은 영국, 독일(당시 서독) 등 11개국과 함께 마침내 IDB에 가입했다. 당시 역외국에 허용한 총 출자지분 8% 중 일본은 1.08%를 획득했다.

이후 일본은 1994년 8차 증자시 지분비율을 4% 확대, 총지분비율을 5%로 증대 하면서 IDB에서 확고한 위상을 확립했다. 일본의 IDB 지분 확대는 IDB내에서 위상 제고를 도모한 일본정부의 노력 이외에도 당시 전반적인 분위기가 일본의 지분 증대에 우호적인데 힘입은 바 컸다. 1990년대 초반 IDB는 점증하는 자금수요에 부응키 위해 일본의 IDB 참여를 적극 희망했으며 미국도 IDB내에서 중남미 국가의 영향력 축소를 위해 일본 등 역외국의 지분 확대를 희망했다.

## 나. IDB에서 일본의 위상

일본은 IDB 역외회원국 중 최대 자본출자국으로 1994년 제8차 증자회의에서 역외국 지분을 8%에서 16%로 인상할 때 인상분의 절반인 4%를 확보하여 현재 5%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며, 통상자본금(OC) 1,010억 달러 중 51억 달러를 출자해 5.0% 비중을 점유, 역외국 중 제1위이다. 일본은 또한 IDB 특별운영기금(FSO) 97억 달러 중 6억 4,000만 달러를 출자(6.6% 비중), 역외국 중 제1위를 차지했다. 일본은 1986년 설립된 IDB 산하의 미주투자공사(IIC)의 지분 3.08%를 보유,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덴마크 등과 함께 역외 회원국 중 최대지분을 확보하고 있다. 일본은 1995년 설립된 다자투자기금(MIF)에도 미국과 더불어 각각 5억 달러를 출연하여 최대 기부국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이외에도 일본은 IDB에 대한 최대 협조유자국의 자리를 고수하고 있으며 일본특별기금, 일본신탁기금 및 일·IDB장학프로그램을 운영해오고 있는 등 역외국 중 가장 활발한 활동을 전개해오고 있다.

일본은 IDB에 대한 적극적인 기금 출연 등을 통해 IDB의 총회를 비롯한 이사회 등에서 IDB 운영과 정책결정에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일본은 각 회원국 대표로 구성된 IDB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총회에 재무부 장관을 위원으로 참석시키고 있으며, 대출승인 등 일상업무의 의사결정을 행하는 이사회(역내 11명, 역



외 3명)에도 상근이사를 파견하고 있다. 2004년 현재 IDB 전문직 중 일본인은 16명(1.1% 비중)이며, 이 중 국장급 이상 간부직원 수는 5명에 달한다.

표 4-4. MDB 일본인 직원 수

(단위: 명)

		세계은행	ADB	IDB	AfDB	EBRD
일본인 직원 수	2004년 말	90	111	16	1	14
	1998년 말	94	83	15	2	11
일본인 간부직원 수		5	8	5	0	3
일본인 비율		2.0%	13.2%	1.1%	0.1%	2.2%

## 다. 일본의 IDB 관련 주요 활동

### 1) 일본특별기금 설립

1988년 4월 일본정부는 흑자환류조치의 일환으로 IDB를 수탁기관으로 일본특별기금(Japan Special Fund)을 설립하였는데, 이는 IDB의 모든 차입국을 대상으로 개발프로젝트의 준비를 위한 기술원조 등에 필요한 자금공여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 기금은 전통적으로 경제인프라 및 환경프로젝트 운영에 중점을 두어왔으나 1998년에는 기금의 활용범위를 사회부문, 특히 교육과 보건 부문으로 확대하였다. 이 자금은 현재 각국이 IDB에 설립한 기술원조기금 중 최대 규모로 자금 지원규모는 프로젝트당 70만 달러 전후이다.

## 2) 일본신탁기금 설립

1995년 2월에 일본정부는 IDB 개발프로젝트 준비단계에서 IDB 차입국이 필요로 하는 컨설팅 경비를 지원하기 위해 IDB에 일본신탁기금(JCF: Japanese Trust Fund for Consultancy Services)을 설립했다. 이 기금은 컨설팅 의뢰시 일본 국적 컨설턴트와의 계약의무화를 지원조건으로 하고 있으며 자금지원은 무상이다. 이 기금은 목적, 자금의 지원조건, 지원대상 등의 측면에서 일본특별기금과 동일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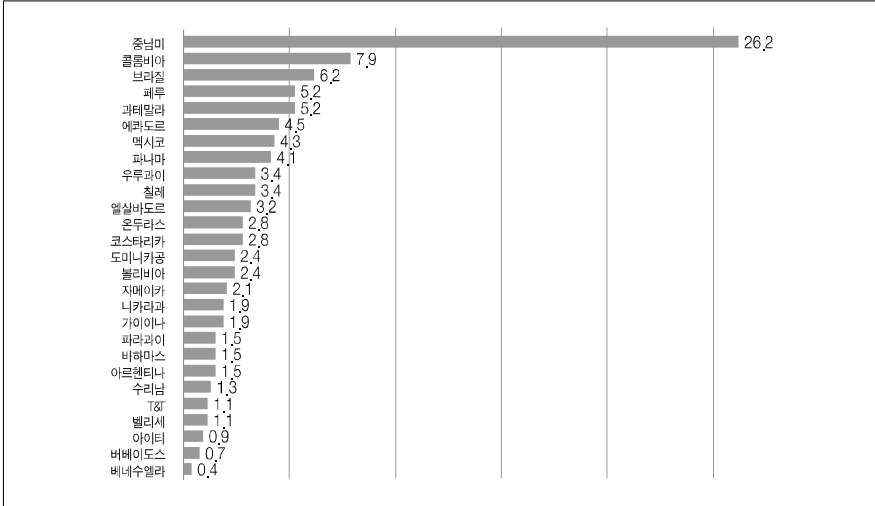
2001년에 일본정부는 JSF로부터 3억 달러를 출연, 빈곤감축프로그램(JPO: Poverty Reduction Program)을 설립했다. JPO는 차입국의 빈곤감축을 위한 기술협력 지원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2004년 9월에 JPO는 빈곤층 및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기 위해 Community Based Program(CBP)과 Loan Enhancement Program(LEP) 등 두 종류의 새로운 지원방법을 도입했다.

2008년 말까지 일본의 대중남미 신탁기금사업은 총 534건에 달했다. 이 중 중남미 전체 지역을 대상으로 한 사업 비중이 전체의 26.2%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국별로는 콜롬비아가 7.9% 비중으로 가장 컸으며 브라질(6.2%), 페루(5.2%), 과테말라(5.2%), 에콰도르(4.5%), 멕시코(4.3%) 순을 기록했다.

분야별로 일본의 대중남미 신탁기금 지원은 사회개발분야에 집중(전체의 21.5% 비중)되었다. 다음으로 환경 및 자연재해 13.1%, 국가 개혁 및 현대화 7.7%, 교통 7.5%, 교육 6.0%, 보건 5.8% 순을 기록했다.

그림 4-2. 일본의 중남미 국별 신탁기금 지원 현황(1960~2008년 12월)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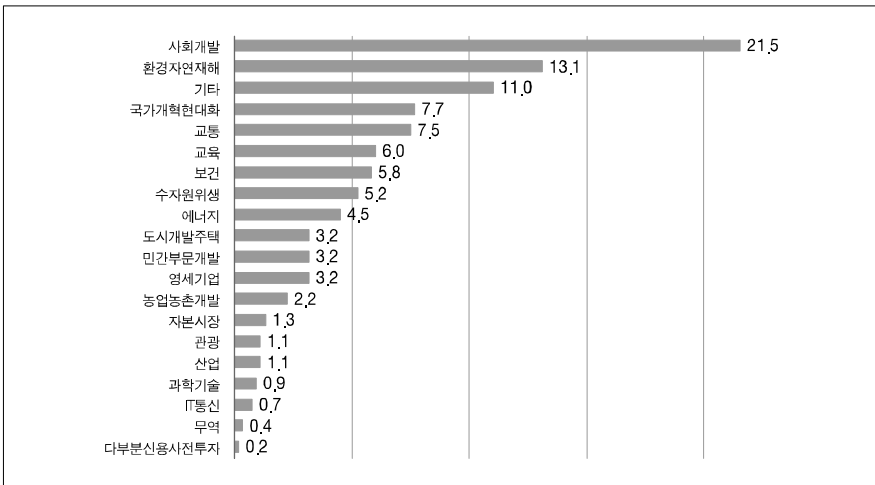


주: 총 534건.

자료: IDB

그림 4-3. 일본의 대중남미 분야별 신탁기금 지원 현황(1960~2008년 12월)

(단위: %)



자료: IDB.

### 3) 일본 · IDB 장학프로그램

1991년 일본 재무부와 IDB는 일본 · IDB 간 장학프로그램(Japan- IDB Scholarship Program)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미주개발은행 차입회원국 학생들에게 대학원에서 개발 관련 분야를 학습할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이들이 대학원 과정에서 습득한 지식과 기술을 자국의 사회경제발전에 공헌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표 4-5. 일본 · IDB 장학프로그램 수혜학생들의 유학대상 국가(1991~2007년)

국가	학생 수
아르헨티나	9
벨기에	2
브라질	8
캐나다	20
칠레	134
코스타리카	8
덴마크	1
프랑스	6
독일	2
이탈리아	2
일본	90
멕시코	5
네덜란드	13
스페인	19
스웨덴	1
영국	69
미국	219
총계	608

자료: IDB(2007b).

장학프로그램은 세 개의 하부 프로그램으로 대별된다. 먼저 북반구 소재 대학에서 수학하는 북반구프로그램(Northern Hemisphere Program), 둘째 남반구 소재 대학에서 수학하는 남반구프로그램(Southern Hemisphere Program), 셋째 일본대학에서 수학하는 특별프로그램(Special Program) 등이다.

매년 40명 정도의 장학생 모집에 지원자 수는 700명에 달하고 있다. 1991년 설립 이후 2007년 말까지 약 600명의 학생이 이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았다. 수혜학생들은 졸업 후 적어도 2년간 출신국가에서 복무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의 재원은 일본정부의 단독출연을 통해 조성되는데, 초기 자본금은 44만 8,000달러였다.

일본정부는 매년 IDB 장학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북반구와 남반구의 장학생 수혜 학생들을 초청하여 Japan Trip이라는 명목으로 1주일간 일본여행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 4) Japan Program

1990년대 후반 들어 중남미지역의 정책입안자와 연구자들은 일본과 아시아지역의 경제사회개발 경험에 커다란 관심을 갖게 되었다. 이러한 점증하는 관심을 반영하여 1999년 일본정부와 IDB는 일본 및 아시아 국가들과 중남미 국가의 관계증진을 위해 Japan Program을 설립했다. 이 프로그램의 목적은 사회경제개발전략 수립을 목적으로 일본 및 아시아와 중남미지역 국가간의 전문가 교류, 지식 및 관행을 교환하기 위한 것이다. 이 프로그램은 양 지역 개발 관련 기관간의 교류를 촉진하며 일본과 관련된 IDB의 사업 활성화에 초점이 맞추어졌다. Japan Program은 일본특별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한다. 주요 활동은 [표 4-6]과 같다.

표 4-6. Japan Program의 주요 내용

사업 항목	주요 활동
지식 전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경제사회개발에 있어 중요한 일본 및 아시아 국가들의 지식, 경험 등을 발굴</li> <li>아시아국가에 대한 중남미 각국의 관심분야 발굴</li> <li>지식교류 촉진</li> </ul>
네트워크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중남미지역 기관과 실질적인 공동사업을 추진할 아시아 각국의 기관 발굴</li> <li>양 지역 기관(공공기구, 지방정부, NGO, 연구소, 대학, 민간기관 및 기업 등)간의 새로운 네트워크 및 파트너십 촉진</li> </ul>
정책연구 및 비교 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발굴된 지식, 경험 및 수요에 기초, 양 지역간의 특성, 수요, 방법론, 기술 등에 대한 비교연구 수행</li> <li>혁신적 정책연구 및 비교연구 지원</li> </ul>
공동세미나 및 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세미나, 회의 등 기획 및 조직</li> <li>아시아 국가들의 지식을 실질적으로 중남미지역에 전수할 수 있도록 워크숍, 사례연구 및 관련 활동 기획 및 조직</li> </ul>
홍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Japan Program의 활동을 IDB 대내외에 홍보</li> <li>아시아 국가들이 중남미지역에 전수할 수 있는 경험 등을 문서화</li> </ul>
프로젝트 기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IDB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아시아 각국의 경험 발굴 및 전수</li> <li>중남미지역과 아시아지역 간의 이해를 증진시키고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신규 프로젝트 마련</li> <li>아시아계 중남미인들이 양 지역간의 가교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프로젝트 개발</li> </ul>
Japan-IDB 장학기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장학기금 운영</li> <li>일본에서 수학한 장학금 수혜학생의 활동 사후관리 등을 포함한 기금활용방안 모색</li> <li>아·태지역과의 교역 촉진</li> <li>중남미와 태평양권과의 교역 및 통합 촉진</li> </ul>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ADB 등 국제기구와 공동사업 추진</li> </ul>

Japan Program은 2001년 체결한 IDB- ADB 간 파트너십(Partnership) 협정에 힘입어 중남미와 아시아 지역의 관계증진에 매우 중요한 창구로 활용되고 있다. IDB와 ADB는 2001년 3월 17일 IDB의 Japan Program의 일환으로 아·태지역과

중남미지역 간의 협력 및 교류를 지원하기 위해 광범위한 분야에서 상호 협력을 주 목적으로 하는 파트너십협정을 체결했다. 협력의 주요 목표는 중남미지역 및 소지역(sub region) 개발, 빈곤축소, good governance, 지방분권화, 경쟁력 증진, 교역 촉진 등이다. 양 기구는 파트너십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환태평양 비즈니스네트워크(The Transpacific Business Network), 중남미·아태지역 경제경영연합(LAEBEA: The Latin American and Caribbean and Asia-Pacific Economics and Business Association)을 구축하였다.

#### 글상자 4-1. 환태평양 비즈니스네트워크

- 창설 목적: 양 지역간의 정보교류, 프로그램, 연구성과물 및 공동사업 추진 지원
- 1단계: 교역 및 민간부문에 대한 정보접근을 확대함으로써 양 지역간의 상호이해 증대
- 2단계: 양 지역 공공 및 민간부문간 경험 및 best practices 교류, 양 지역 시장 및 사업기회 관련한 네트워크 구축 장려
- 3단계: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양 지역 민간부문 및 기타 기관간 전략적 제휴 및 파트너십 구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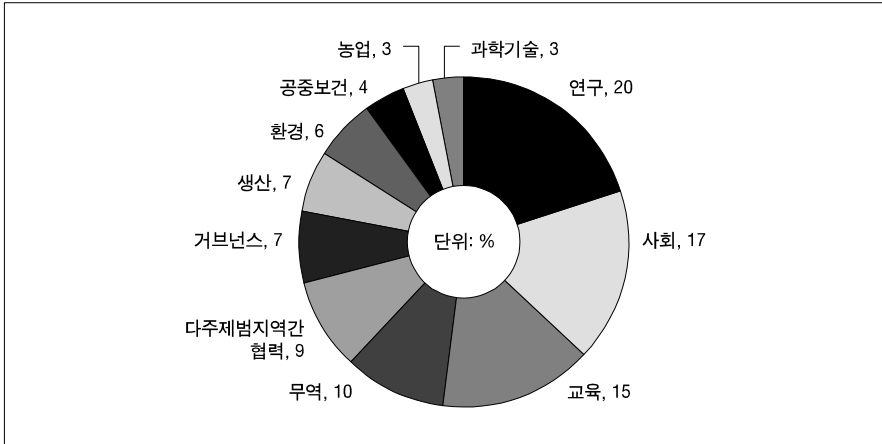
#### 글상자 4-2. 중남미·아태지역 경제경영연합

- 목적: 정책결정자와 민간부문간의 정책아이디어를 교환하고 학계 네트워크를 확장하기 위해 비교연구에 관심 있는 연구자들을 대상으로 한 포럼 개최
- 참석대상: 경제학, 금융, 공공정책, 경영학 분야의 연구자

2007년 말까지 Japan Program은 IDB가 승인한 프로젝트의 기술협력(TC)사업에 2,040만 달러를 제공했다. 주요 지원분야는 연구(전체의 20%), 사회(17%), 교육(15%), 무역(10%) 분야 등이었다.

그림 4-4. Japan Program의 분야별 프로젝트 지원 현황(1999~2007년)

(단위: %)



자료: IDB.

### 5) 협조용자

1990년대 일본의 IDB에 대한 협조용자 규모는 연평균 10억 달러에 달했는데, 이는 세계은행을 제외한 여타 국제기관 및 국가의 83%에 달했다. 일본의 IDB 지원프로젝트를 위한 협조용자는 IDB와 일본의 주요 공공기관인 일본수출입은행(Jexim), 일본국제협력은행(JBIC), 일본국제협력청(JICA)을 통해 실시된다. IDB는 일본수출입은행 등과 정기적인 모임을 갖고 진행 중인 협력사업을 평가하고 협조용자 기회를 논의하며 일본국제협력청과도 비정기적인 모임을 가지고 있다.

### 6) IDB의 재원조달 창구

IDB는 1966년 처음으로 OC 재원을 목적으로 일본수출입은행으로부터 자금을 직접 차입했다. 1976년 일본의 IDB 가입 이후 IDB는 엔화표시 장기 사무라이 채



권을 기채했으며 후에 유로시장에서도 엔화표시 채권을 발행했다. 2005년 말까지 일본 자본시장에서 IDB의 자금조달 규모는 IDB 전체 자금조달의 6%인 27억 9,800만 달러에 달했다.

## 라. 일본의 IDB 가입을 통한 성과

### 1) 경제적 성과

일본의 IDB 가입을 통한 경제적 성과는 IDB 건설 및 인프라 발주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경우와 IDB 사업 관련 정부조달시장 참여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그러나 일본의 IDB 발주 프로젝트 참여규모는 자료접근의 제약으로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어 본고에서는 일본의 IDB 조달시장 참여에 국한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표 4-7. 일본의 IDB 조달시장 수주규모(1960~2008년 12월)

(단위: 천 달러, 건)

재화 및 건설(A)	금액	760,625
	건수	1,188
재화	금액	673,831
	건수	1,167
건설	금액	86,794
	건수	21
건설팅(B)	금액	27,503
	건수	32
개인건설터트	금액	218
	건수	11
건설팅업체	금액	27,285
	건수	21
합계(A+B)	금액	788,128
	건수	1,2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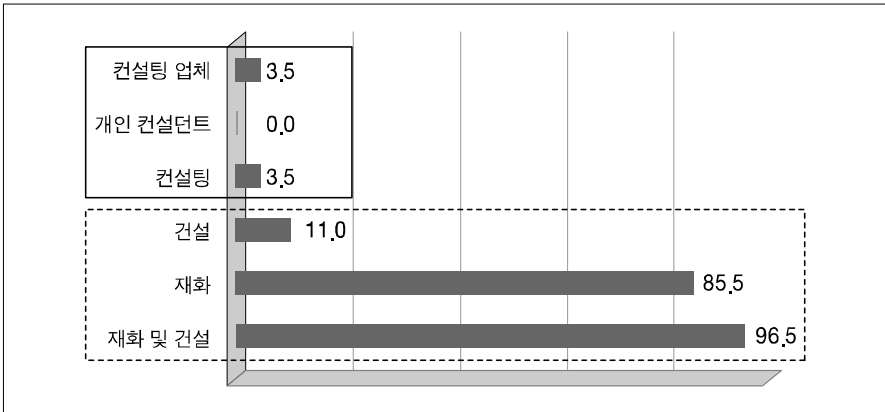
자료: IDB.

일본은 IDB 프로젝트에 직접 참여하는 것 이외에도 IDB 관련 프로젝트 추진 시 필요한 물품과 용역 등의 조달시장 참여를 통해 경제적 실익을 도모하고 있다. 2008년 12월까지 일본이 IDB 조달시장을 통해 수주한 금액은 총 1,220건, 약 8억 달러에 달한다.

이 중에서 재화 및 건설이 96.5%로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며 컨설팅 서비스 비중은 3.5%에 불과하다. 세부 항목별로 살펴보면 재화가 85.5%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즉 이는 일본의 IDB 조달시장 참여가 물품 등 자재 공급에 편중되어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에 반해 토목·건설의 비중은 11%에 불과했다. 컨설팅의 경우 개인 컨설턴트의 참여는 11건에 불과했고, 컨설팅업체의 참여가 대부분이었으며 이마저도 21건에 불과했다.

그림 4-5. 일본의 IDB 조달시장 수주규모(1960~2008년 12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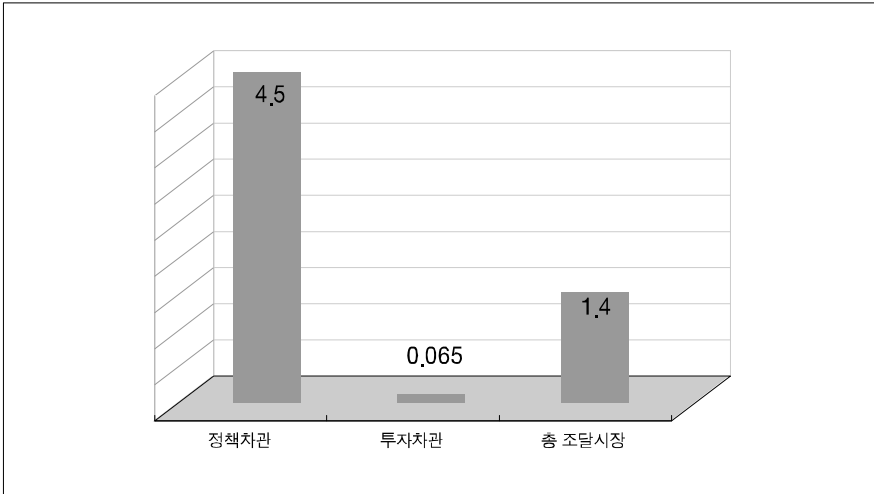
(단위: %)



한편 IDB 연차보고서 통계를 통해 살펴본 최근 3년간(2005~07년) 일본의 IDB 조달시장 참여 비중은 1.4%를 기록했다. 금액 측면에서 2007년 기준으로 일본의 IDB 조달시장 참여규모는 8,760만 달러에 달했다.

그림 4-6. 일본의 IDB 조달시장 참여 비중(2005~07년 합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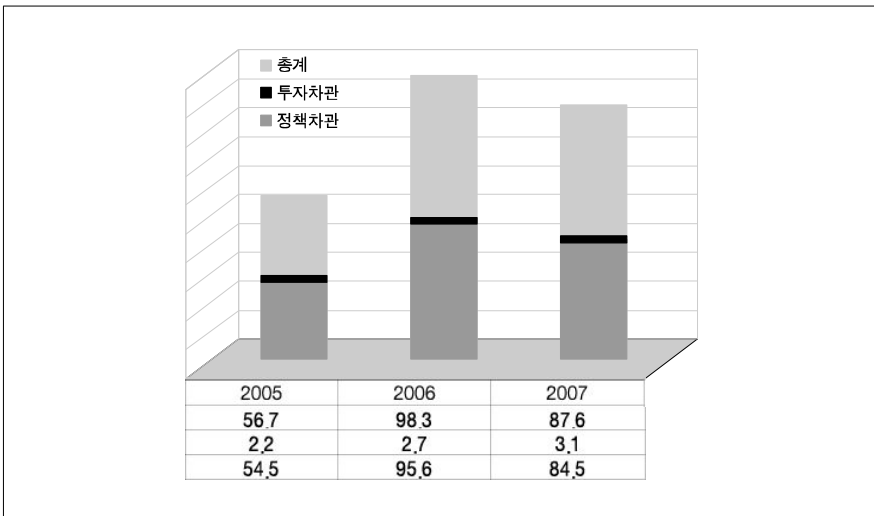
(단위: %)



자료: IDB, "Annual Report," 각년호

그림 4-7. 일본의 IDB 조달시장 참여규모

(단위: 백만 달러)



자료: IDB, "Annual Report," 각년호

이상에서 살펴볼 때, 일본이 IDB 가입을 통해 일정 정도의 경제적 실익을 거두고 있는 것으로 볼 수는 있으나, 일본의 대중남미 수출규모 등 중남미시장에서 차지하는 일본의 경제적 위상과 비교해볼 때 그 성과는 상대적으로 미미하다.

## 2) 간접적인 성과

일본의 IDB 가입을 통한 경제적 성과는 직접적인 성과보다는 간접적인 성과를 통해 두드러지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일본은 대중남미 경제협력의 창구로서 IDB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실은 일본의 IDB 관련 주요 활동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일본은 일본특별기금, 일본신탁기금 등을 통해 일본기업의 중남미 진출을 간접지원하는 한편, 일·IDB 장학프로그램, Japan Program, IDB 아시아 사무소 운영을 통해 중남미지역과의 인적 교류를 확대해오고 있다. 특히 일본은 중남미지역과의 다자협력의 채널로서 IDB를 적극 활용, 중남미지역과의 협력효과를 극대화하고 있는바, 이의 단적인 예가 IDB와 공동으로 펼치고 있는 유무상 자금지원 사업이다.

특히 일본은 IDB와의 긴밀한 관계를 통해 중남미의 경제정세나 투자환경에 관해 보다 정확한 정보를 입수하고 습득한 정보를 수출이나 해외투자를 계획한 일본 기업에 제공하고 있다. 이외에도 일본은 IDB 회원국으로서 협상력을 발휘하여 중남미 국가들과 일본기업 간에 발생한 문제를 해결하는 등 일본기업의 수출이나 해외투자를 측면지원하기도 한다.

## 2. 스페인의 IDB 활용 전략과 사례

### 가. 스페인의 IDB 가입 배경

#### 1) IDB의 외연 확장과 유럽·중남미 협력 강화

스페인의 IDB 가입은 IDB가 역외국가에 문호를 개방한 1970년대에 다수의 유럽국가와 공동으로 이루어졌다. 양자원조가 주류를 이루던 시기에 다자기구를 활용한 원조를 병행하게 됨으로써 스페인은 국제개발협력의 지평을 한층 넓히게 되었다.

스페인의 IDB 가입은 먼저 IDB의 외연적 확장정책에 따른 유럽국가들의 적극적인 참여의 결과였다. 1959년에 설립된 IDB는 중남미지역과 선진 공업국들 간의 연계 강화를 추구해왔다. 출범 이후 유럽국가들이 가입하기 직전인 약 15년 동안 IDB의 대외협력은 주로 미국 일변도였다. 이에 IDB는 중남미지역에서 확대되고 있는 개발협력 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유럽 및 이스라엘과의 협력 강화를 모색하였다. 1961년에 펠리페 에레라(Felipe Herrera, 1959~71) IDB 초대 총재는 유럽특별대표를 지명한 데 이어 1962년에는 중남미지역 개발을 위한 유럽의 자금 동원과 상호이해 제고를 목적으로 파리에 유럽사무소를 개소하였다. 사무소 개소를 시작으로 유럽 각국 자본시장에서 채권 발행이 시작되었고, 유럽 각국 정부는 역외국가에 대한 회원 가입이 개방되지 않았음에도 중남미개발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한 협조융자, 신탁기금 등의 정책수단들을 IDB 관리하에 두기 시작했다. IDB는 유럽 자본시장에서는 처음으로 1962년 이탈리아에서 150억 리라 규모의 기체에 성공하였다.

1970년대 들어 IDB는 2대 총재인 메나(Antonio Ortiz Mena, 1971~88)의 리더

십 아래 지역개발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경험, 노하우, 자금 등에서 앞서 있는 역외국가들에 문호를 개방하기 시작했다. 1974년 마드리드선언(Declaration of Madrid)을 통하여 유럽국가들의 IDB 가입을 공식화하였고, 1976년과 1977년에는 오스트리아, 벨기에,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네덜란드,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영국, 유고슬라비아 등 13개 유럽국가와 이스라엘, 일본이 IDB에 가입했다. 이후 포르투갈(1980년)과 노르웨이(1986년)의 가입, 유고슬라비아(1993년) 탈퇴, 크로아티아 및 슬로베니아, 한국(2005년), 중국(2008년) 등의 가입으로 이어졌다.

유럽국가들의 가입은 역내외 회원국간 상호 이익이 부합한 결과로 평가된다. IDB 가입으로 유럽 각국의 정부는 대표부 설치와 자본을 바탕으로 중남미 전 지역에서 개발정책을 강화하게 되었으며 유럽기업들은 IDB가 발주하는 각종 사업에 경쟁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 반대로 IDB는 국가 및 제도 개혁, 시민참여, 정보기술, 환경보호, 소기업, 문화유산 보존, 양성평등, 개발에서 여성의 역할, 이동 보호, 빈곤층 보호, 원주민 보호 등 각종 이슈에 대한 유럽국가들의 아이디어와 관심을 중남미지역을 위해 활용하게 되었다.

2006년 말 기준으로 13개 유럽국가와 이스라엘이 IDB 신탁기금 50개 가운데 35개 기금에 1억 9,000만 달러를 출연하였다.<sup>18)</sup> 주요 신탁기금 조성 국가로는 스페인, 이탈리아, 노르웨이, 프랑스, 네덜란드, 스웨덴, 영국, 덴마크, 오스트리아, 벨기에, 핀란드, 포르투갈, 스위스 등이고, 다자기구로는 EC가 추가된다.

18) 2008년 현재 유럽 국가 및 지역에서 설정된 신탁기금 가운데 접근 가능한 신탁기금은 30개에 1억 8,141만 달러이다.

표 4-8. 유럽 국가 및 다자기구의 IDB 기술 및 프로그램 신탁기금 현황

기술협력 신탁기금		
기금명	국가·기구	설정연도
Austrian Technical Cooperation Trust Fund	재무부	1992
Belgian Trust Fund for Consultants	국제협력국	1991
Danish Consultants Trust Fund/Danish Consulting Services Trust Fund	외무부	1994, 1999, 2003
EEC Special Fund for Technical Consultancy Services/Special Fund for European Technical Assistance in L.A.	유럽집행위원회	1997
Finnish Technical Cooperation Trust Fund for Consulting Services/Finnish Technical Assistance Program	외무부	1997, 2003
French Technical Cooperation Fund for Consulting Services and Training Activities	경제재정산업부, 외교부	1997
Italian Consulting Firms and Specialized Institutions Trust Fund	외무부	1992
Italian Individual Consultant Trust Fund	외무부	1992
Italian Special Trust Fund for the Sustainable Development of Argentina	외무부	2002
Italian Trust Fund for Cultural Heritage and Sustainable Development	외무부	2002
Italian Trust Fund for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for Development	혁신기술부	2003
Italian Trust Fund for MIF Project Preparation	재정예산경제기획부	2000
Norwegian Consultants Fund	노르웨이 개발협력청	1994
Portuguese Technical Cooperation Fund	재무부	1991
Spanish General Cooperation Fund	경제부	2001
Spanish Trust Fund for Consulting Services	국제무역청(ICEX)	1994
Swedish Trust Fund for Consulting Services	국제개발협력청	1991
Swiss Technical Cooperation Trust Fund for Consulting Services and Training Activities	경제부	1994
U.K. Technical Cooperation Trust Fund for Consulting Services	통상산업부	1994
프로그램신탁기금		
기금명	국가/기구	설정연도
Austrian Hurricane Mitch Disaster Assistance and Reconstruction Trust Fund	재무부	1999
Capacity Building Fund for Local Institutions in Central America	영국 국제개발국	1999
DFID-IDB Enlace in Central America	영국 국제개발국	2004
Sida/IDB Partnership Program in Central America	스웨덴 국제개발협력청	

표 4-8. 계속

프로그램신탁기금		
기금명	국가·기금	설정연도
IDB-Netherlands Water Partnership Program	외무부	2002
Norwegian Fund for Innovation in Social Program	외무부	1997
Norwegian Fund for Microenterprise Development	외무부	1998
Norwegian Fund for Women in Deveopment	외무부	1993
Social Enterprise Program (SEP) • EC Fund Small Projects in Latin America • EC Special Fund for Financing of Microenterprises • Italian Trust Fund for MicroenterpriseDevelopment • Norwegian Development Fund for L.A.	EC EC 외무부 개발협력부	1991 1997 2002 1970, 1987
• Swedish Trust Fund for Small Projects	국제개발협력청	1992
Social Inclusion Trust Fund(노르웨이/영국)	외무부/국제개발국	2003
Multidonor Disaster Prevention Trust Fund	스페인 재정경제부	2006
Spanish Trust Fund for Entrepreneurship Program	스페인 재정경제부	2008
Swedish Fund for Prevention of Domestic Violence	국제개발협력청	1998
Swedish Technical Cooperation Fund for Governance, State Reform and Civil Society	국제개발협력청	1998
Netherlands-IDB Partnership Program in Environment	개발협력부	2000

유럽국가들은 다자 및 양자 형태로 협조유자를 제공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유럽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 유럽투자은행(European Investment Bank), 북유럽개발기금(Nordic Development Fund) 등으로부터의 다자자금과 오스트리아,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노르웨이, 스페인, 스웨덴, 영국 등 정부와 개발기관들로부터 양자자금이 협조유자 형태로 공급되고 있다. 일부 협조유자의 경우 무상원조형태로도 지원되고 있는데, 상수도, 위생, 세계개혁을 통한 사회능력구축 등의 주요 사업분야 연구에서는 스웨덴과 영국이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

IDB 연차총회도 마드리드(1981년), 빈(1985년), 암스테르담(1989년), 함부르크



(1993년), 예루살렘(1995년), 바르셀로나(1997년), 파리(1999년), 밀란(2003년)에서 각각 개최되었다.

## 2) 대중남미 외교전략

스페인의 대중남미 외교전략은 IDB 가입의 배경이기도 하지만, 최근 들어서는 중남미지역에서 스페인의 국가이익을 보호하는 주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195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유럽에서 가장 가난한 변방국이었던 스페인은 1975년 프랑코(Francisco Franco) 사망 이후 입헌군주국으로 이행하면서 정치적 안정을 이룩하였다. 이와 동시에 경제적 번영을 추구하는 가운데 과거 식민지였던 중남미지역과의 연대 강화 및 양자원조와 다자원조의 병행을 통하여 전통적인 협력체제를 회복시키고 강화할 필요성이 높아졌다. 실질적으로 1986년 EC에 완전 가입하기 이전까지 외교전략의 중심에는 영연방과 같은 스페인연방(Hispanic Commonwealth) 구축이 스페인의 언론과 정치권에서 지속적으로 회자되었다. 즉 이베로·중남미지역 연계(Ibero-Latin American Connection)는 스페인 외교정책의 새로운 추세였다. 이를 가능케 한 것이 독재정권의 붕괴에 따른 국내정치 변동과 급격한 경제성장 및 구조조정이었다.

스페인 외교부는 중남미지역에서 스페인의 국가이익 보호와 중남미지역이 대면한 문제들의 해결책을 찾으려는 중남미 국가들의 이해가 조우하면서 중남미지역이 대외정책의 핵심지역으로 부상했다고 평가했다. 특히 1980년대 말 중남미 대부분 국가에서 문민정부의 수립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생활수준 향상이라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제시되지 못한 것으로 파악했다. 이러한 국민생활 불안정은 워싱턴 컨센서스에 기초한 경제정책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으로 인식되었는데, 보다 근본적으로는 절차만 강화된 민주주의 때문으로 인식했다. 그 결과 민주주의에 대한 새로운

대안 모색으로 중남미지역에서 민주주의가 다시 인기를 얻고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sup>19)</sup>

스페인인 이러한 중남미의 현실을 감안하여 민주주의에 대한 실망과 불안정, 그리고 지속적인 부의 창출과 사회적 응집력을 약화시키는 경제모델에 일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 스페인은 이용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고자 하는데, 먼저 대중남미 협력활동의 초점을 시민단체의 참여를 통한 제도 강화와 사회적 응집력 강화에 두고 있다.

또한 스페인은 중남미지역에서의 경제적 이익 보호에도 관심을 집중하고 있다. 스페인 정부는 경제적 이익 보호를 위해서 중남미지역에 진출해 있는 자국 기업들의 사회적 책임이 중요함을 역설하고 있는데, 스페인 기업들도 이미 정부의 이러한 입장을 수용하여 진출지역에서의 성공을 위해서는 중남미지역의 번영과 안정이 중요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 3) 경제협력 중요성 제고

1950년대 지중해지역 저발전국이던 스페인이 OECD 전신인 OEEC와 IMF의 지원을 바탕으로 고성장을 달성하면서 중진국으로 변모한 것은 세계경제로 스페인이 편입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즉 1958년 스페인의 국민소득은 324달러로 멕시코(255달러), 브라질(252달러), 포르투갈(212달러)보다는 높았지만, 쿠바(379달러), 아르헨티나(476달러), 베네수엘라(715달러)보다는 낮은 저소득국이었다. 그러나 1958년 출범한 유럽지향주의자들로 채워진 새로운 내각은 World Bank 및 IMF 가입(1958년), 유럽경제협력기구(OEEC, OECD 전신) 가입(1959년) 등을 바탕으로

19) 스페인 대중남미 외교정책은 2008년 11월 필자의 현지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되었다.

시장경제에 대한 정책을 추진했다. 1959년에 발생한 외환위기는 시장경제정책의 가속화에 기여했는데, 프랑코 정부는 국제 채권국들의 조건을 수락함으로써 국제적인 경제적 고립을 끝냈다. 결과적으로 OEEC와 IMF의 안정화프로그램을 바탕으로 자국화폐인 페세타(peseta) 가치를 절하하고, 환율을 통합했으며, 물가상승을 억제했다. 또한 국제무역 자유화, 관광산업 촉진, 공식적인 차관 도입 등은 외국인투자 유치에 우호적인 조건으로 작용했다.

신규 국가개발전략이 채택된 1959~60년부터 1972~73년까지 스페인의 실질 GNP는 연간 7.3% 증가했는데, 이는 당시 24개 OECD 회원국 가운데 유일하게 일본과 그리스만이 스페인보다 성장률이 높았다. 1974년 스페인 경제는 1960년과 비교할 때 확연하게 다른 모습으로 변모했다. 즉 실질 총생산은 2.8배, 공업생산은 4배, 서비스 생산은 2.7배, 농업생산은 1.6배 각각 증가했다. 또한 1973년부터 스페인은 1인당 국민소득이나 다른 경제지표에서 중남미 국가들을 앞서가기 시작했다. 즉 스페인은 주요 제조업 수출국으로 부상했으며, 중남미지역에 직접투자, 여신, 기술을 제공하는 국가로 변모하기 시작했다. 중진국으로서 스페인의 위상 강화는 이전 식민지 및 브라질과 특별관계를 구축하는 과정으로 ‘수사적인 히스패니즘(hispanism)’을 ‘실제적인 히스패니즘’으로 대체할 능력을 갖추는 데 일조했다. 1957~58년 대중남미 수출은 총수출의 11.2%인 연평균 5,600만 달러, 수입은 11.1%인 9,700만 달러에 불과했다. 중남미 외채위기 발발 직전인 1981년 대중남미 수출(쿠바 포함)은 총수출의 9.4%인 19억 2,300만 달러, 수입은 11.5%인 36억 9,300만 달러를 기록했다. 비록 1950년대 말부터 1981년 사이에 양측간 교역은 극적으로 증가했지만, 스페인 전체 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안정적이었다.

양측간 무역관계에서는 상호 비교우위 및 보완성이 매우 강조되었다. 예를 들면 1979년에 스페인 대중남미 수출의 91%가 공산품인 반면, 수입의 90%는 식료품

(41%), 연료(26%), 농산물(18%) 등 1차 상품이었다.

스페인의 대중남미 경제적 우위는 중남미지역에 대한 자본수출국이 되면서 확실 시되었다. 1960년대부터 1986년 스페인의 EC 가입시기까지는 스페인 해외직접투자의 1단계에 해당한다. 1970년대까지 스페인의 해외직접투자(ODI)는 전 세계 ODI의 0.1%에 불과하였고, 주로 중소기업을 위주로 상업, 금융활동, 수출 지원활동, 국내시장 공급용 원자재 개발 등에 집중되었다. 또한 투자지역은 EC가 대부분을 차지한 가운데 멕시코, 아르헨티나, 칠레가 주요 대상국(브라질 제외)이었다. 그러나 이후 중남미 외채위기 발발 직전까지 스페인의 ODI는 전 세계 ODI의 0.3%까지 증가했고, 대중남미 투자가 급증하면서 상대적으로 EC 및 미국에 대한 투자 비중이 줄어들었다. 주로 상업 및 금융업을 중심으로 투자는 멕시코, 베네수엘라, 칠레, 아르헨티나, 브라질에 집중되었고, 파나마와 푸에르토리코도 투자대상국으로 부상하기 시작했다. 1981년 말 스페인의 ODI는 17억 달러였는데, 이 중 약 50%가 중남미지역에 투자되었다.

스페인의 대중남미 ODI는 프랑코 정권 이후 대중남미 정책 강화, 해외투자를 허용하는 스페인 해외투자법의 점진적인 자유화, 국내경제의 조기번영에 대한 스페인 민간투자자들의 비관주의 등이 작용하여 1974년부터 가속화되었다. 대신에 많은 스페인 기업은 브라질, 멕시코 베네수엘라 등 당시 성장가도를 달리던 국가에 대한 투자를 대안으로 간주했다.

해외투자를 가장 활발하게 추진한 부문은 금융산업으로서 1974~80년 스페인 대중남미 투자의 30% 이상이 은행 자회사, 지점, 대표부 등의 형태로 진출했다. 1982년 산탄데르은행(Banco de Santander)은 지점 수나 종업원 수에서 BOA(Bank of America)를 앞서기도 했다. 스페인의 대중남미 진출은 정부, 주요 상업은행, 자본재 제조업, 엔지니어링 기업들의 합작품이었고, 그 결과 중남미지역과의 무역 및 투자 확대 등을 통한 경제협력 활성화는 IDB 가입으로 이어졌다.

한편 중남미지역에 대한 차관도 1982년 중반에는 약 38억 달러를 기록했으며, 기술지원계약 및 라이선스협정을 바탕으로 중남미지역에 대한 새로운 기술공급원으로 등장했다.

## 나. IDB에서 스페인의 위상

2008년 현재 스페인은 IDB에 통상자본(OC) 19억 1,370만 달러(납입자본금 8,230만 달러), 특별운영기금(FSO) 2억 1,580만 달러를 출연, 1.896%의 지분(투표권)을 갖고 있다. 또한 스페인은 오스트리아, 덴마크, 프랑스, 노르웨이, 스웨덴과 투표권을 공유하고, 프랑스와는 3년마다 집행이사 지위를 번갈아 담당하고 있다. 2008년 9월부터 프랑스가 이사직을 수행 중이다. 한편 스페인 재정경제부(MEH)는 IDB 사업을 관리하는 2명의 인력을 IDB 본사에 파견하고 있다.

통상자본 이외에 다자투자기금(MIF)에도 7,000만 달러를 출연하여 4.22% 투표권을 보유, 일본과 유사한 수준의 공여국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미주투자공사(IIC)에도 3.84%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스라엘, 일본, 한국, 포르투갈과 공동투표권을 행사하고, 2008년 7월부터 집행이사직을 담당하고 있다.

또한 스페인은 1993년 최초의 신탁기금을 출연한 이후 2006년과 2008년에 자연재해 및 사회적 프로젝트를 추가출연하는 등 새로운 프로그램형 신탁기금 출연을 통해 활발하게 활동 중이다.

한편 IDB에 종사하는 스페인 국적의 인력은 2008년 11월 현재 60명으로 조사되었다.

## 다. 스페인의 IDB 관련 주요 활동

### 1) 신탁기금 현황

2008년 현재 IDB에서 관리되는 스페인 신탁기금을 살펴보면, 대외무역청의 컨설턴트기금(Spanish Fund for Consultants, 1,390만 달러), 재정경제부의 일반협력기금(Spanish Framework-General Cooperation Fund, 4,808만 달러), 다자재해예방신탁기금(Multidonor Disaster Prevention Trust Fund, 258만 달러), 그리고 기업프로그램기금(Spanish Trust Fund for the Entrepreneurship Program) 등 4대 기금이 있다.

첫째, 1993년 12월 13일 스페인 대외무역청과 IDB 간의 협정으로 설립된 컨설턴트기금(Spanish Fund for Consultants)은 IDB가 지원하는 프로젝트, 프로그램 등과 관련하여 차입국에 기술지원을 제공한다. 기금은 차입국의 공공 및 민간 기관이 활용할 수 있고, 일반적인 IDB 기술협력절차를 따른다. 모든 차입국 회원국에 개방되며, 활용 가능한 사업분야는 상하수도프로젝트, 쓰레기처리프로젝트, 도심개발, 농업, 산업구조조정, 민영화, 환경, 관광업, 인프라(통신, 에너지, 교통), 보건, 교육 등 포괄적이다. 이 기금은 스페인 컨설팅 기업이나 스페인 거주 개인 컨설턴트에 100% 제한되어 있다. 프로젝트 규모는 약 15만~50만 달러 수준에서 결정된다. 2008년 12월 현재까지 90개 프로젝트에 1,655만 달러가 승인되었는데, 페루 리마시의 도심교통투자프로젝트(2002~03년), 온두라스 테구시갈과 시의 도심교통기술설계사업(2003년), 에콰도르의 쓰레기관리프로그램 타당성조사사업(2005년), 코스타리카의 상수위생프로그램(2008년) 등이 대표적인 지원사업이었다.

둘째, 2001년 3월 설립된 일반협력기금(FGCE: Spanish Framework-General Cooperation Fund)은 상환의무가 없는 기술협력기금으로 활용된다. 주로 IDB가 후원하는 기술협력프로젝트를 지원하는 개인 컨설턴트, 전문기관, 혹은 기업이 제공하는

서비스와 관련한 비용으로 사용된다. 기금 설립절차에 따라 IDB가 기술협력프로젝트 컨설턴트의 모집부터 평가까지 일괄적으로 관리한다. 주요 기술협력사업에는 국가현 대화, 생산부문 경쟁력 강화, 중남미지역통합 등에 한정된다. 15만 달러에서 50만 달러 이내에서 실행되는 각 프로젝트에 제공되는 기금의 75%까지는 스페인의 컨설턴트와 기업에 한정되고, 25%는 모든 회원국 컨설턴트 및 기업에 개방된다. 2008년 12월 현재까지 144개 프로젝트에 2,570만 달러가 투입되었다.

셋째, 2006년 설정된 다자재해예방신탁기금(Multidonor Disaster Prevention Trust Fund)은 일본 및 한국과 공동으로 설립되었다. 상환의무가 없는 이 신탁기금은 자연재해 취약성 감축, 자연재해 예방 및 완화, 조기경보체제·교육·커뮤니케이션 구축 및 강화, 취약성 감축을 위한 토지사용계획, 기관능력·정책·프로그램 강화, 보험시장 강화 등 자연재해 관련 기술협력프로그램에 활용된다. Contribution Letter에 가입함으로써 모든 회원국에 가입이 허용된 기금으로 모든 차입국 회원국과 회원국 컨설턴트에 개방되어 있다. IDB는 2008년에 본격적으로 사업을 개시한 이 기금에서 2008년에만 7건에 444만 달러를 승인했다.

넷째, 2008년 4월 1,000만 달러 기여금으로 설립을 약속한 기업프로그램기금(FEP: Spanish Trust Fund for the Entrepreneurship Program)은 기간 및 조건이 IDB의 SEP와 동일하다. 모든 차입국 회원국과 컨설턴트에 개방되어 있으나 FSO에 접근이 곤란한 회원국을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 2) 협조유자

IDB 협조유자에 스페인의 참여는 활발하지 않지만, 무상지원형태의 협조유자에 일부 참여하고 있다. 2001년 도입된 COFAB(Cofinancing Grants Administered by the IDB)은 IDB가 관리하는 전형적인 상환의무가 없는 융자금으로서 차입회원국

을 대상으로 IDB가 실시하는 특별프로젝트, 프로그램 등에 비영리 국제기구 및 회원국 정부 혹은 기구가 참여하고 있다. COFAB은 투자 및 기술 협력프로그램 형태로 제공된다. 스페인 이외에 캐나다, EU, 핀란드, 독일, 스위스, 영국이 참여하고 있고, 지원규모는 2002~05년 연평균 200만 달러에 불과했으나 2006년 4,400만 달러, 2007년 5,700만 달러로 크게 증가했다. 주로 재생에너지, 에너지효율화, 원주민 창업 개발, 사회통합 등의 사업에 지원되는데, 아이티 직업훈련프로젝트, 니카라과 및 아이티의 상수도위생프로젝트 등이 대표적이다.

## 라. 스페인의 IDB 가입을 통한 성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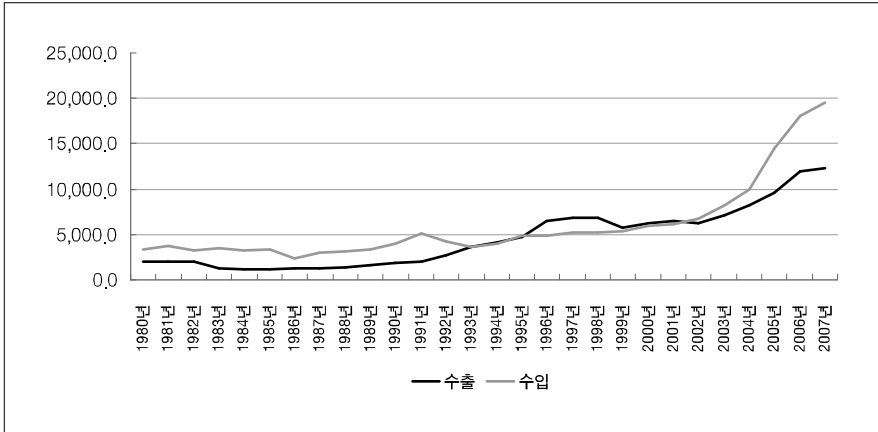
### 1) 경제적 성과

스페인의 대중남미 교역은 1980년 전체 교역의 9.8%인 약 54억 달러에서 2007년 5.2%인 318억 달러로 증가했다. 같은 기간 스페인의 교역량이 약 10배 증가한 것과는 달리 대중남미 교역은 절반수준인 약 5배 증가하는 데 그쳤다. 그러나 2000년 이후 스페인의 대중남미 교역은 스페인 전체 교역 증가율보다 높게 나타났다. 즉, 2000~07년 대중남미 교역은 162% 증가한 데 반해, 전체 교역 증가율은 142%에 그쳤다. 특히 대중남미 수입의 경우 2000~07년에 연평균 18% 증가하여 총수출 증가율 10%를 훨씬 상회하였다. 이 결과, 1993~2001년 기간 동안 지속되던 무역 흑자기조가 적자기조로 반전되었다.



그림 4-8. 스페인의 대중남미 수출입 추이

(단위: 백만 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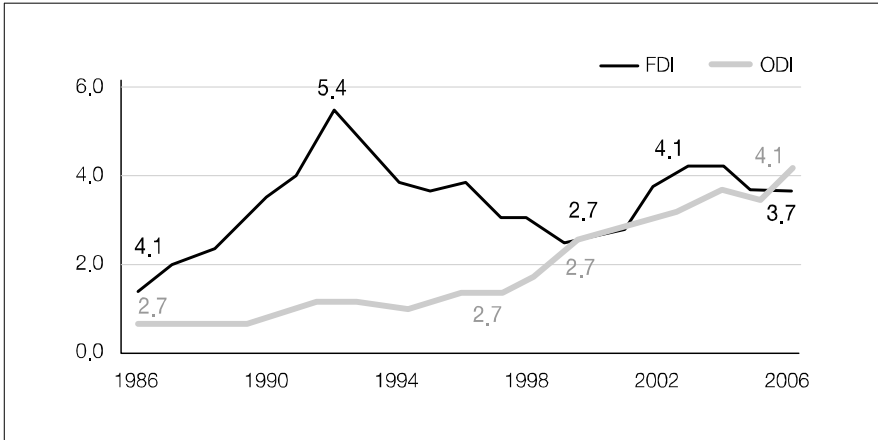


자료: IMF 자료 활용 필자 작성.

한편 1982년 외채위기 직후 중남미 대부분의 국가는 경제정책에서 대변화를 경험하게 되었다. 바로 무역체제의 자유화, 세계개혁, 국영기업 민영화, 외국인 투자 환경 정비, 재정적자 감축 등 근본적인 구조개혁이 실시되었다. 이러한 가운데 1986년 스페인의 EC 가입을 시작으로 다시 가속화된 해외투자 붐은 중남미지역으로도 확산되기 시작했다. 특히 스페인의 대중남미 직접투자는 1980년대 말 중남미 지역에서 시작된 경제성장 붐과 비효율적인 공기업의 민영화에 편승한 것이었다. 스페인 기업들이 주로 진출한 부문은 중남미지역의 주요 항공사, 통신업체, 관광업체, 금융사들이었다. 즉 중남미지역이 여전히 위기의 늪에 빠져 있던 1985~86년에 스페인의 대중남미 투자는 연간 1억 달러에 불과했으나 1991~92년에는 대 쿠바 투자를 제외하고서도 연간 9억 달러로 9배 증가했다. 특히 1991년과 1992년에 스페인 직접투자의 대부분이 아르헨티나, 베네수엘라, 칠레, 멕시코에 집중되었다. 이 결과, IRELA에 따르면 1992년에 스페인은 당시 유럽국가들의 대중남미 투자 중 31%를 차지하여 유럽지역에서는 7대 투자국으로 부상했다.<sup>20)</sup>

그림 4-9. 스페인의 대세계 ODI 및 FDI 비중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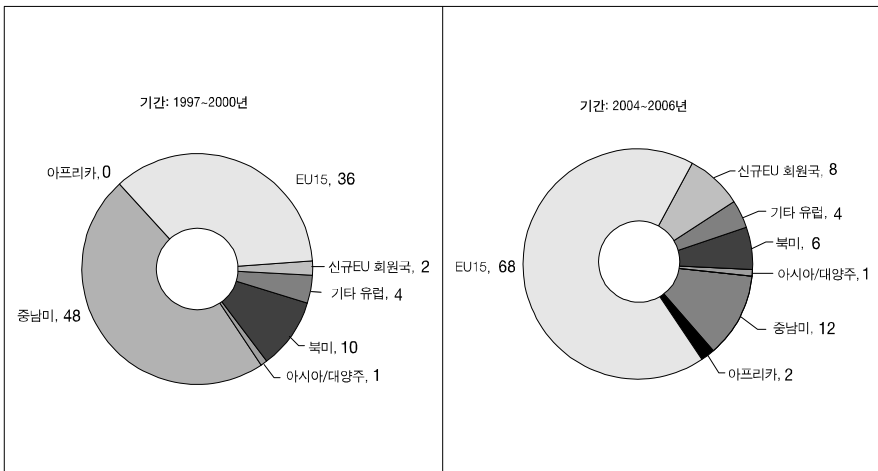
(단위: %)



자료: Matilde Madrid(2008).

그림 4-10. 스페인의 지역별 ODI 비중 추이

(단위: %)



자료: Matilde Madrid(2008).

1990년대 이후 스페인의 대중남미 주요 투자를 연도별, 투자업체별, 그리고 부문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991년 Telefónica de Espana의 칠레 및 아르헨티나 투자, 1994년 Telefónica de Espana의 페루 투자, 1995년 BBV, Santander, BCH 등 금융업의 중남미 시장 재진입 및 석유회사 Repsol의 아르헨티나 투자, 1996년 Endesa의 칠레 전력산업(ELESUR, ENERSIS) 투자, 1997년 브라질 시장 투자(Telefónica, Endesa, Iberdrola, BSCH, BBVA, Fenosa, Gas Natural), 1998년 Repsol(YPF 매입, 투자 확대) 및 BBVA와 BSCH 투자 확대(아르헨티나, 멕시코, 브라질, 콜롬비아, 칠레, 베네수엘라), 1999년 Telefónica의 자회사화(아르헨티나, 브라질, 칠레, 페루) 및 은행 투자 확대 등이다.

가장 선도적이며 공격적인 대중남미 투자기업은 Telefónica de Espana로 1990년에 스페인 정부가 지분 32%를 보유하고 있었다. 1990년에 Telefónica는 세계적인, 특히 중남미지역에서 통신서비스업체로 성장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하였다. 이러한 전략 수립에는 첫째, 2003년 EC 통신산업이 완전 개방될 경우 스페인 통신업체들의 국내시장 점유율이 위협받게 될 것이라는 점이였다. 둘째, Telefónica의 세계화 전략이 중남미 통신산업의 구조조정과 통신시장 규제 완화 시점과 부합되었다. 또한 Telefónica는 스페인 기업으로서 통신산업의 최대 장점인 언어적 및 문화적 공통성을 지니고 있었다. 1991~94년 사이에 Telefónica de Espana는 아르헨티나, 칠레, 베네수엘라, 페루의 주요 통신사 지분을 장악하여 남미지역 통신산업을 지배하게 되었다. 유선전화를 제외한 비전통시장에서 Telefónica는 우루과이와 콜롬비아의 소규모 무선통신사업자로 진입하였고, 서반구 전략의 일환으로 푸에르토리코 장거리전화업체인 TLD 지분의 79%를 1억 4,200만 달러에 매입하였다. 이 투자를 바탕으로 Telefónica는 미국의 스페인계 주민들의 시장을 엿보게 되었고, 이후 1990년대에 아르헨티나와 칠레 등 중남미지역에 추가적으로 45억 달러를 투자하였다.

한편 1981년 중남미지역이 심각한 경제위기에 직면하면서 철수했던 스페인 6대 은행 가운데 5개 은행이 1990년대 중남미지역의 경제호황을 바탕으로 다시 진출하기 시작했다. 이 가운데 산탄데르은행(Banco Santander)과 빌바오 비스카야은행(Banco Bilbao Vizcaya)이 대표적인 은행이었고, 스페인 정부와 푸에르토리코 당국의 협력으로 미국의 경제권으로 여겨지던 지역에 다수의 은행이 진출했다.

항공업에서는 스페인 국적기인 Iberia Airlines이 약 8억 달러를 투자하여 중남미 각국으로 진출하였다. 먼저 1990년 11월에 아르헨티나 투자자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Aerolineas Argentinas의 지분 30%를 확보하였고 이후 아르헨티나 투자자의 철수로 지분을 85%까지 확대했다. 1991년에는 칠레 Ladeco 지분 35%와 베네수엘라 국제항공사인 Viasa의 지분 45%를 각각 인수했다.

항공사의 진출은 동반적으로 관광산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는 계기가 되었다. 멕시코가 스페인 관광 투자의 최대 수혜국이었는데, 스페인의 최대 호텔체인업체인 Sol-Melia group이 6개 호텔에 10억 달러를 투자했다. 이 회사는 1990년 5월 쿠바 정부와도 합작으로 Sol Palmeras를 설립한 데 이어 추가적으로 3개 호텔과 쇼핑센터에 투자했다.

쿠바에 대한 스페인의 투자는 1990년 피델 카스트로(Fidel Castro)의 “Special Period in Time of Peace” 발표로 본격화되었다. 즉 이후부터 국영기업과의 합작투자가 육성되었고, 주요 투자부문도 석유를 비롯한 광업, 관광산업, 생명공학 등으로 확대되었다.

스페인인 비차입국 가운데 5위권으로 IDB의 조달시장에 참여해왔다. 정책차관 조달시장에서 1961~2007년 스페인의 수주액은 9억 3,340만 달러로 전체 정책차관 조달시장 비중의 2.9%를, 비차입국 정책차관 조달시장 비중의 4.4%를 차지했다. 최근 3년간 추이를 살펴보면 스페인의 수주규모는 2005년 3,160만 달러에서 2007년 4,520만 달러로 매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투자차관 조달시장에서도 스페인

의 수주액은 1961~2007년 9억 4,110만 달러로 전체 투자차관 조달시장 비중의 1.2%를, 비차입국 투자차관 조달시장 비중의 5.4%를 차지했다.

표 4-9. 스페인의 IDB 조달시장 참여 추이(1961~2007년)

(단위: 백만 달러, %)

	정책차관 조달시장(A)				투자차관 조달시장(B)				총 조달시장(A+B)				비중
	2005	2006	2007	'61-07	2005	2006	2007	'61-07	2005	2006	2007	'61-07 합계	
차입국 총계	482.6	795.9	769.2	10,534.0	3,297.7	3,887.4	4,717.0	61,184.2	3,780.3	4,683.3	5,486.2	71,718.2	64.8
스페인	31.6	42.9	45.2	933.4	18.5	36.5	13.2	941.1	50.1	79.4	58.4	1,874.5	1.7
비차입국 총계	833.4	1,081.4	1,303.7	21,368.4	151.7	176.4	147.8	17,519.0	985.1	1,207.8	1,451.5	38,887.4	35.2
총계	1316	1,827.3	2,072.9	31,902.4	3,449.4	4,063.8	4,864.8	78,703.2	4,765.4	5,891.1	6,937.7	110,605.6	100.0

자료: IDB, "Annual Report," 각년호

이 가운데 스페인 기업 혹은 개인이 수주한 IDB 조달시장 규모를 살펴보면, 1960~2008년 12월 26일까지 IDB가 지원한 계약(총사업비 기준이 아님)의 경우 1,144건에 7억 571만 달러를 기록했다. 재화 및 건설의 수주 비중이 57.1%로 컨설팅 서비스 비중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다. 세부 항목별로 살펴보면 컨설팅업체의 비중이 41.2%로 가장 높아 재화에 편중된 다른 국가들과 다른 스페인만의 IDB 조달 시장 진출의 특징을 엿볼 수 있다. 다음으로는 건설 비중이 31%, 재화 비중이 26.3%, 개인 컨설팅 비중이 1.6%를 각각 기록했다.

표 4-10. 스페인 기업의 IDB 조달시장 참여규모(1960~2008년 12월 26일)

(단위: 천 달러, 건)

	건 수	금 액	
		총 계약금액	IDB 지원금액
재화 및 건설(A)	438	500,875	403,132
재화	304	219,653	185,571
건설	134	281,222	217,561
컨설팅(B)	706	-	302,573
개인 컨설턴트	477	-	11,612
컨설팅업체	229	-	290,961
총계(A+B)	1,144	500,875	705,705

자료: IDB, Project Procurement Information: Awarded Contracts Information.

## 2) 간접적인 성과

IDB 가입으로 스페인이 달성한 간접적인 성과는 중남미지역에서의 이미지 개선과 더불어 국제개발협력분야에서 가장 앞서가는 국가 중 하나로 국제무대에서 인정받고 있다는 점이다. 이처럼 스페인이 국제개발협력의 선도국으로 자리잡게 된 배경은 IDB 및 양자협력을 통한 중남미와의 관계 강화에서 얻은 소중한 경험들 덕택이었다. 특히 최근 들어서는 대중남미 ODA의 경험이 다른 국제지역으로 확산되고 있다.

한편 IDB를 활용한 스페인의 최대 성과는 국제정치의 다극체제에서 가장 효율적인 수단이 될 수 있는 이베로아메리카체제를 구축한 것이다. 고위급 정치대화체인 이베로아메리카정상회의는 1991년 처음 개시되었고, 마드리드에서 개최된 2차 회의에서는 교육, 과학, 기술, 경제 등의 분야에서 광범위한 협력을 지속할 수 있는

정치적 합의가 도출되었다. 최근 이베로아메리카체제의 가장 중요한 협력성과는 2003년 정상회의에서 결정된 이베로아메리카 일반사무국(SEGIB) 설립과 운영이었다. 2005년 살라망카 정상회의에서는 공동의 사범 및 문화지대 설립, 기업의 사회적 책임(빈곤)에 대한 비즈니스포럼 조정, 사회적 응집력 증대를 위한 혁신장치(교육을 위한 부채탕감) 모색 등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다. 이러한 협력사업들은 근본적으로 스페인이 IDB를 활용하여 중남미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우선순위를 두어왔다는 점을 인식하면 그 성과가 매우 크다고 볼 수 있다.

표 4-11. 스페인의 지역별 ODA 투입 금액 및 비중(실행 기준)

(단위: 백만 달러, %)

	금액(2005년 가격 기준)					비중					DAC
	2002	2003	2004	2005	2006	2002	2003	2004	2005	2006	2005
아프리카	423	315	423	792	628	28	21	28	37	31	35
북아프리카	265	209	223	658	363	17	14	15	31	18	31
사하라남부	160	108	199	131	258	10	7	13	6	13	3
아시아	214	194	153	177	157	14	13	10	8	8	24
동남아시아	70	47	36	41	38	5	3	2	2	2	11
극동	140	147	114	134	118	9	10	8	5	6	12
미주	702	751	734	883	837	46	51	49	41	41	8
북중미	352	313	429	484	451	23	21	28	23	22	4
남미	307	370	255	340	313	20	25	17	16	15	3
중동	38	87	101	239	267	2	5	7	11	13	29
오세아니아	0	0	0	-	0	0	0	0	-	0	1
유럽	159	138	102	50	141	10	9	7	2	7	4
양자ODA 계	1,539	1,486	1,513	2,141	2,031	100	100	100	100	100	100

자료: OECD(2007).

### 3. 한국에 대한 시사점

#### 가. 일본의 IDB 활용을 통한 시사점

일본은 IDB 설립 이후 다른 역외 회원국(비차입국)에 비해 뒤늦게 회원국이 되었지만 다양한 활동을 통해 중남미지역에서 유무형의 실익을 도모하고 있다. 일본의 IDB 활용사례를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먼저 일본은 자국의 컨설턴트 육성 채널로 IDB 신탁기금을 활용하고 있다. 이의 대표적인 예가 JCF(Japanese Trust Fund for Consultancy Services)이다. 그러나 최근 IDB에 출연하는 모든 신탁기금은 비구속성(untied) 조건을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 같은 신탁기금을 설립해 활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둘째, 일본의 IDB 활동은 신탁기금 사업에 국한되지 않고 다양한 사업을 개발해 활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일본이 역외 회원국 중 유일하게 설립해 운영하고 있는 일본·IDB 장학프로그램은 미래 중남미지역의 주역인 대학생들을 일본에 우호적인 인사로 육성하는 데 커다란 기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일본과 유사한 장학프로그램, 중남미지역 대학생 논문공모대회 등 다양한 사업을 개발, 한국에 대한 우호적인 인상을 갖게 하고 관심을 제고시킬 필요가 있다.

셋째, 일본은 일본을 비롯한 아시아 국가들과 중남미 국가들 간의 경제사회발전 경험 교류의 통로로 Japan Program을 운영해오고 있다. 일본은 Japan Program의 일환으로 환태평양비즈니스네트워크, 중남미·아태지역 경제경영연합회(LAEBBA) 등의 네트워크를 조직, 인적네트워크 교류의 장으로도 활용해오고 있다. 2008년 들



어 중국이 IDB에 신규 가입함으로써 IDB에서 아시아 국가들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현재 일본 주도로 운영되고 있는 Japan Program을 본래의 취지를 살려 Asia Program으로 개칭, 명실상부한 아시아·중남미 간 협력프로그램으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Asia Program의 운영자금은 한·중·일 3국이 공동부담하는 방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 나. 스페인의 IDB 활용을 통한 시사점

IDB에서의 스페인의 활동과 최근 스페인의 IDB 담당기관 방문을 통한 면담결과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었다. 첫째, 스페인은 IDB를 활용한 경제적 성과 달성에 연연하지 않고 있다. 스페인의 IDB 가입의 가장 큰 배경은 실질적인 히스패니즘(Hispanism) 달성에 있었기 때문에 양 지역간 역사적, 문화적 이해가 주된 관심사였다. 따라서 스페인은 IDB 가입 이후 경제적 지원에 따른 성과를 측정하기보다는 협력의 결과로 중남미지역의 실질적인 발전에 얼마만큼 기여하고 있는지에 대해 관심이 높았다. 또한 스페인의 IDB 가입은 1970년대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미 가입에 따른 경제적 및 기타 성과에 대한 국내적 관심은 거의 없는 상황이다.

둘째, 전술한 바와 같이 스페인은 전반적으로 IDB 가입 이후 경제적 성과를 논하기보다는 중남미지역 개발에 대한 기여를 강조하면서 국제개발협력의 순수한 장으로 IDB의 활용가치를 어떻게 제고시킬 수 있을지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 스페인의 IDB 조달시장 참여가 재화 및 건설 프로젝트 수주에 집중된 다른 국가들과 달리 컨설팅부문에 집중된 것은 이러한 고민의 결과로 해석된다.

셋째, 스페인은 IDB에 대한 지속적인 금융지원뿐만 아니라 특정 부문을 겨냥한 신탁기금 확대에도 기여하고 있다. 스페인은 IDB의 대중남미 지원정책을 지지하

며, 공동투표권을 가진 회원국 및 비가입 회원국들과의 협력적인 접근방안을 수용하고 있다. 그러나 유럽 대부분의 비가입 회원국이 그러하듯 스페인은 빈곤감축, 국가의 제도적 개혁, 지역통합, 경쟁력 강화, 인프라 및 민간 부문 개발 등을 중심으로 한 중남미지역과의 협력사업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 지속가능에너지 및 기후변화사업(SECCI) 기금, 자연재해예방신탁기금, 수자원 및 위생 프로젝트 기금 등이 스페인이 관심을 갖고 참여하는 사업이다. 따라서 한국도 신탁기금을 제공할 때 일반적인 사업보다는 한국이 관심을 갖고 있는 사업에 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IT 산업 진출의 기반이 될 수 있는 중남미 가입국 전자정부 구현사업 기술협력기금, 교육 IT 환경개선사업 기술협력기금 등이 좋은 사례가 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스페인은 IDB를 통해 중남미지역에 대한 금융지원을 확대하면서 60명에 달하는 자국 직원의 채용을 통해 IDB 의사결정과정에서도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 제5장

# 대중남미 경제협력 확대를 위한 IDB 활용방안



## 1. 대중남미 경제협력에서 IDB 활용의 의미

### 가. 대중남미 경제협력의 지평 확대

먼저 우리나라의 IDB 가입은 단순한 조달시장 참여 등 단기적 경제적 이해를 넘어선 중장기적으로 중남미지역과 경제발전의 전략적 동반자로서 협력을 확대할 수 있는 새로운 전환점을 만들었다는 데서 가장 큰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미주개발은행(IDB)을 단순히 조달시장 진출의 기회로 삼을 것이 아니라 중남미를 바라보는 정책차원의 시각 또는 대중남미 경제관계를 근본적으로 재고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중남미지역은 지금까지 수출 효자시장으로 선전되어왔으나 IDB의 설립 목적이 중남미지역의 경제개발과 사회발전에 있음을 직시하고 중남미의 사회인프라 발전, 빈곤퇴치, 제도개선 등 수많은 대중남미 개발협력이슈에 기여하는 새로운 협력외교가 필요하다.

또한 IDB 가입은 그간 쌍무관계에 머물러왔던 우리나라의 중남미 관계가 범지역 차원으로 확대됨을 의미한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대중남미 협력은 국가간의 협력을 중시하는 쌍무간 협력에 바탕을 두어왔으며 미주기구(OAS), 리우그룹 등 일부 지역차원의 협력체와 관계를 유지해오고 있으나 실질적인 성과는 미미한 실정이다. 그러나 중남미지역에서 1990년대 이후 소지역 경제통합체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미주지역을 포괄하는 미주자유무역지대(FTAA) 협상과 남미 12개국을 아우르는 남미국가연합(UNASUR)이 출범하면서 범지역 협력의 필요성이 더욱 확대되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OAS나 IDB 등 범미주 차원의 지역개발기구나 지역 정치협의체의 역할이 증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우리나라의 IDB 가입은 기(既) 가입한 유럽(EBRD), 아시아(ADB), 아프리카(AfDB) 지역과 더불어 미주지역을 포함하는 전 세계 다자협력채널의 확보를 의미한다.

## 나. 대중남미 경제협력정책의 운영 폭 확대

우리나라의 IDB 가입은 대중남미 경제협력정책 운용 폭의 확대를 의미한다. 먼저 IDB와 연계를 통한 유무상자금 지원으로 지원효과 극대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나라는 대외통상협력 재원의 부족으로 대중남미 경제협력 추진 시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IDB와의 공조하에 유무상자금지원사업을 펼침으로써 경제협력의 시너지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대중남미 경제협력의 창구로서 IDB를 적극 활용하여 중남미의 경제정세나 투자환경에 관해 보다 정확한 정보를 입수하고 습득한 정보를 수출업체나 현지투자 희망업체에 제공할 수 있다. 현재 우리 업체들이 중남미시장 진출시 가장 큰 애로사항의 하나가 현실감 있는 현지정보 획득의 어려움이다. 미국이나 일본의 경우 IDB 대표 혹은 파견관을 정보획득 및 시장진출의 첩병으로 활용하고 있다. 셋째, 중남미 금융 진출 교두보로서 IDB의 활용이다. 그간 중남미 국가들의 잦은 경제위기로 이 국가들에 대한 우리나라의 금융지원이 사실상 어려웠는바, IDB와 공동으로 중남미 개발사업을 지원함으로써 금융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 특히 IDB와의 협조유지를 통하여 중남미 금융기관에 대한 이해를 높여갈 수 있고, 점차적으로 상업금융기관과의 협력으로 발전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국제무대, 특히 중남미지역에서 한국의 위상 제고 수단으로서 IDB의 활용이다. IDB 가입은 국제사회, 특히 중남미지역에서 우리나라의 지위 향상을 도모할 수 있고, 이 국가들과 연대하여 국제무대에서 협력 강화를 도모할 수 있다. 또한 이 국가들에서 한국에 대한 인지도를 높여줄 것으로 기대되며, 나아가 한국문화의 중남미지역 전파도 용이해질 것이다(수출입은행 2005).

## 다. 새로운 경제기회 확보

경제적인 측면에서 우리나라의 IDB 가입이 갖는 보다 큰 의미는 그간 IDB 비회원국으로 누릴 수 없었던 새로운 사업기회를 확보한다는 데 있다. 먼저 우리나라의 IDB 가입은 1차적으로 연간 60억 달러<sup>21)</sup>에 달하는 IDB 조달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의 확보를 의미한다.<sup>22)</sup> IDB 조달시장 참여는 △IDB 회원국만의 특혜 △균등한 기회 보장 △절차의 공정성 △대규모 차관액 △투자의 효율성을 보장한다는 장점을 갖고 있다. 특히 IDB는 연간 약 80억 달러 규모의 자금을 집행하고 있어 아시아개발은행(ADB)과 비교하여 2배 이상의 조달시장 참여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IDB는 지원프로젝트 사업비용 중 약 40%만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발주되는 물품, 공사, 서비스 규모는 IDB 차관액의 약 2배에 달하고 있으며, 차관 규모에 비추어 IDB는 연간 약 1만 1,000~1만 3,000건의 계약을 발주하고 있다(수출입은행 2005). IDB가 펼치고 있는 많은 개발사업부문에서 우리나라는 풍부한 경험과 비교우위를 갖고 있어 IDB 가입으로 이와 같은 장점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 기업들은 또한 IDB 사업 참여로 현지 인지도 제고를 통해 그간 진출이 저조했던 중남미 건설 및 인프라 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보다 많은 기회를 갖게 될 것으로도 기대된다. 중남미지역의 건설 및 인프라 시장은 이미 선진권 유수의 업체들이 시장을 선점하고 있어 경쟁이 매우 치열한데다가 우리 업계의 경우 자금동원

21) 최근 3년간(2005~07년) IDB 평균 조달시장 규모 기준.

22) 대외경제정책연구원(2005)의 연구에 따르면 대중남미 수출규모와 IDB 조달시장 참여규모가 일정 정도 상관관계가 있다고 가정할 경우 우리나라가 IDB 가입을 통해 IDB 조달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비중은 최대 2.6%에서 최저 0.8%이다. 금액 기준으로는 최대 2억 2,770만 달러에서 최저 7,210만 달러이다. 결론적으로 이와 같은 단순가정을 통해 볼 때 우리나라는 IDB 가입을 통해 적어도 7,000만 달러 이상의 추가 수출확대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능력이 제한적이어서 진출에 상당한 어려움을 안고 있다. 따라서 IDB 가입은 우리 업체가 안고 있는 위와 같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많은 실마리를 제공한다. IDB 관련 프로젝트는 대부분의 국제개발기구 프로젝트와 마찬가지로 모든 절차가 비교적 공정하고 분명하므로 현지 기반이 미약한 우리 업체가 진출하기에 비교적 유리한 측면이 있다. 또한 대부분의 IDB 사업이 IDB와 공동으로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데다가 IDB의 대외신인도가 높아 IDB와 공동으로 사업 추진시 해외에서 자금조달도 매우 유리한 상황이다. 특히 IDB 발주프로젝트는 일반 개발프로젝트와 달리 차관을 이용한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대출금리가 저렴하고 IDB에서 대금결제를 지원하기에 우리 기업으로서는 대금회수가 쉬운 장점이 있다.

## 2. IDB 활용방안

### 가. IDB 진출 인프라 구축

#### 1) 인프라 구축의 필요성

2005년 IDB 가입 이후 정부, 수출입은행, KOTRA,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등 유관기관, IDB 아시아사무소 차원에서 각종 세미나 등을 통해 IDB에 대해 많은 홍보를 해오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많은 기업의 IDB에 대한 인식은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2008년 11~12월 IDB 진출 가능성이 높은 약 20개의 건설플랜트, IT 업체, 컨설팅업체들을 대상으로 한 인터뷰에서 우리 기업들의 IDB에

대한 인식의 정도는 매우 미미한 것으로 밝혀졌다. 많은 기업이 IDB 자체를 잘 모르고 있을 뿐더러 IDB에 대한 일부 지식을 갖고 있고 진출을 희망하는 업체조차도 IDB 프로젝트에 대한 이해 정도는 매우 낮았다.

이 같이 IDB를 포함한 국제개발기구(MDB)에 대한 인식 부족은 우리 업체들의 국제기구 프로젝트 진출을 가로막는 가장 큰 걸림돌이었다. 2007년 2월 대외경제정책연구원과 KOTRA가 해외투자 진출기업 및 희망기업 428개사를 대상으로 한 「해외진출기업 애로사항 조사」에 따르면 국제기구를 통해 진출하고 있는 업체는 하나도 없었으며, 향후 진출을 계획하고 있는 업체도 전무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5-1. IDB 프로젝트 진출의 장애요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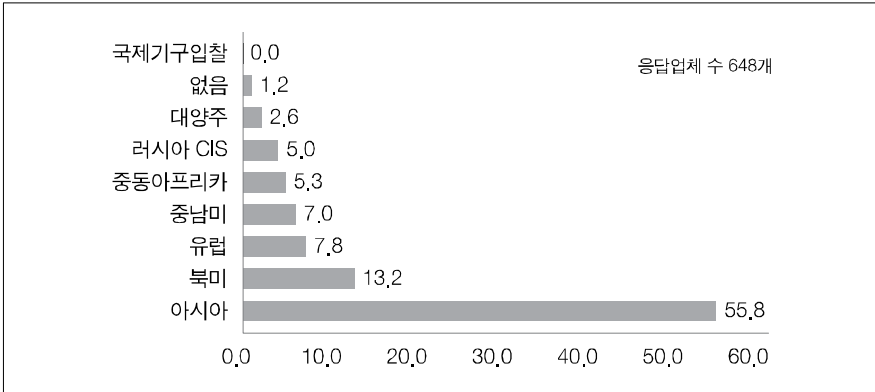
- IDB 프로젝트 진행정보를 어디서 얻을 수 있는지 잘 모름.
- 정보습득이 ADB 대비 부족
- 입찰정보를 받기가 어려움(입찰정보를 받더라도 세부사항 파악이 쉽지 않음).
- 언어(입찰서류 대부분이 스페인어, 포르투갈어) 문제로 진행에 시간이 걸리고 비용 발생
- 미국 및 현지업체와의 경쟁 치열
- 아시아 국가에 대한 배타성
- PQ가 까다롭고 현지 프로젝트 수행 경험이 없는 점으로 인해 불이익
- 입찰경쟁 및 가격경쟁이 치열하여 수익성이 별로 없음.
- 프로젝트 규모가 작아서 진출 메리트 없음.
- 관련 프로젝트가 없어서 진출이 쉽지 않음.
- 프로젝트 수주까지 기간이 너무 길고(1~2년 이상) 인력, 자금소요가 많아서 진출에 부담
- 프로젝트 진행 초기 자금(기술타당성, 재무타당성 검토비용 등)이 필요한데 지원이 미약하여 진출 기피
- 프로젝트 조건이 맞지 않아(금리가 높은 점 등) 진출 기피
- IDB에 대한 정부의 홍보 부족 및 낮은 인지도
- 한국의 IDB 출자자금이 너무 부족함. 민간업체에서 자금 활용이 쉽지 않음.
- IDB 양식에 맞는 입찰제안서 작성이 어렵고 세부적인 진행프로세스에 대한 정보 부족
- 단발성(1회성) 프로젝트로 인해 후속사업 진행 불투명
- 지리적으로 거리가 멀고 특수 언어로 인해 커뮤니케이션이 원활하지 않고 진행도 더딤.

자료: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인터뷰 자료



그림 5-1. 지역별 해외진출 현황(복수응답 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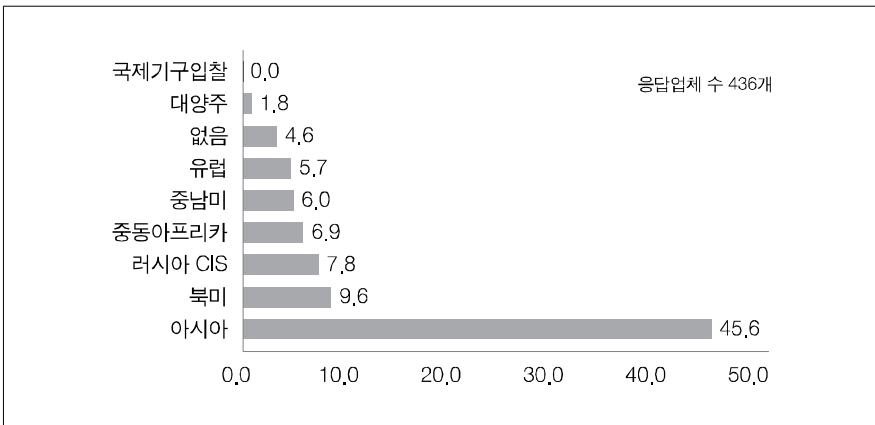
(단위: %)



자료: 대외경제정책연구원(2007), 「해외진출기업 애로사항 조사」.

그림 5-2. 응답업체의 해외진출 희망지역(복수응답 포함)

(단위: %)



자료: 대외경제정책연구원(2007), 「해외진출기업 애로사항 조사」.

이 같은 현실은 현재 유관기관이나 IDB가 간헐적으로 개최하는 각종 세미나나 사업설명회 등으로는 기업들의 IDB에 대한 인식의 저변을 넓히고 IDB 사업에 대한 관심을 유도함은 물론 우리 업체들이 갖고 있는 각종 궁금증을 해소하기에 턱

없이 부족하다는 점을 의미한다.

국제개발기구 프로젝트 진출은 우리 기업들에게는 아직까지 생소한 분야이다. 그러나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국제개발기구시장의 규모를 감안할 때, 새로운 해외시장 진출 활로를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는 우리 기업들이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는 시장이다.

따라서 보다 체계적인 시스템 구축을 통해 IDB 진출을 적극 모색해볼 필요가 있다. 기업들의 인터뷰를 통해 제시된 문제점을 토대로 IDB 진출 인프라 구축방안을 제시해보면 다음과 같다.

## 2) 3대 인프라 구축방안

먼저 IDB 업무주체 표시의 명확화이다. 현재 IDB의 업무는 기획재정부 국제기구과가 담당하고 있으며, 신탁기금 등 실무업무는 수출입은행 경제협력개발실이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수출입은행 경제협력개발실의 경우 조직도나 홈페이지상에 IDB 담당업무에 대해 명시적으로 표시하지 않고 있어 업체들이 IDB에 대한 정보를 구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 같은 사실은 일부 업체와의 인터뷰에서도 확인되었다. IDB 프로젝트에 관한 정보를 얻고 싶은데 도대체 어디에서 정보를 얻어야 하는지 막막하다는 게 인터뷰 업체의 고충이었다. 또한 입찰 프로젝트 정보 제공의 경우 수출입은행에서 컨설턴트 풀에 등록된 업체에 한해 개별적인 형태로만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아직까지 수출입은행에서 IDB 업무를 관리하는 것조차 인지하고 있지 못한 많은 기업의 경우 입찰정보 제공 혜택조차 받고 있지 못한 상황이다. 따라서 1차적으로는 현재 IDB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수출입은행 조직도나 홈페이지상에 IDB나 MDB 섹션을 별도로 구성해 업체들이 보다 쉽게 IDB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급선무이다.

둘째, IDB 포털사이트 구축이다. 2005년 IDB 가입 이후 각종 세미나 등을 통한 지속적인 홍보에도 불구하고 많은 기업이 IDB에 대해서도 잘 모르며 안다고 해도 어디에서 정보를 얻어야 할지, IDB 프로젝트의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해 잘 모르는 실정이다. 특히 IDB 조달시장에 대한 정보는 IDB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으나, 자료가 방대하고 스페인어로 된 자료가 많아, 참여 희망기업들이 유용한 자료에 접근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수출입은행이나 KOTRA 등에 ‘IDB 포털 사이트’ 혹은 ‘국제개발은행(MDB) 포털사이트’를 구축해, IDB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 제공은 물론 IDB 진출 희망업체간 네트워크 교류의 장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표 5-2. IDB 진출 인프라 구축방안

방안	주요 내용
IDB 업무주체 표시 명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수출입은행 조직도나 홈페이지상에 IDB 업무 표시 명확화</li> </ul>
IDB 포털사이트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IDB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 제공</li> <li>IDB 진출 희망업체간 네트워크 교류의 장</li> <li>수출입은행이나 KOTRA에 구축</li> <li>추후 MDB 포털사이트로 발전</li> </ul>
IDB 아카데미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IDB 전문인력 육성</li> <li>운영: IDB+수출입은행 혹은 KOTRA</li> <li>교육기간: 통상 6개월, 필요시 주제별 단기집중과정 개설</li> <li>교육과정: 국내교육과정과 해외교육과정으로 대별</li> <li>해외교육과정은 IDB Research Trip과 병행</li> </ul>

셋째, IDB 아카데미 운영이다. IDB 사업에 대한 단순한 정보 제공과 현재 우리 업체 및 컨설턴트들의 역량만으로 IDB 프로젝트를 수주해 수행하는 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IDB, 더 나아가 MDB 전문인력을 육성하는 게 시급한 과제이

다. 현재 수출입은행에서 비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IDB 발주 프로젝트 설명회만으로 우리 업체들의 IDB 진출을 독려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보다 중장기적이며 체계적·심층적으로 IDB 전문인력을 육성하는 가칭 'IDB 아카데미'를 설립해 운영할 필요가 있다. IDB 아카데미는 IDB 실무기관인 수출입은행이나 중소기업의 해외진출 전담기관인 KOTRA가 맡아서 운영하는 것이 적합하다. 교육과정은 통상 6개월 과정을 기본으로 하되, 주제별 단기집중과정을 설립해 운영의 신속성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특히 교육과정은 국내과정과 현지과정으로 대별해 국내에서 습득한 지식을 IDB 본부나 중남미 현지 사무소 등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궁극적으로는 IDB 아카데미의 상공적인 경험을 토대로 '국제개발기구(MDB) 아카데미'로 발전시켜나갈 필요가 있다.

## 나. IDB의 조달시장 참여 확대방안

### 1) 조달시장 참여 확대 필요성

IDB 가입의 가장 큰 경제적 효과로서 IDB 조달시장 참여를 통한 중남미 조달시장 진출 확대가 기대되었다. 그러나 IDB 가입 이후 우리 기업의 IDB 조달시장 참여실적은 아직까지 미미한 수준이다. 조달시장을 재화·건설·컨설팅 등으로 구분할 경우 재화와 건설 부문의 조달시장 참여실적이 특히 부진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그동안 MDB 조달시장 참여 확대를 위해 정부차원에서 조달시장 입찰정보 제공 확대 등 정보제공 확대 노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우리 기업의 MDB 조달시장 대한 지식이나 경험은 일천한 상황이다. IDB 조달시장 규모가 연간 60억 달러 내외 규모에 이르고 있지만, 개별 기업이 취급하는 품목 또는 부문의 입찰 건수나 규모로 보면 조달시장 규모가 크다고 말할 수 없고, 개별 기업 입장에

서는 지속적인 거래가 아니라 단발적 거래라는 점에서 MDB 조달시장 입찰 참여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이는 플랜트·건설 부문 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특히 플랜트·건설 부문은 우리 기업이 최근 수년간 중 동특수를 누리면서 중남미시장에 대한 관심이 크지 않았던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컨설팅시장의 경우에는 드물긴 하지만 한국 컨설턴트가 경쟁입찰을 통해 IDB 컨설턴트로 선정되어 참여한 실적이 있다. 그러나 한국 컨설턴트가 IDB 자금 지원을 받는 사업의 컨설턴트로 선정되어 활동한 사례가 많지 않은 실정이며, 이는 다른 부문도 마찬가지지만 언어문제가 가장 큰 장벽으로 작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대부분 스페인어를 공용어로 사용하고 있는 중남미 국가에서 사업하려면 스페인어 구사가 필수적이거나, 우리나라는 일본과 마찬가지로 각 분야에 국제적 경쟁력을 갖춘 전문기업이나 개인 컨설턴트가 많이 있지만, 스페인어를 자유롭게 구사할 수 있는 전문인력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이 가장 큰 약점으로 작용하고 있다.

## 2) MDB 조달시장 입찰대행 전문서비스 회사 설립

MDB 조달시장 참여 지원을 위한 정보제공사이트(해외조달시장 정보시스템 등)가 개설되었고, 이를 통해 MDB 입찰정보가 수시로 제공되고 있다. 그러나 정보 제공 확대에도 불구하고 조달시장 참여실적이 미미하다. MDB 조달시장 전체 규모가 크다고 하더라도 개별 기업 입장에서는 결코 크지 않은 시장이라는 점에서 개별 기업의 MDB 조달시장 참여를 유인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에서 MDB 조달시장 입찰대행 전문서비스 회사 설립을 유도하는 것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입찰대행 전문서비스 회사는 개별 중소기업과 에이전트 계약을 체결하고, 개

별 기업을 대신하여 MDB 입찰과 관련된 모든 업무를 대행하는 것이다. 특히 중남미를 사업대상으로 하는 IDB의 경우에는 대부분의 입찰정보가 스페인어로 제시되고, 입찰서류도 스페인어로 작성해야 한다는 점에서 스페인어 전문인력을 확보하고 있는 입찰대행 서비스회사의 역할이 클 것으로 판단된다. 민간 입찰대행 서비스회사의 설립을 유도하기 어려울 경우 공기업의 신규업무로서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 3) IDB 지원 F/S 프로젝트 참여 강구

아울러 대형 프로젝트의 참여를 위해서는 사업 구상단계부터 참여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가장 효과적 방법은 IDB가 기술협력사업으로 지원하는 F/S 프로젝트 등에 우리 기업이 참여하는 방안이다. TC 사업으로 추진되는 F/S 사업 역시 일정 규모 이상의 경우 국제경쟁입찰을 통해 사업자를 선정하나, 입찰초청장 발송 또는 후보자명단(short list) 작성시 IDB 관련 부서의 담당자와 네트워킹이 구축되어 있는 업체가 유리하다는 점에서 IDB 전문심사역과의 네트워킹 구축 노력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즉 IDB 본부에서 한국의 특정 섹터 개발경험 등에 대한 세미나 개최 등을 통해 IDB 해당 오퍼레이션 파트의 전문심사역과 네트워킹을 구축하고, 이들과의 유대관계 유지를 통해 사업정보를 입수하는 등의 노력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우리 기업이 특정 개발프로젝트의 F/S를 담당할 경우 이 프로젝트에 대한 상세정보를 가지고 있어 개발프로젝트 사업수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 4) 현지기업과 컨소시엄을 통한 진출 모색

IDB 조달시장 참여경험이 많은 기업을 조사하여 IT, 인프라 등 우리나라의 경쟁력이 높은 분야에 대해 현지기업들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입찰참여를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1차적으로 IDB 파견 공무원과 공기업 직원들, IDB 국별 사무소(Country Office)를 통해 관련 자료를 입수해야 한다.

### 다. IDB 신탁기금 활용방안

#### 1) 신탁기금 활용 확대 필요성

우리나라는 IDB 가입과 함께 한국신탁기금(Korea Trust Fund)을 출연했다. 이를 통해 한국은 IDB 내 주요 3대 지원국가(donor country)로 부상했고, 한국의 신탁기금은 IDB 그룹 내에서도 가장 활발히 활용되는 펀드 중 하나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신탁기금은 기본적으로 개발프로젝트 준비 또는 보완을 위한 목적의 기술협력사업(Technical Cooperation) 지원을 위한 무상재원으로 활용되고 있다. IDB 내부에는 현재 공여국들이 출연한 약 40개의 신탁기금이 운영 중이며 IDB 재원으로 설치된 신탁기금도 다수 있다. 그러나 IDB의 신탁기금 운영 기본원칙은 투자차관과 마찬가지로 비구속성(untied)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신탁기금도 비구속성 펀드로 운영되고 있으나, 펀드 운영자의 재량적 판단과 기술적 운영을 통해 한국펀드가 지원하는 많은 사업에 한국이 참여하고 있다. 또한 한국의 국가이미지 제고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을 선별 지원함은 물론 한국펀드로 지원되는 사업이라는 것을 홍보하여 중남미지역에서 국가이미지 제고에도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

표 5-3. 신탁기금 추진상의 어려움 및 대정부 건의사항

- 신탁기금사업 사후 평가 필요
- 영어 및 현지 언어에 대한 높은 구사력 요구
- 프로젝트 관련 수출입은행의 적극적인 역할 필요
- 프로젝트 진행 공식적인 창구의 명확화 필요
- 신탁기금사업에 대한 정보가 제한적이고 비공개적
- IDB 국별 사무소에서 역할을 할 수 있는 인력 진출이 필요: 시장개척개념의 상주인력 파견
- 현재는 연구용역(컨설팅)단계이나 본격적인 사업용역 수주할 수 있는 특화전략 필요
- 프로젝트 참여자 적극 육성 필요

자료: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인터뷰 자료

그러나 한국 신탁기금은 IDB에 출연된 여타 펀드 중 하나로서 한국의 국가이익을 너무 강조할 경우 오히려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도 주의할 필요가 있다. IDB에 출연된 신탁기금은 한국의 국가이미지 제고와 한국 기업 또는 컨설턴트의 중남미 사업 진출을 위한 훌륭한 중개자 역할을 하고 있으나, 펀드 설립목적에 부합되는 기술협력(TC)프로젝트의 선별 지원을 통해 중남미 수혜국가와 IDB에도 상호 이익이 되는 윈윈전략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

## 2) IDB 신탁기금 사업 연차보고서 발간

우리나라가 국제개발기구 사업에 참여한 역사와 경험은 매우 일천하다. 특히 우리나라가 가장 늦게 가입한 IDB에 대한 우리 기업의 진출경험은 이제 3년에 불과하다. 그러나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약 80건의 IDB 신탁기금 사업을 추진했고, 이 중 많은 프로젝트에서 한국 기업이나 컨설턴트가 참여했다.

이 같은 우리 기업들의 IDB 신탁기금 사업 참여경험을 정리하고 평가해 축적하



는 것은 후발 기업들에게는 물론 정부차원에서 향후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데도 매우 유용하다.

따라서 우리나라가 출연한 IDB 신탁기금 사업을 전반적으로 평가하고 우리 기업의 참여실태와 문제점을 점검하는 「IDB 신탁기금 연차보고서」를 발간할 필요가 있다.

### 3) 홍보활동 강화

한국펀드의 역할에 대한 홍보활동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한국펀드를 통해 한국이 중남미 경제개발에 기여하고 있다는 사실을 중남미지역에 널리 홍보하기 위해 한국펀드 안내 팸플릿 작성 및 배포 등을 통해 한국펀드의 역할을 홍보하는 한편, 한국 컨설턴트의 TC 사업 진출을 위해 한국 내 홍보활동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매년 한국펀드 설명회 겸 성공사례 발표회 등을 한국에서 개최하는 것을 정례화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 4) 컨설턴트 풀의 확대와 관리 강화

또한 한국 신탁기금으로 지원되는 사업에 유능한 한국 컨설턴트가 참여할 수 있도록 컨설턴트 풀의 확대와 관리에도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특히 섹터 전문 가일지라도 중남미 현지 실정을 잘 모를 경우 효율적인 컨설턴트 업무 수행이 어렵다는 점에서 한국 컨설턴트가 TC 사업에 참여할 경우 중남미 지역전문가와 섹터전문가가 팀을 이루어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도 필요하다.

### 5) 소액의 기능성 펀드 운영<sup>23)</sup>

자국기업의 진출을 동반할 수 있는 소액의 기능성 펀드를 적극 운영할 필요가 있다. 대표적인 예로 영국정부의 TC 운영사례를 들 수 있다. 2007년 9월 영국정부는 재생에너지사업에 관한 신탁기금을 출연하고 바로 스코틀랜드 개발청(SDI: Scottish Development International)의 주도로 풍력, 조력 등 재생에너지 관련 기업 10개사가 참여한 대규모 세미나를 IDB 본부에서 개최한 바 있다. SDI 청장이 각종 사업에 대해 개괄적으로 설명하고 은행심사역들의 질문에 각 사업체 관계자가 답변하는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이 같은 인상적인 세미나 성과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프로젝트 논의가 진행 중이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영국의 방식을 벤치마킹해 IT나 플랜트 등 우리가 경쟁력 있는 분야에서 치밀하며 적극적인 세미나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 같은 세미나 개최를 위해서는 우리 기업들이 국제무대에서 발언할 수 있을 정도의 개발프로젝트 참여경험과 언어능력을 갖추는 게 선결과제이다.

### 6) IDB 신탁기금과 지식공유사업 등 국내 기술 원조 및 협력 확대

IDB 신탁기금은 20만~70만 달러의 소액 기준으로 승인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제한된 기금으로 최대한 많은 사업을 지원하려는 의도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되나 사업규모가 작아 차관사업으로 발전할 여지가 낮은 단점을 갖고 있다. 따라서 IDB 신탁기금 사업의 건별 지원금액을 보다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지식공유사업 등 각 부처별로 운영되고 있는 기술원조와 신탁기금을 협조융자 형태로 지원하여

---

23) 박재성(2008) 참고.

우리나라 기업 및 연구진의 참여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 라. IDB와 금융협력 확대방안

IDB는 회원국에 많은 금융서비스를 제공한다. 그러나 IDB 가입 이후 우리나라의 IDB 사업은 신탁기금사업에 편중되어 있어 금융부문에서의 협력은 매우 미미한 상황이다. 여기서는 IDB와의 금융협력 활성화 방안을 협조용자 확대, IDB 및 IIC 차관 활용, 무역금융지원프로그램(TFFP) 확대 운영으로 대별해 제시한다.

### 1) IDB와의 협조용자 추진 확대

#### 가) 현황 및 문제점

IDB는 국제개발금융기관으로서 기본적으로 개도국 경제개발에 필요한 개발차관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IDB는 다자간(Multilateral) ODA 기관으로서 특별한 지위를 누리고 있으나 쌍무간(Bilateral) ODA 기관에 비하여 개발차관의 이자율이 높고, 최빈국에 대한 특별 양허성 개발차관 지원도 재원부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IDB는 개별 프로젝트 및 개별 국가에 대한 지원한도 문제로 인해 대형 프로젝트의 지원을 위해서는 세계은행 등 다른 다자간(Multilateral) ODA 기관이나 한국의 EDCF 등 쌍무간(Bilateral) ODA 기관과의 협조용자(cofinancing)를 추진하고 있다. 또한 최근에는 민간부문의 역할이 확대됨에 따라 민간부문이 추진하는 대규모 인프라프로젝트에 대한 지원도 확대하고 있고, 이 경우 다수의 상업금융기관 및 사업 참여국가의 수출신용기관과 협조용자를 통해 민간프로젝트를 지원하고 있다.

## 나) 수출입은행의 인력 확충

IDB와의 협조용자 활성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주요 협조용자 파트너인 수출입은행의 인력 확충이 필요하다. 심사역 1인이 IDB와의 협조용자를 전담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협조용자의 활성화를 기대하기 어렵다. 또한 주요 협조용자 대상 프로젝트가 ODA 프로젝트라는 점에서 EDCF 지원이 활발한 중미지역에 EDCF 주채원 파견이 요구된다. IDB와의 협조용자도 IDB와 EDCF 그리고 현지 사업실시기관과의 삼각협력 및 대화를 통한 협의가 필수적이라는 점에서 EDCF 주채원 파견이 요구된다.

## 2) IDB 차관(Loan) 활용 확대

### 가) IDB 용자

#### (1) IDB 용자 조건

IDB 회원국들은 IDB 발주 프로젝트 참여시 자금조달상의 혜택을 받고 있다. IDB는 재원의 종류에 따라 상업베이스에 의한 OC 대출과 장기저리의 양허적 조건에 의한 특별운용기금, 신탁기금 대출로 구분하여 운용한다. 우리 기업들이 이용할 수 있는 재원은 OC 대출로 대출조건은 프로젝트 내용에 따라 4~5년 거치 15~25년 상환이며, 금리는 시장금리를 따른다. IDB는 2006년 대출규모 확대(종전 7,500만 달러에서 최대 4억 달러), 대출기간 단축(대출준비기간을 절반으로 줄이고 승인 과 대출기간 단축) 등의 구조개혁을 단행했다.

### 글상자 5-1. IDB 대출의 원칙

- ① IDB는 차입국의 정부, 정부기구, 공공기업 및 개발기구를 대상으로 정부보증차관 및 보증을 제공한다. IDB는 또한 정부보증 외 차관 및 보증을 제공하기도 한다.
- ② 대출 신청자는 프로젝트의 기술적·경제적·금융상의 장점을 포함한 구체적인 제안서를 IDB에 제출해야 한다. 제안서에는 프로젝트의 환경위험이나 영향 평가, 여성과 원주민에 대한 영향 평가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 ③ IDB는 정부보증대출과 관련 채무 재협상을 하거나 리스케줄링에 참여하지 않는다.
- ④ 차관계약은 일반적으로 담보제공금지조항(Negative Pledge Clause)<sup>1)</sup>을 포함한다.
- ⑤ 대출시 IDB는 차입자가 대출계약, 현재의 거시경제적 상황, 차입국의 채무부담, 대출 관련 정책 및 제도적 상황에 따라 채무상환의무를 수행할 능력을 평가한다.
- ⑥ IDB는 민간금융을 조달할 수 있는 채무자의 능력을 고려해 대출을 제공한다.
- ⑦ 대출 수익금의 사용은 감독대상이다. IDB 직원은 국별 사무소를 통해 각 프로젝트의 개발목적에 대한 진행과정을 모니터링하고 감시한다.

주: 1) 차주가 다른 채권자들을 위하여 자기의 재산이나 수입에 담보권(저당권, 유치권, 질권 등)을 설정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는 조항.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 전부를 어느 일부의 채권자에게 담보제공하게 될 경우 나머지 채권자들이 전적으로 무담보상태가 되는 위험을 방지하고 같은 종류의 채권자들간에는 순위의 공정성을 확보하며 간접적으로 채무자의 과도한 채무부담을 억제하는 데 목적이 있다. Loan Agreement의 약속조항(covenants)에 일반적으로 규정되는 조항이다.

자료: IDB Annual Report.

IDB는 민간부문국(PRI)<sup>24)</sup>을 통해 대규모 민간 사회간접자본 개발프로젝트를 대상으로 정부의 보증 없이 또는 부분보증방식으로 대출을 하고 있다. 2006년 12월 구조개혁을 통해 IDB는 단일 프로젝트 기준으로 종전 7,500만 달러였던 대출한도를 2억 달러로, 예외적인 경우 4억 달러까지 확대했다. 대출 가능 부문은 SOC 부문 가운데 주로 전력(발전, 송전선, 배전), 운송(도로, 항만, 공항, 철도, 가스 파이프라인), 상하수도부문에 한정되어 있다. 공공부문에서의 IDB 프로젝트와 달리 투자자는 회원국의 기업이나 기관일 필요가 없다. 민간부문국의 금융수단으로는 크게 대출과 보증이 있는데, IDB는 민간자금을 회원국가의 프로젝트에 환류시키는

24) 민간부문국은 2006년 IDB 조직개편으로 구조화금융 및 기업금융국(Structured and Corporate Financing Department)으로 바뀌었다.

것을 중요시하는 관계로 융자프로그램은 더욱 중요하다. 융자프로그램의 경우 대출 프로그램은 크게 A loan과 B loan으로 나눌 수 있는데 전자는 IDB가 직접 대출을 실시하는 것이며 후자는 IDB가 대주(Lender of Record)가 되어 대출단을 구성하여 융자하는 것을 말한다. 보증프로그램의 경우 IDB는 사회간접자본 프로젝트에 투자 및 대출을 활성화시킬 목적으로 부분위험보증(Partial Risk Guarantee) 프로그램과 부분신용보증(Partial Credit Guarantee) 프로그램을 만들어 운영 중이다. 부분 위험보증 프로그램은 프로젝트 시행국 정부의 Contractual Obligation이나 Transferability 같은 특정 정치적 위험에 대해 100% 대출 보증한 것으로 정부의 counter-guarantee를 요구한다. 부분신용보증 프로그램은 민간 대출기관의 대출금 일부를 보증하는 것으로 장기단기에 대한 보증 그리고 옵션추가형식의 유동성보증 등을 통하여 중단기대출을 장기대출로 전환하며, 정부의 counter-guarantee 유무에 상관없이 대출의 50%까지 보증할 수 있다.

## (2) IDB 융자 사례

### (가) 사례 1

PERU LNG 프로젝트는 미국의 Hunt Oil사가 주축이 되어 추진하고 있는 페루 역사상 단일 프로젝트로는 최대 규모이다. Hunt Oil사는 이 프로젝트를 추진하기 위해 먼저 SK에너지(한국, 지분 20%), Repsol YPF(스페인, 20%), 마루베니 상사(일본, 10%) 등으로 구성된 PERU LNG사를 설립했다. 프로젝트 파이낸싱(PF)은 미주개발은행, 국제금융공사(IFC: International Finance Corporation), 미국 수출입은행, 한국 수출입은행, 이탈리아 수출신용공사(SACE), Societe Generale, BBVA, Calyon, 스미토모, ING, Mizuho, 도쿄미쓰비시은행(Bank of Tokyo-Mitsubishi) 등으로부터 조달했다.

이 프로젝트에 대한 IDB의 대출은 은행 사상 최대로 종전 IDB의 단일 프로젝트·단일 국가에 대한 대출 최고 한도 2억 달러를 넘는 것이다. IFC의 대출도 지금까지 중남미지역에 대한 대출 중 사상 최고이다.

이 프로젝트의 특징은 페루기업이 하나도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다. 또한 미국의 Hunt Oil사가 주축이 되어 IDB를 비롯한 12개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한 특별한 사례로 평가받을 수 있다.

### 글상자 5-2. IDB 차관(loan) 사용 사례 1

<p>■ 개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프로젝트명: Peru LNG</li> <li>• 국가: 페루</li> <li>• 주주: Hunt Oil(미국), Sk Corporation(한국), Repsol YPF(스페인)</li> <li>• 프로젝트 비용: 약 32억 달러</li> <li>• 계약일: 2006년 7월 17일</li> <li>• 담당부서: Private Sector Department</li> </ul> <p>■ 프로젝트의 주요 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페루 역사상 최대 FDI</li> <li>• 56광구와 88광구의 천연가스를 액화시켜 멕시코, 칠레, 미국 등으로 수출</li> <li>• 미국, 한국, 스페인의 3대 주주가 equity 형태로 13억 달러를 조달하고 19억 달러는 long-term senior secured debt 형태로 도입</li> </ul> <p>■ IDB의 참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A-loan(4억 달러), B-loan(4억~5억 달러)</li> </ul>
--

#### (나) 사례 2

2007년 8월 브라질의 Delba Perfuradora International S.A.사는 독일의 Palmaile 75 Siebzehnte Beteiligungsgesellschaft mbH & Co. KG사와 합작으로 석유시추선 건조 프로젝트(일명 Delba Vessel 프로젝트) 추진을 위해 IDB와 계약을 체결했다. Delba Perfuradora International S.A.사는 오랜 기간 브라질에서 석유 시추사업을 수행해온 Delba 그룹의 계열사이며 독일기업은 투자목적으로 설립된 특별회사이다.

시추선의 건조는 스위스 Single Buoy Moorings사가 담당하며 건조기간은 약 3년이다. 이 프로젝트는 브라질 정부가 2004년부터 추진해오고 있는 석유 및 천연가스산업육성정책(PROMINP)의 일환으로 훈련 및 교육을 통해 브라질의 시추선 건조 기술 및 능력을 배양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

총프로젝트 비용 6억 1,400만 달러 중 IDB 대출금은 1억 5,300만 달러(A-loan)에 달했다. 이 프로젝트에 대한 IDB의 참여는 B-Loan 형태로 상업은행 및 기타 금융기관의 프로젝트 참여를 촉발시키는 계기로 작용했다.

### 글상자 5-3. IDB 차관(loan) 사용 사례 2

<p>■ 개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프로젝트명: Delba Vessel</li> <li>• 국가: 브라질</li> <li>• 주주: Delba Perfuradora International S.A.(브라질) Palmaile 75 Siebzehnte Beteiligungsgesellschaft mbH &amp; Co. KG(독일)</li> <li>• 프로젝트 비용: 약 6억 1,400만 달러</li> <li>• 계약일: 2007년 8월 6일</li> <li>• 담당부서: Structured and Corporate Finance Department(SCF)</li> </ul> <p>■ 프로젝트의 주요 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석유시추선 건조</li> <li>• Delba Perfuradora International S.A.사는 오랜 기간 브라질에서 석유시추사업을 수행해온 Delba 그룹의 계열사이며 독일기업은 투자목적으로 설립된 특별기금</li> <li>• 시추선의 건조는 스위스 Single Buoy Moorings 사가 담당하며 건조기간은 약 3년 예상</li> <li>• 이 프로젝트는 브라질 정부가 2004년부터 추진하는 석유 및 천연가스산업육성정책(PROMINP)의 일환으로 훈련 및 교육을 통해 브라질의 시추선 건조 기술 및 능력 배양이 목적</li> </ul> <p>■ IDB의 참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금지원(1억 5,300만 달러, IDB A-Loan)</li> <li>• B-Loan 형태로 상업은행 및 기타 금융기관의 프로젝트 참여 독려</li> </ul>
--



## (다) 사례 3

이 프로젝트는 민간투자제도(PPP: Public-Private Partnership)<sup>25)</sup> 성격으로 공공 부문은 기존 MLW 발전소에서 생산되는 전력을 통해 프로젝트의 자금을 조달하며, 민간부문은 노하우와 자금조달(funding)을 담당한다.

프로젝트 스폰서인 CHL의 관리와 감독하에 차입자는 Fideicomiso Hidropacifico 가 맡는다. CHL은 브라질 Odebrecht Companies사<sup>26)</sup>와 에콰도르 현지 민간회사들 (Cartopel, Aquamar S.A., SONGA S.A., Importadora de Sosado S.A., Negocios Industriales Rela S.A., IPAC S.A.)로 구성된다.

이 프로젝트는 Quito와 Guayaquil 사이에 위치한 Baba 강과 Toachi 강이 합류하는 지점에 댐을 건설하고, Baba 강의 수로를 Toachi 강과 MLW 발전소로 돌리는 것이다.

#### 글상자 5-4. IDB 차관(loan) 사용 사례 3

<p>■ 개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프로젝트명: Baba Hydroelectric Project</li> <li>• 국가: 에콰도르</li> <li>• 스폰서: Consorcio Hidroelectrico del Litoral(CHL)</li> <li>• 프로젝트 비용: 약 1억 9,200만 달러</li> <li>• 자금조달 계획: Equity 2,300만 달러, Senior Debt 9,300만 달러, PPP 7,600만 달러</li> <li>• 계약일: 2006년 9월 6일</li> <li>• 담당부서: Private Sector Department</li> </ul> <p>■ 프로젝트의 주요 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aba 강과 Toachi 강 합류지점에 댐(Baba 댐) 건설</li> <li>• Baba 댐의 물을 Daule Peripa 저수지로 전환(약 8km)</li> </ul> <p>■ IDB의 참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A-loan(7,700만 달러, 총프로젝트의 40%)</li> </ul>
--

25) 민간투자제도(PPP)란 민간이 공공시설을 건설·운영하고 시설 사용료 수입 등으로 투자비를 회수하는 사업방식이다. 민간사업자가 ‘설계→자금조달→건설→운영’ 등을 일괄 담당한다. PPP의 목적은 정부의 재정을 보완하여 국가적으로 긴요한 사회기반시설을 조기확충하고 공공시설 건설·운영에 민간의 창의와 경영기법을 활용해 공공투자의 효율을 제고하는 데 있다.

26) Construtora Norberto Odebrecht S.A.와 Odebrecht Investimentos em Infra-Estrutura Ltda.

## 나) IIC 용자

미주투자공사(IIC)는 다양한 지원수단을 통해 중남미 현지의 중소기업을 지원해 오고 있다. 그 중에서도 대표적으로 IIC 용자를 들 수 있다. IIC 용자는 대출기간이 신속(효율성)하고 기업들의 새로운 요구에 대해 새로운 적용(창조성)을 하며, 용자의 구조·기간·지급조건 면에서도 유연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IIC는 △ 수익성 존재 여부 △ 감사가 확인된 재무보고서 보유 △ 성장 잠재가능성 보유 △ 국내의 노동 및 환경 기준 준수 등을 1차적인 용자대상기업의 조건으로 제시하고 있다.

IIC 용자는 1차적으로 중남미 각국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나 현지 진출한 외국기업들도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는 2007년 9월 일본기업의 IIC 용자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수산물 수입 전문회사인 일본기업이 IIC 용자대상기업으로 선정된 가장 큰 요인은 멕시코 현지에서의 고용증대와 수산물 유통 및 가공에 대한 기술전수를 인정받았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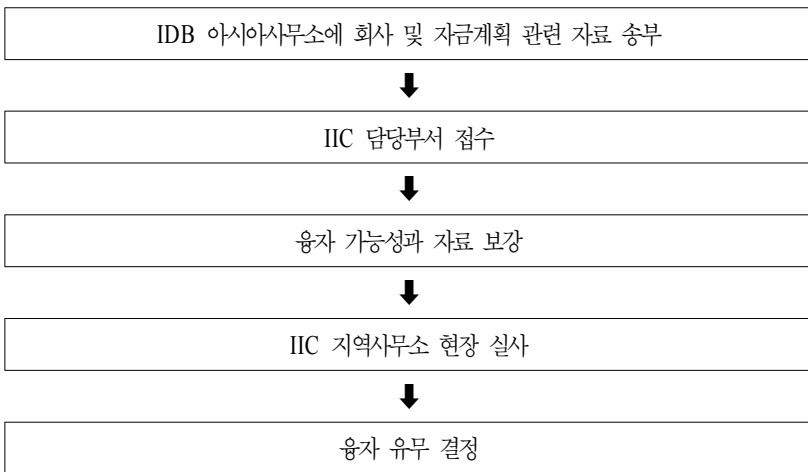
### 글상자 5-5. 일본기업의 IIC 용자 사례(2007년 9월)

- 설립: 1994년
- 규모: 자본금 1억 엔, 종업원 30명,  
개인 주주 7명의 친족회사  
2001년부터 2006년까지 연간 최저 11억 엔에서 최고 60억 엔의 매출고를 기록한 중소기업
- 특징: 수산물 수입전문 회사로 미구로(주로 양식) 및 게, 성게알 등을 수입 판매
- 보유기술: 미구로에 대한 양식기술과 수산물의 유통 및 가공, 품질관리에 대한 노하우를 보유  
(수입총량 45만 톤 중 10%가 양식 미구로, 그 중 10%를 생산하는 업계 2위의 회사)
- 선정요인: 멕시코의 고용증대와 수산물 유통 및 가공에 대한 기술전수를 인정
- 심사 및 담보: 2007년 1월 심사 시작  
2007년 4월 IIC 사장 및 실무진의 일본 본사 방문  
멕시코 현지 공장부지 담보 설정
- 용자금액: 100만 달러

자료: 윤민호(2008a).

따라서 중남미 현지에 진출한 우리 중소기업들도 일본기업과 마찬가지로 현지국의 고용에 기여하고 일정 정도의 기술전수를 하고 있는 기업이라면 비교적 저렴한 IIC 용자를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

표 5-4. IIC 용자 절차



한국기업이 IIC의 용자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밟아야 한다. 먼저 IDB 아시아사무소에 회사 및 자금계획에 대한 자료를 송부해야 한다. 다음으로 아시아사무소는 관련 자료를 IIC 담당부서에 보내 접수한다. 신청서 접수 후 IIC는 용자 가능성을 검토하고 용자가 가능하다고 판단하면 추가적인 자료 보장을 요청한다. 이 과정이 완료되면 IIC의 지역사무소가 현장실사를 실시한다. 현장실사 이후 최종적으로 용자 유무를 결정한다.

IIC 용자 신청시 제출해야 할 주요 문서는 ① 회사에 대한 각종 데이터, ② 실시 사업에 대한 요청 자금액, ③ 사용자금의 용도, ④ 회사의 지난 3~5년간 회계기록, ⑤ 해당 업종에 대한 시장정보 등이다.

### 3) 무역금융지원프로그램(TFFP) 확대 운영

IDB와 신한은행의 TFFP를 이용하는 수출기업들은 수출대금 미회수 위험에서 벗어나 안정적으로 수출영업에 전념할 수 있다. 또한 중남미로부터 물건을 수입하는 기업들도 보증신용장 확인 등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상대 수출상의 계약 불이행의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다.

정부와 무역 유관기관들은 이 서비스를 널리 수출기업에 홍보하여 국내 수출기업들이 무역거래에 따른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국내 은행 실무자 및 중남미 전문가들의 현지 방문 등을 주선하고 중남미은행들과 국내은행 간의 제휴를 도모하여, 국내은행들의 중남미시장 진출 교두보로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할 만하다. 또한 민간합동의 TFT를 구성하여 중남미시장에 대한 연구와 기업들에 대한 지원방안을 모색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될 것이다.

한편 그동안 국내은행들의 해외네트워크 및 정보 부족으로 신용장 확인 업무와 포페이팅 업무는 주로 해외 메이저은행을 통해 국내기업들이 이용하여왔다. 따라서 이번 신한은행의 서비스는 국내은행들이 그동안 취급하지 못하였던 새로운 사업분야에 대한 도전이 될 것이며, 신규 수익원을 창출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향후 신한은행은 IDB와의 추가적인 업무제휴를 통해 중남미지역으로 진출하는 우리 기업들에 대한 각종 금융서비스를 강화해나갈 예정이다.

표 5-5. 무역금융지원프로그램의 주요 특징

구분	주요 특징
성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중남미 국가(IDB 회원국)에서 발행한 신용장에 대해서 확인은행에 신용보증서(CG) 발행</li> </ul>
참가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Issuing Banks: IDB 차입국에 소개하는 민간 혹은 국책 은행으로 무역거래가 있고, 신용도가 높으며, IDB의 심사기준에 부합하는 은행</li> <li>Confirming Banks: 국제무역거래를 하고 있는 다국적 혹은 국내 은행</li> </ul>



### 3. 주요 정책과제

#### 가. 한·중·일 공동신탁기금 운영

2008년 10월 23일 중국이 미주개발은행(IDB)의 48번째 회원국으로 가입했다. 중국의 가입은 아시아에서 일본(1979년), 한국(2005년)에 이어 세 번째이다.

중국은 IDB 가입을 위해 3억 5,000만 달러를 출연했다. 이 중 1억 2,500만 달러는 중남미 5개 최빈곤국을 지원하는 특별운영기금(FSO), 각각 7,500만 달러는 미주개발은행 산하기구인 미주투자공사(IIC), 다자투자기금(MIF), 나머지 7,500만 달러는 신탁기금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중국은 지난 15년간 IDB 가입을 시도해왔으나 중남미지역에서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우려한 미국 등의 반대로 번번이 좌절되었다. 그러나 최근 미국발 금융위기로 중남미 국가들이 자금난에 봉착하면서 중국의 IDB 가입이 가속화되었다.

이번 중국의 IDB 가입으로 중남미지역에서 중국의 위상은 정치·경제적으로 더욱 제고될 전망이다. 2007년 현재 중국은 미국에 이은 제2의 교역파트너이다. 중국과 중남미 간 교역은 1995년 84억 달러에서 2007년 1,100억 달러로 증가했다. 중국은 2005년 칠레와 FTA를 체결한 데 이어 페루와 2008년 11월 FTA 협상을 완료했다. 중국의 대중남미 FDI는 무역규모에 비해 아직까지 미미하다. 2006년 대중남미 FDI 규모는 30억 달러로 중남미 총 FDI 유입의 4% 비중을 불과하다. 또한 중국은 빈곤감축, 경제발전 경험 전수, 기술협력 등을 통해 중남미 경제사회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중국의 가입으로 IDB에서 아시아 국가들의 영향력이 확대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IDB가 3국간 경쟁의 장이 아니라 협력과 화합의 장으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사업을 선제적으로 발굴 제시할 필요가 있다. 즉 아시아적 색채가 강한 새로운 협력프로그램을 개발·제시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먼저 아시아사무소의 역할을 증대시킬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 더 나아가 보다 적극적으로 아시아의 개발경험을 중남미지역과 상호 교환할 수 있는 가칭 ‘Asia Program’을 개발해 공동운영할 필요가 있다. Asia Program은 한·중·일 3국이 신탁기금을 출연해 공동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 나. 신탁기금과 ODA를 연계한 한·중남미 IT 협력사업 추진

IDB 신탁기금과 ODA(유무상원조)를 결합한 사업을 개발, 개발협력의 시너지효과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이 같은 사업의 가능성에 대한 논의가 있어왔지만 실제로 시도된 적은 없었다.

IDB 신탁기금과 ODA를 융합해 추진할 수 있는 대표적인 사업으로 한·중남미 IT 협력사업이 가장 적합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간 우리나라가 중남미 등을 비롯한 개도국을 대상으로 성공적으로 추진해오고 있는 국제IT협력센터 사업과 정보접근센터 사업의 장점을 살려 중남미지역 차원의 사업으로 발전시키는 방안을 적극 강구할 필요가 있다.

먼저 국제IT협력센터 사업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2000년대에 들어서 중남미 및 유럽의 신흥 IT 국가인 멕시코, 칠레, 브라질, 터키 등에서는 국가 경제발전의 주요 수단으로 IT 분야의 국제협력 및 기술도입을 통한 국가정보화가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되면서 단기간에 성공적인 정보화를 이룬 한국을 모델로 삼아, 기술 전수 및 상호 교류의 요구가 증가하게 되었다.

우리 정부도 IT 분야의 글로벌 영향력 강화 및 개도국들과의 국가간 협력 강화의 필요성을 인식하여 그에 따른 구체적 실행방안으로 정보통신부 주관으로 멕시

코와 칠레를 국제IT협력센터 설립 대상국으로 선정, 2002년에 멕시코와 센터 설립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하였으며, 2004년도에는 칠레와 센터 설립 운영에 관한 협약서를 체결하였다.

IT협력센터는 국가간 IT 분야 상호 협력체계 구축(대정부 IT 협력창구 역할 수행)을 목표로 국내 정보화 경험, 노하우와 IT 산업 발전모델인 IT 839 전략을 활용하여 상대국의 국가·경제적 환경과 수요에 부응하는 공동연구과제를 발굴하고 이를 추진하였다. 센터를 통해 진행된 컨설팅, 공동연구과제(시범사업) 수행, 워크숍 개최 등의 가시적 성과들은 한국 IT 업체의 상대국 시장 진출 토대 마련 및 국가 위상을 제고하는 데 많은 기여를 했다.

IT협력센터는 센터를 운영하는 국가간(한국·멕시코/한국·칠레)의 공동출연자금(Matching Fund)이라는 독창적인 형태로 운영하였다. 또한 센터의 사업운영 및 자금의 관리 등은 센터 감독기관 및 운영기관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공동운영위원회를 통하여 이루어진다.

IT협력센터 사업의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한·멕시코 IT협력센터의 경우 한국과 멕시코 정부는 2002년도에 한·멕시코 IT협력센터 설립·운영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였고, 그에 따른 양해각서에 의거 2003년 10월에 센터를 설립하여 2006년까지 3년간 운영하였다. IT협력센터는 양국이 공동으로 운영하였으며, 대한민국 정보통신부 및 멕시코 통신교통부가 감독기관, 한국정보사회진흥원 및 e-Mexico National System이 주관기관 역할을 수행하였다. 센터는 정부간 IT 협력 및 교류 창구 제공, 멕시코 정보화를 위한 정보화컨설팅 제공, 양국 공동연구프로젝트 발굴·수행, IT 분야 기술 및 인력 교류 등의 기능을 수행하였다. 센터를 통해 양국 정부는 3년간 공동프로젝트 17건, 정보화컨설팅 27건, 기술 및 인력 교류 79건, 국내기술 진출 3건의 성과를 이루었다. 대표적인 활동성과로서 멕시코의 중소지역 정보화 시범 서비스모델 수립 컨설팅(정보화컨설팅), 멕시코 대국민 모바일



민원서비스 시범 구축(공동연구과제), 한·중남미 ICT 컨퍼런스 2005 및 전시회와 유비쿼터스 신기술 컨퍼런스 2006(기술 및 인력교류) 개최 등을 꼽을 수 있다.

두 번째로 한·칠레 IT협력센터의 경우 한·멕시코 IT협력센터 설립에 이어 정보통신부는 칠레를 후속 국제 IT협력센터 설립 대상국으로 선정하였다. 그 후 한국과 칠레 정부는 「한·칠레 IT협력센터 설립 운영에 관한 협약서」를 체결하고 2004년 4월 한·칠레 IT협력센터를 설립하여 2006년까지 3년간 운영하였다. 한·칠레 IT 협력센터는 한·멕시코 IT협력센터와 동일하게 양국이 공동으로 운영했으며, 대한민국 정보통신부 및 칠레 경제부가 감독기관, 한국정보사회진흥원 및 칠레국립대학이 주관기관 역할을 수행하였다. 한·칠레 IT협력센터의 대표적인 활동성과로는 칠레교통통신부 T-DMB 기술정책 컨설팅(정보화컨설팅), 도서관 RFID 시범 서비스시스템 구현(공동연구과제), 한·중남미 ICT 컨퍼런스 2004 및 한·칠레 IT 비즈니스 포럼 2006 개최 등을 들 수 있다.

센터를 통하여 형성된 국가간 신뢰, 협력관계 개선 및 우리나라 기업의 현지 진출 등의 성과는 향후 국가간 협력관계 유지 발전과 공동연구, 컨설팅 등을 통해 IT 분야 상호 협력 채널을 유지하고 우호협력체계를 강화하는 새로운 초석이 되고 있다. 현재 멕시코·한국 및 칠레·한국 정부는 양국의 주요 IT 이슈에 대한 국제 공동연구를 심층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협의하고 있으며, 상호 정보화 추진 경험 공유, 기술협력, 인력 및 기술교류 네트워크 지원 등의 협력사업도 추진을 위하여 논의하고 있다. 한편 한국정부는 국제IT협력센터를 통한 타 지역 및 국가와의 성과·협력 확대를 위하여 후속 협력국 발굴을 모색하였고, 브라질 및 터키를 신규 IT협력센터 설립국으로 선정했다.

한편 한국정보문화진흥원이 주축이 되어 실시하고 있는 정보접근센터사업은 IT 후발국의 정보화 촉진을 위한 정보접근센터를 지원하여 △ IT 강국으로서 한국의 국제적 위상 강화 △ IT 국제협력에 기여 △ 국가간 정보격차 해소 △ IT 협력 증진

을 통한 우리나라 IT 산업의 해외진출기반 조성 △ IT 강국 이미지 홍보 등을 위한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주요 사업내용은 △개도국 정보접근센터 구축 △정보화 교육장, 인터넷 라운지, 세미나실, 운영요원 사무실 등 해당국 정보화 환경에 맞는 시설을 구축(약 100평 규모) △센터 운영요원들에 대한 초청연수 실시 및 정보화 교육 교재 지원, 해외인터넷청년봉사단 파견 등을 통한 현지 운영지원 등으로 요약된다. 장소제공 및 시설운영은 해당 국가(기관)가 분담하는 매칭펀드(Matching Fund) 방식이다. 그간 아시아, 중동, 아프리카 국가들을 중심으로 설치되었던 정보접근센터는 2008년 6월 중남미 국가 중 과테말라(산까를로스국립대학)에 처음으로 개소되었다.

표 5-6. 정보접근센터와 IT국제협력센터 비교

	정보접근센터(IAC)	IT국제협력센터(ITCC)
설립 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IT 후발국의 정보화 촉진</li> <li>정보격차 해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IT 산업 성장 잠재력 및 진출 유망국가를 대상으로 정보화 경험과 기술을 전수·공유하고 공동연구과제를 수행</li> <li>양국간 IT 협력체계 강화를 통해 국내기업의 진출 지원</li> </ul>
운영 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매칭펀드 방식</li> <li>장소제공 및 시설운영은 해당 국가(기관)가 분담</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매칭펀드</li> </ul>
주요 활동 및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정보화교육장, 인터넷 라운지, 세미나실, 운영요원 사무실 등 해당국 정보화 환경에 맞는 시설 구축</li> <li>Video Conference, e-Learning 시설 등 첨단 원격교육 시설 구축</li> <li>센터 운영요원들에 대한 초청연수 실시 및 정보화 교육교재 지원, 해외인터넷청년봉사단 파견, 현지 점점반 파견을 통한 현지 운영지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상대국 정보화를 위한 정보화 컨설팅 제공</li> <li>양국 공동연구프로젝트 발굴·수행</li> <li>IT 분야 기술 및 인력 교류</li> </ul>
개소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개소국(9개국): 캄보디아 루마니아(2002) 베트남 이집트(2003) 필리핀 볼가리아(2004) 라오스 튀니지(2005), 인도네시아(2006)</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총 3개국. 멕시코 칠레, 터키</li> <li>개소 예정(2008): 브라질</li> </ul>

이상에서 살펴본 대로 우리 정부가 개도국의 디지털 격차(digital divide) 해소를

위해 추진해오고 있는 국제IT협력센터사업과 정보접근센터사업은 독특한 아이디어와 사업방식으로 현지국은 물론 국제사회로부터 많은 주목을 받아오고 있다.

따라서 현재 2개의 사업으로 분리되어 추진해오고 있는 국제IT협력센터사업과 정보접근센터사업을 서로의 장점을 살려 하나의 사업으로 단일화하고, 국별 단위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을 중남미지역 및 소지역 차원의 사업으로 확대시키는 것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신탁기금 사업으로 ‘한·중남미 IT 장관회담’을 개최, 「한·중남미 IT 협력 실천계획」을 마련하고 이 계획에 근거해 국제IT협력센터사업과 정보접근센터사업을 포괄한 지역차원의 가칭 ‘한·중남미 IT 협력 및 정보접근센터’ 사업을 전개해나갈 필요가 있다.

## 다. 건설·인프라 업체의 진출 활성화 방안

### 1) 대중남미 건설·인프라 시장 진출 부진요인

IDB 가입 직전 중남미 건설·인프라 시장 진출의 주요 문제점으로 △언어 및 문화적 격차 △현실감 있는 현지정보 획득의 어려움 △저가수주 및 과당경쟁 △자금조달 및 금융지원의 미비 △미주개발은행 미가입에 따른 현지 프로젝트 참여 원천 배제 등이 지적되었다.

특히 이 중에서도 우리 건설업계의 중남미시장 진출의 제약요인으로 현지 개발은행 미(未)가입에 따른 프로젝트 참여의 원천적인 배제가 커다란 문제로 비중 있게 거론되었다. IDB 회원국이 아닌 국가의 기업에는 IDB의 구매사업에 입찰자격이 주어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중남미지역의 일반 건설·구매 시장에서도 차별되어 입찰참여기회가 제한된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그러나 기업들과 면담결과, 당시 우리 기업들은 미주개발은행의 가입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지 않았으며 IDB 비회원국이기 때문에 현지 프로젝트 수주과정에서 불이익을 당한 사례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요인은 우리 기업의 중남미 건설시장 진출이 1990년대 중반 이후 본격화되고는 있지만 상대적으로 아직까지 초기단계인데다가 진출분야가 산업설비분야에 편중되고 있는 데 따른 것으로 해석되었다. 실제로 우리 기업들은 석유화학 및 석유정제, 발전·송배전 분야를 제외하고는 종전 우리 기업의 주력진출분야였던 토목이나 건축 분야는 중남미시장에서 경쟁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었다. 업계에 따르면 토목 및 건축 분야에서 비교열위요인은 무엇보다도 현지 시공업체가 상당한 경쟁력을 갖고 있다는 점이었다. 이외에도 현지 기진출한 유럽 및 미국계 선진업체의 시장장악, 언어 및 문화적 차이, 노동비용 과다 및 현지 노동법규의 경직성 등이 우리 업체들의 비교열위요인으로 지목되었다.

## 2) 중남미 건설·인프라 시장 및 IDB 프로젝트에 대한 기업들의 관심 변화

그러나 최근 약 20개 기업을 대상으로 한 인터뷰 결과, 우리 기업들의 중남미 건설·인프라 시장에 대한 인식은 크게 바뀌고 있으며 IDB 프로젝트 진출에 대한 관심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먼저 우리 기업들은 최근 중남미 경제가 전례 없던 호황을 구가하고 자원부국으로 전략적 가치가 크게 증대되면서 중남미시장을 새롭게 인식하게 되었다. 특히 보다 최근에는 오일가격 하락 및 세계 경기침체로 중동지역 발주프로젝트가 연기 또는 취소되면서 대체시장으로 중남미시장 진출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중남미 건설·인프라 시장에 대한 우리 업체들의 관심이 집중되며 자연스럽게 IDB 등 국제개발기구 진출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같은 사실은 먼저 세계는

행과 IDB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컨설팅업체(Consulting Company) 등록사이트인 DACON(data of consulting companies)<sup>27)</sup>에 우리 엔지니어링 및 관련 업체의 등록이 IDB 가입 이전 9개사에서 IDB 가입 이후에는 28개 늘어나 총 37개사에 달하고 있는 점에서 확인된다.<sup>28)</sup>

표 5-7. 대중남미 건설·인프라 시장 진출에 대한 관심 정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심 있음(면담업체 대부분 관심 표명).</li> <li>• 중남미시장 거점 확보 위한 진출에 관심 많음.</li> <li>• 예전에는 중동이나 아시아 시장에 주로 관심을 가졌으나 오일가격 하락 및 세계 경기침체로 중동지역 발주프로젝트가 연기 또는 취소되면서 중남미시장 진출에 관심</li> <li>• 장기적으로 관심은 있지만 지리적으로 멀어서 아직은 관심 없음</li> </ul>
--

자료: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인터뷰 자료

표 5-8. 대중남미 건설·인프라 시장 진출에 대한 관심 이유

<p>■ 관심 이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회사 성장차원에서 시장 확대 필요성 있어 중남미 진출</li> <li>• 신규 사업 진출 및 사업영역 확대차원에서 틈새시장 찾다가 중남미 진출</li> <li>• 풍부한 천연자원 및 개발 가능성 높은 미개발된 틈새시장</li> <li>• 중남미는 자원부국으로 비즈니스 가능성 풍부</li> <li>• 회사의 수익성 확보 차원</li> <li>• 한정된 국내시장과 불경기로 해외시장 개척 필요</li> <li>• 중남미는 한국정부의 전략적 협력대상국가이기 때문</li> <li>• 중남미 현지국가의 개발의지 확대</li> </ul> <p>■ 무관심 이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지정부의 재원이 불확실하고 리스크 많음.</li> <li>• 프로젝트 수행언어(스페인어, 포르투갈어)에 대한 언어장벽 및 전문인력 부족</li> <li>• 언어문제로 입찰과정에서 오역시 책임소재 발생 및 입찰정보 수집에 애로</li> <li>• 지리적으로 멀어 현지 네트워크 구축이 쉽지 않음.</li> </ul>
--

자료: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인터뷰 자료

27) DACON 등록은 인터넷 웹사이트(<http://www.dgmarket.com/dacon>)를 통해 무료로 가능하다.

28) 그러나 37개 기업 중 중남미 진출경험이 있는 업체 수는 3개사에 불과한 상황이다.

표 5-9. DACON 등록업체 명단

	업체 명
IDB 가입 이전	CHOYANG PLANT TECHNOLOGIES CO.
	Chungsuk Engineering co.ltd.
	Daewoo Engineering Company
	GRENEX Limited
	Hanseok Engineering Consultants, Inc.
	Hyein Engineering Co., Ltd.
	Korea Engineering Consultants Corporation
	Moon Engineering Co.,Ltd.
	PYUNGHWA Engineering Consultants Ltd
IDB 가입 이후	Asian Pacific Women's Information Network Center (APWINC)
	Byucksan Engineering Co. Ltd.
	Cheil Engineering Co.,Ltd.
	Dasan Consultants Co., Ltd.
	DONGMYEONG ENGINEERING CONSULTANTS & ARCHITECTURE CO., LTD
	Dongshin Engineering & Consultants Co., Ltd.
	DONGSUNG ENGINEERING CO., LTD.
	HRD Consulting Korea
	Hyundai Engineering Co., Ltd.
	JUNGDO ENGINEERING Co., Ltd.
	KDI School of Public Policy and Management
	Korea Cadastral Survey Corporation
	Korea Exchange Inc.
	Korea Institute for Development Strategy
	Kunhwa Consulting & Engineering Co., Ltd.
	Kyong Dong Engineering Co., Ltd.
	Namwon Engineering Co., Ltd.
	Only Infortel Co., Ltd.
	SAM SAM Co, Ltd.,
	Saman Corporation
	Seoyeong Engineering Co., Ltd.
	SOOSUNG ENGINEERING. CO.,LTD.
	SUNJIN Engineering & Architecture
	Swiss-ASIA Consulting Ltd.
	Taewon Corporation
	WITHUS-G
Woonam Co., Ltd.	
Yooshin Engineering Corporation	

자료: DACON.

그러나 이 같은 IDB 프로젝트 진출에 대한 관심 증가에도 불구하고 우리 기업들은 IDB 진출에 커다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일부 업체의 경우 IDB 프로젝트에 관심은 있으나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 모르고 있었으며, 사전 자격심사가 까다로워 수주에 실패한 경우도 있었다.

표 5-10. 우리 업체들의 IDB 프로젝트에 대한 관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심은 많으나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 잘 모름.</li> <li>• 중소기업에는 중남미 진출의 좋은 기회로 생각</li> <li>• 대기업에는 프로젝트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것으로 판단</li> <li>• IDB 발주프로젝트 참여를 여러 번 시도하였으나 PQ(사전자격심사)가 까다로워서 실패</li> </ul>
---

자료: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인터뷰 자료.

### 3) 진출 확대방안

기업들의 건의사항을 토대로 우리 업체들의 IDB 프로젝트 진출 확대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프로젝트 수행 초기 자금지원이다. 중소기업체들이 IDB를 비롯한 국제개발은행(MDB) 프로젝트를 추진하면서 겪는 가장 근본적이며 큰 애로사항은 프로젝트 타당성 검토(기술타당성, 재무타당성, 환경타당성 검토 등)가 선행되어야 하는데 이와 관련한 비용을 자체적으로 충당하기에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이다.

둘째, 프로젝트 정보제공 창구의 일원화 및 활성화이다. 우리 업체들은 아직까지 IDB 관련 프로젝트 정보를 어디서 입수해야 하는지 모르는 경우가 태반이었다. 따라서 수출입은행이나 KOTRA, 해외건설협회 등을 통해 IDB 프로젝트 정보를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보다 적극적으로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셋째, 프로젝트 검색대행서비스 제공이다. 업체들은 수수료를 받는 유료서비스라도 유용하고 신속한 정보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기꺼이 비용을 지불할 의사를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넷째, 국제개발은행 공동세미나의 활발한 개최이다. 세계은행, ADB, AfDB, IDB 등 국제개발은행들과 공동으로 세미나를 개최하여 한국업체들의 활발한 참여를 유도하고 개발은행들과의 정보 공유 및 네트워크 구축의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

표 5-11. 우리 건설·인프라 업체들의 IDB 진출 확대를 위한 대정부 건의

- 프로젝트 정보 입수가 제한적이어서 일원화된 창구 활성화 필요: 수출입은행이나 다른 곳(KOTRA, 해외건설협회 등)을 통해 통합적인 관리 및 활성화 요구
- 프로젝트 검색을 대행해주는 서비스 제공: 수수료를 받는 유료 서비스라도 입찰정보 검색 대행이나 입찰 공지시 SMS 문자서비스를 받기를 희망
- 현실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금융지원 확대 요망
- IT 전문가(또는 사업분야 전문가)가 IDB 등 관련 기관에 파견되어 프로젝트 정보 및 계획 수립에 깊이 관여하면서 민간업체가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조치 요망 (필요시 관련 인력 공채 추진도 필요)
- IDB 프로젝트 파이낸싱에 대한 전반적인 프로세스 홍보기관 설립 희망 (예: IDB 아카데미)
- 프로젝트 수주를 위한 초기 진행자금 지원 활성화(신규 개척 지원방안 필요)
- 국제개발은행(세계은행, ADB, AfDB, IDB 등) 대상으로 공동워크숍(또는 세미나)을 개최하여 한국업체들의 활발한 참여 유도 및 개발은행과의 정보 공유 및 네트워크 구축
- IDB 국제입찰서 공개시 영어본 활성화 조치 요망(스페인어로 작성된 경우가 많음)

자료: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인터뷰 자료

## 라.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을 통한 IDB와 민간기업의 협력

기업은 이제 우리 사회 속에서 커다란 영향력을 행사하며 모든 사회 구성요소와 상호관계를 형성하고 있어 기업시민(Corporate Citizen)이라는 말이 어색하지 않은 시대가 되었다. 사회 속에서 기업의 영향력과 역할이 커져감에 따라 동시에 기업에



대한 사회의 기대와 요구가 다양해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해외 선진기업들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을 ‘현대사회에서 기업활동을 유지하기 위해서 반드시 수행해야 할 노력일 뿐만 아니라 미래에도 지속가능한 기업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생존수단’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표 5-12. 주요 다국적기업의 CSR 활동 사례

<p>■ <b>환경경영을 통한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 창출</b> 환경부문에서 해외 선진기업들이 주목하고 있는 이슈는 CO<sub>2</sub> 배출량 감소, 유해물질 절감, 환경친화적 고효율 에너지 제품 또는 신재생에너지 개발 등에 집중되어 있다. 과거에는 원료소비를 줄이거나 재활용하는 등 소극적인 대응이었다면, 현재 글로벌 기업들은 적극적인 친환경제품 개발을 기업의 신성장동력으로 인식하고 비즈니스화하는 데 힘쓰고 있다.</p> <p>■ <b>독립적인 CSR 전담팀 운영</b> CSR 해외 선진기업들은 기본적으로 독립적인 CSR 운영체계를 가지고 CSR을 전사적으로 추진하며, 각 주관 부서에서 일어나는 CSR 관련 데이터들을 관리하고 이해관계자들과 적극적으로 커뮤니케이션한다.</p> <p>■ <b>CSR 솔루션으로 데이터 관리와 보고서 개발</b> CSR의 분야는 광범위한 뿐만 아니라, 특히 다국적기업의 경우 진출해 있는 각 나라별 CSR 활동을 관리하는 것이 쉽지 않다. 프랑스 제1의 정유업체인 Total Group은 CSR 솔루션을 도입하여 모든 형태의 비재무적 성과와 관련 데이터를 관리 및 분석하고, 각국에 맞는 다양한 CSR 보고서를 발간하여 신뢰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있다.</p> <p>■ <b>비즈니스와 연계된 적극적인 직접운영 사회공헌프로그램 강화</b> 많은 글로벌 기업의 사회공헌활동은 기본적으로 기업의 핵심 비즈니스와 연계된 실행프로그램들에 집중되어 있으며, 기업에서 직접 운영하고 임직원들이 직접 참여하는 형태의 지역사회공헌프로그램에 주력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사회공헌활동을 해외시장 개척에 적극 활용하는 CSR 해외 현지화 전략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p> <p>■ <b>사외이사의 전문성을 요하는 투명한 기업지배구조</b> 기업지배구조 부문은 사외이사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데 윤리적이고 투명한 지배구조로 알려져 있는 GE의 경우, 특히 사외이사 선정과정에서의 투명성, 사외이사의 비율, 전문성에 따른 책임과 역할 부여 등을 통하여 기업경영 효율성과 성과 극대화에 집중하고 있다.</p> <p>■ <b>각각의 이해관계자에 따른 세부적인 CSR 추진 프로그램 개발</b> 해외 선진기업 CSR의 가장 큰 특징은 각각 이해관계자들의 기대와 요구에 따른 전략적 CSR 활동 추진에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도 그럴 것이 대부분의 해외 선진기업들은 CSR을 다양한 이해관계자 만족을 위한 전략적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기 때문이다.</p> <p>■ <b>전사적 임직원 교육과 공감대 형성</b> 임직원들은 CSR의 핵심대상이자 실행주체이기 때문에 이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실행의지가 없다면 CSR은 결코 기대하는 만큼의 성과를 보여주지 않는다. 따라서 해외 선진기업들은 매년 CSR과 지속가능경영, 환경, 안전, 윤리경영, 사회공헌활동 등에 대한 체계적 교육을 전 사원에게 제공하여 CSR과 지속가능경영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추진의지 강화와 동기부여에 힘쓰고 있다.</p>
---

자료: 전국경제인연합회 홈페이지.

최근 들어 중남미 진출이 가시화되면서 우리 기업들의 현지 진출 대상국이나 대  
상지역(local community)에서 CSR 활동도 활발해지고 있다. 특히 최근 광물에너지  
개발에 대한 현지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CSR 활동은 기업의  
이미지 제고뿐만 아니라 국가이미지 제고차원에서도 매우 중요한 주제로 떠오르고  
있다. 따라서 현재 진출 기업 단독으로 추진하고 있는 각종 CSR 활동을 IDB와 공  
동으로 추진함으로써 시너지효과를 도모하는 방법을 적극 강구할 필요가 있다. 이  
같은 점에서 최근 일본기업의 CSR 분야에서 IDB와의 협력은 우리나라 기업이 벤  
치마킹할 가치가 충분하다고 판단된다.

2008년 10월 29일 일본의 미쓰비시상사(Mitsubishi Corporation)는 IDB와 중남  
미지역에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활동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  
다. IDB · 미쓰비시상사 간 주요 협력분야는 ① CSR 협력사업 발굴, ② 우수한 협  
력사업 발굴을 위한 IDB와 전략회의 개최, ③ CSR 성공사례의 중남미 국가들에  
대한 전수 추진 등이다.

표 5-13. IDB · 미쓰비시상사 간 주요 협력분야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CSR 협력사업 발굴</li> <li>② 우수한 협력사업 발굴을 위한 IDB와 전략회의 개최</li> <li>③ CSR 성공사례의 중남미 국가들에 대한 전수 추진</li> </ul> |
|--|

### 마. 인적네트워크 구축 활성화 방안

IDB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효율적 전략 중 하나가 IDB 인적자원과 튼튼  
한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이다. IDB와의 인적네트워크 구축은 두 가지로 대별된  
다. 먼저 세미나 등 다양한 접촉을 통해 IDB 인사들과 친교를 쌓고 우리나라의 존

재감을 인식시키는 것이다. 두 번째는 보다 적극적인 방법으로 IDB 내에 한국 출신의 전문가를 취업시키는 것이다.

### 1) IDB 본부 및 국별 사무소(country office) 방문 세미나 개최

인적교류 활성화를 위해서는 세미나 등 다양한 초청사업에 IDB 인사를 초대, 우리나라 전문가들과의 자연스러운 교류의 장을 많이 만드는 것이다. 보다 전략적인 방안으로는 중남미 현지 진출의지와 경쟁력을 갖춘 기업을 선별, IDB 본부를 방문하여 기업활동을 소개하는 세미나를 개최하는 것이다.

IDB에서 한국의 개발경험이 매우 바람직한 벤치마킹 대상으로 여겨지고 있으며, 한국과 관련한 행사에는 상당히 많은 직원이 참여하고 있다. 특히 한국의 발전에 관한 정책적 합의나 각 분야의 경험은 중남미 국가들이 따라야 할 모델로 여겨지고 있다. 따라서 ‘새마을운동’, ‘한국의 전자정부’, ‘한국의 반부패’ 등 특정한 주제를 가지고 전문가가 IDB를 방문하여 세미나를 개최하는 방법이 있다. 사전에 한국인 직원 및 관련 부서와 연락을 취하여 한국펀드를 이용하여 관련 내용에 관한 기술지원사업(TC)을 수행하는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반드시 점심(샌드위치)을 제공하는 형식으로 진행해야 많은 관심을 끌 수 있다. 또한 영어 또는 스페인어가 능숙한 전문가가 참석하여 발표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세미나를 통해 자연스럽게 본부 직원들과의 직접적인 네트워크를 효과적으로 구축할 수 있다. 이 같은 방법은 유럽기업들이 가장 적절히 사용하는 기법이기도 하다. 또한 최근 국별 사무소(country office)의 역할이 대폭 강화되고 있는 추세이므로, 중남미 각국의 IDB 사무소를 방문, 동일한 행사를 개최하고 현지 인력들과 교류를 확대하는 노력도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 글상자 5-6. IDB 페루사무소의 활동 현황

현재 IDB 페루사무소<sup>1)</sup>는 수도인 리마 시에 위치해 있다. 40여 명의 직원이 페루 내 진행되는 모든 프로젝트 집행과정을 모니터링하고 새로운 프로젝트를 발굴, 최종 평가 과정에도 참여한다. 또한 각 프로젝트의 재정적 필요분을 측정, 국내기관들의 자금 보유 현황 등을 살펴본 뒤 IDB 기금의 출연규모를 결정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IDB 페루 사무소는 정부, 공공기관, 민간부문, 그리고 미디어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프로젝트 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하며, 프로젝트를 마칠 때까지 단계별로 진행상황을 IDB 본부를 포함한 관련 기관들에 보고한다. 현재 IDB 본부 내 추진되고 있는 분권화 및 각 지역의 사무소 역할 강화는 현지 사무소들의 역량을 더욱 확대시켜줄 것으로 예상된다.

주: 1) IDB 페루사무소의 대표는 Ana Rodriguez-Ortiz이며 주소는 Paseo de la Republica 3245 Piso 14, San Isidro Lima, Peru, 대표 전화번호는 51-1-215-7800, 이메일 주소는 CPE@iadb.org이다.

### 2) IDB 직원 초청 활성화

국내의 각종 회의(conference)나 워크숍 등에 IDB의 분야별(sector) 전문가를 자주 초청, 국내인력들과 자연스러운 인맥을 구축하는 것도 필요하다. 또한 외교부나 한국국제교류재단(Korea Foundation)의 유력인사 초청사업에 IDB 관련 인사들을 초청, 한국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국내인사들과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기회로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 3) 한국·IDB 장학금 프로그램 운영

일본의 경우 1991년부터 IDB 장학금 프로그램을 통해 미래의 중남미 핵심인력들을 일본에 우호적인 인사로 육성하고 있다. 특히 일본은 일본 현지 장학생뿐만 아니라 미국이나 유럽, 중남미 등 일본 이외에서 수학하는 유학생에 대해서도 장학금을 지급하는 등 상당히 폭넓은 형태의 장학사업을 펼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일본의 사례를 벤치마킹해 한국·IDB 장학금 프로그램을 설립, 한국에 우호적이며 한국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중남미 인사를 육성하는 데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 4) 중남미 유망 교포 청년인력 육성 프로그램

우리나라 인력들이 IDB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전문지식 이외에도 스페인어 구사 능력이 필수적으로 요망된다. 그러나 국내에서 전문지식과 높은 스페인어 구사능력을 동시에 갖고 있는 인력은 매우 드문 상황이다.

중남미 현지에는 현재 우리 교민들이 10만 명에 달하고 있으며 전문지식과 현지 언어구사력을 갖고 있는 청년교포인력이 상당히 포진해 있다. 따라서 IDB 진출 가능성이 높은 잠재력을 갖고 있는 중남미 현지 유망 청년인력들에게 장학금을 수여하거나 IDB 홍보(취업)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IDB에 진출시키는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 바. IDB를 통한 한국의 인식 및 이미지 제고방안

#### 1) 섹터별, 소지역별 대규모 국제행사 추진(중남미판 KOAFEC)

IDB 가입 이후 우리나라는 다양하고 적극적인 신탁기금 사업을 통해 중남미 경제사회 개발에 참여함으로써 현지에서 우리나라의 인지도를 제고하고 이미지를 개선해왔다.

그러나 개별 사업 및 하나의 국가단위를 통한 우리나라의 이 같은 활동은 중남미 현지에서 전반적인 우리나라의 인식과 이미지를 제고시키는 데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따라서 보다 지역적이며 포괄적인 대단위 협력사업 발굴 등을 통해 중남미지역 차원의 협력을 도모하고 인지도도 제고시키는 사업 발굴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러한 면에서 우리나라가 AfDB와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KOAFEC(한·아프리카 경제협력) 사업을 적극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한국의 국가경쟁력과 경제개발경험 등은 아시아와 아프리카 등에서는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데 반해, 중남미에서는 많은 국가의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다. 도미니카공화국 등 일부 국가가 한국의 경제개발경험에 대한 정책컨설팅을 받고 있고 EDCF 지원과 함께 한국의 통관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적극적인 관심을 보이곤 있지만, 멕시코, 브라질 등 맹주국가들의 관심은 낮은 편이다. 실제로 기획재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KSP) 중 중남미 국가를 대상으로 한 사업은 지금까지 1건에 불과하며 향후 계획에도 잡혀 있지 않다. 기획재정부는 2008년까지 총 13개국 83개 과제에 대한 컨설팅을 제공했다.

표 5-14.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KSP) 사업 추진 현황

(단위: 억 원)

구 분	2004	2005	2006	2007	2008
예산	10	10	8	15	25
신규국가	베트남, 우즈베크 (2개국)	인니, 터키 (2개국)	알제리, 캄보디아 (2개국)	쿠웨이트, 아제르, 가나 (3개국)	오만, 도미니카, 모잠비크, 우크라이나 (4개국)
후속국가	-	-	베트남, 인니 (2개국)	베트남, 우즈베크 (2개국)	베트남, 터키, 알제리, 아제르 (4개국)

자료: 기획재정부.

표 5-15.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KSP) 추진 현황 구체 개요

연도	대상국	컨설팅 과제
'04년	베트남	① 공기업 개혁의 진행과 과제 ② WTO 가입과제 ③ 인적자원 개발 ④ 거시경제 안정화 ⑤ FDI 등 외자조달방안 ⑥ 수출금융정책과 베트남 수은 설립방안
	우즈벡	① 산업개발과 수출진흥정책 ② 우즈벡 개발모델과 한국의 경험 ③ 산업화 과정의 거시금융정책 ④ 재정개혁 ⑤ 산업정책과 무역자유화정책의 조화전략
'05년	터키	① 민간부문 발전정책 ② 기술발전과 혁신시스템정책 ③ 행정개혁과제 ④ 산업화와 인적자원개발 정책 ⑤ 재정운용시스템 개혁
	인니	① 조기경보시스템 구축 지원 ② 수출기업 육성 및 외자유치 방안 ③ 채권시장 개발방안 연구 ④ 국세·관세·예산공무원 교육제도 개선 ⑤ 수출중소기업 지원방안
'06년	감보 디아	① 2007~11년 재정수지 예측 ② 정부채 발행을 통한 정부재정 적자 보전방안 ③ 생명보험업 도입에 따른 정책 및 구조
	알제리	① 신용카드시장 활성화 필요성 ② 신용카드 결제망 구축방안 ③ 개인신용평가시스템 구축방안 ④ 신용카드업 감독 및 규제방안 ⑤ 신용카드 거래 활성화 방안
	베트남 (후속)	① 베트남 수출신용기구 설립 및 운영 지원
	인니 (후속)	① 채권시장 발전 로드맵 작성
'07년	쿠웨 이트	① 쿠웨이트 5개년 개발계획을 위한 정책제언 ② 교육 업그레이드 ③ 전략적 대응을 위한 주요 요인 및 SWOT 분석 ④ 노동시장 개혁 ⑤ 쿠웨이트 재정 개혁
	아제르바 이잔	① WTO 가입협상의 서비스분야 주요 이슈 ② WTO 체제에서 개발도상국 지위 분석 ③ WTO 가입과 무역구제제도의 운영 ④ 수출진흥을 통한 산업다각화 방안
	가나	① 중소기업 발전을 위한 전략적 접근 ② 가나의 법·규제 환경 개선 ③ 중소기업의 자본과 기술 접근성 향상 ④ 인력개발 및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제도
	베트남 (후속)	① 베트남 수출신용기구 운영 지원 ② 신용보증기금 설립방안
	우즈벡 (후속)	① 한국 경제자유구역의 경험과 시사점 ② 우즈벡 경제여건과 경제발전 전망 ③ 우즈벡 경제자유구역 조성환경 ④ 우즈벡 경제자유구역 입지조건 및 평가 ⑤ 경제자유구역 조성의 경제적 효과 추정 ⑥ 우즈벡 경제자유구역 조성방안

표 5-15. 계속

연도	대상국	컨설팅 과제
'08년	도미니카	① 수출진흥정책과 추진체계 확립 ② 교육 및 직업훈련 발전방안 ③ 수출발전을 위한 무역산업구조 분석 ④ 수출금융 지원과 수출입은행 설립 지원
	오만	① 비석유분야 산업전략 지원정책 ② 지역·세계 가치사슬하 전략산업 발굴 ③ 민관협력을 통한 기술이전 및 정착화방안 ④ 비석유부문 중소기업 육성방안
	우크라이나	① 중장기 경제개발전략 검토 ② 수출진흥정책 ③ 사회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투자 활성화 ④ 에너지자원의 효율적 개발
	모잠비크	① 농지 이용 효율화방안 ② 농업기술 혁신 및 전파 ③ 농산물마케팅 개선 ④ 농업금융 활성화
	터키(후속)	① 개발전략 및 혁신체제 비교 ② 기술·기업가정신·인큐베이션 ③ 클러스터 및 산업고도화 정책모델 ④ 산업협력 및 지역발전
	아제르바이잔(후속)	① WTO 체제 수용과 이행을 위한 일반협상기술분야 이슈 ② WTO 농업분야 이슈 ③ WTO 수입 및 관세 분야 이슈 ④ WTO 수출진흥정책분야 이슈
	알제리(후속)	① 전자결제시스템 현황 분석 ② 전자결제시스템 활성화의 성공요건 ③ 전자결제시스템 활성화를 위한 제언
	베트남(후속)	① 수출신용기구 운영 지원 ② 수출보험제도 도입 지원 ③ 국내개발금융 운영 지원 ④ 신용보증제도 구축 지원

자료: 기획재정부.

따라서 아프리카 KOAFEC<sup>29)</sup>의 성공적인 모델을 벤치마킹하여, 우선적으로 IT, 인프라, 교육 등 중남미의 관심분야에 대한 소지역별 장관급 컨퍼런스를 개최하여 한국의 인지도를 제고시킬 필요가 있다. 또한 현재 각 부처 및 유관기관에서 산발적으로 실시해오고 있는 협력프로그램을 필요하다면 IDB와 연계한 행사로 단일화하여 협력의 시너지효과를 적극 도모할 필요가 있다.

29) KOAFEC(한·아프리카 경제협력)은 기획재정부, 수출입은행, AfDB 등 3개 기관이 공동으로 주관하고 있으며, 장관급 컨퍼런스(격년), 지역별 현지 워크숍(연 5회) 등을 신탁기금을 활용하여 개최하고 있다. 2008년 장관급 컨퍼런스에서 우리 정부는 모잠비크, 마다가스카르, 탄자니아, AfDB 등과 8억 달러에 해당하는 원조사업을 추진하기로 합의하였고, 방통위, 조달청 등도 MOU 체결을 통해 경제협력 확대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다. 또한 KOAFEC Action Plan을 매년 점검하여 후속 사업에 대한 논의도 이어가고 있다.



표 5-16. 한·중남미 협력프로그램 현황

	주요 내용
한·중남미 경제협력포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1차 경제협력포럼 개최(2008. 9)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최: 외교통상부</li> <li>• 콜롬비아 광물에너지장관, 에콰도르 전략분야조정관, 아르헨티나 광업장관, 파나마 통상산업부 대외차관, 페루 통상차관, 콜롬비아 석유청장, 카리브국가연합(ACS) 사무총장 참석</li> <li>• 2008 한·중남미 경제협력포럼 성명 채택 (포럼 정례화 합의)</li> </ul> </li> </ul>
한·중남미 비즈니스포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996년 1차 포럼을 시작으로 2008년까지 12차 포럼 개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동주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한·중남미협회, 무역협회</li> <li>• 2008년에는 한·중남미 경제협력포럼과 공동으로 “2008 한·중남미 경제협력 및 비즈니스 포럼” 개최</li> </ul> </li> </ul>
한·중남미 무역투자포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차 포럼 개최(2007. 9)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최: 재정경제부, 한국수출입은행,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li> <li>• 개최 목적: 한국기업의 중남미시장에 대한 상호 이해의 촉진과 관련 중남미기업과의 교류를 통한 양 지역 기업들의 파트너십 강화</li> <li>• 50만 달러 신탁기금 사용</li> </ul> </li> </ul>

## 2) 한국·IDB 논문공모대회 개최

중남미 미래의 주역이자 핵심인력으로 성장할 대학생 및 대학원생들의 한국과 IDB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고, 한국·IDB 또는 한국·중남미 간 협력사업 발굴을 위한 채널로 ‘한국·IDB 논문공모대회’ 개최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논문의 주제는 “동아시아·중남미 경제협력, 한·중남미 경제협력, 한국과 중남미 경제발전 경험 비교, 한국·IDB 협력” 등 포괄적인 주제를 망라한다. 논문공모대회 개최비용 및 상금은 한국이 IDB에 출연한 신탁기금에서 충당한다. 채택된 논

문을 대상으로 발표대회 성격인 ‘한국·IDB 논문 발표대회’를 개최하고 입상논문은 매년 책자로 발간한다. 입상자들에게 대해서는 포상금은 물론 한국 유학 특전 등을 제공, 중남미 학생들의 한국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을 유도한다. 또한 채택된 논문에서 제시된 각종 방안은 IDB측과 협의를 거쳐 프로젝트 채택 여부를 결정한다.

# 제6장

## 요약 및 결론



1959년 설립된 미주개발은행(IDB)은 세계 최고(最古), 최대(最大, 자본금 1,010억 달러, 아시아개발은행의 2배) 지역개발금융기구로 그간 중남미 경제사회 발전에 커다란 기여를 해왔다. 2000년대 들어 IDB는 중남미지역에 대한 연간 자금지원 규모 면에서도 세계은행을 제치고 최대 개발은행으로 확고한 위상을 차지하고 있다. 이에 힘입어 IDB는 다른 국제개발은행 및 국제금융기구와 비교해 중남미지역에서 인지도나 인식이 가장 높고 양호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우리나라는 중남미 경제에서 차지하는 IDB의 중요성을 일찍이 인식하고 역외국에 문호가 개방된 1979년부터 IDB 가입을 추진해온 결과, 2005년 3월 마침내 47번째 회원국으로 가입했다.

중남미지역에서 IDB의 높은 위상과 영향력에 비추어볼 때 우리나라의 IDB 가입은 다음 세 가지 측면에서 커다란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먼저 우리나라의 대중남미 경제협력 지평의 확대이다. IDB 가입을 통해 우리나라는 중장기적으로 중남미 경제·사회 개발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보하게 되었다. 또한 IDB 가입은 그간 쌍무관계에 머물렀던 우리나라와 중남미의 관계가 범지역차원으로 확대됨을 의미하기도 한다. 둘째, IDB 가입으로 대중남미 경제협력정책의 운영 폭이 확대되었다. IDB와의 연계를 통한 유무상자금 지원으로 지원효과의 극대화를 도모함은 물론 중남미 금융시장 진출의 교두보 확보 및 신속한 통상정보를 입수할 수 있는 채널로도 IDB를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마지막으로 IDB 가입은 새로운 경제기회의 확보를 의미한다. 우리 기업들은 그간 IDB 비회원국이기 때문에 참여가 불가능했던 연간 60억 달러에 달하는 IDB 조달시장은 물론 연간 1만 건이 넘는 IDB의 각종 발주프로젝트에도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다.

IDB 가입과 함께 우리나라는 빈곤감소기금(Korea Poverty Reduction Fund), 지식협력기금(Knowledge Partnership Korea Fund), 중소기업 육성기금(Korea-IIC SME Development Trust Fund) 등 총 3개의 신탁기금(1억 4,000만 달러 출연)을

출연했다. IDB 가입 3년이 지난 현재 우리나라는 약 80건의 신탁기금을 지원했는데, 이는 한국이 출연한 다른 MDB 신탁기금에 비하여 가장 활발한 것이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IDB 가입성과는 크게 세 가지로 정리된다. 먼저 한국 신탁기금을 통해 중남미 조달시장 참여가 확대되고 있다는 점이다. 둘째는 한국수출입은행과 IDB 간 양해각서 체결에 힘입어 협조용자 규모가 증가하고 있다. 셋째는 다양한 협력활동을 통해 중남미지역에서 한국의 위상이 크게 제고되고 있는 점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성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현재 △IDB 내 한국직원의 수 미미(3명) △출자규모에 비해 작은 지분 △중남미에 대한 관심 부족 등으로 IDB와의 협력 확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가 IDB 신탁기금을 활용하는데 제약요인은 다음과 같다. 먼저 경험부족, 언어장벽, 전문인력 부재 등에 따른 국제개발협력사업 시장에 대한 높은 진입장벽이다. 둘째, 개발분야에서의 축적된 경험이나 데이터, 콘텐츠의 부족이다. 셋째, IDB 컨설팅 사업에 대한 국내외 홍보 및 이해 부족을 들 수 있다. 넷째, 사업의 발굴, 준비 등 초기 사업개발 관련 시간 및 비용 부담으로 인한 시장진입 기피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다섯째, IDB 진출 한국인 부족으로 사업 발굴 및 조기사업 참여 미흡도 커다란 문제이다.

역외 회원국(비차입국) 중 일본과 스페인은 IDB 가입 이후 다양한 활동을 통해 IDB를 중남미지역과의 경제협력채널로 가장 적극적으로 활용해오고 있다. 일본은 IDB 설립 이후 다른 역외 회원국(비차입국)에 비해 뒤늦게 회원국이 되었지만 다양한 활동을 통해 중남미지역에서 유무형의 실익을 도모하고 있다. 먼저 일본은 자국의 컨설턴트 육성 채널로 IDB 신탁기금을 활용하고 있다. 둘째, 일본의 IDB 활동은 신탁기금 사업에 국한되지 않고 다양한 사업을 개발해 활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일본이 역외 회원국 중 유일하게 설립해 운영하고 있는 일본·IDB 장학 프로그램은 미래 중남미지역의 주역인 대학생들을 일본에 우호적인 인사로 육성하

는 데 커다란 기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셋째, 일본은 일본을 비롯한 아시아 국가들과 중남미 국가들 간의 경제사회발전 경험교류의 통로로 Japan Program 을 운영하고 있다.

스페인의 IDB를 통한 활동의 특징을 살펴보면 먼저 스페인은 IDB를 활용한 경제적 성과 달성에 연연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둘째, 스페인은 전반적으로 IDB 가입 이후 경제적 성과를 논하기보다는 중남미지역 개발에 대한 기여를 강조하면서 국제개발협력의 순수한 장으로 IDB의 활용가치를 어떻게 제고시킬 수 있을지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 셋째, 스페인은 IDB에 대한 지속적인 금융지원뿐만 아니라 특정 부문을 겨냥한 신탁기금 확대에도 기여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스페인은 IDB를 통한 금융지원을 확대하면서 60명에 달하는 자국 직원의 채용을 통해 IDB 의사결정과정에서도 영향력을 행사해오고 있다.

IDB를 활용한 중남미지역과의 민관차원의 종합적이며 구체적인 협력방안을 여가서는 중단기적인 과제로 나누어 제시하였다. 먼저 단기적인 IDB 활용과제는 △ IDB 진출 인프라 구축 △ 조달시장 참여 확대방안 △ 신탁기금 활용방안 △ 금융협력 확대방안으로 대별해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다음으로 중장기적인 IDB 활용 정책과제는 △한·중·일 공동신탁기금 운영방안 △ 신탁기금과 ODA 연계 사업 개발 방안 △ 건설·인프라업체의 진출 활성화 방안 △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을 통한 IDB와 민간기업의 협력 방안 △ 인적네트워크 구축 방안 △ 한국의 인식 및 이미지 제고방안 등으로 구분해 제시하였다.

IDB 활용의 단기적 방안으로는 먼저 △ IDB 업무주체 표시 명확화 △ IDB 포털사이트 구축 △ IDB 아카데미 운영 등 IDB 진출의 3대 인프라 구축과제를 제시했다. 둘째, IDB 조달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 MDB 조달시장 입찰대행 전문서비스 회사 설립 △ IDB 지원 F/S 프로젝트 참여 △ 현지기업과의 컨소시엄을 통한 진출방안 등의 모색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셋째,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가장 활발하

게 참여하고 있는 신탁기금사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IDB 신탁기금 사업 연차보고서 발간 △신탁기금사업의 홍보활동 강화 △컨설턴트 풀의 확대와 관리 강화 △소액의 기능성 펀드 운영 △IDB 신탁기금과 지식공유사업 등 국내 기술원조와 협력 확대 등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넷째, IDB가 제공하는 각종 금융서비스를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협조용자 확대 △IDB 및 IIC 용자 활용 △적극적 홍보를 통한 무역금융지원프로그램(TFFP)의 활용으로 구분해 제시하였다.

IDB를 활용한 중장기적 정책과제로는 먼저 한·중·일 공동 신탁기금 운영방안을 제시하였다. 2008년 10월 중국의 IDB 가입을 기회로 한·중·일 3국이 공동으로 신탁기금을 출연해 아시아의 개발경험을 중남미지역과 상호 교환할 수 있는 가칭 ‘Asia Program’을 선제적으로 제안해 운영할 필요가 있음을 제시하였다.

둘째, IDB 신탁기금과 ODA(공적개발원조)를 결합한 사업을 개발하여 개발협력의 시너지효과를 도모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의 일환으로 현재 2개의 개별 사업으로 추진해오고 있는 국제IT협력센터사업과 정보접근센터사업을 서로의 장점을 살려 하나의 사업으로 단일화하고, 국별 단위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을 중남미지역 및 소지역 차원의 사업으로 확대시킬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다. 더 나아가 신탁기금사업으로 ‘한·중남미 IT 장관회담’을 개최, ‘한·중남미 IT 협력 실천계획’을 마련하고 이 계획에 근거해 국제IT협력센터사업과 정보접근센터사업을 포괄한 지역차원의 가칭 ‘한·중남미 IT 협력 및 정보접근센터’ 사업을 전개해나갈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다.

셋째, 우리 건설플랜트업체들의 IDB 프로젝트 진출 확대방안을 적극 모색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프로젝트 수행 초기자금 지원 △프로젝트 정보제공창구의 일원화 및 활성화 △프로젝트 검색대행서비스 제공 △국제개발은행들과 활발한 세미나 개최 등의 방안을 제안했다.

넷째, 현재 진출기업 단독으로 추진하고 있는 각종 CSR 활동을 IDB와 공동으

로 추진함으로써 시너지효과를 도모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다섯째, IDB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효율적인 전략 중 하나로 IDB 인적자원과 튼튼한 네트워크 구축방안을 제안했다. 먼저 IDB 본부 및 국별 사무소 방문 세미나 개최, IDB 직원 초청 활성화 등 다양한 접촉을 통해 IDB 인사들과 친교를 쌓고 우리나라의 존재감을 인식시키는 방안과, 두 번째는 보다 적극적인 방법으로 한국·IDB 장학금 프로그램 운영, 중남미 유망 교포 청년인력 육성 프로그램 등을 통해 한국에 우호적 인사를 육성하거나 IDB 내에 직접 한국 출신의 전문가를 취업시키는 방안을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IDB를 활용해 우리나라의 인식 및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다. 보다 구체적인 방안으로 섹터별, 소지역별 대규모 국제행사 개최와 중남미 미래의 주역이자 핵심인력으로 성장할 대학생 및 대학원생들의 한국과 IDB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고, 한국·IDB 또는 한국·중남미 간 협력사업 발굴을 위한 채널로 ‘한국·IDB 논문공모대회’ 개최를 제안했다.



## 참고문헌

### [국문 자료]

- 곽재성. 2008. 「IDB를 통한 중남미 진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대외경제전문가포럼 발표자료.
- 권을 외. 2007. 「국제개발은행 신탁기금 장기 운영전략」. 기획재정부 용역보고서.
- 김영기. 2008. 「한국 IDB가입 3년간 사업 및 전망(사례포함)」. 기회의 대륙 중남미: 한국 IDB 가입 3주년 세미나 자료집.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한국무역협회 · 한중남미협회 · IDB.
- 김원호 · 권기수. 2005. 「우리나라의 미주개발은행(IDB) 가입과 경제협력정책상의 의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0. 「미주개발은행(IDB) 가입 및 활용의 중요성」.
- \_\_\_\_\_. 2002. 「중남미 경제사회인프라 개발을 위한 국제금융기구의 역할」.
- \_\_\_\_\_. 2007. 「해외진출기업 애로사항 조사」.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한국무역협회 · 한중남미협회 · IDB. 2008. 「기회의 대륙 중남미: 한국 IDB 가입 3주년 세미나」. 세미나자료집.
- 윤민호. 2008a. 「IDB를 통한 한국기업의 중남미 진출 방안 - IIC(미주투자공사)의 역할과 활용」. 2008년 중남미시장 진출과 사업활성화를 위한 세미나 자료집. 신한은행.
- \_\_\_\_\_. 2008b. 「한국 및 일본의 IDB 역할 증대 방안」. 기회의 대륙 중남미: 한국 IDB 가입 3주년 세미나 자료집.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한국무역협회 · 한중남미협회 · IDB.
- 한국수출입은행. 2005. 「미주개발은행(IDB) 지원 사업 조달절차와 우리기업의 참여 방안」.
- KOTRA. 2005. 「미주개발은행(IDB) 시장 진출 가이드」.

### [영문 자료]

- ADB. “Annual Report,” 각년호
- AfDB. “Annual Report,” 각년호
- Bank of Japan. 1985. “Economic Statistics Annual.”
- Bassi, Marina. 2007. “What Do Latin Americans Think of the IDB?” IDB.
- Burki, Shahid Javed and Guillermo E. Perry. 1997. “The Long March: a Reform Agenda for Latin America and the Caribbean in the Next Decade.” World Bank.
- ECLAC. 2005. *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A Latin American and Caribbean perspective*, Chapter VII.

- \_\_\_\_\_. 2007. “Panorama Social de América Latina 2007.”
- IDB. “Annual Report,” 각년호
- \_\_\_\_\_. “Annual Report 2001-2007.”
- \_\_\_\_\_. “Sustainability Review,” 각년호.
- \_\_\_\_\_. “Technical Cooperation Project Brief.”
- \_\_\_\_\_. “Trade and poverty trust fund TC Project completion note.”
- \_\_\_\_\_. *The Inter-American development bank and trade-related capacity-building in Latin America and the Caribbean.*
- \_\_\_\_\_. “The Inter-American Development Bank(IDB) & Trade Capacity Building Assistance.” Issue brief.
- \_\_\_\_\_. 2004a. *Private Infrastructure - 1990-2003.*
- \_\_\_\_\_. 2004b. *Trust Fund at the Inter-American Development Bank: Enhancing Development Assistance to Latin America and the Caribbean, 1992-2003.*
- \_\_\_\_\_. 2006. *Aid for trade in Latin America and the Caribbean: The Inter-American development bank's experience.* Washington, D.C.
- \_\_\_\_\_. 2007a. *Mobilizing Aid for Trade in Latin America and the Caribbean.*
- \_\_\_\_\_. 2007b. “The Japanese Trust Funds at the Inter-American Development Bank.” Annual Report 2007.
- IDB/IRELA. 1998. *Foreign Direct Investment in Latin America: Perspectives of the Major Investors.*
- IMF. 2008. DOTS(Direction of Trade Statistics). (August)
- Machinea, José Luis, Alicia Bárcena, y Arturo León. 2005. “Objetivos de Desarrollo del Milenio: una mirada desde América Latina y el Caribe.” ECLAC.
- Machinea, José Luis and y Narcís Serra Editores. 2007. “Visiones del desarrollo en América Latina.”
- Madrid, Matilde. 2008. *SPAIN & THE FDI:From net borrower to net creditor.*
- OECD. 2007a. *AID FOR TRADE AT A GLANCE 2007: 1st Global Review.*
- \_\_\_\_\_. 2007b. *Trade Factsheet, Latin America and the Caribbean region.*
- \_\_\_\_\_. 2007c. *Aid for Trade Factsheet, Latin America and the Caribbean region.*
- \_\_\_\_\_. 2007d. *Spain: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DAC) Peer Review.*
- Powell, Andrew Philip and Matteo Bobba. 2006. “Multilateral Intermediation of Foreign Aid:

What is the Trade-Off for Donor Countries?" IDB.

World Bank. "Annual Report," 각년호.

[http://www.wto.org/english/tratop\\_e/devel\\_e/a4t\\_e/aid4trade\\_e.htm](http://www.wto.org/english/tratop_e/devel_e/a4t_e/aid4trade_e.htm)

<http://tcdb.wto.org/statanalysis.aspx>

[http://www.iadb.org/intal/detalle\\_articulo.asp?idioma=eng&aid=490&cid=206&nivel](http://www.iadb.org/intal/detalle_articulo.asp?idioma=eng&aid=490&cid=206&nivel)

<http://www.iadb.org/index.cfm>



## Executive Summary

### Korea's Economic Cooperation Strategies toward Latin America: A Perspective from Its IDB Membership

Kisu Kwon, Won-Ho Kim, Yul Kwon, Jin-O Kim, and Swan Park

The Inter-American Development Bank (IDB) was established in 1959 as the world's first and largest (101 billion-dollar-fund, which is two times bigger than ADB's) regional development financial institution which until today has contributed immensely in the economic and social development of Latin America. In the 2000's IDB's annual funding for the Latin American region surpassed that of the World Bank's and has established a solid presence. Accordingly, IDB's recognition and presence in the region is far greater than any other development banks and international financial institutions around the world.

Korea realized the importance of the IDB's role in the Latin American economy and has made efforts to join the bank since 1979 when it began to accept non-borrowing countries as members of the organization. As a result, Korea became the 47th member of the IDB in March 2005.

Korea's entry to the IDB, which is highly recognized and influential in the Latin American region, is meaningful in three main aspects. First, as member of the IDB, Korea seeks to expand its economic cooperation with Latin America.

Through the IDB, Korea has achieved the opportunity to participate in medium-to long-term projects related to social and economic development of Latin America. In addition, bilateral relations between the two are expected to expand even further. Second, economic cooperation policies have increased through the admittance to the IDB. As a donor country at the IDB, Korea will be able to assist Latin America through various tied and untied development assistance projects. Also, IDB will facilitate Korea in acquiring the necessary trade related information regarding Latin America. Finally, IDB will provide new economic opportunities for Korea. As a member country, Korea will be able to participate in IDB's six billion dollars' worth of procurement market and more than 100,000 IDB projects.

As new member of the IDB, Korea has established three trust funds including Korea Poverty Reduction Fund, Knowledge Partnership Korea Fund, and Korea-IIC SME Development Trust Fund. The total sum of these three trust funds is worth \$140 million. IDB's trust funds contributed by Korea are one of the most active ones amongst MDB funds. Since joining the IDB, Korea has supported approximately 80 trust funds.

Korea's main achievements after joining the IDB can be divided into three parts. First, Korea has been able to expand its participation in the IDB procurement markets through the trust funds. Second, the memorandum of understanding(MOU) between the IDB and the Export-Import Bank of Korea has increased in Co-financing. Third, Korea's visibility in Latin America has strengthened through various cooperative activities.

Despite these achievements however, Korea's presence within the IDB is still weak (there are only three Korean employees in the IDB). Korea holds a fairly small stake despite its large contribution. Korea is also experiencing difficulty in

expanding its cooperation activities due to its national low interest. Korea faces specific barriers in utilizing the trust funds. First, Korea's participation in international development projects is facing difficulties due to its inexperience, language barrier, and absence of experts in this area. Second, there is no significant experience, data, or contents regarding this sector. Third, there is insufficient information or understanding of IDB projects in and out of Korea. Fourth, the time consumption required in developing IDB projects is overwhelming to the inexperienced Koreans who are already facing many barriers. Fifth and last, unlike other member countries, there are no precedents to follow in developing these projects.

Other non-borrowing countries like Japan and Spain have actively utilized the IDB as a stepping stone to economic cooperation with Latin America. Japan in specific, is the only non-borrowing country that has established a Japan-IDB scholarship program to raise undergraduate and graduate students as future protagonists in Latin America. Japan also operates Japan Program which assists Asia and Latin America exchange its economic and social development experiences.

As for Spain, it is not solely focused on achieving economic outcomes through the IDB. Instead of achieving economic goals, Spain is more concerned in the development of the Latin American region and insists on untied contributions. Spain also recognizes the importance of continuous financial support and expanding specific trust funds for Latin America. Finally, Spain expects to expand its financial support through the IDB and at the same time increase its presence in the IDB's decision-making processes through its 60 employees within the organization.

For further cooperation with Latin America, there are short-term and mid-term challenges. First, short-term challenges in utilizing the IDB include a) institution building for participation in IDB projects, b) increase of participation in procurement market, c) practical use of trust funds, and d) increase of financial cooperation. Next, mid- and long-term challenges in using the IDB include, a) establishment of common trust funds amongst Korea, Japan, and China, b) developing business connections between trust funds and ODA, c) revitalizing the market entry of construction and infrastructure industries, d) cooperation between the IDB and private enterprises through CSR, e) establishing human network, and f) increasing public awareness of Korea.

On the other hand, short-term plans include, first, a) clear indication of the IDB tasks, b) development of the IDB portal, c) and operation of the IDB academy, three major plans to solve the lack of infrastructure in participating in the IDB projects. Second, to increase participation in the procurement market a) establishment of a service agency that implements MDB procurement market biddings, and b) active cooperation with local firms through consortia should be emphasized. Third, to make a good use and revitalization of trust funds that Korea has been participating a) publication of the IDB trust fund annual report, b) intensification of public relations activities, c) management of the increased consultant-pool, d) operation of small-sum functional funds, and e) links between the IDB trust funds and the knowledge sharing program (KSP) are required to cooperate and be assisted by domestic technology. Fourth, to make a best use of various financial services provided by IDB a) increase of Co-financing, b) use of IDB and IIC financing, and c) utilization of TFFP (Trade Finance Facilitation Program) with active public relations activities are suggested.

For the mid- and long-term plans, establishment of the common trust fund among Korea, Japan, and China is suggested. With China's entry to the IDB in October 2008, these three countries have been called to establish a common trust fund for the purpose to exchange experiences of development in Asia with that in Latin America, tentatively named 'Asia Program'.

Second, Korea needs to develop a project combined with the IDB trust fund and ODA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in order to increase the effectiveness of development cooperation. As one of these methods, the International IT Cooperation Center Project and Information Access Center Projects which are currently operated individually, must be combined together while projects carried out individually by each country must be operated at the regional level. Furthermore, as a trust fund project, 'Korea-Latin America IT Minister's Meeting' must be held and establish a 'Korea-Latin America IT Cooperation Plan.' Through this specific plan, the 'Korea-Latin America IT Cooperation and Information Access Center' project must be carried out in order to expand our cooperation in the IT sector.

Third, Korean construction and plant industries need to find ways to enter the Latin American market through IDB projects. In specific, they will initiate their entry by initially funding projects, activate and unify the project information windows, provide project search services, and finally host seminars with international development banks.

Fourth, co-promoting different types of CSR activities, which is currently led solely by Korean overseas companies in Latin America, with the IDB will increase synergy.

Fifth, in order to utilize the IDB more effectively, the establishment of a solid network and human resources pool is necessary. First, hosting seminars at the IDB



headquarters and country offices and inviting IDB staff members will assist Korea's networking as well as increasing its presence within the organization. Korea's presence will also increase through programs like Korea-IDB scholarship projects focused on raising students residing in Latin America as protagonists of the region. They will join the IDB as Korean nationals but as prepared and well-rounded experts of the region.

Finally, through the IDB, Korea must propose various methods to increase its presence within the IDB. As a specific plan, Korea must host many international conferences by sector and subregion as well as the "Korea-IDB Essay Contest."

■ 2008년

- 08-01 서비스자유화 협상의 Mode 4 관련 대응방안 연구:  
독립전문가를 중심으로 / 김준동 외
- 08-02 APEC 경제협력 주요과제와 우리의 활용방안 /  
김상겸 · 유재원 · 한홍렬 · 김수이 · 이상현
- 08-03 한·중 FTA 대비 중국의 FTA 서비스협정 분석과 정책제언 /  
이장규 · 이준규 · 이승신 · 여지나 · 배승빈
- 08-04 한·중·일 3국의 FTA 비교분석과 동북아 역내국간  
FTA 추진방안 / 최낙균 · 정형곤 · 김한성
- 08-05 WTO체제의 개혁방향과 한국의 대응 /  
서진교 · Sherzod Shadikhodjaev · 이경희 · 박지현 · 윤창인
- 08-06 지식기반서비스의 개방과 외국인투자를 통한 발전방안:  
대학교육서비스를 중심으로 / 송영관 · 송백훈 · 강준구
- 08-07 한국의 교역구조와 경상수지 변동요인 분석 /  
정철 · 김정렬 · 김혁황 · 성한경
- 08-08 사회안전망 측면에서의 무역조정지원제도 발전방안 /  
임혜준 · 김정곤 · 박혜리 · 이홍식
- 08-09 한국 FTA 원산지규정의 특성 및 활용전략 /  
김한성 · 조미진 · 정재완 · 김민성
- 08-10 국경간 M&A를 통한 한국기업의 해외진출전략 연구 /  
현혜정 · 김혁황 · 박철형 · 성한경
- 08-11 국제자본이동 패턴의 변화와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 보전 /  
조종화 · 강삼모 · 이인구
- 08-12 원화국제화에 대한 연구 II /  
오용협 · 백승관 · 김연실

- 08-13 중국 소비시장의 특징과 진출전략 /  
지만수 · 박윌라 · 이승신 · 박현정 · 최의현
- 08-14 일본의 기체결 EPA의 분석과 한·일 FTA에의 정책 시사점 /  
김양희 · 정성춘 · 이형근 · 김은지
- 08-15 한국기업의 대러시아 현지경영 현황과 과제 /  
이재영 · 이순철 · 황지영 · 이종문
- 08-16 미국 서비스산업의 성장요인 분석과 한국에 주는 시사점 /  
이준규 · 김종혁 · 고희채
- 08-17 미주개발은행(IDB)을 활용한 대중남미 경제협력 확대방안 /  
권기수 · 김원호 · 권 율 · 김진오 · 박수완
- 08-18 우리나라 대외원조 역량의 현황과 과제 /  
박복영 · 이계우 · 이순철 · 정지선 · 박수경
- 08-19 아프리카 개발협력의 체계적 추진방안 /  
박영호 · 박복영 · 권 율 · 허윤선 · 강선주
- 08-20 체제전환국의 시장경제교육 경험이 북한에 주는 시사점 /  
조명철 · 홍익표 · 김지연

■ 2007년

- 07-01 한국의 주요국별·지역별 중장기 통상전략 총괄보고서 /  
김홍종 · 권 율 · 박복영 · 정성춘 · 이성봉 외
- 07-02 한·미 FTA 협상의 분야별 평가와 정책과제 /  
최낙균 · 이홍식 외
- 07-03 DDA 협상의 전개과정과 다자통상체계에 대한 시사점 /  
서진교 외
- 07-04 글로벌 아웃소싱 확대에 따른 한국의 과제와 대응 /  
현혜정 · 김혁황 · 김민성 · 박철형
- 07-05 원화국제화 추진에 따른 장단점 비교와 정책적 시사점 /  
송원호 외
- 07-06 한·미 FTA 이후 한국의 대미 통상정책 방향과 과제 /  
채 욱 외
- 07-07 동북아시아통합에 대한 정치경제학적 접근:  
통합모델의 모색과 한국의 전략 / 안형도 · 박제훈

- 07-08 한·중 교역 특성과 한·중 FTA에 대한 시사점 / 양평섭 · 이장규 · 박현정 · 여지나 · 배승빈 · 조현준
- 07-09 한·중 금융·물류 허브 경쟁과 한국의 선택: 빈하이 신규 확대 개발에 따른 인천경제자유구역에 대한 시사점을 중심으로 / 정형곤 · 오용협 · 원동욱 · 나승권
- 07-10 한·일 기업의 동아시아 생산네트워크 비교 연구: 자동차산업을 중심으로 / 정성춘 · 이형근
- 07-11 인도 산업발전 전망과 한·인도 산업협력 확대방안 / 이순철 · 최윤정 · 정재완 · Prabir De
- 07-12 러시아의 WTO 가입과 한국의 무역투자 증진방안 / 이재영 · 채 욱 · 한홍렬 · 신현준
- 07-13 한국 경제발전경험의 대(대)개도국 적용 가능성 / 박복영 · 채 욱 · 이제민 · 이 근 · 이상철

## 권기수(權奇洙)

한국의국어대학교 경제학 박사  
브라질리아 연방대학교(UnB) 초청연구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세계지역연구센터 미주팀 전문연구원  
(現, E-mail: kskwon@kiep.go.kr)

### 저서 및 논문

『브라질의 부상과 과학기술정책적 대응방안』 (2006)  
『한국의 주요국별·지역별 중장기 통상전략: 중남미』 (공저, 2007) 외

## 김원호(金元鎬)

미국 University of Texas at Austin 국제지역학 박사  
전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한국의국어대학교 국제지역대학원 교수(現, E-mail: whkim@hufs.ac.kr)

### 저서 및 논문

『남미공동시장(MERCOSUR)의 FTA 협상사례와 시사점』 (공저, 2006)  
『한국의 주요국별·지역별 중장기 통상전략: 중남미』 (공저, 2007) 외

## 권 울(權 栗)

서강대학교 경제학 박사  
하와이 East West Center(EWC) 방문학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국제개발협력센터 ODA팀장(現, E-mail: ykwon@kiep.go.kr)

### 저서 및 논문

『우리나라 대외원조정책의 선진화 방안』 (공저, 2006)  
『국제개발은행 신탁기금 장기 운영전략 연구』 (공저, 2007) 외

## 김진오(金眞梧)

부산외국어대학교 스페인어과 졸업  
한국의국어대학교 국제관계학과 박사과정 수료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세계지역연구센터 미주팀 전문연구원  
(現, E-mail: jokim@kiep.go.kr)

### 저서 및 논문

『한국의 주요국별·지역별 중장기 통상전략: 중남미』 (공저, 2007)  
『KIEP-KOTRA 유망국가 산업연구: 칠레의 주요산업』 (공저, 2008) 외

## **박수완(朴수완)**

미국 Smith College 정치학과 졸업

이탈리아 Universita Cattolica del Sarco Coure 대학원 졸업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세계지역연구센터 미주팀 연구원

(現, E-mail: spark@kiep.go.kr)

### **저서 및 논문**

『남미공동시장(MERCOSUR)의 FTA 협상사례와 시사점』 (공저, 2006)

『한국의 주요국별·지역별 중장기 통상전략: 중남미』 (공저, 2007) 외

연구보고서 08-17

---

**미주개발은행(IDB)을 활용한대중남미 경제협력 확대방안**

---

2008년 12월 26일 인쇄

2008년 12월 30일 발행

---

발행인    **蔡 旭**

---

발행처    **대외經濟政策研究院**  
137-747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대로 108  
전화: 3460-1178, 1179 FAX: 3460-1144

---

인    쇄    (주)예원기획    전화: 745-8090

---

등    록    1990년 11월 7일 제16-375호

---

ISBN 978-89-211-1295-1 94320  
978-89-322-1072-8(세트)

정가 10,000원

# KIEP 발간자료회원제 안내

■ 본 연구원에서는 본원의 연구성과에 관심 있는 專門家, 企業 및 一般에 보다 개방적이고 효율적으로 연구 내용을 전달하기 위하여 「발간자료회원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발간자료회원으로 가입하시면 본 연구원에서 발간하는 모든 보고서 및 세미나자료 등을 대폭 할인된 가격으로 신속하게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 ■ 회원 종류 및 연회비

회원종류	배포자료	연간회비		
		기관회원	개인회원	연구자회원*
S	외부배포 발간물 일체	30만원	20만원	10만원
A	(반년간)대외경제연구	1만 5천원		1만 2천원

\* 연구자 회원: 교수, 연구원, 학생, 전문가들 회원

## ■ 가입방법

우편 또는 FAX 이용하여 가입신청서 송부(수시접수)

137-747 서초구 영곡동 양재대로 108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지식정보실 출판팀

연회비 납부 문의전화: 02)3460-1179 FAX: 02)3460-1144

E-mail: sklee@kiep.go.kr

## ■ 회원특전 및 유효기간

- S기관회원의 특전: 본 연구원 해외사무소(美 KEI)발간자료 등 제공
- 자료가 출판되는 즉시 우편으로 회원에게 보급됩니다.
- 모든 회원은 회원가입기간 동안 가격인상에 관계없이 신청하신 종류의 자료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본 연구원이 주최하는 국제세미나 및 정책토론회에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 연회원기간은 加入月로부터 다음해 加入月까지입니다.



# KIEP 발간자료회원제 가입신청서

기관명 (성명)	(한글)	(한문)
	(영문: 약호 포함)	
대표자		
발간물 수령주소	우편번호	
담당자 연락처	전화: FAX:	E-mail:
회원소개 (간략히)		
사업자 등록번호	종목	

회원분류(해당난에 √ 표시를 하여 주십시오)

기관회원 <input type="checkbox"/>	S 발간물일체	A 반년간지
개인회원 <input type="checkbox"/>		
연구자회원 <input type="checkbox"/>		

\*회원번호

\*갱신통보사항

(\*는 기재하지 마십시오)

특기사항

## Korea's Economic Cooperation Strategies toward Latin America: A Perspective from Its IDB Membership

Kisu Kwon, Won-Ho Kim, Yul Kwon, Jin-O Kim, and Swan Park

1959년 설립된 미주개발은행(IDB)은 세계 최고(最古), 최대(最大) 지역개발금융기구로 그간 중남미 경제사회발전에 커다란 기여를 해왔다. 우리나라는 중남미 경제에서 차지하는 IDB의 중요성을 일찍이 인식하고 역외국에 문호가 개방된 1979년부터 IDB 가입을 추진해온 결과, 2005년 3월 마침내 47번째 회원국으로 가입했다. 본 보고서에서는 우리나라의 IDB 가입 이후 활동성적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IDB를 활용해 중남미와 경제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도로 제시하였다.

**KIEP**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37-747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대로 108  
137-602 서울 서초우체국 사서함 235호  
대표전화 02-3460-1001, 1114  
Fax 02-3460-1122, 1199  
<http://www.kiep.go.kr>



9 788932 21295 1  
ISBN 978-89-322-1295-1  
978-89-322-1072-8(세트)

정가 10,000원